차 례

동 화

우 화

동화
희망의 렬차

동 화

귀 남 이

황 령 아

1

이제부터 하려는 이야기는 엄마가 귀남이의 귀를 걱정한데서부터 생긴 이야기입니다.

귀남이가 누군지는 여러분들도 알거예요.

앞으로 으뜸가는 축구선수가 되겠다고 학교에 갈 때도 집으로 올 때도 공을 차듯 발길질하며 다니는 그 귀남이 말이예요.

소학교 2학년생이구 달리기도 잘하구 공부도 잘하구…

예? 이젠 알겠다구요.

그럼 됐습니다. 귀남이의 귀때문에 생긴 이야기를 해드리지요.

그렇다고 귀남이의 귀가 별나게 생긴것은 아니랍니다.

귀남이의 귀로 말하면 조금도 이상한데가 없이 멋지게 생겼답니다. 큼직한데다가 귀방울도 축 늘어지고요.

할머니들은 귀남이의 귀를 두고 복귀라고까지 말했답니다.

그런데 글쎄 어느날 저녁 엄마는 문득 귀남이의 귀가 이상해졌다는것을 느끼게 되였답니다.

한두번 불러서는 아무 대답도 없고 세번네번 그것도 크게 고함치듯 불러야 대답을 하니 정말 이상하지 않고 뭡니까.

와락 걱정이 생긴 엄마는 직장에서 돌아오신 아빠에게 큰일이 난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남이 아버지, 귀남이의 귀가 정말 이상해요. 손발을 씻고 세면하라는 말을 몇번씩이나 했는데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텔레비만 보지 않겠어요? 혹시 그애의 귀가 잘못된게 아닐가요?》

《그럼 얼른 병원에 가봐야지. 그렇게 걱정만 하고있으면 어떻게 하우?》

아빠는 엄마를 나무랐습니다.

그런데 웃방에 앉아있던 귀남이는 그 말을 듣고 재미있어 키득키득 웃었습니다.

《내 귀가 잘못됐다구?》

사실 그의 귀는 멀쩡했답니다.

옛말에 나오는 마술쟁이의 귀처럼 몇십리밖에서 나는 소리는 못들어도 집안에서 나는 소리는 아주 잘 들었습니다. 창문밖에서 재잘대는 새소리까지도 똑똑히 들을수 있었습니다.

그럼 왜 엄마가 부를 때 대답을 안했을가요?

여러분들에게만은 그 리유를 알려드리지요. 그것은 대답하기 싫었기때문이였습니다.

글쎄 텔레비에서 축구경기랑 재미나는 아동영화를 내보내고있는데 어떻게 대답한단 말입니까? 그 사이에 멋있는 꼴이 나거나 아동영화에서 나쁜 놈의 목이 뎅겅 날아날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엄마는 이런줄 모르거든요. 나쁜 놈의 목이 날아나는것보다 손발을 씻거나 옷을 걸어놓는것을 더 중요한 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귀남이는 《에이, 차라리 귀머거리가 됐으면 좋겠어.》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처음 부를 때 못들은척 하고 두번째 부를 때도 못들은척 하게 된거랍니다. 그러면서도 걱정을 했습니다. 엄마가 성을 내며 욕을 할가봐 말이예요.

그런데 엄마는 성내고 욕할 대신 걱정을 하는것이였습니다. 막 재미있었습니다.

아래방에서 주고받는 아빠, 엄마의 이야기는 계속되고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귀남일 의사에게 보여야 하지 않겠어요?》
《보여야지.》
《언제 갈가요?》
《래일 가야지. 나도 함께 가보겠소.》
아빠는 웃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귀남이는 얼른 공부하는척 하고 책상우에 고개를 틀어박고있었습니다.
아빠는 귀남이의 곁으로 오더니 그의 귀를 이리 들여다보고 저리 들여다보았습니다.
탁상등을 쳐들고 그 불빛에 비쳐보기까지 했습니다.
아무리 봐야 귀구멍은 곱다랗게 퐁 뚫려있었고 귀바퀴와 귀방울도 귀엽게 생긴 그대로였습니다.
아빠는 한참 들여다보고나서는 머리를 흔들고말았습니다.
《곁으로 봐선 모르겠군.》
이튿날이였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귀남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의사선생님이 이마에 번쩍번쩍 빛나는 둥근 거울을 붙이고 귀남이의 귀를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귀안은 정상인데. 이상하군요. 잘 듣지 못한다구요?》
《예. 점점 더 못들어요.》
의사선생님은 고개를 기웃거리며 귀남이의 귀뿐만아니라 눈이랑 입이랑 손발까지 죄다 만져보는것이였습니다.
《얘야, 그래 언제부터 말하는 소리가 잘 안들리더냐?》
《…》
귀남이는 뭐라고 대답해야 좋을지 생각나지 않아 의사선생님을 말똥말똥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자칫 잘못 대답하다간 거짓말하는게 들켜날것 같아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보세요. 선생님이 묻는 말도 못듣지 않습니까?》
의사선생님은 머리를 끄덕거렸습니다.

그리고는 무슨 약인지 세가지나 주었습니다.
알약도 있고 가루약도 있고 물약도 있었습니다.
귀남이는 걱정이 잔뜩 생겨서 그 약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약들을 다 먹을 생각을 하니 끔찍했습니다. 귀남이는 원래 약이라는건 질색이였으니까요!
다행스럽게도 귀남이는 집으로 혼자 돌아가게 되였습니다. 엄마, 아빠는 직장으로 일하러 가야 했으니까요.
귀남이에게 집에 들어가면 약부터 꼭 먹으라고 신신당부한것은 물론이였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는 귀남이가 잘 듣지 못할가봐 너무 큰 소리로 말하는 바람에 길가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볼 정도였습니다. 귀남이가 무얼 잘못해서 욕을 먹는줄 알고 말이예요.
그러나 사연을 알게 되자 사람들은 귀남이를 동정했습니다.
《저렇게 귀엽게 생긴 애가 듣지 못하다니?》
《불쌍하구만!》
그러나 귀남이는 재미있기만 했습니다.
불쌍하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아빠도 엄마도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을테니 좋기만 했습니다.
암만 불러도 못들은척 하고 텔레비를 볼수 있고 축구도 할수 있었으니까요.
약을 꼭 먹으라는 아빠, 엄마의 당부를 듣고 귀남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좋구나!》
그는 옷을 되는대로 벗어던지고 껑충껑충 뛰여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공을 안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모두 학교에 공부하러 간 시간이여서 같이 놀 아이가 없었습니다. 혼자서 놀수밖에 없었습니다.
담장에 대고 공을 차며 놀았습니다. 그러던 귀남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이야 운동장에 가서 차야지!》하는 소리가 들렸기때문이였습니다. 황급히 도망치려는데 다른 목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둬두라구요. 저앤 요즘 귀를 못듣게 돼서 저래요.》
《아, 저애가 귀남이로군. 벌써 저렇게 귀가 나빠지면 어찌겠소? 저러단 앞으로 아예 귀머거리가 될텐데.》
귀남이는 집으로 들어오며 벌쭉벌쭉 웃었습니다.
귀머거리가 된다니 무슨 엉터리없는 소리입니까? 잘만 들리는데요. 그저 못들은척 할뿐이지요. 그러면서도 슬며시 걱정도 생겼습니다. 정말 귀머거리가 되여버릴것 같아서 말입니다.
《야, 아—》하고 소리내여보았습니다. 아주 잘 들렸습니다.
《이렇게 잘 들리는데 왜 귀머거리가 된다는거야.》
귀남이는 다시 벌쭉 웃고말았습니다.

2

방으로 들어오니 책상우에 놓여있는 약봉투가 눈에 띄였습니다. 아빠, 엄마는 저녁에 돌아오면 틀림없이 약을 먹었는가를 알아볼것이였습니다.
큰 골치거리였습니다.
아픈데는 없는데 약을 어떻게 먹겠어요. 아플 때도 약이라면 십리밖으로 도망치던 귀남이가 말입니다.
어데다 감춰놓고 먹었다고 할수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들키고말테니 말입니다.
귀남이는 문득 책상옆에 놓인 고무나무화분에서 눈길이 멎었습니다.
고무나무의 줄기는 팔뚝만 하고 잎은 손바닥만큼씩 했습니다.
화분옆에는 물을 담은 고뿌가 놓여있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귀남이를 병원으로 데리고가느라고 물주는것도 잊고있었던것입니다.
물고뿌를 들던 귀남이는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옳지, 네가 이 약들을 나대신 좀 먹어주려무나. 어때? 이건 좋

은 약이란 말이야.》

귀남이는 이렇게 말하며 고무나무가 어디 병든데가 없나 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아프지도 않은데 약을 주면 고무나무도 별로 좋아하지 않을테니까요.

그런데 고무나무는 잎도 푸르싱싱하고 줄기도 튼튼했습니다. 아픈데는 조금도 있는것 같지 않았습니다.

다만 줄기 맨밑에 옹이같이 생긴 둥그런 허물이 있을뿐이였습니다.

그것은 옆으로 뻗어나오는 아지를 잘라버린 자리였습니다. 그러니 어쨌든 상처자리였습니다.

귀남이는 가루약이니, 물약이니, 알약이니 하는것들을 고무나무에 몽땅 쏟아주고말았습니다. 저녁에 먹을 약까지 죄다 말이예요. 정말 감쪽같이 되였습니다.

고무나무는 말을 못하니 아빠, 엄마에게 일러바칠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슬그머니 걱정도 생겼습니다. 약을 너무 많이 먹여서 혹시 나무가 죽지나 않을가 하고 말이예요.

죽거나 누렇게 병들어버리면 야단이였습니다.

귀남이는 한참동안 고무나무를 물끄러미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깜짝 놀라고말았습니다. 글쎄 이런 신기한 일이 어데 있겠어요.

고무나무가 그의 눈앞에서 쑥쑥 자라기 시작하는것이였습니다.

《앗!》

귀남이는 한걸음 물러서서 눈을 비볐습니다.

팔뚝같던 줄기는 나팔통만 하게 굵어지고 잎도 두손바닥을 합친것만큼 커졌습니다.

그리고도 계속계속 그냥 자라나는것이였습니다.

키는 어느 사이에 방천정에 쭉 닿았습니다.

《야, 멋있구나!》

귀남이는 너무도 신기하여 걱정하던것도 다 잊어버리고 소리

쳤습니다.
이런 일은 정말 난생처음이였습니다.
혼자만 보는것이 막 아까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디선가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
귀남이는 창가로 갔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였습니다. 그 소리는 방안에서 나고있었습니다.
귀남이는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귀남이는 또 한번 《응?》하고 놀랐습니다.
그 소리는 글쎄 고무나무속에서 들리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아지를 잘라서 생긴 허물자리에서 말입니다.
5전짜리 돈잎만 하던 허물자리가 지금은 나무가 자라는만큼 커져 접시만한 구멍이 나졌습니다.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는 바로 그 구멍안에서 울려나오고있었습니다.
귀남이는 그 구멍안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안에는 나무랑 자라고 길도 쭉 뻗어있었는데 그속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리고있었습니다.
《히야!》
완전히 또하나의 다른 세상이 있었습니다. 있을것은 다 있었습니다.
집도 있고 길도 있고 운동장도 있고 나무와 꽃밭도 있었습니다.
고무나무속에 이런 세상이 있을줄이야 상상이나 할수 있는 일입니까! 귀남이는 더 생각할사이없이 고무나무속으로 훌쩍 뛰여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귀남이는 고무나무속의 《세상》에 미처 들어오기도 전에 두손으로 귀부터 틀어막았습니다. 얼마나 떠들썩한지 귀가 터져나갈것만 갈았습니다.
길에서나 운동장에서나 나무밑에서나 아이들이 놀고있었는데 그들은 이상스럽게도 와와 소리지르며 놀고있었습니다.

귀남이는 처음에는 그들이 싸움을 하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싸움을 하는것은 아니였습니다. 그저 소리만 질러대고있었습니다. 정말 이상했습니다.
《얘! 너 이게 무슨 나무인지 아니?》
한 아이가 귀남이의 앞에 와서 소리치며 물었습니다.
귀남이는 그애가 가리키는 나무를 보았습니다.
야합수라는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는 귀남이의 집주변에 많았기때문에 귀남이도 알고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해주었던것입니다.
《이 나무는 밤에 잎사귀들이 모두 모아붙군 해서 야합수라고 한단다.》하고 말입니다.
《야합수야!》
그런데 그애는 귀남이의 말을 들을 대신 그냥 소리쳐대기만 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나무야. 낮에는 잎사귀들이 떨어져있었는데 저녁이 되면 몽땅 합쳐진단 말이야.》
《그래서 야합수라고 한다지 않니.》
그러나 그애는 여전히 귀남이의 말을 들을 대신 제 말만 그냥 하는것이였습니다.
귀남이는 약이 올라서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이름이 야합수라는데!》
너무 힘껏 소리쳐서 얼굴까지 새빨개졌습니다.
그런데도 그애는 귀남이의 말은 전혀 듣지를 않고 제 말만 그냥 떠들어댔습니다.
《내 이제 이 나무에 이름을 지어줄테야. 멋있는 이름을 말이야.》하더니 그애는 이름을 지어보느라고 혼자서 연신 중얼대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잎이 합쳐지는 나무〉? 너무 길어. 〈밤에 합쳐지는 나무〉? 맘에 안드는데…》
귀남이는 기가 막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애인지 알수 없었습니다. 이런 애를 처음 보았습니다.
그애가 나무를 쳐다보며 중얼대는 사이에 귀남이는 슬며시 그애

옆에서 떠났습니다. 그애와 이야기하다가는 끝이 없을것 같았습니다.

제 말만 제 말이라고 하고 남의 말은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아이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얼마쯤 가던 귀남이는 눈이 번쩍 띄였습니다.

공을 차며 뛰여다니는 아이들이 보였기때문이였습니다.

귀남이가 공이라면 오금을 못쓴다는 말을 앞에서도 했지요? 이름난 축구선수가 되겠다는 귀남이의 희망에 대해서도 말이예요.

사실은 어머니가 귀남이에게 자꾸만 잔소리를 하게 된것도, 귀남이가 어머니의 말을 못들은척 하게 된것도 축구때문이랍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보세요. 집에 돌아오면 한시라도 더 빨리 숙제를 해치워야 공찰 시간이 좀더 생기겠는데 (귀남이는 공을 차느라고 숙제도 안하고 공부도 잘 안하는 그런 애가 아니랍니다. 그런 애들이야 그전의 책속에서나 찾아야지요.) 엄마는 손발을 씻어라, 옷부터 갈아입어라, 방안을 거두어라 하고 그냥 잔소리를 하는것입니다.

텔레비에서 나오는 축구경기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손발을 씻는 사이 통쾌한 슛장면이 지나가버리면 그이상 아쉬운 일이 또 어데 있겠나요.

바로 그래서 귀남이는 못들은척 하다가 병원에까지 가게 되였고 지금은 이 이상하게 떠들썩한 아이들의 세상에 오게 된것이랍니다.

물론 귀남이는 그런따위 일쯤은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공과 뛰여다니는 아이들을 보자 귀남이는 무작정 그곳으로 냅다 달려갔습니다.

아이들은 소리소리 웨쳐가며 공을 차고있었습니다.

마침 한 애가 축구장에서 나왔습니다. 그애는 귀남이를 보고 소리쳐 물었습니다.

《너 공을 찰줄 아니?》

귀남이는 대답대신 옷부터 벗어던졌습니다.

축구장에 뛰여들어간 귀남이는 한 애에게 물었습니다.

《난 어느쪽 편이 돼야 하니?》

《찰줄 모르면 배우면 돼!》
귀남이는 소리쳤습니다.
《난 어느쪽으로 공을 차야 하는가 말이야?》
《나도 첨엔 그랬어. 그렇지만 자꾸 차보니까 되더란 말이야.》
귀남이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애는 아까 그애처럼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제 말만 하고있는것이였습니다.
그애는 갑자기 귀남이를 축구장으로 콱 떠밀었습니다.
《공이 온다! 빨리빨리!》
그런데 귀남이는 공을 어느쪽으로 차야 할지 알수 없었습니다.
귀남이는 앞에서 달려가는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난 어느쪽으로 차야 하니?》
《응, 아직 0대0이야!》
귀남이는 또 소리를 지르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내가 어느쪽으로 차야 하니?》
《난 이제 세꼴을 넣을테야!》하던 그애는 공을 몰고가는 애를 향해 소리치며 달려갔습니다.
《여기 보내라! 여기!》
그러나 공을 모는 아이는 그애의 말을 들은척도 하지 않고 그냥 공을 몰고다니다가 그만 빼앗기고말았습니다.
그 누구도 다른 애의 말을 듣지 않고 공을 차고있었습니다.
이건 정말이지 너무도 이상한 아이들이였습니다.
아이들은 왜 다른 아이의 말은 애당초 들으려 하지 않을가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축구를 하며 축구에서 이긴단 말입니까. 모두 제멋대로였습니다.
그때 귀남이의 앞으로 공이 둥둥 떠서 날아왔습니다.
그런데 귀남이는 그 공을 어데로 차야 할지 알수 없었습니다.
그는 꼴문에서 얼마 멀지 않은 앞에 서있었습니다.
방어수라면 저쪽 문대로 차보내야 하고 공격수라면 이쪽 문대에 차넣어야 할판이였습니다.
공은 귀남이의 앞에 와서 떨어졌습니다.
귀남이는 더 생각할 사이없이 떨어진 공을 힘껏 꼴문대에로 차

넣었습니다. 원래부터 귀남이는 공격수였습니다.
꼴잉! 공은 총알처럼 날아들어가 그물에 걸렸습니다.
다음 순간 귀남이는 한 애에게 어깨를 잡혔습니다.
《넌 뭐야? 왜 제 편에 꼴을 넣었니?》
귀남이는 아연해졌습니다.
《제 편이라구?》
그때에야 자기가 어데로 차야 하는지를 알게 되였으니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성이 날대로 난 아이들이 그를 둘러싸고 조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넌 뭐야? 일부러 차넣었지?》
《일부러 차넣었지?》
《넌 나쁜 애야!》
귀남이는 그애들에게 자기가 어느쪽으로 공을 차야 하는가고 물었을 때 왜 알려주지 않았는가고 소리쳤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귀남이의 말을 애당초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성만 내고있었으니 말이예요.
귀남이에게 자기대신 들어가 차라고 했던 아이가 제일 성이 나있었습니다.
《넌 정말 나빠!》
귀남이는 막 울고싶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알수 없었습니다.
귀남이는 홱 돌아서서 도망치고말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애들이 더 따라오지는 않았습니다.
귀남이는 터벌터벌 걸었습니다. 뭐가 뭔지 알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바보로 되여버린것 같았습니다. 그애들은 왜 다른 사람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않을가요? 정말 이상한 애들이였습니다. 아니, 이상한 세상이였습니다.
그때 한 어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얘야, 넌 여기에 처음 온것 같구나.》
돌아보니 머리랑 눈섭이랑 새하얀 할아버지였습니다. 처음으로 어른을 만난 귀남이는 반가와서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귀남이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넌 여기에 처음 왔니?》
《예. 제 이름은 귀남이예요.》 하고 귀남이는 자기가 당한 일을 자초지종 말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대답대신 다른 말을 했습니다.
《처음 온단 말이지? 그래 와보니 어떠냐?》
귀남이는 그만 뻥해지고말았습니다.
이 할아버지도 역시 귀남이가 하는 말을 못듣고있는것이 틀림없으니까요.
멍하니 쳐다보는 귀남이를 보며 할아버지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좀 답답할수도 있지. 그래 답답해서 혼났다구? 넌 아직 말을 조금은 듣는 모양이구나.》
《예?》
귀남이는 무슨 말인지 알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걱정말어라. 이제 몇시간만 지나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될테니까.》
《예?!》
귀남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는 싫은 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애들이 사는 세상이란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와 몇시간만 지나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지. 그러면 영영 이 나라에서 살게 된단다.》
《?!》
귀남이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제까지 그가 만난 아이들은 모두 귀머거리였던것입니다. 여기는 귀머거리들이 사는 세상이였던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은것이 아니라 듣지 못했던것입니다. 귀남이는 허둥지둥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소리지르며 제멋대로 공을 차는 아이들도 보이고 길가의 야합수나무에 이름을 짓겠다던 아이도 보였습니다. 사실 그 나무에는 벌써 야합수라는 이름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그애는 영영 그것을 알지 못할것입니다. 귀머거리이니까요.
귀남이는 와락 겁에 질렸습니다.
귀머거리가 되면 축구선수는커녕 아무것도 할수 없을것이였습니다. 여기서 빨리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데로 나가야 할지 알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데로 가면 여기서 나갈수 있나요?》
그런데 할아버지도 제 말만 했습니다.
《이제 몇시간만 지나면 아무 소리도 안들리게 될게다.》
귀남이는 아뜩했습니다.
할아버지도 귀가 먹은것이였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니 더 무서워졌습니다.
귀머거리가 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여기서 이 할아버지처럼 늙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말입니다.
귀남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흔들며 손짓, 몸짓, 발짓을 다해 여기서 나가는 방법을 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알아듣는듯 했으나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여기는 들어오기는 쉬워도 나가기는 어려운 곳이란다. 나가는 문이 어데 있는지 누구도 모른단다.
다만 어딘가에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찾아주고 그 부름에 대답하면 그때는 나갈수 있다. 그러나 조금만 있으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는데 어떻게 대답을 하겠냐?》
귀남이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벌써 귀가 잘 들리지 않는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무슨 말인가 하는것은 분명한데 점점 더 똑똑치 않게 들리니 말입니다.
귀남이는 아버지, 어머니를 소리쳐부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말을 듣기 싫어하면 이런 귀머거리세상에 오게 되고 다시는 나갈수 없게 된다는걸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왜 못들은척 했겠습니까.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귀에는 벌써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것 같았습니다.

귀남이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어디선가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것 같았습니다.

《귀남아!》하고 말입니다.

틀림없이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귀남아!》

귀남이는 목청껏 소리쳐 대답했습니다.

《엄마!》

순간 귀남이앞에는 할아버지도 나무이름을 짓는 아이도 공차는 아이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는 자기 방에 돌아와있었고 틀림없이 출입문가에는 엄마가 서있었습니다.

《엄마!》

귀남이는 어머니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들려요. 아주 잘 들려요!》

귀남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고무나무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나무는 조금도 커지지 않고 원래의 나무그대로였습니다. 잠간사이에 원래대로 줄어든것이였습니다.

귀남이는 《후—》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였습니다.

예? 알만하다구요? 귀남이가 꿈을 꾼거라구요? 아닙니다. 귀남이는 절대로 꿈을 꾼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있은 일이랍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수 있는가구요? 귀남이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귀남이는 여러분들에게 말해줄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못들은척 하기 시작하면 귀머거리가 되고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이 된다는걸 말이예요.

주체86(1997)년

동 화

인어가 준 그물

진 명 수

옛날 어느 한 바다가 어촌마을에 염서방이라 부르는 어부가 살고있었습니다.

일찌기 부모를 여의고 외롭게 살아가던 염서방은 나이 서른이 지나서야 장가를 들었는데 몇년후에 그에게도 귀여운 아들딸이 생기게 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걱정이 많았습니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서발막대기를 휘둘러도 거칠것이 없이 째지게 가난한 탓에 산후탈로 앓는 안해를 몸보신해줄 흰쌀 한줌조차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인정많은 이웃들이 쌀을 조금씩 보태주어 얼굴에 노랑꽃이 핀 애들에게 죽이나마 겨우 쑤어먹일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습니다.

염서방은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남의 배를 삯내여 타고 바다로 물고기잡이를 나갔습니다.

뭍에서 멀리 나온 염서방은 바다물우에 낚시줄을 드리웠습니다.

허나 이날은 웬일인지 도루메기 한마리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간 삯배값도 물어줄것 같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진 염서방은 퍼런 바다물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물결우에 수척한 제 얼굴이 비껴서 흔들거렸습니다. 그리고 피골이 상접한 아이들과 산후탈로 몸이 부석부석해서 앓는 안해의 모

습도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염서방은 저도모르게 긴 한숨을 지었습니다.
　《이 못난이때문에 처자가 고생을 하는구나. 이런 때 내게도 배와 그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가. 그럼 나도 남부럽지 않게 살아보련만.》
　염서방의 눈에서는 저도모르게 눈물이 쭈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콩알같은 눈물은 닭알만큼 커지고 또 수박만큼 커지더니 바다물우에 《첨벙—》하고 떨어졌습니다.
　고요하던 바다가 뒤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세요.
　갑자기 뽀얀 안개가 배주위에 서리더니 공기방울이 보글보글 솟아올랐습니다.
　염서방의 두눈은 휘둥그래졌습니다.
　조금 있더니 아름다운 비단옷을 곱게 차려입은 웬 처녀가 바다물우로 살며시 떠오르는것이였습니다. 몸의 절반아래에는 물고기꼬리가 달린걸로 봐서 인어가 분명했습니다.
　난생처음 당하는 일에 염서방은 어쩔줄 몰랐습니다.
　(인어란것이 있다더니 정말이구나.)
　염서방이 이런 생각을 하고있는데 무르익은 복숭아처럼 발깃한 얼굴에 웃음을 함뿍 담은 처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부님, 놀라지 마세요. 전 바다의 인어예요. 그런데 어부님은 무슨 일로 이 바다 한가운데서 눈물을 흘리시나요?》
　동정어린 인어의 말에 염서방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집의 딱한 사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털어놓았습니다.
　염서방의 이야기를 귀담아듣던 인어는 눈물을 머금었습니다.
　《어부님의 집은 정말 불행하구만요.》
　인어는 바다우로 나오게 된 사연을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이날은 바다를 다스리는 할머니의 백돐생일날이였습니다. 축복의 꽃다발속에 바다할머니가 큰상을 받고 한창 즐기고있을 때였답니다.
　때아닌 우뢰소리와 함께 갑자기 바다물이 흐려졌답니다. 그래서 무슨 큰 변이 났는가 해서 인어가 알아보러 나왔다는것이였습니다.
　염서방은 미안스러웠습니다.

《인어아씨, 안됐습니다. 저때문에 흥겹던 백돐잔치분위기가 흐리게 되였구만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그런 말마세요.》

인어는 머리를 가로저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였던지 인어는 《그럼 어부님, 잠간만 기다려주세요.》하더니 바다물속으로 도로 들어가는것이였습니다.

얼마 안있어 인어가 물우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인어가 무엇인가 손에 들고 나온것을 정히 배우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나막신처럼 생긴 산호신발이였습니다.

신둘레에는 구슬들이 고기비늘처럼 촘촘히 박혀 령롱한 빛을 뿜고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산호신발옆에는 손수건만한 작은 그물도 놓여있었습니다. 그 그물에는 빨갛고 파란 진주알들이 반짝반짝 빛나고있었습니다.

《어부님, 받으세요. 이 신발은 물우에서 걸어다니는 물신이고 그물은 아무 물고기나 제마음대로 잡을수 있는 그물이랍니다. 우리 바다궁전에서 아끼던 보물중의 하나인데 바다할머님이 어부님을 가궁히 여겨서 보내는것이랍니다.》

그러면서 인어는 물신과 그물을 쓰는 방법을 차근차근 가르쳐주었습니다.

《아니, 이 귀한걸 나에게 주다니…》

배도 그물도 없는 염서방은 뜻밖에도 신기한 그물을 받고보니 너무도 고마와 어쩔바를 몰라하였습니다.

《하지만 꼭 알아둘것이 있어요. 이 물신과 그물은 세번만 쓸수 있답니다. 아마 어부님이 이걸 세번만 잘 써도 집살림이 넉넉해질거예요. 어부님, 이것으로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가정의 행복을 마련하세요.》

진정어린 인어의 말에 염서방은 눈시울이 뜨거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어아씨. 이 은혜를 평생토록 잊지 않겠습니다.》

《어부님, 그럼 부디 가정이 행복해지길 바래요.》

인어는 가벼운 소용돌이를 남기며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염서방은 물신을 신었습니다.

인어가 말하던것처럼 산호신발을 신고 바다물에 들어서니 온몸이 둥 떠올랐습니다.

염서방은 산호신발을 신고 땅에서처럼 바다우를 거닐어도 보고 발로 굴러도 보았습니다.

땅에서 걷는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음이 즐거워진 염서방은 손수건만한 그물을 펼쳐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어가 대준대로 하였습니다.

《그물아, 그물아, 펼쳐져라.》

그런데 이런 희한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글쎄 조그마한 그물이 사르륵 사르륵 넓어지더니 잠간사이에 온 바다를 뒤덮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였습니다.

염서방은 《그물아, 이면수랑 가재미랑 한그물 가득 잡아라.》하고 말하였습니다.

신기한 그물은 사르륵 가라앉고 물결은 잠잠해졌습니다.

염서방은 끌줄을 슬금슬금 당겨보았습니다.

묵직한것이 알렸습니다.

《많이 들었구나.》

염서방은 잽싸게 그물을 끌어올렸습니다. 물거품이 허옇게 일었습니다. 그러더니 물고기가 가득 든 그물이 불쑥 떠올랐습니다.

《굉장하구나!》

염서방은 배전이 넘쳐나게 물고기를 퍼실었습니다. 그렇게 신고도 그물안에는 많은 물고기가 욱실욱실하였습니다.

염서방은 배고물에 그물끌줄을 매고 뭍으로 노를 저었습니다.

바다의 갈매기들이 배우를 날아예며 《끼르륵 끼르륵》염서방을 축하해주었습니다.

염서방은 기쁨을 안고 포구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좋아서 싱글벙글하는 염서방에게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아니, 염서방. 자네 오늘 어디 가서 그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았나?》

《바다의 인어에게서 신기한 물신과 그물을 받은 덕이지요.》

염서방은 바다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부들은 부러워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자네네 살림도 펴이게 되겠구만.》

신기한 그물로 물고기를 많이 잡아온 염서방은 그것으로 배값을 물고 마을사람들에게 듬뿍듬뿍 나누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물고기를 장사군들에게 넘겨주어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신기한 그물은 물고기를 다 퍼내자 다시 손수건만해졌습니다.

염서방은 신기한 그물을 호주머니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많은 돈으로 집을 살가, 배를 살가… 그렇지. 집에 가서 안해와 의논을 해야지.》

물고기와 바꾼 한말의 쌀을 등에 진 염서방은 발걸음도 가벼이 포구를 떠났습니다.

갑자기 차례진 행운에 마음이 들뜬 염서방이 마을길에 들어설 때였습니다.

어느 집에선가 아이들의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집은 박서방네 집이였습니다.

(무슨 일일가?)

게딱지같은 초가집에서는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함께 문짬으로 이런 말이 새여나왔습니다.

《어머니, 정신차리세요. 엄마가 없으면 우린 어떻게 살아요.》

그 울음소리는 염서방의 귀전을 울렸습니다.

염서방은 그 집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노전을 깐 방바닥에는 누덕누덕 기운 이불을 덮은 박서방의 처가 목침을 베고 누워있었습니다.

그옆에 열살이 되나마나한 사내애와 일곱살쯤 됨직한 처녀애가 앓아누운 엄마를 붙들고 서럽게 울고있었습니다.

염서방과 어려서부터 한마을에서 자란 박서방은 3년전에 고기잡이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 그만 잘못되였습니다.

그래서 박서방의 처는 어린 오누이를 데리고 그날그날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애들은 염서방의 팔을 붙잡고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를 살려주세요.》

먹을것을 제대로 못먹어 바싹 여윈 몸에 기운 옷을 입은 애들의 모습은 차마 눈을 뜨고 볼수 없었습니다.

《오냐, 울지들 말아라.》

염서방은 앓아누운 사람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정신을 잃고 헛소리를 치는것이 금시 숨이 넘어갈것 같았습니다.

염서방은 의원을 청해왔습니다.

《의원님, 이 사람을 꼭 살려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애들은 고아가 됩니다.》

의원은 울고있는 애들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애들의 아버지는…》

《나와 같은 어부였는데 이미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동안 환자의 맥을 짚어보던 의원은 난처해하였습니다.

《이 환자를 살리자면 귀한 사향이 있어야겠는데 나에게는 그것이 없구려. 그 사향이 구봉산포수에게 있다던데 사실은 값이 지내 비싸서 내 힘으로는 어쩔수 없구려.》

《의원님, 저에게 돈이 얼마간 있으니 지금 당장 구봉산에 갔다오겠습니다.》

생명이 경각에 다달은 사람을 앞에 놓고 염서방은 주저할수 없었습니다.

《100리길이 넘는 곳인데…》

의원은 걱정스레 말하였습니다. 그길로 구봉산에 달려간 염서방은 주머니의 돈을 다 털어 사향을 구해가지고 밤이 퍽 깊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제 혈육도 친척도 아니지만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자기를 바쳐가는 염서방의 소행에 크게 감동된 의원은 환자를 성의껏 치료하였습니다.

날이 밝을무렵에 박서방의 처는 드디여 정신을 차렸습니다.

염서방은 집으로 가져가던 쌀자루를 박서방네 집에 주었습니다.

다 죽어가던 박서방의 처가 마음씨 착한 염서방의 지성에 의해 구원되였다는 소식은 날개가 돋친듯 어촌마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저저마다 염서방을 칭찬하였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사람이웨다.》
《우리 마을의 자랑이요.》
처자와 집을 위해 쓰자던 돈으로 박서방의 처를 구원한 염서방의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신기한 물신을 신고 바다로 나가며 염서방은 이런 궁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큼직한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쌀과 옷을 마련하고 새 집도 한채 장만해야지.》
고래등같은 기와집에서 비단옷을 입고 좋아할 처자를 생각하니 염서방의 마음은 한없이 설레였습니다. 염서방은 인어가 준 물신을 신고 멀기를 디디며 성큼성큼 물우로 걸어갔습니다.
뭍에서 멀리 나온 염서방은 신기한 그물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물아, 그물아, 펼쳐져라.》
손수건만 하던 그물은 삽시에 바다를 뒤덮었습니다.
《그물아, 그물아. 곱등어와 물개가 걸려라.》
신기한 그물은 그의 말을 알아들었는지 사르륵 가라앉았습니다.
잠시후 염서방은 끌줄을 잡아당겼습니다.
바다물우에는 물거품이 허옇게 일었습니다. 조금 있더니 그물이 떠올랐습니다.
신기한 그물에는 송아지만한 곱등어와 물개가 가득 들어차 와글거렸습니다.
《야, 굉장하구나!》
염서방은 환성을 올렸습니다.
마음이 흐뭇해진 염서방은 작은 섬만한 그물을 끌고 바다가로 나왔습니다.
포구로 돌아온 염서방은 어물들을 팔아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흡족해난 염서방은 속궁냥을 하였습니다.
(이 돈으로 우선 쌀을 너덧말 사고 옷도 여러벌 장만해서 집식구들을 보란듯이 차려입혀야지. 그리고 산후탈로 고생하는 안해의 약도 몇첩 구하고 나머지 돈으로 새 집을 한채 번듯하게 세

워야지.) 이런 궁리를 하며 마을에 들어서던 염서방은 이상한 감촉을 느꼈습니다.

마을쪽에서 매캐한 그을음냄새가 풍겨왔던것입니다. 섬찍한 생각이 든 염서방은 마을을 휙 둘러보았습니다.

마을의 여기저기서 실연기가 가물가물 솟아올랐습니다. 염서방은 그리로 달려갔습니다.

어촌마을은 뜻하지 않은 화재로 여러 집들이 불에 타서 재더미가 되여 어수선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마을 맨끝에 외따로 서있던 염서방의 집은 화재를 입지 않았습니다.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은 마을사람들의 모습은 말이 아니였습니다. 옷들은 불에 타서 넝마처럼 되였습니다.

맥을 잃고 멍하니 앉아서 한숨만 쉬고있는 마을사람들을 바라보는 염서방의 마음은 괴로왔습니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마을사람들의 보살핌속에서 자라난 염서방에게 있어서 그들모두는 친부모였고 친형제였습니다.

염서방은 슬며시 자기가 들고가는 돈주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돈이면 마을사람들을 얼마간 도와줄수 있을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돈을 내놓자니 앓고있는 안해와 먹지 못해 얼굴에 노랑꽃이 핀 아이들생각이 났습니다.

쓰러져갈듯한 오막살이집도 떠올랐습니다.

(어쩔가. 아니, 내가 무슨 생각을…)

염서방은 언뜻 놀라며 결심했습니다.

(마을사람들을 도와주자.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고 어찌 우리 집 생각만 할수 있는가. 나에겐 아직 한번 더 신기한 그물을 쓸 기회가 있지 않는가.)

그길로 염서방은 마을의 좌상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좌상어른, 얼마 되지 않는 이 돈으로 집을 잃고 당장 먹을것도 입을 옷도 없는 마을사람들을 구원해주십시오.》

염서방이 많은 돈을 내놓자 좌상할아버지는 놀라와하였습니다.

《아니, 자네네 집살림도 어려운데 일없겠나?》

《원 별말씀을 다 하십니다. 마을사람들이 불행을 당했는데 어찌 제 집생각만 하겠습니까.》

그 말에 좌상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염서방, 고맙네. 자네의 그 뜨거운 마음을 마을사람들은 두고두고 잊지 않을거네.》

염서방이 준 돈으로 집도 짓고 적으나마 가장집물들을 마련할수 있게 된 마을사람들은 기쁨과 감동에 겨워 울고웃었습니다.

불행에 잠겼던 마을에서 웃음꽃이 피여났습니다.

염서방은 한결 마음이 놓였습니다.

《마을사람들이 기뻐하니 내 마음도 즐거워지는구나. 이게 아마 사람이 사는 락인가보구나.》

염서방은 발걸음도 가볍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이르자 앓고있던 안해와 배고파 칭얼거리며 아버지 오기를 눈이 까매서 기다리던 애들이 염서방을 반겨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빈손으로 집에 들어서는 염서방의 가슴은 쓰렸습니다.

그날밤 목침을 베고 누운 염서방은 떨어진 집천정을 올려다보며 생각을 했습니다.

(인어가 준 그물도 이젠 한번밖에 못쓰겠구나. 이번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걸 우리 집 식구들을 위해 꼭 써야지.)

그 다음날이였습니다.

염서방이 일찌기 바다가로 나오니 그날은 바다날씨가 몹시 나빴습니다.

이런 궂은 날씨에는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만두고 좋은 날 바다에 나가야지.》

염서방은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촌마을 앞길로 다급히 달려오는 말발굽소리가 들렸습니다.

염서방은 무슨 일인가 하여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시오, 말 좀 물읍시다. 이 마을에 신기한 물신과 그물을 가진 염서방이라는 어부가 있다는데 어느 집인지 좀 가르쳐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염서방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바로 염서방이요. 나에게 그런 그물이 있는데 왜 그러시오?》
그러자 군사들이 말에서 홀짝홀짝 뛰여내리더니 염서방앞에 엎디여 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두손을 꼭 잡으며 간절히 부탁하는것이였습니다.
《어부님, 우릴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외적이 쳐들어온다는 급보를 받고 변방으로 가던 우리 장수님과 군사들이 그만 난치의 병에 걸려 앓아눕게 되였는데 그 병엔 오직 희귀한 백해삼이 약이라하옵니다. 그래서 수백명의 어부들이 바다밑을 뒤졌지만 워낙 귀한것이라 겨우 한마리밖에 잡지 못했소이다. 그 희귀한 백해삼을 도저히 구할길이 없어 이렇게 불원천리 달려왔나이다.》
《예?…》
염서방은 선뜻 대답을 못했습니다.
단 한번밖에 못쓰는 물신과 그물을 백해삼을 잡는데 써버리면 난 어쩐단 말인가. 굶주림과 병으로 허덕이는 안해와 아이들은 누가 살펴주고 쓰러져가는 오막살이집은 또 어떻게 한단 말인가.
염서방은 정말 딱했습니다.
불원천리 달려온 군사들의 심정을 모른다고 할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굶주림과 병으로 신음하는 안해와 자식들을 그냥 내버려둘수도 없는 노릇이였습니다.
어쩔줄 몰라 우물쭈물 망설이는 염서방에게 군사들은 거듭 사정을 하였습니다.
《어부님, 외적이 나라를 침노한 이 위급한 때 장수님이 쓰러지니 백만군사가 다 쓸모없이 되고있습니다. 우리 장수어른과 군사들을 구원하는 일은 나라를 지키는 중한 일이옵니다.》
군사들의 호소는 절절하였습니다.
염서방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무엇을 주저하고있단 말인가. 나라가 있고야 집도 있을게 아닌가!)
마음을 크게 먹은 염서방은 팔을 걷고나섰습니다.
《좋수다. 나도 이 나라에 태를 묻은 백성이온데 나라가 위급한 이때 어찌 제 살궁리만 하며 외면할수 있겠소. 내가 그 백해삼

을 꼭 잡아올테니 마음을 놓으시오.》
염서방은 물신을 신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바다에는 바람이 몹시 불고 집채같은 파도가 밀려와 사납게 날뛰고있었습니다.
염서방은 파도를 디디고 바다물우에 올라섰습니다. 그러자 세찬 파도가 가리마처럼 쭉 갈라지면서 주단같은 물길이 펼쳐졌습니다. 그 물길옆에는 금시 염서방을 덮칠듯한 파도가 절벽처럼 일떠서있었습니다.
그러나 신기한 물신을 신은 덕에 하나도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염서방은 성큼성큼 바다우로 힘차게 걸어갔습니다. 한참동안 바다로 걸어나온 염서방은 호주머니에서 신기한 그물을 꺼냈습니다.
《그물아, 그물아, 펼쳐져라.》
손수건만 하던 그물은 삽시에 바다를 뒤덮었습니다.
《그물아, 그물아, 희귀한 백해삼이 한그물 가득 걸려라.》
파도에 휘말려돌아가던 그물이 바다속으로 사르륵 가라앉았습니다.
염서방은 끌줄을 당겨보았습니다. 어쩐지 그전과 달리 가볍게 끌려왔습니다.
《혹시 빈 그물이 아닐가?》
하지만 그물을 끌어올리니 놀랍게도 그 희귀한 백해삼이 쉰마리정도 들어있었습니다. 워낙 그 수가 적은것이라 아마 온 바다밑의 백해삼이 몽땅 그물에 든 모양이였습니다.
《아, 이젠 됐구나! 참, 이 신기한 그물로는 못잡는 어물이 없구나!》
염서방은 그물을 끌고 바다가로 나왔습니다.
염서방은 신기한 그물에서 백해삼을 꺼내서 군사들에게 모두 주었습니다. 그러자 인어가 준 물신과 그물은 눈깜짝할새없이 사라졌습니다.
백해삼을 받아든 군사들은 너무도 기뻐 눈물을 줄곧 흘렸습니다.
《야, 이젠 우리 장수어른이 살게 되였습니다. 자기 집을 위해 쓰지 못했다고 하던데 이 마지막 한번까지 우릴 위해 써주시니

고마움과 황송한 마음 금할수 없습니다.》
한 군사가 이렇게 말하자 곁에 있던 다른 군사도 염서방을 칭찬했습니다.
《어부님, 나라를 위한 어부님의 그 애국충정을 우리 군사들은 잊지 않을것입니다.》
군사들의 치하에 염서방은 송구스럽기만 하였습니다.
《아니 뭐 거야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응당 해야 할 일인데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군사들은 염서방에게 고맙다고 몇번이고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군사들을 손저어 바래주는 염서방의 마음은 어쩐지 허전해졌습니다.
인어가 준 그물로 쌀과 옷, 집을 장만하고 안해의 병도 고쳐주자고 했는데 그만 가정을 위해 단 한번도 쓰지 못한탓에 그에게 남은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염서방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잘했어. 재산이야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지만 나라야 어디 그런가. 그래서 예로부터 나라없는 백성은 상가집 개만도 못하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니 염서방의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인어가 준 그물을 세번 다 쓴 염서방은 다시 남의 배를 삯내여 물고기잡이를 하였습니다.
어느날 쪽배를 타고 날바다에 물고기잡이를 나갔다가 풍랑을 만난 염서방은 날바다를 헤매다가 사흘만에야 돌아오고있었습니다.
그가 돌아오기를 손꼽아기다리던 마을사람들이 백사장으로 밀려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염서방의 손을 잡고 살아돌아온것이 반가와 어쩔줄을 몰라하였습니다.
얼마후 마을의 좌상할아버지가 흰수염을 내리쓸며 나섰습니다.
《염서방, 자넨 정말 큰일을 했네. 임자는 자기에게 차례진 행운도 마다하고 그걸로 장수어른과 군사들을 구원하여 외적을 치고 나라를 지키는데 큰 공로를 세웠네. 그래 자네의 그 뜨거운 마

음에 탄복하여 군사들이 돛배 한척을 만들어 보내왔다네.》
《예?!》
염서방은 눈이 둥그래서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저게 바로 그 돛배일세.》
은모래 펼쳐진 백사장에는 커다란 돛배 한척이 있었습니다. 돛배로 가까이 다가간 염서방의 눈은 더욱 휘둥그래졌습니다.
돛배안에는 그물과 낚시도구들이 그쯘히 다 갖추어져있는게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 백성으로 응당 할 일을 하였는데…》
염서방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좌상할아버지는 야산둔덕에 서있는 고래등같은 기와집으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이게 바로 자네 집일세. 온 마을사람들이 달라붙어 지은거라네.》
《?!》
너무도 갑작스레 차례진 행복에 염서방은 어리둥절해졌습니다.
이때 솟을대문을 열고 무명저고리를 산뜻하게 차려입은 안해와 비단옷을 입은 애들이 달려와 염서방을 반겨맞았습니다.
《곱단이 아버지, 바다길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어서 집으로 들어가시자요.》
산후탈로 늘 부석부석하던 안해의 얼굴에는 발그스레하게 혈색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의 뜨거운 축복을 받는 염서방의 얼굴은 기쁨으로 벙글거렸습니다.
안해와 아이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여있었습니다.
염서방은 그들의 모습을 정겨운 눈길로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행복이란 바로 이런것을 두고 하는 말이겠구나.》
그후부터 염서방이 사는 어촌마을에서는 늘 웃음꽃이 피여나군 하였습니다.

주체89(2000)년

동 화

호박속에서 자란 토끼

김 형 운

1

토끼 한마리가 조심조심 주위를 살피며 들판으로 뛰여다니고 있었습니다. 털이 흰눈처럼 하얗고 눈이 물앵두처럼 새빨간 엄지토끼였습니다. 몽톡한 꼬리는 우로 착 쳐들리우고 발쭉한 두 귀는 주위에서 나는 소리를 가려듣느라 쉴새없이 좌우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지금 새끼낳을 알맞춤한 자리를 찾아보는중이였습니다.

검붉은 땅에서 김이 몰몰 피여올랐습니다.

패랭이꽃들이 피여나 고운 꽃잎을 하늘로 쳐들었고 산앵두나무엔 어느새 구슬알같은 작은 열매들이 대롱대롱 매달려있었습니다.

《세월도 빠르지. 금시 봄인가 했더니 이젠 사뭇 여름기운이 도는걸.》

토끼는 이렇게 중얼거리고나서 또다시 주위를 살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잎이 넙죽한 호박넌출이 마른 오리나무가지에 의지하여 뻗어오르고있었습니다.

그 호박넌출쪽이 마음에 들었던지 토끼는 껑충껑충 그리로 뛰여가 노란 호박꽃이 피여있는 바로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호박꽃에서 꿀향기가 물씬물씬 풍겼습니다.
토끼는 앞발로 싹싹 땅을 허벼보았습니다. 밑에 별다른게 없는가 해서였습니다.
그다음에 검부레기를 물어다 동그랗게 자리를 깔아놓고 벌건 살이 드러나도록 자기 몸에서 털을 뽑아놓고는 거기에 새끼를 낳았습니다. 모두 열두마리였습니다.
부르기 쉽게 이름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달아주었습니다.

2

엄지토끼가 사랑이 어린 눈으로 꼼지락거리는 새끼들을 이윽토록 내려다보고있는데 난데없이 커다란 그림자가 해빛을 가리웠습니다.
구름이 지나가나 해서 하늘을 쳐다보니 퍼그나 큰 수리개 한마리가 우에서 빙글빙글 돌고있었습니다.
급해난 엄지토끼는 새끼들을 그러안고 호박넌출밑으로 뛰여들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안절부절 못하고있다가 이번엔 새끼들을 안은채 푸른 숲이 우거진 산골짜기쪽으로 냅다 달리였습니다.
나지막한 떨기나무밑에 새끼들을 내려놓고 가쁜숨을 몰아쉬던 엄지토끼는 새끼들을 세여보다가 와뜰 놀랐습니다. 다해서 열한마리밖에 안되였습니다.
덤벼치다가 한마리는 어디에 떨군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를 어찌나. 넷째가 없구나.》
엄지토끼는 그 넷째는 이미 수리개의 밥이 되였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더 찾아볼념을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3

넷째는 호박넌출밑에 떨어져있었습니다.

지금껏 벌어지는 일을 지켜보고있던 호박아주머니는 어린것이 불쌍했습니다.

《얘야, 내 그늘밑으로 바싹 기여들어와 숨어라.》

그러나 넷째는 꼬불락거리며 점점 밖으로 기여나갔습니다. 그대로 두었다간 수리개한테 물려갈게 뻔했습니다.

《에이구, 저건 아직 눈을 뜨지 못해 보지두 못하고 귀가 열리지 않아 듣지도 못하는구나.》

호박아주머니는 노란 호박꽃으로 넷째를 덮어주었습니다.

넷째는 자기 어미가 젖을 먹이려는줄로 알고 꽃속으로 바싹 기여들어가 꽃술에 입을 가져다대고 쫄쫄 빨았습니다.

달디단 꽃물이 입안에 흘러들었습니다.

4

넷째는 꿀을 빨며 자라다가 아예 꽃에 잇닿아있는 호박속으로 들어가고말았습니다. 그속에 들어가니 편안히 누워서도 꿀젖을 먹으며 살수 있었습니다.

어느날 호박아주머니가 사뭇 통통해진 호박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얘야, 이 호박에미의 말이 들리느냐?》

호박아주머니는 애기토끼가 아직 말귀를 알아듣지 못할수도 있지만 그와 이야기하고싶었습니다.

《예, 들려요. 호박어머니!》

넷째가 호박속에서 대답했습니다.

《아이쿠나! 이젠 네 귀가 열린가보구나. 얘야, 네 이름은 토끼

가문의 넷째란다. 저 멀리 숲속에서 너의 어머닌 네가 수리개한테 물려가 죽은줄 알고 슬피슬피 울고있단다. 내 목소리가 크지 못해 알려주지 못하는데 네가 어머니한테 가보려무나.》

넷째는 안에서 몸을 비틀었습니다.

《싫어요. 무서워요. 난 수리개라는게 나타날가봐 안갈래요.》

호박아주머니는 마음이 무던했습니다. 그래 넷째가 하겠다는 대로 놔두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넷째는 하루가 다르게 컸습니다.

호박아주머니가 좀더 통통해진 호박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얘야, 내 말이 들리느냐?》

《예, 들려요. 호박어머니!》

호박안에서 넷째가 대답했습니다.

《너희네 토끼형제들이 엄마와 함께 달달달 굴러다니는 수레에 먹이를 싣고가는구나. 그런데 수레바퀴가 홈타기에 빠져 밀고당기며 애를 쓰지만 나오질 않는다. 네가 좀 나가서 도우려무나.》

넷째는 싫다는 뜻으로 호박벽을 박박 긁었습니다.

《싫어요. 싫어요. 그렇게 힘이 드는 일을 나는 안할래요.》

그렇게 또 하루, 이틀이 지나갔습니다. 넷째는 퍼그나 자랐습니다.

호박아주머니가 좀더 커진 호박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얘야, 내 말이 들리느냐?》

《예, 들려요. 호박어머니!》

호박속에서 넷째가 대답했습니다.

《토끼형제들이 요즈음 엄마와 함께 집을 짓는구나. 너희들을 세간내울 방까지 여러칸으로 된 멋진 집을 말이다. 너도 가서 같이 거들어주려무나.》

넷째는 또 호박벽을 박박 긁었습니다.

《싫어요. 싫어요. 난 이 호박속에서 사는게 제일 좋아요!》

《오냐, 그럼 그냥 있거라.》

5

호박아주머니는 토끼 하나 키우기가 헐치 않았습니다. 호박 열을 키우기보다 더 힘이 들었습니다.

그는 자기 넌출에 애기호박이 맺히기만 하면 하나둘 떨구어버렸습니다.

넷째는 커갈수록 꿀젖을 더 많이 달라고 졸랐습니다.

《호박어머니, 왜 꿀젖이 적게 나오나요? 좀더 많이 주세요!》

《얘야, 요즘 가물어서 그런단다. 내 뿌리가 마르고 잎이 시들어가는구나.》

《가문다는게 뭐예요? 어쨌든 나 배고파요.》

호박아주머니는 호－ 한숨을 쉬며 또 다른 호박 한두개를 떨구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도 당해낼수 없어서 이번엔 날아가는 칼새에게 부탁해서 자기 순을 잘라달라고 했습니다.

넷째가 들어있는 호박은 동이만큼 커졌습니다.

며칠후에는 독만큼 커졌습니다.

호박아주머니는 그것을 달고있기가 힘에 부쳤습니다. 그런데다 바람까지 불었습니다.

넷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흔드나요? 어지러워요.》

《바람이 불어 그런단다.》

《그래도 제발 흔들지 말아주세요.》

바람이 세지자 호박아주머니는 더 지탱할수가 없었습니다.

《얘야, 나도 별수가 없구나.》

그는 호박을 안은채 땅에 넘어졌습니다.

6

지나가던 메돼지가 땅에 떨어진 호박을 보더니 좋아서 달려왔습니다.

《헤헤, 호박이 덩굴채로 떨어진다더니 이걸 두고 한 말이로군. 이렇게 큰 호박은 보다 처음인걸. 요즘 호박이 먹고싶어 앓을 지경이였는데 마침 잘됐군.》

메돼지는 호박을 뚝 따서 등에 짊어지였습니다.

호박아주머니가 넘어진채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그것만은 안돼요!》

《언젠 뭐 자네가 된다면서 순순히 준적이 있나? 내가 할바는 내가 알아서 하는거야.》

메돼지는 들은척도 안하고 낑낑 호박을 지고 달아났습니다.

몇번 쉬면서 깊은 산속까지 간 메돼지는 호박을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제 집까지 가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에— 무겁기두 하다. 목젖이 하물거려서 어디 참겠나. 우선 절반은 먹고 가야겠군.》

그는 앞발로 호박을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호박이 두쪽으로 갈라지면서 새된 말소리가 났습니다.

《아야야! 누가 내 머리를 치는거예요?》

순간 메돼지는 깜짝 놀라 뒤로 벌렁 자빠졌습니다.

《엉? 이건 뭐야?》

메돼지의 두눈알이 우로 뒤집혀 흰자위만 가득찼습니다. 뜻밖에도 거기선 토끼 한마리가 나왔으니까요.

《난 토끼예요. 그런데 당신은 누구예요?》

넷째도 어지간히 놀라 눈이 올롱해 바라보았습니다.

《토끼라니?》

메돼지는 눈을 껌벅거리며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생긴걸 보니 토끼가 분명했습니다. 코등에는 흰줄이 가고 온몸이 재빛이였는데 귀는 하늘소귀처럼 크고 눈알은 머루알처럼 새

까맸습니다.

그런데 토끼치고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보태지 않고 사냥개만 했습니다.

(저렇게 큰 왕토끼도 있는가?)

메돼지는 그 왕토끼한테 축잡혀선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일부러 코를 추켜들고 말했습니다.

《난 이 아근에서 제일 힘세기로 소문난 메돼지시다.》

《그래요? 난 미처 몰라봤어요. 처음이 돼서.》

넷째는 그가 무서워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메돼지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렇게 떨건 없어. 난 너를 잡아먹진 않을테다. 오늘 나를 만난걸 다행으로 여기고 어서 네 갈데로 가.》

그리고는 투덜거리며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흥, 재수없군, 공연히 땀만 뺐는걸.》

7

바깥세상으로 나온 넷째에겐 모든것이 처음이였습니다. 하늘의 해도 처음 보았고 떠가는 구름도 처음 보았습니다. 산속의 풀도 나무도 그리고 바위도 다 처음이였습니다. 세상엔 참 별난것들도 다 있구나 하고 신기하게만 생각될뿐이였습니다.

자기를 키워주던 호박어머니가 어느쪽에 있는지 방향같은건 알수도 없었거니와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자리에 주저앉아있느라니 배가 고팠습니다. 거기선 누구도 그에게 먹을것을 가져다주지 않았습니다. 숲속엔 오직 넷째 혼자뿐이였습니다.

온종일 그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였습니다.

배가 고프니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울려오는 짐승

들의 울음소리, 밤새들의 울음소리가 무서움을 자아냈습니다. 밤은 참으로 지루했습니다.

그 지루한 밤이 지새고 날이 밝았으나 넷째는 눈을 뜨지 않고있었습니다. 맥이 없기때문이였습니다.

해가 퍼그나 솟아오를무렵 그의 귀에 고운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혼자 부르더니 곧 여럿이 함께 불렀습니다.

눈을 지그시 떠보니 토끼들이 그리로 오고있었습니다. 그들과의 거리가 가까와지자 넷째는 다시 눈을 감고 죽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배고파 죽겠어요. 먹을걸 좀 주세요! 먹을걸 좀 주세요!》

난데없이 들리는 소리에 토끼들이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더니 그리로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엄청나게 큰 토끼가 풀숲에 엎드려있는것을 보고 모두 눈이 휘둥그래졌습니다.

처음엔 동정이 가서 측은하게 내려다보던 토끼들은 인차 허리를 그러안고 웃어대기 시작했습니다.

《하하하, 옆에다 먹을걸 가득 놔두고 배고프다니 우스워 죽겠네.》

《글쎄말이야. 혹시 우릴 놀리자고 그러는게 아닐가?》

이렇게 재잘거리던 토끼들은 척 뒤짐을 지고서는 시침을 뻑 따고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좀 물어봅시다. 당신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나요? 그리고 태여난 곳은 어딥니까?》

넷째는 여전히 눈을 감은채 대답했습니다.

《난 호박넌출밑에서 태여난 토끼가문의 넷째예요.》

그러자 토끼들이 서로 마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그럼 죽었다던 우리 넷째가 아니야?》

이상한 생각이 들어 꼬치꼬치 따져물어본 그들은 정말 그가 자기네 형제들중 넷째라는걸 알았습니다.

《넷째, 어서 눈을 뜨고 일어나!》

첫째가 그를 일으켜앉히고는 자기들을 차례로 소개했습니다.

넷째는 너무나도 기뻐 그들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이나 그의 볼에 얼굴을 비비며 좋아하던 다섯째가 머리를 쳐들며 물었습니다.
《형, 좀 물어보자요. 왜 아까부터 옆에 먹이를 가득 두고도 먹을걸 달라고 했나요?》
넷째가 귀를 늘어뜨리며 대답했습니다.
《먹을게 어디 있단 말이냐? 난 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해 정말 배가 고파 죽겠어.》
《하하, 이거 있잖나요.》
다섯째는 바로 눈앞에 있는 말굴레풀을 뜯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이런 풀이 얼마나 맛있다고요. 그리고 저기엔 칡넝쿨이 있잖아요. 싸리순도 있구요. 좀 보라요. 이 산속에 얼마나 많은 먹이풀이 있나. 갈퀴나물, 매듭풀, 마타리, 뚝갈, 고추나물, 물레나물, 박쥐나물, 삐꾹채, 엉겅퀴… 나무잎들도 먹을수 있어요. 참나무잎, 신갈나무잎, 떡갈나무잎, 개암나무잎, 느릅나무잎, 아카시아잎, 스무나무잎…》
그가 이것저것 가리키며 얼마나 냅다 엮어대는지 넷째는 미처 그걸 다 기억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들에 나가면 더 맛있는 풀들이 있어요. 민들레, 사라구, 마디풀. 마디풀은 우리네 사탕풀이예요. 돌콩, 새콩, 길짱구, 닭개비, 능쟁이, 고마리, 들깨풀, 길가와 밭뚝같은데 많은 한삼덩굴, 털가막사리, 깜또라지, 쑥, 쑥만 해도 참쑥, 물쑥, 사철쑥… 정말 다 꼽자면 끝이 없어요. 좀 부지런하면 얼마든지 먹고살수 있는데 앉아서 굶다니 말이 돼요?》
벙벙해서 그걸 듣고있던 넷째가 말했습니다.
《그러니 풀이란 풀은 다 먹을수 있구나.》
《아니, 그런것도 아니예요. 한 이파리만 먹어도 당장 죽는 독풀도 있으니까요. 독미나리, 박새풀, 독뿌리풀, 독말풀… 그런 풀들은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해요.》
다섯째는 그 독풀에 대해선 생긴 모양까지 똑똑히 말해주었습니다.
머리를 끄덕이며 듣던 넷째가 물었습니다.

《다섯째야, 너희들은 어떻게 그걸 다 아니?》

《하루이틀에 배운게 아니예요. 우리는 바람부는 날이나 비오는 날이나 엄마를 따라 산으로, 들로, 개울가로 다니며 먹이를 해왔어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배우게 되였지요. 이젠 겨울이 닥쳐와도 끄떡없어요. 미리 겨울나이먹이를 다 마련해놓으니까요. 오늘도 이렇게 낫을 차고 풀을 베러 왔답니다.》

다섯째는 허리에 찬 낫을 내보였습니다. 둘러보니 모두가 다 그런 꼬부라진 물건을 허리에 차고있었습니다.

넷째는 그들이 가리키는 풀을 호물호물 먹어보았습니다. 칡순도 먹어보고 싸리순도 먹어보았습니다. 모두 별맛이였습니다.

배가 부른 넷째는 첫째에게 말했습니다.

《형, 밤이 되면 춥고 무서워요. 날 어서 데려가주어요.》

《걱정말아. 우리가 왜 너를 데리고가지 않겠니.》

토끼형제들은 곧 풀을 베여가지고 넷째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8

산기슭에 하얀 집이 있었습니다. 여러칸으로 된 멋진 집이였습니다. 첫째가 먼저 달려가 안에다 대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서 나오세요. 나와서 누가 왔나 보세요.》

엄지토끼가 안에서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는 어린 새끼들을 품고있었던것입니다. 첫째네 밑으로 벌써 세배째 낳은 새끼들이였습니다.

밖으로 나온 엄지토끼는 류별나게 덩지가 큰 넷째를 보더니 영문을 몰라 눈만 껌벅거렸습니다.

새끼들이 말을 해서야 사연을 안 그는 두팔을 벌리며 말했습니다.

《넷째야, 어서 이리 오너라!》

넷째도 역시 그자리에 서서 엄지에게 다가갈 생각을 안했습니다.

첫째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넷째야, 어머니다. 어서 인사드려라.》
넷째는 주춤 뒤로 물러서며 머리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라고요? 아니예요. 나는 재빛인데 저분은 왜 털빛이 하얀가요?》
그러자 엄지토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넷째야, 너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닮았단다. 아버지가 재빛이였단다. 너처럼 코등에 흰줄이 가고 멋진 귀를 가진 훌륭한분이였어. 넌 꼭 아버지를 닮았어. 이상하게도 너의 형제들가운데 아버지를 닮은건 너 하나뿐이구나.》
그제야 넷째는 《엄마!》하고 부르며 그에게 안겼습니다.
토끼형제들은 자기들이 베여가지고온 먹이풀가운데서 제일 맛있는것으로 한줌씩 엄지에게 주었습니다. 넷째도 역시 그들이 하는것처럼 만문한 칡순을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엄지토끼가 그걸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고맙다. 그런데 넷째야, 너를 키워준 호박아주머닌 어떻게 되였느냐?》
《그건 몰라요. 나도 죽을번 하다가 여기로 왔으니까요.》
엄지토끼의 낯빛이 대번에 달라졌습니다.
《넷째야, 넌 너무나도 고이 자라다보니 의리마저 모르는구나. 마땅히 호박아주머니생각부터 했어야지. 어서 나랑 같이 가보자. 나도 그에게 인사를 해야겠다.》
엄지토끼는 넷째가 다문 하루이틀이라도 쉬고서 갔으면 하는 기색이였으나 그날로 길을 떠났습니다.

9

그들이 가보니 호박아주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른 떡잎과 가느다란 줄기만이 흔적으로 남아있었습니다.
넷째는 땅에 볼을 비비며 울음을 터치였습니다.

《호박아주머니, 이게 어찌된 일이나요? 내가 잘못했어요. 어서 살아나세요! 어서 살아나세요!》
그는 아직 한번도 호박아주머니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부드럽게 들려오는 말소리만 들으며 자랐습니다.
이렇게 되고보니 단 한번이라도 호박아주머니를 보고싶었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그 목소리도 다시 듣고싶었습니다.
넷째는 소리내여 울고 또 울었습니다.
엄지토끼도 눈물을 훔치였습니다.
그들이 오래동안 울며 흐느끼고있는데 날아가던 칼새가 머리우에서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당신들은 왜 그리 슬피슬피 우시나요? 그렇게 슬퍼할 일이면 왜 호박아주머니가 넘어져있을 때 제때에 일으켜세우고 부축해드리지 못했나요. 하지만 호박아주머니는 아주 세상을 떠나가버린게 아니예요. 씨를 남겼거든요. 그는 넷째가 들어있는 호박을 내놓고도 자그마한 종자호박 한개만은 남겨놓았댔어요. 그 씨를 찾아서 땅에 심으면 다시 호박아주머니의 모습을 보게 될거예요.》
《그게 정말이냐?》
그들은 울음을 그치고 새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종자호박이 지금 어데 있니?》
엄지토끼가 물었습니다.
《소문을 들으니 그날 메돼지가 다시 와서 따갔다고 해요.》
《그럼 그 게걸쟁이 메돼지가 다 먹어치우지 않았을가? 그리고 메돼지는 성질이 사납다는데.》
엄지토끼는 어떻게 해야 할지 결심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날은 이미 어두워지고있었습니다.
그때 넷째가 눈물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메돼지는 전번에 나를 놓아주었어요. 그러니 잡아먹진 않을거예요. 어서 찾아가보자요.》
엄지토끼는 그러는 넷째가 대견스러웠습니다.
그는 넷째를 데리고 메돼지를 찾아떠났습니다.

10

엄지를 따라 메돼지굴앞에 이른 넷째가 안에 대고 말했습니다.

《메돼지아저씨 계시나요? 이 아근에서 제일 힘세기로 소문난 메돼지아저씨!》

그는 메돼지의 기분을 거슬리게 하지 않으려고 조심히 불렀습니다.

《저녁을 먹는데 누가 찾아왔어?》

굴속에서 메돼지가 입을 쩝쩝 다시며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나예요. 전번에 아저씨가 살려준 토끼예요. 그 은혜를 잊지 않겠어요.》

그 소리에 메돼지는 눈을 껌벅거리며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응, 너 왕토끼가 틀림없구나. 그래 나한테 그 인사를 하러 왔니?》

《그래요. 그리고 한가지 부탁도 하러 왔어요.》

《부탁? 나한테 무슨 부탁을 할게 있겠나. 들어줄수 있는거라면 들어주겠다.》

메돼지는 기분이 좋은지 어깨를 으쓱해보였습니다.

《아저씨가 종자호박을 따왔다는게 사실이예요?》

《사실이지. 그건 조막만하게 작은것이였어. 그렇지만 너무나도 꿀처럼 달아서 한입에 다 먹어치웠지.》

넷째도 엄지토끼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씨도 남기지 않았나요?》

넷째가 마음을 다잡고 다시 물었습니다.

《씨라니? 이상스레 그건 씨가 없는 호박이였어. 그런 호박은 보다 처음인걸.》

《씨가 없다니요?》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아 이번엔 뒤에 서있던 엄지토끼가 물었습니다.

《아니 자넨 누군가?》

그제야 엄지토끼를 본 메돼지가 그에게로 머리를 돌렸습니다.

《난 이애 어미예요. 늦게나마 인사를 드려요.》

엄지토끼는 머리를 숙여보였습니다.

《허허, 어미가 새끼보다 작구만. 그건 그렇고. 어쨌든 그 호박은 씨가 없었어. 다만 딱딱한 돌같은게 하나 씹히길래 풀숲에 던져버렸지.》

《혹시 그게 씨가 아닐가요?》

《속시원히 보고싶으면 찾아보라구.》

엄지토끼와 넷째는 그가 가리키는 풀숲을 샅샅이 뒤져보았습니다.

어둠속에서 노란것이 반짝거렸습니다. 그것은 호박씨였습니다.

호박아주머니는 넷째를 키우느라 호박씨도 한개만을 품었던것입니다.

넷째는 그 호박씨를 가지고 엄지를 따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1

다음해 봄, 넷째는 마당앞의 양지바른 곳에 호박씨를 묻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루도 거기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땅이 마를세라 물도 가끔 주고 꿩이나 들쥐가 파갈가봐 울바자도 촘촘히 둘러놓았습니다.

어느날 아침이였습니다.

넷째의 귀에 조용하면서도 부드러운 노래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어머니 날 키울 때
몹시도 고생을 하셨지
아 고생을 하셨지

그 목소리는 호박어머니의 목소리같았습니다.

넷째는 마당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드디여 땅을 뚫고 호박이 불쑥 솟아올랐습니다.

넓은 잎과 약한 줄기 그리고 나무가지를 잡아쥐려고 펼쳐든 가느다란 손, 그걸 보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넷째는 그가 바로 호박어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몸으로 나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가. 꽃이 피면 열매가 맺힌다는데 나 하나를 위해 그 열매를 다 떨구고 씨앗도 단 하나밖에 맺지 못했구나!

그런데도 나는 먹을걸 많이 달라 투정질하고 편안치 않다고 타발했구나!

아, 어머니! 나를 낳아준 엄마도 고맙지만 키워준 엄마가 더 고마와요. 어머니!》

넷째는 눈물을 흘리며 호박의 잎과 줄기에 얼굴을 비볐습니다.

그러자 호박이 말했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나는 어머니가 아니예요. 모습은 같을수 있으나 나는 그의 딸이예요.》

《어머니가 아니라니?!》

넷째는 잠시 어안이 벙벙해서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럼 나를 키워준 어머니는 다시 볼수 없단 말인가요. 아! 효도를 해야 할 순간을 놓치니 이렇게 다시 돌이킬수 없는 죄를 짓는구나. 어머니! 어머니!》

울음섞인 그의 목소리는 산으로, 들로, 하늘로 울려갔습니다.

주체89(2000)년

동 화

금 빛 말

배 선 양

어느 건설자아빠트에 마룡이라는 젊은이가 살고있었습니다.

얼마전 중학교를 졸업한 그는 한뉘 건설자로 살아온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건설자가 되였습니다.

마룡이의 가슴속엔 전후 재더미속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수많은 공장과 도시를 일떠세운 할아버지처럼 이 땅우에 만년대계의 건축물을 일떠세울 크나큰 꿈이 간직되여있었습니다.

청년돌격대원이 된 마룡이가 북부지방에 일떠서는 발전소건설장으로 떠나는 날 아침이였습니다.

손자를 바래주러 나온 할아버지의 손엔 자그마한 함이 들려있었습니다.

빨간 천에 정히 싸서 가보처럼 소중히 간수하는 보물함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속에서 별의별 신기한것이 다 나온다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 마룡이는 보물함속에서 정말 무엇이 나오는가 보고싶어 할아버지 몰래 꺼내본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동화책에서처럼 안개가 풀썩 일면서 그림책이랑 만년필이며 사탕과자가 쏟아져나올지도 몰라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조심히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신기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함속에는 천리마휘장 두개가 있었을뿐입니다.

할아버지는 그 천리마휘장을 받아안게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마룡이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부강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 밤낮이 따로없이 땀흘려 일하던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말입니다.
마룡이는 바로 오늘을 위해 천리마휘장을 앞가슴에 번쩍이며 세월을 주름잡아 달려온 할아버지를 더욱 존경하고 따르게 되였습니다.
《이 보물함을 네가 가지고가거라.》
할아버지는 마룡의 손에 함을 들려주며 말했습니다.
《예. 할아버지, 저도 천리마를 타고 한번 본때있게 일하겠어요.》
마룡이는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렴 그래야지. 그래야 하구말구. 우리 가문의 맏손자인데 어련할라구.》
할아버지는 마룡의 잔등을 정답게 쓸어주면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못지 않게 사회주의건설장에서 위훈을 세우고 떳떳하게 돌아오거라. 자, 그럼 천리마야, 오늘은 우리 마룡이를 태우고 힘껏 날아다오.》
순간 보물함이 드르릉! 웅글은 소리를 내는것이였습니다.
《응?!…》
의아해진 마룡이는 눈을 크게 뜨고 보물함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뚜껑이 들썩들썩 저절로 열리는가싶더니 눈부신 금빛이 번쩍했습니다.
난데없이 휘—익 바람이 일었습니다. 오호홍 말울음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더니만 말 한필이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일이 눈 한번 깜짝할 동안에 벌어져 마치 꿈을 꾸는것만 같았습니다.
눈을 비비고 살펴보니 온통 시누런 빛이 번쩍거리는 금빛말이였습니다.
영채가 도는 두눈에선 눈부신 빛이 쭉쭉 내뻗치였습니다.

우람찬 체구를 떠받든 무쇠발굽아래 딛고선 땅이 막 흔들흔들했습니다.

《야, 준마다!》

마룡이의 입에서는 저도모르게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너무 기뻐 할아버지는 금빛말의 탐스러운 갈기를 어루쓸어주었습니다.

《보물함에서 금빛말이 태여났구나. 이 금빛말을 타고가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고 무서울게 없을거다. 이젠 어서 떠나거라.》

《알겠어요. 할아버지, 부디 앓지 마세요.》

허리를 굽혀 인사를 드린 마룡이는 날쌔게 금빛말에 올라탔습니다.

마룡이를 태운 금빛말은 땅을 차고 날아올랐습니다.

한걸음에 천리라더니 벌써 고향마을이 까마득히 내려다보였습니다.

목화송이같은 흰 구름이 발밑으로 뭉게뭉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일가요?

갑자기 마룡이는 속이 메슥메슥해졌습니다.

배멀미를 할 때처럼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막 잡아 휘두르는것 같았습니다.

나비인지 별찌인지 눈앞에서 오락가락하더니 온통 먹물속처럼 새까매졌습니다.

몸이 허궁 들리는듯 하더니 금빛말에서 허양 떨어져내렸습니다.

마룡이는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금빛말의 울음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습니다.

《아! 할아버지, 난 왜 금빛말에서 떨어졌을가요?…》

마룡이는 차츰 정신이 들자 떠나올 때 할아버지가 하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금빛말은 자기와 함께 먼길을 갈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떨구어버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난 아직 금빛말을 탈 자격이 없는 모양이구나!)
마룡이가 이런 생각을 하고있는데 뗑뗑 돌을 쫏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웅성웅성 사람들의 말소리도 들렸습니다.
어딘지 알수 없는 캄캄한 곳이였습니다.
《여긴 도대체 어딥니까? 당신들은 누굽니까?》
몸이 다부지게 생긴 사람이 마룡이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긴 굴속이요. 우린 탄을 캐는 사람들인데 난 소대장이요.》
마룡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필이면 이런데 들어올건 뭐람.)
마룡이는 억이 막혀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채탄기를 옆에 두고도 일여덟명의 탄부들이 곡괭이로 쪼아내고 함마를 휘두르면서 탄을 캐고있었습니다.
캐낸 탄은 등짐으로 져날랐습니다.
《아니 좋은 기계를 두고 왜 손으로 탄을 캡니까?》
《태풍에 전주대가 날아나 전기가 들어오지 못한다오.》
《그래요. 그런데 밖으로 나가자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난 바쁜 사람입니다.》
《그냥은 캄캄해서 나갈수 없다오. 이 안전등을 켜고 가오.》
그러면서 소대장은 안전등을 마룡이의 가슴에다 달아주는것이였습니다.
《아니 안전등을 가슴에다 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심장의 열로 불을 켜는거라오.》
그러고보니 탄부들은 안전등을 모자가 아니라 가슴에 달고있었습니다.
그들의 안전등에선 밝은 불빛이 쭉쭉 내비치였습니다.
그런데 마룡이의 가슴에 단 안전등엔 불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젊은인 심장을 더 달구어야겠소. 이리 와서 함마질을 하오. 그럼 불이 켜질거요.》
소대장은 마룡이의 손에 함마자루를 쥐여주었습니다.

함마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마룡이는 저도모르게 비칠거렸습니다.

정대를 몇번 때리지 않았는데 숨이 차오르고 손바닥에 단박 물집이 생겼습니다.

얼마후 소대장은 휴식구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삶은 통강냉이를 몇알씩 나누어주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동무들, 산사태에 길이 막혀 식량은 언제 올지 모르게 됐소. 전기줄이 끊어져 착암기도 채탄기도 쓸수 없게 됐소. 하지만 우리는 맥을 놓고 가만 앉아있을수가 없소. 맨손이지만 석탄은 캐야 하오. 강성대국건설에 떨쳐나선 온 나라가 우릴 지켜보고있다는걸 명심하고 힘을 냅시다.》

소대장의 말이 떨어지자 《옳습니다. 우리앞에 맡겨진 탄을 다 캐기 전엔 절대루 푸른 하늘을 볼수 없습니다.》하고 모두 떨쳐일어났습니다.

마룡이는 저도모르게 눈굽이 달아올랐습니다.

(아, 정말 불보다 뜨거운 심장을 지닌 사람들이구나! 나도 이들처럼 살자!)

새힘이 솟은 마룡이는 함마를 휘둘러댔습니다.

천근같던 함마가 새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그러자 마룡이의 가슴에 단 안전등에 불이 왔습니다.

자동차불빛보다 더 환하게 길을 비치였습니다.

《젊은이, 이젠 됐소. 어서 나가보우.》

《고맙습니다. 저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어준 소대장동무를 잊지 않겠습니다.》

탄부들에게 인사를 남긴 마룡이는 심장의 불을 켜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디선가 금빛말이 달려와 마룡이를 태우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금빛말은 바람처럼 달렸습니다.

흰 구름이 휙휙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기차멀미를 할 때처럼 마룡이의 속이 또 메슥거렸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몸을 가누지 못하고 기우뚱거리던 마룡이는 또다시 어딘지 모를 곳으로 떨어져내렸습니다.
(아, 나는 금빛말을 탈수 없단 말인가?…)
얼마후 정신을 차려보니 어떤 강가였습니다.
와와 물이 사품쳐흐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가에는 마대를 가득 실은 자동차들이 서있는데 사람들이 한쪽에서 웃고떠들며 통나무로 떼목을 묶고있었습니다.
마룡이는 그들한테로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당신들은 누굽니까?》
《여긴 백호강기슭입니다. 우린 늘 봄, 가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한해에 열두번 심고 열두번 캐는 새 감자종자를 오늘로 꼭 심어야겠는데 큰물에 다리가 떠내려가서 건너갈수 없게 됐지요. 허허, 그렇다고 우리가 물러서겠소. 그래서 이렇게 떼목을 묶고있지요.》
그 사람은 밝게 웃으며 신심에 넘쳐 말했습니다.
《…강물을 건너간단 말입니까?! 이제 보니 당신들은 어려운 난관을 배짱과 웃음으로 뚫고나가는 사람들이구만요.》
마룡이는 팔을 걷고 그들을 도와나섰습니다.
그런데 떼를 묶던 한사람이 그만 발을 헛디뎌 강물에 빠졌습니다. 더 생각할 사이도 없이, 누가 말릴 사이도 없이 마룡이는 강물속으로 뛰여들었습니다. 간난신고끝에 마룡이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내고야말았습니다.
《낯모르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내대다니. 당신은 영웅이요!》
사람들은 마룡이를 얼싸안아주며 감동과 고마움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룡은 손을 흔들며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아, 이러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된건 다 당신들의 덕이요. 당신들이 나에게 힘을 주었기때문이지요.》
어느덧 떼목이 무어져 자동차와 감자종자를 싣고 강을 건너갔습

니다.
마룡이는 물에 뛰여들어 떼목을 밀고 건너갔습니다.
《하하!》
호탕하게 소리내여 웃으니 힘이 절로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은 마룡이의 두손을 맞잡고 놓을줄 몰랐습니다.
《우리를 위해 바친 젊은이의 수고를 잊지 않겠소. 잘 가시오.》
《그럼 감자농사를 잘 지어 온 나라에 행복의 웃음꽃 활짝 피워주십시오.》
그들과 헤여진 마룡이가 몇걸음 옮길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오호홍!》하더니 금빛말이 달려왔습니다. 마룡이를 본 금빛말은 너무 기뻐 한길씩 뛰여올랐습니다. 반갑게 금빛말의 머리를 쓸어준 마룡이는 다시 올라탔습니다.
이젠 떨어지지 말자고 갈기를 꽉 붙잡았습니다. 금빛말은 네굽을 안고 하늘을 날아올랐습니다.
발밑으로 구름이 언뜻언뜻 지나갔습니다. 그야말로 금빛말은 질풍같이 내달았습니다.
마룡이는 차멀미를 할 때처럼 어지럼증이 나서 견딜수 없었습니다.
정신이 아찔해진 마룡이는 끝내 어딘지 모를 곳으로 떨어지고말았습니다.
(아, 나는 정말 금빛말의 주인이 될수 없단 말인가?…)
얼마후 마룡이가 정신을 차려보니 으리으리한 무슨 공장같은데 와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사방 벽마다 콤퓨터들과 계기들이 웅웅거리고 빨간불, 파란 불이 번쩍거렸습니다.
레시바를 낀 사람들이 마주앉아 단추들을 누르고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당신들은 누굽니까?》
마룡이가 이렇게 물었으나 누구도 들은체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어딘가 말입니다. 당신들은 누군가 말입니다.》

좀더 큰소리로 다시 물었으나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응? 모두 귀머거리들인가요?》

중얼거리는 마룡이곁으로 별나게 생긴 거인이 다가왔습니다.

《아,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아마 문지기인것 같았습니다.

《날 빨리 밖으로 내보내주시오.》

《젊은인 성미가 급하군요. 나가는 문은 당신이 열어야 합니다.》

《예?》

《날 따라오십시오.》

로보트는 마룡이를 데리고 어느 한 책상앞으로 갔습니다.

《여긴 모두 콤퓨터화된 과학의 전당입니다. 여기서 현대화의 노래가 방방곡곡으로 울려가구 밝은 빛 뿌리는 별을 만들어 우주에 올려띄운답니다.》

《그래요?!》

《어서 당신 손으로 프로그람을 짜서 문을 열고 나가시오. 알아둘건 여기선 힘내기나 입말은 일체 통하지 않는다는것입니다.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만이 여기서 나갈수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말한 로보트는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마룡이가 마주앉은 책상우에는 별의별 책들이 키를 넘게 쌓여있었습니다.

반도체집적회로 등 전자공학책들을 비롯한 과학책이란 과학책은 다 있는것 같았습니다.

마룡이는 머리를 싸매고 책장을 번지였습니다.

졸음이 오면 찬물로 세면을 하고 또 읽었습니다. 몇밤을 새웠는지 며칠이 지나갔는지 알수 없었습니다.

산더미같은 책을 다 읽고나니 세상에 모를것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마룡이는 나가는 문을 열라는 프로그람을 콤퓨터에 넣고 단추를

눌렀습니다.

붕!—하고 천정이 들리는듯 하더니 마룡이는 어느새 허궁 떠올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디선가 날아온 금빛의 릉름한 준마가 마룡이가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제꺽 받아 태우더니 씽— 날아올랐습니다.

어느결에 쌍날개를 활짝 펼친 금빛말은 기세좋게 푸른 하늘로 솟구쳐올랐습니다.

마치 번개처럼 번쩍번쩍 날아갔습니다.

다시 떨어지지 않으려고 마룡이는 금빛말의 잔등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또 아찔해지면 어찌겠습니까.

그런데 웬일인지 정신은 점점 맑아졌습니다.

온몸엔 새힘이 용솟음쳤습니다.

발밑을 굽어보니 금빛준마가 지나온 뒤로 드넓은 도로가 따라서고 멋지게 생긴 공장건물들과 고층살림집들이 숲처럼 일떠섰습니다.

언제가 일떠서고 철탑들이 치솟았으며 송전선들이 길길이 뻗어나갔습니다.

물이 있는 곳마다엔 크고작은 발전소가 생겨났습니다.

전기온돌방들에 전기로 밥을 짓는 굴뚝없는 새 마을이 곳곳마다 그림처럼 펼쳐졌습니다.

금빛말은 마룡이의 꿈을 눈앞에 펼쳐놓으며 날고 또 날았습니다.

《할아버지, 기뻐하세요. 이 손자도 이젠 금빛준마의 당당한 기수가 되였어요!》

금빛준마를 타고 번개처럼 내달리는 마룡이의 가슴은 마냥 부풀어올랐습니다.

주체90(2001)년

동 화

푸 푸 장 수

전 대 화

세상에 별난 장수가 다 있지요.

푸푸장수라니요.

옛날에 그런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 장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테니 잘 들어보세요.

동해바다가 어느 한 마을에 억철이라는 젊은이가 어머니와 함께 살고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름난 장수였는데 나라에 기여든 오랑캐놈들과의 싸움에서 련속 공훈을 세우다가 애석하게도 장렬히 희생되였습니다.

아버지의 장검을 물려받자 억철이는 그달음으로 싸움터에 달려나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원쑤에 대한 적개심이 끓어번졌습니다.

그는 싸움마다 적들을 삼대 쓸어눕히듯 하며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적장수놈과 맞다들었던 그는 불행하게도 그만 적의 칼에 맞아 오른팔을 잃게 되였습니다.

집안에 앉아 멍하니 벽에 걸린 장검을 바라보는 억철이의 가슴은 미여지는듯 아팠습니다.

아버지의 넋이 깃든 장검은 자기를 원망스레 바라보며 원쑤를 갚으러 나가겠다고 몸부림치는것만 같았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가만 앉아있다니 될말인가. 나라를 지키느냐 빼앗기느냐 하는 이 준엄한 시각에…)

맥을 놓고 주저앉은 자신을 깨달은 억철이는 언뜻 놀라며 자리를 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는 왼손으로 장검을 잡았습니다.

(그렇다. 나에겐 아직도 이 왼팔이 남아있지 않는가. 심장이 뛰는 한 이 손에서 절대로 장검을 놓지 않으리라.)

이런 각오를 굳게 다진 억철이는 그날부터 왼손으로 무술훈련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원쑤를 갚을 일념으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땀을 흘렸습니다.

그리하여 억철이는 원쑤놈들이 말만 들어도 벌벌떠는 《외팔장수》가 되였습니다.

외팔장수가 나타나는 곳마다에서는 적들이 무리죽음을 당하군 하였습니다.

어느날이였습니다.

그날도 고향마을 앞둔덕에서는 쳐들어오는 적들과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놈들의 뒤에서 거만하게 팔짱을 끼고 싸움이 벌어지는 전장을 바라보던 적장놈은 《엉?》하더니 칼을 쭉 뽑아들었습니다.

제놈의 병졸들은 물론 장수들까지 외팔장수의 칼에 맞아 쓰러지는것을 보자 악이 받쳤던것입니다.

억철이는 달려드는 적장놈과 예리한 칼날을 맞부딪치며 결사적으로 싸웠습니다.

쟁강, 쟁강, 서리발 칼날이 맞부딪치며 아츠러운 소리를 냈습니다.

이렇게 싸우기를 수십번… 억철이는 그만 뒤에서 달려드는 놈의 칼에 맞아 왼팔마저 잃고말았습니다.

적장놈은 피흘리며 쓰러져 몸부림치는 억철이를 내려다보며 너털웃음을 쳤습니다.

《으흐… 으하하, 네놈은 이젠 산송장이나 같다. 어디 실컷 고통을 받다가 죽어봐.》

적장놈은 이렇게 지껄이고 비웃다가 사라졌습니다.

억철이는 군사들의 부축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으나 가슴은 천갈

래, 만갈래로 찢어지는것 같았습니다.

(아, 이젠 어쩌면 좋나. …)

억철이는 너무도 억이 막혀 몸부림쳤습니다.

심장이 뛰는 한 손에서 검을 놓지 말자고 했는데 이렇게 되였으니 마음이 더 쓰리고 아팠습니다.

억철이는 나무기둥에 머리를 짓쪼으며 몸부림쳤습니다.

그의 눈치를 알아챘는지 어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그의 옷자락을 당겼습니다.

《얘야, 그만 속태우고 들어가 저녁이나 먹자.》

그 말에 억철이는 그만 몸을 떨었습니다.

하루세끼 밥을 먹을 때가 제일 괴로왔습니다.

어린 아기처럼 어머니가 떠먹여주는 밥을 받아먹을 때마다 피눈물과 함께 밥을 넘겼습니다.

한숟가락, 두숟가락…

밥을 받아먹던 억철이는 그만 어머니의 품에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쓸모없이 된 이 아들은 차라리, 차라리 죽는것만 못하오이다. 하루이틀도 아닌 이 시중을 늙으신 어머님이 어떻게 드시겠습니까. 아—》

억철이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섧게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옷고름으로 눈물을 훔치더니 정색해서 말했습니다.

《네가 이렇게 주저앉으면 좋아할건 원쑤놈들뿐이다.》

《예?!》

순간 억철이는 실컷 고통을 받다가 죽어보라고 비웃던 적장놈의 징그러운 몰골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예로부터 훌륭한 장수는 손끝으로 싸우는게 아니라 머리로 싸우고 심장으로 싸운다 했거늘 너에겐 비록 두팔은 없어도 총명한 머리와 뜨거운 심장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네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싸울 방법이 생길수 있느니라.》

진정이 넘치는 어머니의 타이름을 들은 억철이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정말 그렇구나. 그런데 난 맥을 놓고 주저앉다니…
내 가슴에 피가 끓고 심장이 뛰는 한 싸움을 멈추지 않으리라.
기어이 원쑤를 갚으리라.)
이날부터 억철이는 어떻게 하면 원쑤놈들과 싸울수 있을가 하는 생각으로 모대기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원쑤를 치고 나라를 지키는 싸움에 이바지할수 있을가?)
억철이는 노상 이런 생각에 잠겨있었습니다.
어느날 억철이는 대문밖을 나섰습니다.
그의 집앞으로는 약초밭이 펼쳐져있었습니다.
이 약초들은 싸움터에서 상한 사람들의 상처를 치료하는데 특효약이였습니다.
억철이는 약초밭에 집짐승이 들어가서 못쓰게 하는 일이 없도록 지키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것도 원쑤놈들과 싸우는것이라고 느껴져서였습니다.
약초밭을 돌아보던 억철이는 눈이 둥그래졌습니다.
푸르싱싱 자라는 약초잎들에 웬 이름모를 털벌레들이 달라붙어 야금야금 먹어대는것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쩌겠습니까.
손이 있으면 털벌레를 잡아죽일텐데 손이 없으니 어쩔수 없었습니다.
공연히 사방을 둘러보며 안절부절 못하였지만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털벌레는 그런 사정을 다 알고 놀리기나 하듯이 마음놓고 약초를 갉아먹었습니다.
억철이는 저도모르게 입을 가까이 대고 《푸-》하고 바람을 불었습니다.
털벌레 한마리가 바람에 날려 땅에 떨어졌습니다.
억철이는 그것을 발로 짓뭉갰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다른 벌레를 《푸-》하고 불어서 떨구었습니다.
《푸-》, 《푸-》억철이는 온종일 입바람을 불며 벌레잡이를 했습니다.

억철이는 이렇게라도 약초를 가꿀수 있는것이 기뻤습니다.
싸우는 고향사람들을 조금이나마 도울수 있는것이 기뻤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군사들에게 대접할 밥을 짓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궁에서 불이 잘 피지 않아 연기가 가득찼습니다.
어머니는 불을 살리려고 계속 입바람을 들이댔지만 연기가 지꿎게 쓸어나왔습니다.
《어머니, 내가 좀 불어보자요.》
아궁앞에 다가앉은 억철이는 고개를 숙이고 입바람을 《푸－》하고 불었습니다.
그러자 곧 불길이 확 일었습니다.
몇번 부니 불길이 황황 소리를 내며 솟아올랐습니다.
《호호호, 네 입바람이 풍구 맞잡이로구나.》
그때부터 억철이는 어머니가 밥을 지을 때마다 불을 피웠습니다.
푸푸－ 입바람을 불며 불을 피워 군사들에게 대접할 밥을 지었습니다.
하루에 몇가마씩 짓는 밥을 이렇게 불어 불을 피우며 돕다나니 이제는 입바람이 엄청나게 세여졌습니다.
어느날 야장간앞을 지나가던 억철이는 야장간할아버지가 근심에 싸여 앉아있는것을 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오랑캐놈들이 야장간을 짓뭉개고 풍구를 깨버렸으니 어떻게 쇠를 달구어 창과 칼을 벼리겠나.》
할아버지는 걱정이 컸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억철이가 야장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숯불을 피우고 풍구질을 해야겠는데 정말 풍구가 깨져서 일을 못할 형편이였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입으로 불어보겠습니다.》
억철이가 이렇게 나오자 할아버지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입바람으로 불어가지구야 어떻게 쇠를 달구어 칼을 벼리겠나?》

할아버지는 어처구니없는 소리 그만하라는듯 한숨을 지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한번 해봅시다.》
억철이는 입바람으로 숯불을 푸푸— 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세찬 바람이 일며 숯불이 황황 타올랐습니다.
《허허허, 자네가 풍구보다 나으면 나았지 못하지는 않겠네 그려.》
할아버지가 감탄하며 기뻐서 하는 말이였습니다.
뚝딱, 뚝딱 할아버지는 창과 칼을 벼렸습니다.
일감이 생기니 생활이 더욱 흥겹게만 느껴졌습니다.
야장간에서는 《푸—》, 《푸—》하는 억철이의 입바람소리가 가락맞게 들렸습니다.
뜨거운 불앞에서 입바람을 계속 불자니 온몸이 달아올라 얼굴에는 땀이 비오듯 하였습니다.
《좀 쉬였다 하세.》
야장간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하며 손수건으로 억철이의 얼굴을 씻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억철이는 자기가 불을 피워 달구는 쇠붙이로 창과 칼을 만들어 싸우는 군사들에게 보낸다고 생각하니 조금도 힘든줄 몰랐습니다.
《괜찮아요. 어서 일하자요.》
억철이는 다시 숯불앞에 다가섰습니다.
이때 밖에서 누군가 《오랑캐놈들이 쳐들어왔다.》 하고 다급히 웨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너도나도 창과 칼을 들고 싸움터로 달려나갔습니다.
문밖으로 뛰여나온 억철이는 싸움터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안타깝게 모대기였습니다.
(늙은이며 아이들까지 다 싸움에 떨쳐나서는데 두팔없는 나혼자만 남았구나. 아, 하늘도 무심하구나.)
억철이는 너무도 원통하였으나 어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막 안타까와 타드는 입술만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이때 등뒤에서 녀인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상심마세요.》
억철이가 얼핏 돌아보니 보름달처럼 환하고 몸매가 날씬한 아릿다운 처녀가 수집게 웃으며 서있었습니다.
《저… 누구신지?》
《놀라지 마세요. 저는 약초꽃속에서 나온 꽃녀예요. 이 약열매를 억철장수님께 드리려고 왔어요.》
약초꽃녀는 두손에 도토리알만한 빨간 약열매 한알을 받쳐주었습니다.
《우리 약초꽃들을 정성껏 돌봐주어 고마와요.
우린 원쑤갚을 생각으로 안타까이 모대기는 억철장수님을 돕자고 했어요. 이 약열매를 잡수시면 입바람이 한결 더 세질거예요.》
《아, 그렇소.》
억철이는 놀라움과 반가움에 휩싸여 약초꽃녀가 권하는 약열매를 먹고 입바람을 불어보았습니다.
아, 그랬더니 이걸 보세요.
그의 입에서는 사나운 입바람이 불어나오며 흙먼지가 뽀얗게 일어났습니다.
그의 입바람이 얼마나 센지 주먹보다 더 큰 돌들이 씽씽 멀리멀리 날아나고 앞에 있던 큰 나무들이 뿌리채 뽑혀 나가넘어졌습니다.
《야, 됐다. 나도 이젠 싸울수 있다!》
기쁨에 넘쳐 싸움터가 있는 산등성이에 오르던 억철이는 제일먼저 놈들과 맞다들었습니다.
앞장서 쳐들어오던 적장놈은 억철이를 보자 《저 두팔없는 송장같은 놈이 아직도 살아있었구나. 야, 저놈은 나무토막 한가지야. 저놈의 모가지부터 뎅겅 해치우자.》고 지껄이며 달려들었습니다.
《이놈들, 어디 덤벼봐라. 한놈도 용서치 않을테다.》
억철이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웨치며 적장놈과 졸병놈들을 노려보다가 놈들이 가까이 오자 《푸―》하고 입바람을 힘껏 불었습니다.

그러자 적장놈과 그곁에 있던 놈들이 《악》하고 비명을 지르며 세찬 바람에 날려가는 가랑잎처럼 하늘높이 떠올랐다가 저 멀리에 떨어져 디굴디굴 굴었습니다.

뜻밖에 봉변을 당한 적장놈은 악에 받쳐 일어나더니 《야, 저놈에게 화살벼락을 안겨라.》고 호통쳤습니다.

이어 놈들이 쏘아대는 화살이 비발치듯 날아왔습니다.

그러나 날아오던 화살들은 억철이의 드세찬 입바람에 부딪쳐 되돌아 날아가 놈들의 머리우에 떨어졌습니다.

억철이는 맞받아 달려나가며 《푸ㅡ》,《푸ㅡ》입바람을 드세차게 불어댔습니다.

그때마다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돌멩이와 나무토막들이 윙윙 날아가 놈들의 정통을 후려쳤습니다.

원쑤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당황한 놈들은 혼쌀이 나서 도망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군사들은 환성을 올리며 적들을 따라가 족쳤습니다.

적들을 다 쫓아내고 돌아오는 마을사람들은 억철이가 《푸푸장수》가 되였다고 여간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억철이의 마음은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

적들이 다 도망가고 죽은 놈은 몇이 안되였습니다.

살아서 도망친 놈들이니 어느때건 다시 쳐들어올것은 뻔하였습니다.

억철이의 눈앞에는 적장놈이 퇴각을 하면서도 《어디 두고보자.》고 하며 이발을 부드득 갈던 몰골이 선히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원쑤놈들이 다시는 내 고향에 기여들지 못하게 모조리 쳐부실수 있을가?)

억철이는 이런 생각에 잠겨 모대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바다가에 고기잡이를 나갔던 어부들이 불길한 소식을 안고 왔습니다.

전번에 푸푸장수에게서 혼쌀이 난 적들이 어두운 밤을 리용하여 마을을 불의에 습격하여 집들을 모조리 불태우고 사람들을 다 죽이자고 악에 받쳐 고아대면서 쳐들어온다는것이였습니다.

《어쨌으면 좋겠느냐?》
좌상할아버지는 젊은이들에게 의견을 말해보라고 하였습니다.
《바다가에 나가 매복하고있다가 놈들이 배에서 내릴 때 족칩시다.》
《그럽시다.》
이때 억철이가 한발 나서며 말했습니다.
《놈들이 우리 땅을 한발자국도 밟게 해서는 안됩니다. 제가 오늘밤에 배를 타고 맞받아나가 놈들을 모조리 바다속에 처넣겠습니다.》
《그건 위험하네. 살아서 돌아오기 어려운 일일세.》
좌상할아버지가 하는 말이였습니다.
《알고있습니다. 저는 한목숨바쳐 심장이 뛰는 마지막순간까지 싸울 결심입니다. 저에게 용감하고 날랜 배사공 두명만 붙여주십시오.》
한참 깊은 생각에 잠겼던 좌상할아버지는 드디여 결심을 내렸습니다.
《좋아. 떠나라구. 하지만 꼭 살아서 돌아와야 하네.》
좌상할아버지는 두팔로 억철이를 힘껏 그러안았습니다.
어두운 달밤, 억철이는 두 배사공과 함께 놈들이 둥지를 틀고있는 섬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시꺼먼 바다물이 세찬 파도를 일으키며 금시 배를 삼켜버릴듯 요동을 쳤습니다.
그러나 세찬 파도도 기어이 원쑤들을 쳐부시려는 그들의 굳은 의지를 꺾지 못하였습니다.
저 멀리 적정을 살펴보니 놈들의 배가 새까맣게 밀려오고있었습니다.
억철이는 놈들을 넓은 바다 한가운데서 족치리라 결심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둠을 리용하여 놈들가까이까지 접근하였습니다.
놈들의 선두배가 코앞에까지 다가온 순간 억철이는 《푸―》하고 입바람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놈들의 배가 뒤집히며 물에 꼴깍 잠겼습니다.
갑자기 습격을 당한 놈들은 《푸푸장수》가 나타났다고 아우성을 치며 배머리를 돌렸습니다.
억철이는 도망치는 놈들의 배를 재빨리 따라가며 드세찬 입바람

을 불어댔습니다.

그때마다 놈들의 배가 발딱발딱 뒤집히며 깊은 바다물속에 처박혔습니다.

질겁한 놈들은 제가끔 배머리를 돌리다가 서로 부딪치고 깨지며 큰 혼란이 일어나 아우성쳤습니다.

이때 뒤에 있던 집채같이 큰 배에서 우두머리인듯한 놈이 《야, 이 바보같은 놈들아, 도망치지 말고 맞받아싸우라.》고 호통쳤습니다.

적장놈이였습니다.

《이놈, 잘 만났다. 오늘은 네놈과 기어이 결판을 내리라.》

억철이는 비장한 결심을 품고 적장놈이 탄 배에 다가가 드세찬 입바람을 불었습니다.

그러나 그놈의 배는 억철이의 입바람따위는 어림도 없다는듯 끄떡도 안했습니다.

그러자 적장놈은 통쾌하다는듯 《으흐, 으하하.》하고 너털웃음을 쳤습니다.

이글거리는 날카로운 눈으로 적장놈을 쏘아보던 억철이는 다시 그놈을 향해 《푸ㅡ》하고 입바람을 힘껏 불었습니다.

그러나 적장놈은 커다란 선실앞에 버티고서서 날아나지 않았습니다.

순간 억철이는 앞으로 내불던 입바람을 안으로 깊이 빨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악착한 적장놈은 입바람에 날아오면서도 칼을 휘둘렀습니다.

억철이는 적장놈이 코앞에 다가오기 전에 다시 힘껏 앞으로 내불었습니다.

그놈은 버둥거리며 날아가다가 돛대에 탁ㅡ 하고 부딪치더니 갑판우에 떨어졌습니다.

적장놈은 허리가 부러졌는지 끙끙 신음소리를 내며 비칠거리다가 너부러졌습니다.

제놈들의 우두머리가 죽는것을 본 적들은 질겁하여 도망쳤습니다.

억철이는 배사공들이 기름뭉치에 불을 달아 넘겨주는것을 계속 도망치는 놈들의 배에 날려보냈습니다.

그 불길은 이 배에서 저 배로 무섭게 번졌습니다.

넓은 바다는 완전히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들을 축하하듯 동녘하늘에 붉은 해님이 눈부신 빛을 뿌리며 두둥실 솟아올랐습니다.

아침노을을 바라보는 억철이와 배사공들의 얼굴이며 옷자락은 온통 불에 타고 검은 연기에 그슬렸지만 원쑤를 쳐부신 긍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가슴은 세차게 설레였습니다.

《억철이가 돌아온다!》

바다가에서 그들을 기다리던 마을사람들이 달려오며 환성을 올렸습니다.

배에서 내리는 억철이를 사람들은 목마에 태우고 춤을 추었습니다.

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억철아.》

《어머니.》

억철이는 기쁨과 감격에 북받쳐 두팔벌려 어머니의 품에 안기고 싶었지만 그럴수 없었습니다.

그러는 억철이를 어머니가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네가 정말 장한 일을 했구나. 예로부터 싸움은 팔다리로가 아니라 심장과 머리로 한다고 하더니 네가 바로 그렇게 했구나.》

어머니는 아들의 잔등을 쓰다듬으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억철이의 눈에도 눈물이 핑 고였습니다.

원쑤들의 침략으로부터 어머니와 고향마을을 지켜낸 기쁨의 눈물, 행복의 눈물이였습니다.

《심장이 뛰는 한 원쑤와 싸워이기겠다는 마음만 강하면 억철이처럼 언제나 방법이 생기는 법이거든.》

좌상할아버지가 마을사람들을 둘러보며 하는 말이였습니다.

주체90(2001)년

동 화

산과 강에 대한 이야기

황 령 아

1. 산은 강과 함께 태여났습니다

산과 강은 함께 태여났습니다. 산이 태여날 때 강도 태여났고 강이 태여날 때 산도 태여났습니다.

그러니 생김새는 생판 달라도 당당히 쌍둥이형제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산과 강은 쌍둥이처럼 한날한시에 꼭같이 태여났으면서도 다정하지 못했습니다. 늘쌍 다투기가 일쑤였답니다.

왜 다투는가구요? 그건 서로서로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기때문이였습니다. 즉 산은 강때문에, 강은 산때문에 말이예요. 이상하지요?

그러나 들어보면 그것도 그럴수 있겠다고 생각될거예요.

어느때인가—어쩌면 그리 먼 옛날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산에 불이 났습니다.

센 바람에 나무들이 서로 어깨를 부벼대다가 열이 나서 불이 일었는지 아니면 벼락이 마른 나무에 떨어져 불이 났는지 하여튼 불이 났습니다.

산에 불이 나는 바람에 글쎄 큰 나무고 작은 나무고 풀이고 죄다 타버렸습니다. 산은 벌거숭이가 되고말았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자 비가 조금만 와도 산에서는 흙이 씻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큰비가 내리면 흙사태가 일구요.

맑고맑던 강물은 뿌옇게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강이 산을 곱게 볼리가 없잖아요.

강은 뻘건 산만 쳐다보면 화가 나서 견딜수가 없었습니다. 막 행풀이라도 하고싶었어요.

그러나 또 산은 산대로 강을 곱게 보지 않았답니다. 강이 흘러가면서 자기의 기슭을 마구 파버리군 했으니까요.

비가 내려 강물이 조금 불어나기만 해도 그 물살에 산의 허리가 뭉청뭉청 패워나가군 하였습니다.

산은 안타까와서 견딜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다간 내가 몽땅 강물에 패워 떠내려가버리지 않을가? 강은 왜 이렇게 나를 못살게 굴가?)

산은 안타깝다못해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한쪽 쭉 펴인데없이 꼬불꼬불하게 생겨가지구 성미도 꼭 고 모양이야. 걸볼안이라더니…)

그 순간에도 강은 흘러가면서 산의 옆구리를 계속 파내가고있었습니다.

산은 더는 참고만 있을수 없었어요.

아무리 밉고 말하기 싫어도 말해야 했습니다.

가만있으면 자기 몸뚱이가 그대로 몽땅 강물에 패워 끝장이 날것만 같았으니까요.

《여보시오. 강아가씨, 좀 조심히 흘러가면 안되겠소? 내 몸이 어떻게 되여가는지 보이질 않소?》

물론 이것은 말을 골라가며 점잖게 한마디 한것이였습니다.

그런데 미안해서 어쩔바를 몰라할줄 알았던 강이 첫마디부터 발칵 성을 내는것이 아니겠나요.

그것도 한마디가 아니라 열마디, 스무마디로 말이예요.

《내가 조심성이 없는게 뭐예요? 무슨 체면에 그런 소릴 하는거예요? 맑고맑던 내 물이 어떻게 됐어요? 몽땅 뿌옇게 흐려졌어요.

당신때문에 말이예요. 왜 나한테 흙을 자꾸 떠내려보내는가요?

날 뭘로 만들려는거예요?》
산은 그만 기가 막혀서 잠시후에야 떠듬떠듬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내탓이란 말이요?》
《그럼 누구탓이란 말이예요, 예? 비가 조금만 와도 흙물을 마구 내려쏟지. 내가 조금만 출렁대도 흙을 막 쓸어넣으니 이런 심술이 어데 있어요?》
산은 마침내 점잖은 말이고 뭐고 다 집어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데 툭 털어놓고 말해봅시다.
내 몸이 이렇게 된건 알쭌히 당신때문이란 말이요.
당신이 아니면 내 몸이 왜 이렇게 패이고 무너지고 했겠소?》
그러자 강은 머리끝까지 약이 올라 기관총처럼 내쏘아댔습니다.
《아유! 누가 할 소릴 누가 해요? 당신때문에 내가 흐려지고 바닥이 패워져 열길, 스무길 되던것이 이제는 한길도 못돼요. 전에는 없는 물고기가 없었고 물고기, 백조들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백조는커녕 물오리도 오지 않고 산천어고 메기고 다 달아나버렸어요.
그런데 뭐라구요? 아이고 분해라.》
강은 설음이 북받쳐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싸우고 울고불고 하는 사이에도 강은 강대로 계속 산기슭을 파내며 흘러가고 산은 산대로 강물을 점점 더 흐려지게 하니 도저히 다툼질이 멎을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아니 매 시각 다퉜습니다. 그냥그냥 다퉜습니다.

2. 누구도 그들을 화해시킬수 없었습니다

산과 강이 계속 싸우기만 하니 짐승들과 물고기들은 하나둘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줄곧 싸움이 벌어지는 곳에서 살기좋다 하겠습니까?
산에서는 사슴, 노루들이 먼저 떠나가기 시작하더니 다람쥐, 토

끼들까지 사라졌습니다.
강에서도 잉어, 붕어들은 떠나간지 이미 오래고 버들치, 송사리들까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럴수록 산과 강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싸움은 더 격렬해질수밖에 없었습니다.
산과 강의 사이, 그러니 산기슭이자 강기슭에 백양나무 한그루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까치 한마리가 살고있었습니다.
까치는 일곱개의 알을 낳고 금방 품기 시작한중이여서 떠날래야 떠날수가 없었던것입니다.
초조히 앉아 귀여운 새끼가 까나올 시간을 기다리고있던 까치는 산과 강이 싸우는 소리가 날이 갈수록 더 높아지자 귀가 아프고 마음이 불안해져 견딜수가 없었습니다.
《귀여운 나의 새끼들이 고운 노래보다 먼저 다툼질을 배우게 되겠구나. …》
까치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산과 강을 화해시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강에게 날아가서 말했습니다.
《강아, 강아, 너흰 왜 밤낮 다투니? 이젠 그만 다투고 화해하려무나.》
그러나 강은 들은척도 안했어요.
《뭐? 저런 심술쟁이하구 화해하라구? 지금도 나한테 저 흙을 쏟아붓는게 보이질 않니? 못해, 절대로 화해 못해.》
까치는 푸— 한숨을 쉬고는 이번에는 산에게로 날아갔어요.
《산아, 산아, 넌 왜 강물에 흙을 자꾸 쏟아붓니? 그러니 화해 못하고 다투기만 하지.》
산은 퉁명스레 대꾸했습니다.
《뭐? 내가 흙을 쏟아넣는다구? 아니야. 강이 나를 파구 무너뜨리는거야. 넌 내 몸이 어떻게 여위고 상처입었는지 안보이니? 너라면 화해할것 같니? 천만에.》
까치는 더 크게 한숨을 쉬고는 이번에는 하늘로 높이높이 날아올라갔습니다.

《해님, 해님—》
해님은 밝은 빛을 쨍쨍 뿌리며 까치에게 물었어요.
《까치로구나. 무슨 일이냐?》
《우리 집곁의 산과 강이 다투고있어요.
아무리 말려도 안들어요. 그러나 해님의 말은 들을거예요. 좀 말려주세요.》
해님은 말했습니다.
《그 일때문이라면 알겠다, 알겠어. 내 다 보았다. 말로는 화해안되겠더구나. 내가 힘을 써보자.》
곰곰히 생각해보던 해님은 쨍쨍 해빛을 내려쪼이기 시작했어요.
산의 땅이 땅땅 굳어져 흘러내리지 못하게 할려구요. 그리고 강물은 줄어들어 산을 파내가지 못하게 하려구요.
그러자 벌거벗은 산은 더 바짝 마르면서 쩍쩍 갈라지고 작은 바람에도 먼지가 풀풀 날렸습니다.
《아이고 숨차. 아이고 가슴이야. 해님 날 어쩌려는거요. …》
산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강물은 푹푹 줄어들었습니다.
《아이고 나른해. 아이고 맥이 없어. 난 말라죽누나.》
강물은 앓음소리를 쳤습니다.
그것을 본 까치는 안절부절을 못했습니다.
산과 강이 화해하기는커녕 그대로 이 세상에서 말라 없어져버릴것만 같았으니까요.
이러다간 귀여운 자기 새끼들이 잠자고있는 백양나무까지 말라죽을것 같았습니다.
《해님, 그만하세요. 해님, 그만해요.》
발을 동동 구르던 까치는 이번에는 뾰족산마루에 걸터앉아 쉬고있는 구름을 찾아 날아올라갔습니다.
《구름님, 구름님.》
구름은 뾰족봉마루에서 낮잠을 자다가 무거운 몸을 일으켰어요.

《까치가 웬일이냐?》

《우리 마을 산과 강이 다투고있어요. 그래서 해님에게 부탁했는데 오히려 다 말라 없어져버릴것만 같아요. 산도 강도 우리 집도 몽땅말이예요.》

구름은 내려다보았습니다.

《흥, 한심하군, 한심해. 저러다간 정말 죄다 없어지겠는걸. 걱정말아, 내가 산도 강도 백양나무도 말라버리지 않게 해줄테니.》

《그럼 구름님만 믿어요.》

《오냐, 걱정말거라.》

구름은 비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였겠습니까. 큰비가 내리자 탈탈 마른 산에서는 폭포같은 흙물이 쏟아져내렸습니다. 강은 또 강대로 갑자기 물이 불어나 물살이 세졌습니다.

야금야금 깎이우던 산기슭이 센 물살에 뭉청뭉청 떨어져 떠내려갔습니다.

산은 강에게 소리쳤습니다.

《정 이러기요?》

《정말 이러기예요?》

강은 강대로 약이 올라 팔팔 뛰며 웨쳐댔습니다.

《누가 이기나 해보자.》

《뭐가 어쨌다구?》

산은 참았던 분노가 폭발하였습니다.

《좋다. 내 몸이 다 없어져도 좋으니 해볼테면 해보자!》

그는 강을 향해 흙탕물과 흙사태를 마구 쏟아부었습니다. 강도 성이 꼭두까지 치밀었습니다.

《좋아. 내가 평지가 돼도 좋으니 해볼테면 해보자.》

강은 센 물살을 곤두세우며 산기슭에로 마구 쳐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산이 통채로 허물어지는것 같았고 강은 완전히 메워져버리는

것 갈았습니다.

뻘건 산과 뻘건 강이 한덩어리가 되였는데 어느것이 산이고 어느것이 강인지 분간할수 없었습니다.

그바람에 까치가 살고있는 백양나무밑둥이 뭉청 패워나가고 나무가 한옆으로 기우뚱했습니다.

일곱개나 되는 알이 몽땅 떨어져 박산이 날것만 같았습니다. 까치는 겁이 났습니다.

그들의 싸움을 말리다가 더 큰 싸움으로 만들었던것입니다. 까치는 어쩔바를 모르고 이곳저곳 날아다니며 안타까이 우짖었습니다.

도와주세요 깍깍
살려주세요 깍깍
산과 강이 싸워서
강과 산이 싸워서
우리 동네 없어져요
깍깍 깍깍
…

3. 산과 강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애타는 까치의 하소연을 듣고 달려온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해님도 아니고 구름도 아니였습니다.

바람은 더욱 아니였습니다. 바로 사람들이였습니다. 까치는 못미더웠습니다.

《해님도 구름도 화해 못시켰는데 저 사람들이 무엇을 할수 있을가?》

사람들은 싸우는 산과 강을 보고 놀라 말했습니다.

《저런? 이렇게 훌륭한 산과 강이 다투다니…》
그리고 안타까와 깍깍거리기만 하는 까치에게 말했습니다.
《걱정말아라. 더는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살게 해줄테니.》
그들은 흙탕물이 솟구치는 강물속으로 뛰여들어갔습니다.
《날 가만 내버려둬요. 심술쟁이 산하고 결판을 지어야해요.》
강은 길길이 날뛰면서 사람들에게 흙탕물을 들씌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강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방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또다른 사람들은 산골짜기에 뛰여들어 쏟아져내리는 흙사태를 몸으로 막았습니다.
산은 밸을 부리며 그냥 돌사태와 흙탕물을 내려쏟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산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벌거벗은 산등에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큰 나무도 심고 작은 나무도 심었습니다.
바늘잎나무도 심고 넓은잎나무도 심었습니다.
기슭에는 꽃도 심고 잔디옷도 입혀주었습니다.
산뿐인가요. 강도 다듬어주었습니다.
제방뚝을 다 쌓고나서는 흙과 모래에 짓눌려 숨을 헐떡이는 강바닥을 깊이깊이 파내주었습니다.
제방뚝에는 파란 잔디옷을 입히고 민들레, 제비꽃으로 단장시켰습니다.
성미사납던 산과 강은 그만 얌전해지고말았습니다.

4. 산과 강이 화해하고싶어했습니다

강물은 날마다 맑아져갔고 산도 하루하루 눈에 뜨이게 푸르러갔습니다.

그러자 강에는 어디론가 숨어버렸던 물고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알락달락한 물오리들도 날아왔습니다.
산에도 피난갔던 사슴과 노루 등 갖가지 짐승들이 다시 찾아와 살림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새들도 찾아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요.
어느날 맑은 강에서 즐거이 헤염치던 물오리가 강에게 말했어요.
《강아, 넌 참 맑구나. 네 물은 참으로 달콤하구나. 여기선 내마음도 막 깨끗해져. 넌 어떻게 이런 맑은 물을 다시 찾을수가 있었니?》
강은 즐거웠습니다. 기뻤습니다.
난생처음 이런 칭찬을 들으니 가슴이 막 울렁거렸습니다.
《그건 다 사람들의 덕이야. 그리고 저 산의 덕이야. 산이 푸르러지니까 내 물도 맑아졌어.》
강은 제가 말하고도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이 나갔는지 자신도 모를 지경이였습니다.
물오리는 더욱 감탄했습니다.
《야! 넌 마음도 아름답구나.》
산은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자 가슴이 설레이였습니다. 강이 새롭게 다시 보였습니다.
산은 생각했습니다.
《원래는 마음씨가 고운 강이였구나.》
산은 새삼스러운 눈으로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은 맑다못해 파랗게 보였고 끝없이 깊어보이는 강물속에는 아름다운 물고기들이 즐겁게 헤염쳐 놀고있었습니다. 수많은 물고기들을 한품에 안고있는 강은 한없이 부드럽고 정깊어보였습니다.
구불구불 흘러가는 모습도 푸른 댕기오리처럼 아름답기만 했습니다.
(원래는 예쁜 강이였구나. 모양도 마음도 고운 강이였어.)
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산은 이제부터라도 강에게 자기를

잘 보이고싶었습니다.
산은 자그마한 씨앗도 허실함이 없이 알뜰히 싹틔워 나무로 자래웠습니다. 벌건 몸뚱이가 흉하게 드러나지 않게 말이예요.
그리고 나무에 벌레가 낄세라 클락새들을 불러들였고 가뭄이 들세라 샘물을 찾아 솟아오르게 하였습니다.
골짜기는 머루, 다래덩굴로 굽실굽실 장식하구요.
산은 나날이 제 몸을 더 멋있게 가꾸어갔어요.
그리고 강이 자기를 보아주기를 은근히 기다렸습니다. 강은 어느날 자기의 맑은 물에 비낀 산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산이 너무도 푸르고 아름답기때문이였습니다.
산은 젊음에 넘쳐있었고 산에서는 푸른 숲이 정답게 설레이고있었습니다.
《야, 정말 언제 저런 멋쟁이로 변했을가. 정말 아름답구나!》
그의 가슴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더 세차게 두근거렸고 마침내는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5. 산과 강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산이 하도 멋있어서 강은 흘러가기 싫었습니다.
산하고 계속계속 같이 있고싶었어요.
그러나 강은 흘러가야만 했습니다.
강은 남몰래 한숨을 쉬였습니다. 산을 위해 무엇인가 하고싶었습니다. 좋은 일을 말이예요.
그래서 흘러가다가 고운 차돌이 생기면 다듬어서 산기슭에 살짝 놓아주군 하였습니다.
그러는 강을 보자 산은 가슴이 마구 뒤설레였습니다. 산은 너무도 가슴이 설레여 강을 보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눈길은 자꾸 강에게로만 향했습니다.
그 강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꼭 감으니 이번에는 돌돌 출렁출렁 강물이 흐르는 소리가 노래처럼 들려왔습니다.
《이거 야단났군.》
안절부절 못하던 산은 대담하게 큰 마음을 먹고 제 마음이 담긴 향기로운 연분홍 꽃잎들을 바람에 동동 날려 강물에 띄워보냈습니다.
꽃잎을 받은 강은 기뻐서 설레였습니다.
강물은 꽃잎에 물들어 연지곤지 찍은것처럼 빨갛게 보였습니다.
산은 강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태여나기도 같이 태여나고 또 이웃으로 한뉘를 살아오는데 서로 말도 안하고있으니…
당신은 늘쌍 그렇게 바쁘오? 당신의 물들은 어디로 소리없이 그냥 흘러가오?》
강은 가슴이 울렁거렸습니다.
산이 자기에게 말을 걸어준것입니다. 강은 수집은듯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나도 나의 맑은 물을 그냥 흘려보내기가 싫어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서 이야기도 하고싶고 노래도 들려드리고싶어요. 우린 사실 이웃이 아닌가요?》
산은 기뻐서 솨솨 설레며 말했습니다.
《옳소. 이웃이구말구. 우린 누구보다 서로 잘 알고있지.》
강도 기쁨에 출렁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서로 깊이 리해하고있구요.》
그러나 어떻게 함께 있겠어요?
강은 자꾸 흘러가고 산은 서있어야 하니 말입니다. 그들은 깊은 한숨을 쉬였습니다.
《참, 우리들은 불행한 처지로 태여났구나. 싸울 때는 싸울 때대로, 지금은 지금대로 불행하구나.》
강은 구슬프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함께 있고싶어도 있지 못해요
산은 서있고 나는 가야 해요
정말 정말 슬퍼요 나는 슬퍼요

까치는 구슬픈 강물의 노래소리를 듣고 안타까이 우짖었습니다.

도와주세요 깍깍
행복을 주세요 깍깍
예쁜 강과 의젓한 산이
함께 있고싶어도
함께 있지 못해요

6. 산과 강이 소원을 풀었습니다

어느날이였습니다.

애타는 까치의 우짖음소리를 듣고 산과 강을 찾아온이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왔느냐구요? 장수들이였어요.

긴팔이장수, 부릉이장수, 누렁이힘장사, 앵앵이혼합기… 우르릉, 쿠당쿠당, 붕붕, 앵앵…

렬을 지어 찾아온 그들은 강복판에 기둥을 박고 언제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겁이 덜컥 나서 숨도 크게 못쉬던 강은 마침내 장수들의 마음을 알게 되였습니다.

바로 그를 산과 같이 있게 해주려고 일판을 벌리고있다는것을 말이예요.

장수들은 낮과 밤이 따로없이 일했습니다.
드디여 강은 흐름을 멈추게 되였습니다.
장수들이 일을 끝낸것입니다.
산과 강은 마침내 함께 있게 되였습니다.
까치는 동네방네로, 들로, 길가로 날아다니며 너무 기뻐 노래를 불렀습니다.

소원을 풀었어요 깍깍
행복을 찾았어요 깍깍
예쁜 강과 의젓한 산이
함께 있게 되였어요 깍깍깍

젊음에 넘친 산의 모습은 한없이 름름하고 장엄해보였습니다. 끝없이 깊고 넓어진 강은 정말 아름답고 화려해보였습니다.
산과 강이 합치는 날, 그날은 굉장히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기계장수들은 제일처럼 기뻐서 떠들고 춤을 추며 덩달아 온몸에 꽃을 달았습니다.
외팔장수는 자기의 바가지손에 맑은 강물을 철철 넘치게 떠담고 손님마다 권했습니다.
잔치에 초대되여온 해님과 뭉게구름과 솔솔바람도 그들과 함께 축배를 들었습니다.

7. 맺는 이야기

이 글을 어떻게 끝맺을가 하고 생각하던 나는 그 산과 강을 직접 찾아가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 산과 강이 함께 사는 곳은 내가 사는 평양에서부터 하루동안이나 기차를 타고가서 또 한나절이나 뻐스를 타고가고 내려서는 또 한참 걸어가야 하는 먼 곳이였습니다.

나는 그 산과 강을 보는 순간 모든 피로가 일시에 다 사라져 버리는것 같았습니다.

글쎄 산과 강이 얼마나 멋들어지고 아름답겠습니까. 정말 천상배필이였습니다.

그리고 또 산과 강은 힘을 합쳐 크나큰 기적을 일으키고있었습니다.

산에는 참나무, 오리나무, 이깔나무, 물황철나무들이 설레고 있었고 더덕, 고사리, 버섯 등 산나물로부터 진귀한 약초인 산삼에 이르기까지 없는것이 없었습니다.

바다같이 넓은 강에서는 잉어떼, 붕어떼가 욱실거렸습니다.

물우에서는 백조들이 쌍쌍이 헤엄치고요. 더더구나 놀라운것은 산과 강이 힘을 합쳐서 전기를 일으키는것이였습니다.

전기는 온 마을에 빛과 열, 행복을 주고있었습니다. 이고장 아이들은 추운 겨울에도 더운 방에서 공부하였고 나무로 밥을 짓던 엄마들은 전기로 밥을 짓고있었습니다.

불빛 휘황한 마을은 옛말속의 무릉도원같았습니다. 전기를 일으킨 물은 다시 넓은 벌로 흘러가 풍요한 땅을 적시고있었습니다.

나는 그 산과 강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산과 강이 싸울 땐 얼마나 한심한 일이 벌어졌댔는가. 그 산과 강이 화해하고 힘을 합치니 얼마나 큰 기적이 이룩되는가 하고 말입니다.

× ×

나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러나 어린 동무들에게 하고싶은 말은 아직 못다하였습니다.

어린 동무들! 우리 주위의 산과 강들에 한포기의 풀, 한그루의 나무라도 더 심고 가꾸고 한줌의 흙, 하나의 자갈이라도 더 얹어주어 우리 나라의 모든 산과 강이 이들처럼 화목하게, 이들처럼 힘을 합쳐 살도록 도와주자요!

주체90(2001)년

동 화

달빛에 번쩍이는 검

로 병 수

어느 옛날 바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작은 성이 있었습니다. 이 성은 섬오랑캐놈들을 막기 위해 세운 성이였습니다. 오랑캐놈들이 이 성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 나라의 다른 고장들도 쉽게 타고앉을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성은 나라의 대문과 같은 성이였지요.

어느날 이 성으로 만석이라는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저를 이 성의 군사로 받아주사이다.》

만석은 방어대장에게 이렇게 아뢰였습니다.

오랜 농사일로 박달나무처럼 굳어진 몸에 해볕에 탄 얼굴과 순박하게 억실거리는 검은 눈은 방어대장의 마음에 썩 들었습니다.

《젊은이를 성을 지키는 파수군사로 받겠으니 잘 싸우도록 하라.》

방어대장은 웅글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석은 파수병이 되였습니다.

만석은 창을 잡고 성우에서 파수를 설 때에나 파수를 서지 않을 때에나 잠시도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성안팎을 자주 돌아보며 혹시 어디로 오랑캐놈들이 기여들만한 곳이 있지 않는가 하고 자세히 살피군 하였습니다.

어느날 깊은 밤이였습니다.

그가 희미한 별빛속에 성벽안을 유심히 살피며 한바퀴 돌던 때였습니다.

갑자기 앞에 있던 노가지나무포기가 옆으로 돌더니 땅밑에 구멍이 뚫리였습니다.

그리고 그안에서 뜻밖에도 칼을 찬 방어대장이 불쑥 올라오는것이였습니다. 비록 환갑이 지난 몸이였으나 아직 젊음이 넘쳐 날파람이 있었습니다.

《아니, 방어대장님께서 어떻게…》

만석이는 놀라서 방어대장을 쳐다보았습니다.

《음 만석인가. 그런데 무슨 일로 나왔노?》

《파수 만석이 성벽을 돌아보고있나이다.》

《기특하다. 그러나 만석은 보면 안될것을 보았다. 군률대로 한다면 너를 없애야 하겠지만 용서한다. 그대신 만석에게 다른 군령을 주겠다.》

방어대장은 장막 한쪽 작은 방으로 만석을 불렀습니다.

《나는 만석에게 방금전에 본 지하굴길을 잘 관리할것을 맡긴다. 그 지하굴길은 이 성을 지키는데서 매우 중요한곳으로서 그 누구도 절대로 알아서는 안된다. 이는 목숨바쳐 해야 할 일이다.》

《대장님의 령을 이 한목숨 다 바쳐 실행하겠소이다.》

방어대장은 벽장에서 칼 두자루를 꺼내여 하나는 만석에게 채워주고 다른 하나는 칼집에서 뽑아 붉은 상우에 꽂아놓았습니다. 그 상우에는 이미 여러개의 칼이 꽂혀있었습니다. 방어대장은 다시 만석에게 채워준 칼을 뽑아 번쩍이는 칼날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만석이가 그 지하굴길을 잘 관리하고 비밀을 철저히 지킬 때에는 이 칼이 언제나 지금처럼 번쩍일것이고 조금이라도 그 내막이 입밖으로 나갔을 때에는 빛이 꺼지고 얼룩이 생길것이다. 나는 이 칼이 언제나 지금처럼 번쩍거리기를 바란다.》

만석이는 그때부터 남모르게 지하굴길 지키는 일을 맡아보았습니다.

만석이는 그 입구를 누구도 모르게 해놓았습니다.
만석이는 언제나 입이 무겁고 훈련과 파수서기에 나무랄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군사들도 그를 따르고 좋아하였습니다.
파수장도 만석을 믿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그를 불러 임무를 주군 하였습니다.
만석이가 이 성에 오기 전부터 성안에는 이웃마을에서 사는 달문이라는 늙은이가 자주 와서 군사들과 함께 지내군 하였습니다. 그는 한쪽다리를 몹시 절어 불편하게 걸었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키에 몸이 날래고 손재간이 유별하였습니다.
달문로인은 군사들이 사는 군막도 손질해주고 비가 올 때에는 된비를 맞아가며 군막들의 지붕도 고쳐주었습니다. 또한 문루와 성문도 제 집 문간처럼 알뜰히 돌보았습니다. 달문은 어디서 마련했는지 적지 않은 철편을 지게에 지고와서 성문에 틈없이 박아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랑캐놈들이 혹시 불화살을 쏘아도 성문이 불에 타는 일이 없게 되네.》
로인은 이렇게 설명해주었습니다.
달문로인의 일솜씨는 어찌나 놀라운지 눈을 꾹 감고도 못을 한번도 헛때리는 일이 없이 망치질을 신통하게 하였습니다. 때로는 제손으로 빚었다는 기장떡도 가지고와서 한개씩 나눠주기도 하고 군사들과 롱담을 주고받으며 장기도 두군 하였습니다.
한번은 만석이와 장기를 두다말고 불행한 제 신세를 이야기하며 후더운 눈물을 뿌린적도 있었습니다.
《악귀같은 오랑캐놈의 칼에 처와 네살난 사내아들이 하루아침에 죽었네. 겨우 목숨이 붙은 두살난 딸을 업고 칼맞은 다리를 절며 뛰는데 따라오던 오랑캐놈의 화살에 등에 업힌 딸까지 잃었네.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부르며 죽은 귀여운 딸을 이 손으로 묻고 난 사흘을 울었네. 아, 그때 생각을 하면 흐윽…》
《로인님!》
만석이도 말을 못하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난 그때부터 오랑캐놈들과는 사생결단하기로 마음먹었네.

그런데 이렇게 다리병신이고보니 칼을 잡고 싸우지는 못하고 그저 임자네들의 뒤시중이나 조금씩 하네만 그게 락이고 기쁨일세.》

그후부터 만석이는 불쌍한 달문로인과 더 가깝게 지냈습니다. 한번은 달문로인이 두터운 널판과 철편을 가지고 성우에 올라왔습니다.

《이 사람 만석이, 자네 보지 않던 칼을 찬걸 보니 대장님한테 상을 받았는가?》

《아니올시다.》

《그럼 무슨 중한 임무라도 받은게지?》

《아 아니 그저…》

만석은 말을 못하고 어물거렸습니다.

《내 언제 봐도 만석은 입이 무겁고 성실한게 마음에 들거던. 파수군사는 그래야 한다네.》

달문로인은 널판자와 철편으로 성벽에 몸을 감추고 활을 쏠수 있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랑캐놈들의 살에 맞지 않고도 성밖을 잘 살필수 있거든.》

《정말 묘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쩌면 그렇게도 성싸움에 밝으십니까?》

《우리 아버님도 이름난 대장이였다네. 난 어렸을 때 아버님을 따라 성루우에 자주 올라가서 아버님이 하시는 일을 눈여겨보군 했지.》

《그랬댔군요.》

《아버님이 그러시는데 성싸움이라는게 성우에서 올라오는 오랑캐와만 싸우는게 아니라 성밑에 여러갈래의 굴길을 만들고 그 길로 감쪽같이 나가서 오랑캐놈들의 뒤통수를 치기도 하고 성밖에 무수한 함정이나 물길을 만들어놓으면 오랑캐놈들이 꼼짝 못한다고 했다네.》

《아하 옛날에도 지금처럼 그런게 있었군요.》

만석이는 이렇게 감탄하였습니다.

만석이는 잠자기 전에 꼭 조용한 곳에 가서 칼을 한번씩 번쩍거리게 닦군 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만석이 칼을 보니 칼 한끝이 연기에 그슬린것처럼 거무스레하였습니다.

《아니, 이 칼이 왜 이럴가?》

만석이는 늘 가지고다니며 닦군 하던 하얀 광목천으로 칼을 닦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닦아도 그 얼룩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어대장이 만석을 부른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칼을 보아라.》

자기앞에 와서 절을 하는 만석에게 방어대장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칼을 뽑아 대장앞에 두손으로 받쳐들었습니다.

방어대장은 그 칼은 보지도 않고 상우에 꽂혀있는 칼을 말없이 가리켰습니다.

방어대장이 만석에게 칼을 채워줄 때 같이 꺼내여 상우에 꽂은 칼이였습니다.

만석이가 보니 그 칼도 꼭같은 얼룩이 져있었습니다.

《이 어인 일인고?》

방어대장이 무겁게 묻는 말이였습니다. 만석은 머리를 숙이고 대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자기는 지하굴길에 대한 말을 한번도 한적이 없었기때문이였습니다.

《모를 일이옵니다.》

방어대장은 말없이 방안을 오락가락하며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더니 만석의 얼굴을 바라보며 《돌아가서 잘 생각해보아라.》라고 하였습니다.

만석은 파수를 설 때에나 잠자리에 누워서나 오직 한생각뿐이였습니다.

(왜 칼에 얼룩이 생겼을가?)

만석은 한편 지하굴길을 그전보다 더 잘 살펴보았습니다. 굴

바닥을 정으로 다듬어 돌부리 하나없이 만들었습니다. 군사들이 캄캄한 속에서도 거침없이 달릴수 있게 말입니다. 그리고 굴입구도 전혀 알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성문앞 왼쪽으로 나지막한 산등성이가 있고 그옆으로 언덕을 따라 듬성듬성 서있는 소나무들사이에 새초가 자라고있었습니다.

어느날 만석이 파수를 서며 바라보니 새초밭에서 누군가가 새초를 베고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다름아닌 달문로인이였습니다. 다리를 절며 기웃기웃 새초를 찾아 오락가락하는것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곳은 지하굴입구가 있는 곳이여서 누구든지 들어가지 못하게 된 곳이였습니다. 만석이는 소리를 쳐서 달문로인을 불렀습니다.

《로인님, 그곳은 군령에 의하여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게 된 곳입니다.》

《원 저런 내가 정말 잘못했네. 지붕에 비가 새서 이영을 좀 할가 했더니 군령으로 못들어가는 곳일줄이야 알았나. 내가 실성을 했나보이.》

만석은 저도모르게 굴입구가 있는 큰 소나무쪽을 얼핏 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만석이가 칼을 뽑아보았더니 전에 생긴 얼룩이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좀더 커진게 아니겠습니까. 만석이는 기와가루를 보드랍게 내여 그것으로 힘주어 닦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쇠가 깎이도록 닦았지만 얼룩은 지지 않았습니다.

그날밤 방어대장은 다시 만석을 불렀습니다.

《칼에 생긴 얼룩은 아무리 연한것이라도 지하굴에 대한 내막이 조금씩 새여나간다는것이다. 만석은 조금도 생각되는게 없는고?》

만석은 머리를 숙이고 생각해보았으나 도무지 알수 없는 일이였습니다. 지하굴에 대한 말은 꿈에도 외운적이 없었기때문입니다.

《목을 걸고 말씀드리오만 절대로 지하굴에 대한 말은 입밖에 낸적이 없소이다.》

만석은 이마를 치며 안타까이 말하였습니다.

(저 만석의 말은 거짓이 아닐것이다. 그렇다면 칼에 생긴 얼룩은 어인 일인고?)
방어대장은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딘가 생각되는 점이 있어 좀더 두고보기로 하였습니다.
며칠후 섬나라 오랑캐놈들의 큰 부대가 바다를 건너 성가까이로 온다는 파발의 통지가 왔습니다.
방어대장은 즉시 성안의 군사들과 백성들에게 싸움준비를 갖추라는 령을 내렸습니다.
군사들은 칼과 창을 번쩍거리게 닦고 전통에 화살을 가득 넣기도 하였습니다.
성안의 백성들도 군사들과 함께 싸움준비를 하느라 이리저리 뛰여다녔습니다.
다음날 새벽이였습니다.
오랑캐놈의 선발대가 성앞에 와서 오랑캐말로 오구작작 고아대며 군막을 새까맣게 쳐놓았습니다.
이윽고 먼지를 뒤집어쓴 오랑캐놈들이 군막에 들었습니다.
이날은 달문로인도 아침 일찍 찾아와서 군사들의 싸움준비를 도와주었습니다.
군사들의 진지를 봐주기도 하고 성문 여기저기에 땅땅거리며 못도 더 박아주었습니다.
방어대장의 령에 따라 점심에는 파수군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푹 쉬게 하였습니다.
만석이도 파수에 나갈 순번을 기다리며 잠시 그늘밑에서 쉬고있었습니다.
제가 가꾸었다는 독한 담배를 한자루나 가지고온 달문로인은 군사들에게 아끼지 않고 한줌씩 나눠주었습니다. 여기저기서 군사들의 환성소리가 들리고 독한 담배연기가 피여올랐습니다.
《아, 만석이, 자네 여기 있었구만. 무슨 생각을 그리 하나.》
만석은 그저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 사람, 만석이. 오늘은 나하고 시짓기내기를 해보세.》

만석이는 여섯살때부터 엄한 외삼촌앞에서 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열살때에는 제법 글도 짓게 되였답니다.

만석은 지금도 이따금 제마음을 글에 담아 시 한수씩 짓군 하였습니다.

달문로인은 대답은 하지 않고 빙그레 웃기만 하는 만석에게 지꿎게 달라붙었습니다.

《만석이, 오랑캐놈들과의 싸움준비를 든든히 했겠다 오늘은 용맹한 기상을 담아 시 한수씩 지으세.》

《그럽시다. 그런데 장기판은 왜 들고옵니까?》

만석이 의아하여 물었습니다. 달문은 들고온 장기판을 만석의 앞에 놓으며 싱긋 웃었습니다.

《이렇게 하세. 나하고 장기를 두어 진 사람이 먼저 시 한수를 지으면 이긴 사람도 그 시를 받아짓도록 말일세.》

만석이도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석이의 장기수가 달문이와 늘 어슷비슷하군 하였는데 오늘은 어쩐 일인지 달문로인이 련속 세번이나 지고말았습니다.

《임자 장기수가 언제 이렇게 늘었나. 내 두손 들었네.》

달문로인은 멋적게 웃더니 상이 벌개가지고 《내가 졌으니 약속대로 시를 먼저 지어야지.》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런 다음 별로 생각해보지 않고 시를 읊었습니다.

가을하늘에 검은 구름 밀려오네
오랑캐의 힘찬 기상 저 들판에 차고넘쳐
창칼이 번개치고 화살이 비발치니
오랑캐의 폭풍우에 작은 성벽 흔들린다

달문로인이 시를 다 읊자마자 만석이 제꺽 시를 읊었습니다.

오랑캐들 침노하니 성벽도 분노하고
승리의 함성에 원쑤들 벌벌떠네
저 푸른 소나무 찬 바람 일으키니

우리 군사 난데없이 동서남북 적을 치네
오 오랑캐의 주검이 저 들판에 차고넘네

만석은 불같은 시를 다 읊고도 번뜩이는 눈으로 건너편 큰 소나무를 그냥 바라보고있었습니다. 만석이를 바라보며 그의 시를 다 듣고난 달문은 크게 웃었습니다.

《장기나 시짓기에 만석을 당하지 못하겠네.》

그는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오늘 잘 놀았네. 큰 싸움을 앞에 두었으니 자네도 어서 푹 쉬게나.》

그날 저녁때였습니다. 파수장이 만석에게 대장이 만석을 찾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만석은 큰 싸움을 앞두고 지하굴에 대한 새 령을 주시려나 생각하며 장막안에 들어섰습니다.

만석을 기다리고있던 대장이 조용히 《칼을 보아라.》하고 말하였습니다.

만석은 칼을 뽑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칼은 보기에도 끔찍스럽게 먹물을 칠한듯 검은 칼이 되였습니다.

만석은 가슴이 철렁하여 방어대장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상우에 꽂혀있는 칼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칼도 꼭같은 검은 칼이 되였습니다. 게다가 상우에 꽂혀있는 칼은 잉—소리를 내며 가볍게 떨기까지 하는게 아니겠어요.

《만석에게 맡긴 지하굴의 내막이 오랑캐놈들에게 들어간게 틀림없다. 너는 군령을 어겼다!》

만석은 눈앞이 아뜩하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칼끝을 목에 가져다대였습니다.

《군령을 어긴 저의 죄 죽음으로 씻겠나이다.》

《가만!》

방어대장은 장막이 쩡하게 울리도록 호령하였습니다.

《죽음으로도 너의 죄는 씻을수 없다. 죽어도 군령을 지키고 죽는게 군사의 본분이다.》

만석은 방어대장앞에 꿇어엎드렸습니다. 방어대장은 말을 이었습니다.

《비밀은 곧 나라의 목숨이다. 이것을 뼈속깊이 새기고 순간도 마음의 탕개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교활하고 깜찍한 원쑤놈들은 너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서도 많은것을 짐작할수 있는것이다. 만석은 머리를 들라.》

만석은 머리를 들고 방어대장을 보았습니다.

《아직도 생각되는게 없는고?》

만석은 눈을 감고 생각해보았습니다.

(달문이 제 아버지한테서 들었다고 하며 성밑에 여러갈래의 굴을 파고 거기로 나가서 오랑캐놈들의 뒤통수를 쳐야 오랑캐놈들이 꼼짝 못한다고 할 때 나는 저도모르게 《옛날에도 지금처럼 그런게 있었군요!》하지 않았던가. 그때 달문이는 이 성에도 그런 지하굴이 있다는것을 알았으며 그래서 지하굴의 입구가 어디 있겠는가를 렴탐하기 위해 일부러 새초를 베는척 하며 기웃거렸을것이다. …

그리고 오늘은 시짓기내기로 일부러 장기에서 지고 먼저 나의 마음을 중떠보려 시를 읊었지. 내가 시에서 《저 푸른 소나무 찬바람 일으키니 우리 군사 난데없이 동서남북 적을 치네.》라고 읊으며 큰 소나무를 바라볼 때 달문이는 지하굴의 입구가 틀림없이 큰 소나무밑이라는것을 알게 된것이다. 그래서 칼이 검은 칼이 된것이다. 그러니 달문이는 오랑캐놈들이 오래전에 들여보낸 밀정놈이 틀림없다.)

만석은 머리를 번쩍 들고 방어대장을 쳐다보았습니다. 방어대장의 눈도 마주 번쩍이였습니다.

《이제는 알겠느냐.》

《알겠소이다. 저에게 당장 령을 주사이다!》

만석은 자리를 차고 일어섰습니다.

《덤비지 말고 여기 가까이 오라.》

방어대장은 지도를 펴놓고 만석을 불렀습니다.

그날밤 큰 싸움을 앞두고 성앞 넓은 벌에서는 태평스레 귀뚜

라미의 울음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사방은 고요하고 하늘엔 보름달만 둥실 밝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풀대들사이로 검은 물체들이 발발 기여나왔습니다. 풀대가 흔들거리고 귀뚜라미의 울음소리도 딱 멎었습니다. 큰 소나무가까이까지 온 검은 물체들은 불쑥불쑥 일어섰습니다.

《야, 여기다. 이 소나무밑이 지하굴길입구다. 조선군사들이 여기로 나오지 못하게 막아버려라.》

이렇게 오랑캐말로 지껄이며 앞장서는 놈이 달문놈이였습니다. 다리를 절기는커녕 나는듯 달렸습니다. 이때 휘파람소리를 내며 풀숲에서 화살들이 날아오고 우리 군사들이 소리없이 일어나 번개같이 오랑캐놈들의 목을 쳤습니다.

어느새 달문이놈이 생쥐처럼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만석이는 더 빨랐습니다. 만석이는 단칼에 달문이놈을 쳐눕혔습니다.

제놈이 렴탐한 지하굴의 입구를 막아버리고 상전을 찾아가서 상금을 타먹으려던 달문이놈과 그 졸개놈들을 한놈도 남김없이 없애버렸습니다.

만석이는 칼을 들어 달빛에 비쳐보았습니다. 칼은 한점의 티도 없이 번쩍거렸습니다.

만석은 방어대장과 약속한대로 높은 바위우에 뛰여올라 달빛에 칼을 세번 흔들었습니다. 성우에서 이것을 지켜보던 방어대장은 모두 지하굴의 문을 열고나가 먼길에 지쳐 쓰러진 오랑캐놈들을 치라는 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군사들은 바람처럼 소리없이 오랑캐놈들의 군막을 둘러싸고 제비처럼 날쌔게 오랑캐놈들을 쳐부시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 군사들은 또다시 성을 지켜냈습니다.

그후 만석은 다시는 단 한순간도 마음의 탕개를 늦추지 않고 군령을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주체90(2001)년

동화시

은하수조롱박

손 병 민

먼 옛날 북쪽의 어느 고장에
귀동이란 아이가 살았더라네
나이는 어려도 마음 착하고
동네방네 효자로 소문난 아이
어느날 나무하려 산에 갔다가
숲속에서 솟아나는 샘터에서
조롱박 하나를 얻었더라네
(이건 웬 조롱박일가?)

꽃피는 봄날
탐스러운 열매가 하도 놀라와
살그머니 꼭지를 열어봤더니
향기가 풍기는 조롱박안엔
맑은 물 가득히 찰랑거리고
물속에선 씨앗들이 별처럼 반짝

귀동이는 비로소 깨달았다네
이것은 다름아닌 하늘나라 조롱박!
어머니의 이야기가 떠올랐다네…

가없이 넓고넓은 하늘나라엔
신기한 조롱박들 자란다누나
많고많은 그 열매들 익어 터지면
씨앗들은 뿌려져 별들이 되고
물은 모여 은하수를 이룬다는데
그 물은 한모금만 마셔도
장생불로한다는 이야기

(하늘나라 이 보물!
어쩌다 나한테 차례졌을가.)
귀동이의 얼굴엔 웃음이 방긋
(한평생 고생많은 우리 어머니
장생불로 이 물을 어서 드려야지.)
발걸음도 가벼이 산을 내렸네

굽이굽이 산골길은 비탈도 많지
귀동이는 한굽이를 돌아서다가
머리흰 로인 한분 만났더라네

그분은 다름아닌 마을의 좌상로인
젊어선 전장에서 공도 세우고
마을 위해 좋은 일도 많이 하신분!
허나 흐르는 세월속에 백발이 되고
지팽이에 여생을 의지하신분

(늙으신 몸 얼마나 힘겨우실가
약하신 몸 얼마나 괴로우실가.)

귀동이는 발걸음 뗄수 없었네
(조롱박에 가득찬 이 물
로인님께 한모금 대접해야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 물 한모금 어서 드세요.
두손 받쳐 정히 대접했다네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네
하얗던 수염도 백발머리도
눈녹이듯 잠간새에 까매지고
주름펴진 얼굴엔 혈기가 어리는데
온몸에 기운이 넘쳐나는듯
지팽이 내던지며 번쩍 일어섰으니
그 모습은 한창나이 젊은이모습!
로인은 그만에야 눈물이 글썽
—이건 분명 하늘의 은하수!
 이 귀한걸 한생 다 산 나를 위해 쓰다니.

—마을의 존경받는 할아버지
 부디부디 건강하여 오래오래 사세요.
귀동이는 허리굽혀 큰절을 하고
마음도 가벼이 걸음 떼는데
물 한모금 덜어진 조롱박에선
씨앗 한알 공중으로 날아올랐네

×

굽이굽이 산골마을 사래긴 마을

귀동이는 또 한굽이 돌아서다가
신랑신부 두사람을 만났더라네

신랑은 나라지켜 용맹떨치다
그만에야 두눈 잃은 마을의 장부!
억쇠라고 부르는 용감한 젊은이
신부는 한생을 그의 눈이 되여주려
불원천리 찾아온 갸륵한 녀인!

(마을의 사랑받는 억쇠형님
꽃같은 색시를 맞이하고도
그 얼굴 못보니 얼마나 안타까울가.
한생을 부축받아 살아야 하니
얼마나 괴로울가.)

조롱박에 아직도 그득한 이 물
형님에게 한모금 대접해야지
귀동이는 앞못보는 억쇠의 두손에
조롱박 정히 안겨주었네

—억쇠형님, 억쇠형님,
  이 물 한모금 어서 드세요—

그러자 놀라운 일 생겨났다네
두눈을 슴벅이던 억쇠
별안간 환성을 올렸더라네

—보인다
  눈이 보인다!

쩌렁쩌렁 울리는 그 목소리
산울림되여 또 들려온다
보—인—다—
내—눈—이—보—인—다—

새색시의 얼굴엔 웃음이 방긋
구슬같은 눈물이 방울방울
억쇠는 귀동이를 와락 안았네
—고마운 애야
  내 한생 너의 모습 새겨두리라.
—마을의 자랑인 억쇠형님,
  앓지 말고 행복하세요.

어른스레 인사말 남긴 귀동이
마음도 즐거이 걸음 떼는데
또 한모금 덜어진 조롱박에선
씨앗 한알 공중으로 날아올랐네

×

또 한굽이 돌아서 걷던 귀동이
물긷는 처녀를 만났더라네
분이라고 부르는 마을의 처녀!

아이적엔 목청이 하도 고와서
종다리소녀라고 불리웠건만
오랑캐들 마을에 쳐들어왔던 그날
입도 귀도 메여버린 벙어리처녀!

다른 집 처녀들은
꽃달고 가마타고 시집을 가도
분이의 얼굴엔 수심만 가득
인정많은 한 젊은이
한생의 길동무로 나섰지마는
스스로 단념한 갸륵한 처녀!

(분이누난
고운 노래 얼마나 부르고싶을가.
정다운 말 얼마나 듣고싶을가.)

귀동이는 멈춰서서 생각했다네
(조롱박에 절반은 더 되는 이 물
누나에게 한모금 대접해야지.)
나는듯이 샘터로 달려간 귀동이
조롱박의 물 한모금 부어주었네

그러자 처녀는 두리번두리번
구슬같은 목소리가 울려나왔네
—들려요, 들려요,
  내 귀가 들려요—

이윽하여 그의 눈엔 눈물이 핑
귀동이를 와락 그러안았네
—귀동아, 사랑스러운 애야,
  이 은혜 죽어서도 잊지 않으마.
  네 모습 영원히 잊지 않으마.

—누나 누나 종다리누나

마을 위해 고운 노래 많이 불러주세요.
가마타고 시집가서 행복하세요.

축복의 인사말 남긴 귀동이
발걸음도 가벼이 걸음 떼는데
소중히 안고있는 조롱박에선
씨앗 한알 공중으로 날아올랐네

×

굽이 많은 산골길 또 한굽이 돌아서
귀동이는 걸음을 다그치는데
외딴 집안에서 새여나오는
아기들의 애처로운 울음소리!

이 집은 얼마전에 삼태자가 태여나
마을의 축복을 받아안은 집!
들려오는 그 소리 심상치 않아
귀동이는 다급히 문을 열었네

그랬더니 방안엔
아기들도 엄마도 다 누웠는데
모두의 얼굴은 불덩이같고
땀방울이 비오듯이 흐르고있었네

아차하면 큰일이 날것만 같아
귀동이는 지체없이 물을 따랐네
엄마의 입에도 아기들의 입에도
서둘러 한모금씩 부어주었네

그러자 애처롭게 울던 아기들
방긋방긋 웃음이 피여나는데
자리털고 일어난 아기엄마
목메여 흐느꼈네
—귀동아 귀동아 고마운 애야
  다 죽었던 우리 가정
  네가 살려주었구나.

—어머니! 어머니!
  몸조리 잘하시여
  이애들을 장수로 키워주세요.

부탁의 인사말 남긴 귀동이
어서 가자 걸음을 다그쳤다네
한굽이 또 한굽이 돌아서는데
소중히 안고있는 조롱박에선
씨앗들이 공중으로 날아올랐네
하나 둘 셋 넷

×

굽이굽이 마을길 다 돌아서
저물녘에 집앞에 이른 귀동이
다시한번 조롱박을 들여다보고
그만에야 깜짝 놀랐더라네
이 일을 어찌하랴
조롱박엔 한방울의 물도 안남았으니

(조롱박 가득히 차있던 물

어머니는 조금도 못마시게 되였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하늘나라 조롱박은 왜 요렇게 작아서
이 아들을 불효자로 만들었는가.)

죄스러운 마음으로 방문을 연 귀동이
무릎꿇고 사연을 이야기했네
—어머니, 어머니,
  불효한 이 아들 욕많이 하세요.

그러자 웬일인가
서운해하실줄만 알았던 어머니
함박꽃웃음이 피여나누나
귀동이를 한품에 얼싸안누나

—귀동아, 귀동아,
  장한 내 아들아
  네 만약 이 어머니만을 생각해
  이웃들을 외면하고 돌아왔다면
  내 마음 지금처럼 기쁘지 못하리라.
  사람이 사람아닌 모든것과 다른건
  남의 아픔 덜어줄줄 아는거라 하였거늘
  다 자란 네 마음을 보게 된것이
  은하수를 마신것보다 더 기쁘구나.

—어머니,
—귀동아,

어머니의 눈에서도
귀동이의 눈에서도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기적은 또다시 일어났다네

퐁퐁 샘소리 들려오면서
조그맣던 조롱박 박통으로 자라고
맑은 물이 가득히 차올랐다네
찾아오는 사람들 다 마시도록
자꾸만 자꾸만 솟아났다네

그 물 먹고 기운넘친 마을사람들
그때부터 이고장의 밤하늘가에
새로 돋은 별들을 보게 되였네
유난히도 반짝이는 일곱개의 별

귀동이가 고운 마음 남기며 걸은 길따라
하늘가에 생겨난 일곱개의 별
사람들은 그 별을 바라보면서
산골마을 길갈다고 이야기하고
아이들은 정답게 노래불렀네

—저 별따라 저《길》따라 가고가며는
  마음착한 아이가 살고있대요
  별 하나 나 하나 귀동이의 별!
  별 둘 나 둘 착한 아이 별!

주체92(2003)년

동 화

동전 한잎

윤 학 복

한 소녀가 어스름이 깃드는 늪가로 타박타박 걸어가고있었습니다.

한손에는 빈 나물바구니를 안고 또 한손엔 동전 한잎을 꼭 쥐고 있었지요.

늪평마을에서 사는 분이였습니다.

그애가 추운 봄들판을 헤매며 철이른 들나물을 캐다 팔게 된데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며칠전 늪평마을을 삼키려고 달려든 외적들과 힘겨운 싸움을 벌리던 우리 군사들이 잠시 뒤로 물러섰답니다. 오랑캐놈들을 몽땅 쳐부실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였지요. 분이의 오빠인 청돌장수는 부상당한 준마를 분이에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칼에 여러군데나 찔린 준마가 더이상 걸을수 없어서였습니다.

《분이야, 이 준마는 아주 령리하단다. 상처가 다 나으면 고삐를 풀어주거라. 그럼 저절로 날 찾아올게다.》

늪평마을은 우리 군사들과 외적들의 진지사이에 놓이게 되였지요.

마을사람들은 군사들이 하루빨리 원쑤들을 쳐부시도록 돕기 위해 떨쳐나섰습니다. 처마밑에 매달았던 종곡들까지 모두 털어 군량미로 보냈습니다.

병쟁기를 갖추는 일에 쓰라고 군자금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동

전이나 은전은 말할것도 없고 금반지, 은비녀 같은 귀중품들도 서슴없이 내놓았습니다.

분이만은 아무것도 내놓지 못하였습니다.

집에 있던 쌀과 돈은 이미 바닥이 난지 오랬던것입니다.

아직 어린 그애한텐 남들처럼 간수해둔 금반지나 은비녀도 없었습니다.

아니, 귀떨어진 동전 한잎 없는 형편이지요.

《넌 그만두거라.》

분이의 딱한 사정을 잘 아는 마을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너야 오빠의 준마를 추세우는 일만 해도 힘에 부칠텐데… 너한테야 무슨 돈이 있겠니?》

분이는 호— 한숨을 내쉬였습니다.

너도나도 군사들을 도와나서는데 어쩔수 없는것이 안타까와서였습니다.

한푼두푼 모아보낸 동전, 은전들이 군사들의 갑옷이 되고 창칼이 된다고 생각하니 더더욱 그냥 있을수 없었습니다.

궁리끝에 분이는 바구니를 들고 마을앞 늪가로 나갔습니다. 이제 겨우 뾰족뾰족 싹이 돋기 시작하는 냉이며 달래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이른 봄철이여서 날은 몹시 추웠지요.

분이는 곱아드는 손을 호호 불어가며 온종일 한줌두줌 캤답니다. 그다음 고개너머 고을에 이고가서 동전 한잎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한잎값도 채 안되였지만 마음고운 할머니가 선뜻 사주었지요.

《에그, 이렇게 추운 봄에 나물을 캐다니…

오죽이나 급한 일이 있으면 그랬겠니? 손이 다 꽁꽁 얼었구나. 옛다, 동전 한잎이란다.》

이렇게 되여 분이는 지금 늪평마을로 돌아오는 길이였습니다. 춥고 얼굴은 파리했지만 입가엔 웃음이 남실거렸습니다. 이제는 분이도 동전 한잎이나마 군자금에 보태게 됐으니까요.

그렇지만 아쉬운 생각도 없지 않았습니다. 동전이 아니라 은전 한잎이라면 얼마나 좋을가 하는 생각이였지요.

그럼 오빠랑 군사들한테 더 보탬이 될테니까요.
(래일부턴…) 하고 분이는 속다짐했습니다.
(힘들어도 더 많은 산나물을 캘테야. 그럼 동전 한잎이 두잎, 세잎이 되구 나중엔 은전 한잎만치 되겠지. 아이참, 그럼 얼마나 기쁠가.)
골똘히 생각을 더듬던 분이는 저도몰래 방싯 웃었습니다. 놓칠세라 꼭 쥐고가던 동전을 다시금 살짝 펼쳐보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벌써 은전이 다 되기라도 한듯 말이예요.
아! 그랬더니 이것 보세요.
뜻밖에도 동전 아닌 은전 한잎이 손바닥에 달랑 놓여있지 않겠어요. 반짝반짝 고운 빛을 뿌리면서 말이지요.
《야! 은전!》
분이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혹시나 꿈이 아닌가싶어 손등을 살짝 꼬집어보기까지 했습니다.
다행히도 꿈은 아니였습니다. 분이가 간절히 소원하던 바로 그 은전이 손바닥에 놓여있었답니다.
분이는 너무 기뻐 손벽을 치며 콩콩 뛰였습니다. 그찰나 곱아든 손에 겨우 쥐고있던 은전이 땅바닥에 딸랑 떨어졌습니다.
떼굴떼굴, 떽떼구루루 굴러갔습니다. 그러다가 아차할새도 없이 늪속에 퐁당 빠져버리고말았습니다.
《어마나?!》
분이는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허둥지둥 늪가를 손더듬했습니다. 종아리가 시린줄도 모르고 늪속에 들어서서 찾아보았습니다.
은전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종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감탕을 덩이채로 움켜내여 헤집어보기까지 했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아마도 분이가 덤벼치는통에 더 깊이 파묻혀버린 모양이였습니다.
그사이 날은 아예 캄캄해졌습니다.
하늘에는 하나둘 별이 떠올랐습니다. 낫가락같은 달도 떠올랐습니다.

분이를 동정하듯 굽어보며 희미한 빛이나마 힘껏 뿌려주었지요. 하지만 누구도 은전을 찾아주진 못했습니다.

분이는 어두운 늪가에 선채 홀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은전을 삼키고는 시치미를 뚝 떼는 늪이 얄미워서였습니다. 더이상 은전을 찾을수 없게 하는 어둠마저 야속했습니다.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때 웬 할아버지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밤새도록 늪가를 떠나지 못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소녀야, 왜 그러니? 무슨 일로 그리도 안타깝게 우는거냐?》

처음 보는 낯선 할아버지였습니다. 달빛처럼 부드러운 하얀 수염을 가슴까지 드리우고있었습니다. 키보다도 훨씬 크고 우불구불한 지팽이도 척 짚고있었지요.

분이는 흑흑 흐느꼈습니다. 떠듬떠듬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러는 분이를 달래듯 빙긋 웃었습니다.

《착한 소녀야, 울음을 그치렴. 아무리 심술사나운 늪이라도 너의 그 갸륵한 마음을 알게 되면 은전을 내놓지 않을수 없을게다. 어디 내가 한번 찾아볼가? 옳지. 저기, 저기 있구나.》

할아버지는 이러며 지팽이를 슬쩍 들어 가리켰습니다. 정말 어둑컴컴한 늪바닥에 댕그라니 가라앉은 은전이 대번에 눈에 뜨이겠지요.

글쎄 방금까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분이는 너무 기뻐 늪속으로 막 뛰여들려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러는 분이를 얼른 붙들어 세웠답니다.

《아서라. 소녀야, 늪은 깊단다. 저렇게 빤히 들여다보이지만 네 키보다야 썩 더 깊지. 아무래도 내가 널 마저 도와줘야 할가보구나.》

할아버지는 지팽이를 다시금 가볍게 쳐들었습니다. 늪깊이를 가늠하듯 쿡쿡 찔러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치도 낚시대를 휘두르듯 어엿차 하며 힘껏 쳐들었습니다.

그러자 늪밑에서 반짝이던 은전이 지팽이끝에 붙어 둥둥 떠오르더니 분이의 발치앞에 철썩 떨어졌습니다.

분이는 깜짝 놀라 두손을 모두어잡았습니다.

은전이 아니라 닭알만큼 크고 번쩍거리는 황금덩이였기때문입니다.

《할아버지, 이건 제가 떨어뜨린 은전이 아니예요.》
《소녀야, 이건 네가 떨어뜨린 은전이란다.》
할아버지는 분이의 말을 노래하듯 즐겁게 따라했습니다.
《그건 내가 더 잘 알지. 어서 마음놓고 가져가거라. 너같이 기특한 소녀에게 주는 이 늪의 선물로 생각하면 될게다.》
분이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할아버지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분이는 신기한 황금덩이를 조심히 안아들었습니다. 황금이 번쩍거린다는것은 알고있었지만 이렇게도 눈부신 빛을 내뿜는줄은 몰랐습니다.
두손으로 꼭 감싸쥐였는데도 황금빛은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지요. 손바닥을 유리처럼 꿰뚫고나와 불덩이처럼 환히 빛났습니다. 품속에 넣어봐도 바구니에 담아봐도 매한가지였습니다.
분이가 얼마나 기뻤겠나요.
이만한 황금이면 군사들한테 큰 도움이 될것 같았습니다. 기쁨이 넘치니 발걸음에도 나래가 돋친듯 했답니다. 어느결에 마을끝에 자리잡은 집앞에 이르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사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떼를 지어 달려든 오랑캐놈들이 마을을 싸다니고있었습니다. 집집을 뒤지며 쌀, 돈 할것없이 마구 빼앗으려고 날치였습니다. 분이는 다급해졌습니다. 금덩이를 헝겊으로 두겹, 세겹… 다섯겹을 싸서 농짝밑에 감추어보았습니다.
황금빛은 그냥 새여나왔습니다. 농짝속에 보름달이 들어앉기라도 한듯 방안까지 환해졌습니다.
단지속에 넣어서 뚜껑을 덮은 다음 부엌 물독안에 숨겨보았습니다. 황금빛은 그냥그냥 새여나왔습니다. 물독속에 둥근달이 내려앉기라도 한듯 부엌까지 대낮처럼 밝아졌습니다.
이번에는 마당앞 터발가운데 구뎅이를 파고 단지채로 묻었습니다. 그다음 꽁꽁 밟아주었지요.
황금빛은 그제야 스러졌습니다. 더는 비쳐나오지 못했습니다. 누가 봐도 알수 없게 감쪽같았습니다. 분이는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

쉬였습니다.

《호— 됐어. 이젠 어떤 놈도 알아채지 못할거야.》

그런데 그다음날이였습니다.

두억시니같은 오랑캐놈들이 둘씩이나 분이네 집에 달려들었습니다. 한놈은 눈이 퉁사발같고 또 한놈은 코가 나팔같았습니다.

《여기야, 이 집이야.》

퉁사발놈이 먼저 떠들었습니다.

《어제밤 바로 이쯤에서 황금빛이 번쩍거리는걸 보았어. 틀림없이 여기 어디 황금이 있을거야. 귀신은 속여두 내 눈은 못 속이지.》

《흐흐흐, 그게 사실이라면야…》

나팔코가 으쓱해서 맞장구쳤습니다.

《황금을 찾는 일은 나한테 맡겨. 난 황금냄새를 귀신같이 맡으니까. 내 코를 속이진 못할걸.》

분이는 깜짝 놀라 굳어졌습니다.

황금을 땅속에 파묻긴 했지만 개처럼 황금냄새를 잘 맡는 놈까지 나타날줄이야 어찌 알았겠습니까. 아니나다를가 나팔코가 곧바로 농짝앞에 다가갔습니다. 농짝안을 발칵 뒤집어보고는 이상한듯 대가리를 기웃거렸습니다. 그다음엔 신통히도 분이의 발자취를 밟아 부엌 물독앞에 이르렀습니다.

벌쭉대며 뚜껑을 와락 열어젖혔지요.

황금은 거기에도 없었습니다. 물독에 가득찬 맑은 물만이 나팔코의 흉측한 몰골을 비웃듯 빤히 쳐다보았을뿐이지요.

약이 오른 나팔코가 물독을 사정없이 박산냈습니다. 그러나 물러가지는 않았습니다. 끈질기게 코를 벌름벌름하더니 화닥닥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끝내 눈치를 알아차린것입니다.

분이는 속이 철렁했습니다.

더이상 요행을 바랄수도 없게 되였습니다.

(황금덩이야, 신기한 황금덩이야.)

허둥지둥 놈들을 뒤쫓아가며 부르짖었습니다.

(오랑캐놈들의 눈에 뜨일바엔 흙이 되렴, 돌이 되렴, 차라리

없어지렴.)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두리번거리던 퉁사발눈이 큰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아하, 저기다, 저기.》
분이는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퉁사발눈이 면바로 밭가운데를 가리켰기때문만이 아니였습니다. 황금을 묻은 곳에 난데없는 곡식포기가 보란듯이 우뚝 서있었던것입니다.
가만 보니 기장포기였습니다.
그렇지만 퍽 크고 굵었습니다. 이삭만도 비자루만큼 했는데 누렇고 반짝반짝하는 기장알들이 무겁게 매달려있었습니다.
기장알들도 신기하리만치 크고 굵었습니다.
수수알보다는 열, 스무배나 크고 콩보다는 서너배는 굵었습니다. 그 크고 굵은 기장알들은 바람이 불 때마다 서로 부딪치면서 쩔러덩, 쩔러덩 소리까지 냈습니다.
《흐흐흐, 여기다. 바로 이 기장포기밑이다.》
나팔코가 개처럼 넙죽 엎드렸습니다. 신이 나서 코를 아예 땅바닥에 바싹 갖다댔습니다.
《이 기장은 돈기장이야. 황금을 이 밑에 파묻었다고 이렇게 쩔렁쩔렁 돈소리를 내서 알려주거든.》
다짜고짜 기장을 베여 내던졌습니다.
두더지처럼 그루밑을 마구 파헤치기 시작했지요.
짐작하겠지만 얼마 안되여 하얀 사기단지가 나타났습니다. 두놈이 와락 덮쳐들었습니다. 대가리를 맞쪼으며 서로들 단지를 부둥켜안았습니다.
하지만 단지속을 들여다보고는 《어엉?》 하고 김빠진 소리를 냈습니다. 멀뚱멀뚱 서로 쳐다보기만 했지요.
단지속이 텅 비여있었던것입니다. 방금전에 베여던진 기장뿌리만이 얼기설기 뒤엉켜있을뿐이였지요.
《에잇!》
닭쫓던 개신세가 된 놈들이 단지를 산산쪼각냈습니다.

멱살을 틀어잡고 서로 욕지거리를 퍼부었습니다.
《이 코 큰 밥통아, 네놈탓에 공연히 헛수고만 했구나.》
《뭐라구? 이 망울빠진 퉁눈아, 기장과 황금도 가려보지 못한 주제에…》
두덜대며 어디론가 물러갔습니다.
분이는 막혔던 숨을 내쉬였습니다. 황금을 놈들에게 빼앗기지 않은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황금이 어데 갔는지 알수 없어 얼떠름해졌습니다. 혹시나 해서 구뎅이속도 들여다보고 깨진 단지쪼박들도 헤집어보았습니다.
그때 등뒤에서 버스럭소리가 났습니다. 마구간에 매여있던 오빠의 준마가 비틀비틀 일어서고있었습니다.
창칼에 다친 상처가 낫지 않아 아직까지 일어서지 못하던 준마였습니다. 절룩절룩 가까스로 한걸음한걸음 다가오더니 놈들이 베여던진 기장이삭을 덥석 물고 서걱서걱 씹기 시작했습니다.
분이는 눈이 휘둥그래서 얼른 기장이삭을 입에 대주었지요.
준마는 자못 맛스러운듯 마지막이삭끄트머리까지 죄다 삼켜버리고서야 푸― 하고 가쁜 숨을 내쉬였습니다.
어지간히 힘이 솟는 모양이였습니다.
푸르르― 갑자기 준마가 거세게 코김을 내불었습니다. 네굽을 추켜들고 벌떡 일어서더니 오호홍 우렁차게 울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준마의 온몸이 누런 황금빛으로 변하면서 눈부신 빛발을 번쩍번쩍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세찬 빛을 내뿜는지 마주 보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이글이글 타오르는 해님을 마주한듯 눈이 다 시그러웠으니까요.
분이는 너무도 황홀한 나머지 꿈을 꾸듯 한동안이나 멍하니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오호홍! 황금준마가 땅을 차고 일어서며 또 한번 우렁차게 울었습니다.
어서 청돌장수한테 보내달라고 몸부림치는것 같았습니다.
분이는 펄쩍 정신을 차렸습니다.
얼른 황금준마의 고삐를 풀어주며 속삭였습니다.

《황금준마야, 어서 달려가렴. 고향땅을 삼키려는 원쑤들을 쳐부시고 오빠랑 함께 돌아와주렴.》

황금준마는 알았다는듯 고개를 주억거리더니 우리 군사들의 진지쪽으로 살같이 내달렸습니다.

드디여 산이 무너지는듯한 함성소리가 하늘땅을 드르릉 뒤흔들었습니다.

만단의 준비를 갖춘 우리 군사들이 원쑤들과의 마지막판가리싸움에 떨쳐나선것입니다.

용맹한 청돌장수를 태운 황금준마가 앞장에서 달려나갔습니다.

악을 쓰며 맞서보려던 원쑤들이 어쿠어쿠 비명을 질렀습니다.

싸움판을 가로세로 번개처럼 내닫는 황금준마의 신기한 빛발앞에 눈을 뜰수 없었기때문입니다.

창칼마저 떨어뜨리며 눈통들을 싸쥔채 나동그라졌지요.

청돌장수와 군사들이 허우적거리는 놈들을 눈먼 개 때려잡듯 했답니다.

늪평마을에 달려들었던 원쑤들은 마침내 깡그리 녹아나고말았지요.

승리한 청돌장수와 군사들이 분이를 에워쌌습니다.

《분이야, 고맙다. 네가 황금준마를 보내준 덕에 우린 원쑤놈들을 손쉽게 이겼단다. 자, 우리 군사들의 인사를 받아다오.》

얼싸안고 둥둥 추켜올렸습니다.

저저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요.

분이는 너무도 기쁘고 부끄러워 얼굴만 빨갛게 물들였습니다.

(아이참, 부끄럽네. 나야 그저 동전 한잎이라도 더 보태주려고 했을뿐인데…

그 동전이 그토록 신기한 조화를 부릴줄이야 어찌 알았담!)라고 말이지요.

정말 분이의 정성이 깃든 동전 한잎이 고향땅을 지켜내는 장수의 황금준마로 될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주체93(2004)년

동 화

공상의 호수

전 충 일

석이는 온 세상에 짜하게 이름을 날린 발명가들이 늘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학교길을 오가면서도, 자연관찰을 하면서도 자기도 그들처럼 멋진 발명을 하려고 은근히 마음을 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방학에 때마침 석이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꼬마발명품전시회》가 열리게 되였습니다.

석이는 여기에 자기의 발명품을 꼭 내놓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석이는 매일같이 학습장에 갖가지 모양의 자동차를 그려가며 궁리에 궁리를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가고 이틀이 지나도 별로 신통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어느날 석이는 머리도 식힐겸 낚시대를 메고 내가로 나갔습니다.

《또 한놈 잡았다!》

낚시질명수인 석이는 푸들쩍거리는 물고기꿰미를 쳐들어보며 흡족해서 중얼거렸습니다.

《발명이란것도 이렇게 물고기낚듯 낚시로 척척 낚아낼수 있다면 좋겠는데.》

바로 그때 석이의 머리우에서 웬 노래소리가 울려왔습니다.

맴—맴—
나는야 알고있네
공상의 호수가
어디에 있는지

석이는 놀라서 소리나는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버드나무가지에는 처음 보는 이상한 매미가 붙어있었습니다.
《아니, 너…넌 누구냐?》
《나는나는 공상의 호수에서 사는 매미지.》
매미는 노래하듯이 소리를 길게 뽑았습니다.
《공상의 호수라니 대체 어떤 호수냐?》
매미가 대답했습니다.
《자기가 공상하던 물건을 낚시로 낚아내는 호수지.》
석이는 그만 놀라 물고기꿰미를 떨어뜨렸습니다.
《히야— 그것 참 좋은 곳이로구나.》
석이는 매미에게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매미야, 날 그리로 좀 데려다줘. 응?》
석이로부터 딱한 사정을 들은 매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 가보고싶다면 데려다주어야지.》
매미는 《날 놓치지 말고 바싹 따라야 해.》하고 이르고는 앞서 날기 시작했습니다.
석이는 낚시대를 잊지 않고 어깨에 멘채 땀을 뻘뻘 흘리며 따라 달렸습니다.
공상의 호수는 과학자도시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매미는 능수버들이 휘늘어진 호수가에 이르러 날개를 접었습니다.
《바로 여기란다.》
석이는 호수를 휘둘러보고나서 코방귀를 뀌였습니다.
《쳇, 공상의 호수라더니 여느 호수와 다름이 없구나 뭐.》
그러자 매미가 성이 나서 날개를 파닥거렸습니다.

《잠자코 호수밑을 가만히 들여다보렴.》
석이는 손채양을 하고 물밑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수천의 거울쪼각들이 살아움직이는듯 번쩍이는 물속에 이상한 물고기들이 헤염쳐다니고있었습니다.
석이는 정말이지 그게 물고기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무슨 꼬마모형들인게 아니겠나요. 자그마한 고기배도, 곱등어처럼 생긴 잠수함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행기며 굴착기, 인공지구위성 같은것들도 한데 어울려 빙글빙글 돌아가고있었습니다.
석이는 감탄을 올렸습니다.
《기막히게 멋있는 호순데!》
매미도 신바람이 나는듯 날개를 추켜들며 떠들었습니다.
《암, 그럴수밖에. 말그대로 공상의 호수니까. 이곳 사람들은 무슨 궁리가 잘 떠오르지 않을 때면 이 호수에 낚시대를 드리우고앉아 사색을 무르익히군 하지. 그러느라면 저 깊은 물밑에서 지금껏 자기가 공상해온 물건이 척 나타나게 된단다.》
《그때 낚시대를 나꾸채면 된단 말이지?》
《그렇지 않구. 저—기 머리흰 박사선생님도 지금 자기가 구상해오던 로보트와 저렇게 만나고있질 않니.》
매미가 가리키는 곳에서는 석이도 알고있는 이름있는 과학자에게 금방 호수에서 솟아나온듯한 로보트가 꾸벅 절을 하는 모양이 보였습니다.
《그것 참 멋진데!》
석이는 입을 하 벌린채 그쪽을 정신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어디 그뿐이냐. 어떤 건축가는 여기서 훌륭한 집의 설계도면을 착상했단다. 기사들은 또 얼마나 많은 새 기계들을 이 호수가에서 창안해냈는지 몰라.》
석이는 자기가 매미를 만나 이곳으로 오기 백번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매미의 말을 채 듣지도 않고 성급하게 낚시대부터 꼬나들었습니다.

물속에서 헤염치는 그 많고많은 물건중에서 어느 하나만 낚아내도 될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워낙 낚시질을 잘하는 석이인지라 요리조리 피하는 우주비행선 하나를 낚시코에 걸어 휘딱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꼬마우주비행선은 풀밭에 떨어져 공중제비를 하더니 놀리듯이 연기를 뿜어놓고는 호수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석이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두번째 낚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다음으로 건져낸 꽃게처럼 생긴 꼬마로보트도 석이의 손가락을 꽉 깨물어주고는 모재비걸음으로 잽싸게 달아나버리는것이였습니다.

《아이쿠!》

거듭 랑패를 보는 석이에게 깔깔 웃던 매미가 귀띔했습니다.

《애두 참, 자기가 공상한 물건을 건져야지 남의걸 넘보면 되니?》

《정말 그렇구나.》

석이는 이마를 탁 쳤습니다.

(남의 공상을 자기것으로 하려고 하다니. 그거야 안될 말이지.)

석이는 웅크리고앉아 될수록 깊은 생각에 잠기려고 애썼습니다.

잠시후 조용해진 호수가에서는 이런 속삭임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쉬— 조용조용…

쉬— 조용조용…

호수는 넘실거리며 무엇인가 귀띔하려는듯 하였습니다. 물밑에서는 갖가지 물건들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며 석이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차츰 들뗬던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막혔던 생각이 샘처럼 줄줄 솟아나왔습니다.

석이가 학습장에 그렸던 여러가지 자동차들이 멋진 옷을 입고 물속에 나타나 빙글빙글 끝없이 돌아갔습니다.

(귀한 기름대신 무얼 써서 자동차를 달리게 할가?)
문득 석이는 물속 깊은 곳에서 얼핏 지나가는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렇지. 물자동차!)
순간 석이의 낚시대가 묵직하게 휘였습니다.
석이는 지체없이 낚시대를 쳐들었습니다.
금빛찬란한 옷을 입은 꼬마자동차가 물보라를 일구며 낚시를 따라 솟아올랐습니다.
《부릉부릉―》
꼬마자동차는 몸을 떨더니 점점 자라나 커다란 화물자동차로 되였습니다.
석이는 너무도 놀랍고 기뻐서 눈이 사발만 해졌습니다.
꼬부랑소나무에 앉아있던 매미가 제때에 주의를 주지 않았던들 그는 호수가가 들썩하게 만세를 부를번 하였습니다.
앞가슴에 큼직한 물통을 멘 자동차는 코끼리코같은 물관을 뻗쳐 호수의 물을 주룩주룩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어서 타라는듯 석이쪽을 향해 운전칸문을 벙싯이 열었습니다.
바지괴춤을 추슬러올린 석이는 벙글거리며 자동차를 탔습니다.
물자동차는 경쾌한 발동소리를 울리며 호수가를 달렸습니다.
석이는 너무 좋아 코노래라도 부르고싶은 심정이였습니다.
(그 어디나 흔한 물을 가지고 자동차를 달릴수 있게 됐구나. 공상의 호수가 제일이야. 제일!)
이때 《나도 한번 타보자구.》하면서 매미가 날아왔습니다.
석이는 매미도 자기의 자동차에 태워주었습니다.
《자, 나의 자동차야, 이젠 발명품전시회장으로 가야지!》
그런데 일은 별나게 벌어졌습니다.
석이가 아무리 운전대를 이리저리 돌리고 자동차를 내몰려 해도 물자동차는 호수가에 못박힌듯 서있었습니다.

마치 뒤쪽에서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잡아당기기라도 하듯 부릉부릉 용만 쓸뿐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석이는 운전칸에서 뛰여내려 자동차적재함을 낑낑거리며 밀어보았으나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자동차가 왜 이러는거야?》

석이의 볼멘 소리에 물자동차는 풀풀거리더니 다시 본래의 모양으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석이가 두눈을 뚜부럭거리는 사이에 아주 작아진 자동차는 물속으로 휙 들어가버리고말았습니다.

석이는 그만 창피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씩씩거리며 매미에게 따지고 들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야? 넌 여기서 무엇이나 공상하는 물건을 낚아낼수 있다고 하지 않았니.》

매미는 어이없는듯 석이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넌 혹시 여기가 공상의 호수라는걸 잊은게 아니냐. 여기선 모든것이 다 공상에 지나지 않아.

물론 방금전에 네가 타고있던 그 자동차도 말이야.》

《뭐?》

석이는 그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곳에 데려와서 궁냥을 틔워주자고 했는데 공상속의 자동차를 그대로 몰고가는 어리석은짓을 하려들다니.》

《그러니 진짜가 아니였단 말이지?》

《그렇지 않구. 지금 저 호수속에 떠도는 물건들은 자기를 공상한 주인들의 꾸준한 노력이 없이는 이 세상에 진짜로 태여날수 없단다.

사람들이 제힘으로 그 물건들을 만들어낼 때까지 이 호수속에 언제나 공상으로만 남아있게 되지. 공상이란건 바로 그런거야.》

석이는 아쉬운 눈으로 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빈입을 다시며 돌아서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매미가 그의 발걸음을 멈춰세웠습니다.

《잠간만… 역시 석이 너도 저 물속에서 떠다니는 물건들의 임자들과 다를바 없구나. 그래 넌 자기의 훌륭한 공상을 영영 이 호수가에 버리고 가겠다는거냐?》
머리를 숙인 석이에게 매미가 계속했습니다.
《너에게 이 말만은 하지 않자고 했지만… 사실 나도 한 과학자의 공상에 의해 이 호수에서 태여났단다. 그는 땅우에서는 물론 물속으로도, 공중으로도 다니는 승용차,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승용차를 공상했었지. 그런데 점차 연구사업이 힘들어지자 나를 여기에 버려둔채 어디론가 떠나가버리더구나.》
울먹이는 매미의 모습을 자세히 바라보니 다리사이사이에 정말 바퀴들이 달려있었습니다.
《그래서 난 이렇게 공상의 호수에 영원히 남게 된거야.》
석이는 매미가 가엾어졌습니다.
매미를 버린 사람이나 자기나 조금도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니 부끄럽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에서 날아든 환한 빛줄기가 호수물면을 뚫고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물속에서 헤염치고있던 날씬한 꼬마비행기 하나가 눈부신 빛발에 싸이더니 녹아없어진듯 사라졌습니다.
뒤이어 또다른 빛줄기가 날아들더니 이번에는 자그마한 꼬마인공위성이 온데간데없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저건 지금까지 그걸 연구해오던 과학자들이 끝끝내 성공했다는걸 말해. 이제 더이상 공상의 호수속에 있을 필요가 없어진거야.
아, 얼마나 행복한 소식이냐.》
매미는 자기 일처럼 반가와 하늘가 멀리를 바라보는것이였습니다.
석이는 말없이 새로운 눈으로 공상의 호수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매미에게 잘못을 빌었습니다.
《매미야, 너의 가슴을 두번다시 아프게 한 날 용서해. 난

손쉽게 성공의 열매를 따서 제 이름을 날리려고 한 나쁜 애였어.》

석이는 주먹을 부르쥐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앞에 나선다 해도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테야.

나라를 위해 한몸바칠 잡도리를 하고 연구사업을 끝까지 벌려 내가 공상했던 물자동차를 내 손으로 꼭 만들어내고야말테야. 두고보렴.》

그 말을 듣자 매미는 얼마나 기뻤던지 눈물이 다 그렁해졌습니다.

《그래주면 나도 고맙겠어. 너의 그 결심을 물자동차에게도 전해주겠어.》

《그래주렴.》

알고보니 석이가 사귄 매미는 정말이지 좋은 매미였더랬습니다.

그의 덕분에 석이는 참으로 많은것을 깨달았거든요.

석이는 매미와 작별하면서 다시한번 호수를 돌아보았습니다.

공상의 호수도 새롭게 마음다진 석이를 축복하듯 넘실넘실 춤을 추며 은금빛을 뿌려주는것이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후 석이네 학교에서는 《꼬마발명품전시회》가 열렸고 여기서는 석이가 자기의 착상을 무르익혀 내놓은 물자동차도안이 제일 높이 평가되였답니다.

석이는 여기에 조금도 자만하지 않고 자기의 훌륭한 생각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배우고있답니다. 우리는 거리에서 신나게 씽씽 오가는 석이의 물자동차를 보게 될수도 있을것입니다.

주체92(2003)년

동　화

백화동의 청자기

리 순 기

여러분도 알다싶이 옛날 우리 나라의 고려청자기는 참으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나라 도자기들보다 윤기가 돌고 색갈이 우아했으며 모양도 여러가지인 아름다운 고려청자기는 쓸모도 좋을뿐아니라 방에 놓고 보는 장식품으로도 훌륭했습니다.

집에 그런 청자기를 한개라도 구해다놓으면 복이 절로 흘러든다고 하여 사람들은 누구나 고려청자기를 가지고싶어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고려청자기는 그에 깃든 이야기 또한 많았습니다.

백가지, 만가지 꽃이 피여 백화동이라고 불리우는 마을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있었습니다.

온갖 꽃들이 다투어 피여나고 탐스러운 열매가 주렁진 풍요한 들판도 좋지만 도자기공예로 더 이름난 이 마을에는 갖가지 도자기들이 많았습니다.

비취색의 꽃병들과 그릇, 감색갈의 단지, 흑진주같이 새까만 접시와 보시그릇들은 얼마나 잘 구워졌는지 손가락으로 툭툭 튕기면 가야금을 울리는듯 청아한 소리가 울리군 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거울처럼 윤기가 도는 어른키만큼한 큰 청자기꽃병은 이 마을에서 귀중한 보물로 여기고있었습니다.

꽃술과도 같이 모양이 아름답고 색갈이 우아했으며 그 겉면에 새겨진 구름우에 떠받들리운 둥근해와 나래를 펴고 날아가는 학, 가

지를 힘있게 뻗친 소나무는 실물을 보는것과도 같았습니다. 거기선 언제나 은은한 음악소리가 흘러나왔는데 소리는 크지 않아도 멀리까지 울려갔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즐거워지고 저도모르게 몸에서 힘이 솟군 했습니다.

또한 그 청자기에선 짙은 향기가 풍기였는데 그래서인지 마을에는 아직 한명도 앓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신기한 청자기는 마을복판에 서있는 정자나무밑 네벽이 다 수정으로 되여있는 루각안에 놓여있었습니다.

이 청자기가 하두 유명하다보니 그 소문은 멀고먼 다른 나라들에까지 퍼지게 되였습니다.

그래 지구의 한끝에서까지 와서 장사군들이 많은 돈을 줄테니 그걸 달라고 했고 왕이 보낸 사신이나 선비들도 찾아와서 자기 나라의 진귀한 보물과 바꾸자고 흥정을 걸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마을에선 절렁거리는 돈꾸레미도 진귀한 보물도 모두 마다하였습니다.

마을사람들은 그 청자기를 잃을세라 잘 지키며 소중히 다루었습니다.

그중에는 남달리 그림재간이 있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석봉이라는 젊은이인데 그는 청자기에 먼지 한점 앉을세라 아침저녁으로 닦군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습니다.

이날도 청자기를 구경도 하고 흥정도 해볼겸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중에는 외뿔모자를 쓴 한 난쟁이도 있었답니다.

그는 어깨에 화판을 둘러멨는데 오래동안이나 루각주위를 돌며 청자기를 이리 살피고 저리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입을 하 벌리고 거듭 감탄을 하더니 화판을 펼쳐놓고 청자기를 그림에다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쓰는 붓이 아주 특이했습니다. 붓대도 새까만데다가 붓초리 역시 검은쥐털인지 새까맣고 길었습니다.

석봉이는 호기심이 나서 난쟁이한테로 다가갔습니다.
어찌나 솜씨가 좋은지 한번 붓을 휘저으니 청자기의 테두리가 그려지고 두번 붓을 움직이니 소나무와 학이 새겨졌습니다.
《야, 솜씨가 대단하군요. 아저씬 어디서 그림을 배웠나요?》
《난 바로 이 마을 공예사할아버지한테서 배웠단다.》
《아니? 우리 공예사할아버지말이예요?》
석봉이는 눈이 둥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다른 나라 사람이 자기네 마을 할아버지한테서 배울수 있었을가 해서였습니다.
《그럼, 이젠 퍼그나 먼 옛날이지.》
외뿔모자를 쓴 난쟁이는 중얼거리며 청자기를 마저 다 그렸습니다. 마치 살아있는듯 정말 멋진 그림이였습니다.
석봉이는 그에 비하면 자기의 그림재간이 많이 뒤떨어졌다는것을 느끼게 되였습니다.
그 난쟁이는 그림이 만족했던지 종이를 접고 히쭉 웃어보이고는 곧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외뿔난쟁이가 사라진 뒤 수정루각에서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앞에서 갑자기 청자기꽃병이 없어졌습니다.
다만 그 청자기를 받들고있던 받침돌만 댕그라니 놓여있었습니다.
구경군들은 눈들이 둥그래서 서로 마주보았습니다.
누구도 루각안에 들어간 일도 만져본 일도 없는데 어떻게 없어졌을가?
꼭 꿈을 꾸는것만 같았습니다.
눈을 껌벅거리던 석봉이는 머리를 기웃거렸습니다.
(혹시 그 외뿔난쟁이가 마술을 부린게 아닐가?)
그는 어쩐지 외뿔난쟁이가 이상스럽게 생각되였습니다.
방금전에 이곳을 떠나는걸 보니 누가 볼세라 다급히 화판을 메고 여기저기 살피며 가는 모양이 뭔가 수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지 못한 이상 그를 도적이라고 할수도 없었습니다.

석봉이는 외뿔난쟁이가 사라진쪽으로 달려가보았습니다.
그는 벌써 굽이길을 돌더니 바다가쪽으로 가는것이였습니다.
석봉이는 그가 볼세라 살금살금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외뿔난쟁이는 바다기슭의 너럭바위에 척 앉더니 방금 그린 그림을 펼쳐놓는것이였습니다.
그리고 물병에서 물을 한모금 입에 넣고 종이를 향해 후—하고 내뿜는것이였습니다.
그러자 주위에 뽀얀 물안개가 서리였습니다.
그러더니 잠시후에 안개가 걷히며 그자리에 청자기가 우뚝 솟아났습니다. 동시에 그림은 싹 없어졌습니다.
(아니? 저거 우리 청자기가 아니야?)
석봉이는 너무도 놀라와 눈을 막 비비고 바라보았습니다.
보물청자기와 신통히도 꼭 같았습니다.
이때 대여섯명의 검은 그림자가 불쑥 나타나더니 난쟁이와 청자기를 배에 싣고 다급히 도망가는것이였습니다.
너무도 뜻밖에 벌어진 일이여서 석봉이는 그것을 빼앗을념도 못했습니다.
그가 소리를 지르기 전에 벌써 놈들은 바다멀리 사라지고있었습니다.
(그럼 그놈이?)
석봉이는 마을로 달려와 공예사할아버지한테 외뿔난쟁이의 이상한 행동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다우쳐물었습니다.
《그놈이 무슨 붓으로 그리더냐?》
《까만 붓이예요. 쥐꼬리털로 만든것 같애요.》
할아버지는 턱수염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요즘 세계 각곳을 다니면서 유명한 산이나 보물, 기이한 바위나 유물을 훔쳐가는 도적놈이 나타났다더니 그놈이 분명하다. 마술붓을 써먹는 외뿔난쟁이가 우리 청자기까지 훔쳐갔구나. 배은망덕한 놈!》
할아버지는 분해서 땅바닥을 쾅쾅 내리쳤습니다. 사연인즉 오래

전에 바다건너 섬나라왕이 그림그리는 재간을 배워달라고 한 신하를 보낸적이 있었습니다. 외뿔모자를 쓴 난쟁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그를 맡아 배워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마술붓을 얻어 도적놈이 되였던것입니다.

그 붓으로 그림을 그리면 실물은 그림속에 흘러들고 본래자리는 텅 비게 되였습니다.

그놈은 그것을 가지고가서 다시 실물로 만들어 박물관을 차려놓고 돈벌이를 하였습니다.

석봉이는 가슴이 찢기는것 같았습니다.

왜 안그렇겠나요. 청자기가 없어지자 마을은 근심에 싸였습니다.

무병장수하던 마을에 이름모를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고 모두가 맥이 빠져 일손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더우기 청자기를 찾으러 갔던 사람들이 외뿔난쟁이가 검은 붓으로 바람도 몰아오고 파도도 치게 조화를 부려서 힘만 뽑고 그냥 돌아오군 했습니다.

석봉이는 가슴을 쥐여뜯으며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어쩌면 좋나요? 그 청자기를 찾아올순 없나요?》

할아버지는 석봉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청자기를 찾자면 외뿔난쟁이의 재간을 뛰여넘어야 한다. 그때만이 마술붓이 맥을 추지 못하지. 헌데 난 눈이 어두워서 틀렸구나. 청자기는 한번 잘못 그렸거나 그리는 도중에 헛눈을 팔면 영영 잃어버리거나 깨져 없어진단다.》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였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리겠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도리머리를 저었습니다.

《안된다. 네 재간으로는 어림두 없다.》

할아버지는 이제부터 그림련습을 직심스레 하라고, 외뿔난쟁이를 뛰여넘을수 있게 재간을 늘구라고 하였습니다.

석봉이는 그림그리기에 달라붙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것은 뭐나 다 그려보았습니다.

그림재간은 나날이 늘어갔습니다.

열흘이 지나 석봉이는 자기가 그린 그림들을 모아가지고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보아주세요. 이젠 청자기를 그릴수 있나요?》

할아버지는 머리를 저었습니다.

《안된다. 아직은 이르다.》

할아버지는 그림그리는 방법을 설명해주었습니다.

석봉이는 낮과 밤이 언제 뒤바뀌는줄 모르고 그림그리기에 열중했습니다.

입술이 트고 허기증이 와도 참았습니다.

석달후에 다시 찾아갔으나 할아버지는 여전히 《안된다. 아직 멀었다.》고 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석봉이는 때식을 잊고 잠을 설치며 또다시 붓을 놀렸습니다.

달빛아래서도 그려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밤이였습니다.

이날도 석봉이는 달빛을 등불삼아 그림을 그리고있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창밖에 무지개빛이 어리더니 누군가 창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넌 누구냐?》

석봉이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창밖에는 무지개옷을 곱게 입은 웬 소녀가 서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방실방실 웃으며 말했습니다.

《난 달나라에서 온 달공주예요.》

석봉이는 창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달공주는 방안으로 사뿐 날아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든 달빛초롱으로 석봉이의 그림을 비쳐보았습니다.

《야, 정말 멋있네. 소문보다 더 잘 그렸어요.》

《소문?!》

《그럼요. 당신의 그림솜씨가 달에까지 퍼졌어요. 우리 아버지가 초청해요. 당신이 달궁을 아름답게 장식해주면 일생 편안히 살고도 남을 재물을 주겠댔어요. 어서 가시자요.》

달공주의 눈빛은 반가움에 반짝 빛났습니다.

《그건 고맙다만 들어줄수 없단다. 이담에 그려주지.》
달공주는 머리를 까딱대고는 밤하늘로 날아갔습니다.
(이젠 됐구나. 달공주의 초청까지 받는 수준인데.)
석봉이는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이젠 될것 같습니다. 봐주십시오.》
할아버지는 여러장의 그림들을 보더니 머리를 가로저었습니다.
《아서라, 아직도 세련되지 못했다. 이것 봐라. 단붓질이 좀 서툴지 않냐?》
석봉이는 또다시 그림에 열중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빛마저 없는 어둠속에서도 그려보았습니다.
눈을 감고도 그려보았습니다.
이때 갑자기 창밖은 보석을 뿌린듯 반짝반짝 빛을 뿌렸습니다.
누군가 창문을 기웃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넌 누구냐?》
석봉이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별이 반짝이는 금관을 쓴 아이였습니다.
《난 별나라에서 온 별왕자예요.》
석봉이는 창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별왕자는 방안으로 가볍게 날아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든 별빛초롱으로 석봉이의 그림을 비쳐보았습니다.
《히야, 정말 멋있군요. 어둠속에서도 이렇게 잘 그렸네. 소문보다도 더 잘 그렸어요.》
《소문?!》
《그래요. 당신의 그림재간이 별에까지 퍼졌어요. 우리 어머니가 당신을 초청해요. 별궁을 아름답게 장식해주면 보물을 한가득 주겠댔어요. 별나라구경두 시키구요. 어서 가자요.》
별왕자는 방실방실 웃었습니다.
《그건 고맙다만 난 들어줄수 없어. 이담에 그려주지.》
별왕자는 머리를 끄덕대고는 밤하늘로 날아갔습니다.
(이젠 됐구나. 별왕자의 초청까지 받는 수준인데.)

석봉이는 할아버지를 찾아서 막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이젠 될것 같아요. 봐주세요.》
그림들을 깐깐히 들여다보던 할아버지는 이번에도 머리를 저었습니다.
《아서라. 네가 벌써 자만하는가부다. 그 청자기가 어떤거라구. 이것 봐라. 획이 고르롭지 못하구 맥이 빠진걸. 우리 화법에 정통하자면 더 힘써야 한다. 그림그릴 때 붓끝까지 온 정신이 통해야 하느니라. 더우기 달공주요, 별왕자요 하면서 헛눈까지 팔고있으니 정말 멀었다.》
석봉이는 고개를 푹 숙이였습니다.
(내가 자만했어. 정말 경솔했어.)
그는 마음을 다잡고 또다시 그림에 열중했습니다.
닭을 그려도 닭털 한오리한오리 세듯이 세밀하게 그렸고 토끼를 그려도 숨쉬며 호물대는 살아있는 토끼처럼 그렸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쪼록쪼록 물을 삼키는 모습이 방불하게 수십번이나 다시 그려보았습니다.
이젠 한번 보고 하얀 붓을 척 놀리면 순식간에 그림이 완성되였습니다.
어느 한낮이였습니다.
석봉이는 지금껏 그린 그림들을 할아버지한테 검열받을수 있을가 하고 잔디밭에 펼쳐보았습니다.
이때 갑자기 하늘에서 커다란 새 한마리가 휙 내리꼰지더니 닭을 그린 그림을 물고 날아갔습니다. 독수리였습니다.
(아니?!)
불쑥 숲속에서 족제비 한마리가 뛰여나오더니 토끼를 그린 그림을 물고 사라졌습니다.
《놔라, 놔!》
석봉이가 바빠맞아 소리치는데 이번에는 물촉새가 날아와 물고기그림을 부리로 톡 쪼아대고 날아갔습니다. 그림종이에 구멍이 펑 뚫렸습니다.
참 난처하게 되였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허허허…》하고 난데없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공예사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그림들이…》
《용타, 진짜인가 해서 새가 날아들구 짐승이 뛰여나오구. 됐다, 이젠 너의 솜씨가 외뿔난쟁이를 훨씬 뛰여넘었구나! 네 그림을 당할 사람이 있을것 같지 않다.》
석봉이는 어린애처럼 할아버지품에 덥석 안기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잘 이끌어주었기때문입니다. 이젠 제가 가서 청자기를 찾아오겠습니다.》
《그래라. 어쨌든 조심하거라.》
할아버지는 그의 등을 다독여주었습니다.
석봉이는 그 외뿔난쟁이가 보면 알수 있기때문에 얼굴모양과 옷차림을 변장하여 다른 나라 사람처럼 행색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하고는 곧 길을 떠났습니다.
며칠후 그는 바다건너 섬나라에 이르렀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정말 외뿔난쟁이가 운영하는 유명한 박물관이 있다는것이였습니다.
얼마후 박물관을 찾으니 어마어마하게도 수십칸이나 되는 큰 건물이였습니다.
주위에는 숱한 보초들이 둘러서있었습니다.
그들은 창과 칼을 쥐고 누가 도적질을 해갈가봐 눈을 디룩디룩 굴리고있었습니다. 맨가운데서 낯익은 외뿔난쟁이가 구경군들한테서 돈과 귀중품을 받으며 들여보내고있었습니다.
석봉이도 마을사람들이 모아준 귀중품을 내고 박물관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외뿔난쟁이는 변장한 석봉이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깨에 멘 화판을 보고는 이상하게 느껴졌던지 자꾸만 힐끔힐끔 곁눈질을 하였습니다.
진렬대에는 별의별 물건이 다 있었습니다.
모두가 값비싼 진귀한것들이였습니다.
그중에도 제일 한가운데에 놓여있는 청자기꽃병이 먼저 눈에 띄

였습니다.
구경군들은 청자기를 보고 엄지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어깨가 으쓱해진 외뿔난쟁이는 청자기를 자기네가 만들었다고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는것이였습니다.
(뻔뻔스러운 놈!)
석봉이는 당장 주먹으로 쳐갈기고싶은걸 꾹 참고 그놈의 비위를 돋구어주었습니다.
《참 멋있습니다. 그냥 가면 섭섭하겠습니다.》
외뿔난쟁이는 입이 헤벌쭉해서 이것저것 소개하는것이였습니다.
석봉이는 화판을 펼쳐들었습니다.
하늘에 뜬 달덩이와 같이 빛을 뿌리는 청자기가 반겨맞아주는것만 같았습니다.
(청자기야, 얼마나 괴로웠니? 조금만 참아.)
석봉이는 하얀 붓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형태가 생기고 무늬가 새겨졌습니다.
이때 외뿔난쟁이가 다가오더니 머리를 갸웃거렸습니다.
원래 엉큼한 놈이라 그림솜씨를 보더니 께름직했는지 선웃음을 지으며 한쪽구석으로 물러갔습니다. 억지로 못그리게 하면 더러운 소문이 날테니까요.
그의 그림을 방해하려고 품속에서 검은 붓을 꺼냈습니다.
그놈은 종이에 꽃잎들을 수많이 그리더니 후— 하고 입바람을 내불며 중얼거렸습니다.

달려라 달려라 마술붓아
세상주인 너로다
어서어서 꽃잎을 날려라
헤이 헤이 헤헤이

그러자 알락달락한 꽃잎들이 석봉이의 눈앞에서 춤추며 오고갔습니다. 그러면서 향기로운 냄새도 풍기고 석봉이의 눈섭도 살짝살짝 건드리며 눈길을 끌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석봉이의 눈엔 청자기만이 안겨왔습니다.
어느새 푸른 소나무가 다 완성되였습니다.
이젠 다리가 긴 학만 그리면 되였습니다.
외뿔난쟁이는 화가 나서 다른 종이에 크고작은 새들을 그려 후—하고 입바람을 불며 중얼거렸습니다.

달려라 달려라 마술붓아
세상주인 너로다
어서어서 새들을 날려라
헤이 헤이 헤헤이

그러자 온갖 새들이 석봉이의 주위를 빙빙 감돌았습니다.
새들은 그의 손을 쪼아대기도 하고 고운 목청으로 노래를 부르기도 하며 꼬드겼습니다.
(네놈한테 속지 않을테다.)
석봉이는 헛눈 한번 팔지 않고 학을 그렸습니다.
외뿔난쟁이는 악에 받쳐 이번엔 바람을 그려 석봉이의 그림종이를 날려버리려고 검은 붓을 물에 댔습니다.
그런데 붓에 물이 묻지 않았습니다.
색감을 묻혀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이에 붓을 대도 끄떡않더니 갑자기 붓끝에 불길이 확 쓸어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순식간에 타버리는것이였습니다.
석봉이의 하얀 붓이 그림을 다 완성했으니 검은 붓이 마술의 힘을 잃었던것입니다.
석봉이는 사람들의 틈에 끼워 감쪽같이 빠져나왔습니다.
얼마후에 그놈의 박물관에서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청자기가 없어졌던것입니다.
외뿔난쟁이가 정신을 차리고 창과 칼을 쥔 보초병들을 끌고 석봉이를 뒤따랐으나 그가 탄 배는 이미 쏜살같이 달려 점처럼 보였을뿐이였습니다.
석봉이는 날듯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청자기를 그려왔어요!》
할아버지는 지팽이도 짚지 않고 달려나왔습니다.
《어디 보자. 정말 장하다! 석봉아!》
할아버지는 석봉이를 꼭 껴안고 두눈을 슴벅거렸습니다.
《얘야, 어서 루각으로 가서 청자기를 되살려내거라!》
석봉이는 할아버지와 함께 수정루각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림을 받침돌우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맑고 깨끗한 샘물을 한사발 떠서 그림우에 휘— 뿌렸습니다.
그러자 루각안에는 하얀 안개가 자욱해졌습니다.
그러더니 잠시후에 향기가 풍기고 노래소리가 은은하게 울리며 청자기꽃병의 모습이 우렷이 나타났습니다.
우뚝 솟은 청자기는 예나 다름없이 밝은 빛을 뿌렸습니다.
노래소리를 들었는지, 향기를 맡고 병을 털고 일어났는지 마을사람들이 막 달려왔습니다.
《청자기다!》
《청자기를 찾았다!》
사람들은 석봉이의 손을 잡고 기뻐서 어쩔줄을 몰라했습니다. 칭찬 또한 끝이 없었습니다.
공예사할아버지는 긴 수염을 내리쓸며 말했습니다.
《그 어떤 마술의 힘도 너에게 미치지 못할게다. 정말 장하다! 나라가 강성해지자면 단순히 힘만으로는 안된다. 높은 재주와 기술이 안받침되여야 하느니라. 재주를 겸비한 이 힘이야말로 진짜 마을의 보물이지.》
석봉이는 사람들의 손에 떠받들려 하늘높이 오르내렸습니다.
청자기꽃병도 은은한 노래와 함께 향기를 풍기며 석봉이의 장한 모습을 깊이깊이 새겨안았습니다.

주체94(2005)년

동 화

보이지 않는 짐

김 재 영

어느 한 산골마을에 선동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장가를 들자 어머니는 고개너머 마을에 집 한칸을 얻어 세간을 내주었습니다.

선동이는 맏아들로서 두 동생에게 어머니를 맡겨놓고 외따른 곳에 와사는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나 구실을 해서 어머니가 자기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느날 선동이는 집을 깨끗이 거두고 살아야 한다던 어머니의 말이 생각나서 울바자를 손질하고있었습니다.

이때 집앞으로 수염이 허연 낯익은 할아버지가 지나가고있었습니다.

누구나 그 할아버지가 어디서 사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세상을 이곳저곳 다니면서 누구네 집 며느리의 속병을 침 한대로 뚝 떼주었다고, 또 누구네 집에서는 십년만에 3대외독자를 낳았다는 기쁜 소식도 전해주며 살아가는 로인이라는것만 알고있을뿐입니다.

그것도 천리밖에서 벌어지는 일을 어떻게 하루사이에 알아다 대주군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팔방할아버지라고 불러왔습니다.

선동이는 하던 일을 놓고 팔방할아버지앞으로 마주 걸어나가며 인사를 하였습니다.

《할아버지, 또 먼길을 가십니까?》

《그렇네. 나야 이렇게 세상을 돌아다니는 늙은이가 아닌가. 어머니의 소식을 알고싶겠지?》

할아버지는 선동이의 마음을 다 알고있는듯 했습니다.

《예. 며칠전에 집에 가서 동생들에게 어머니를 잘 모시라고 신신당부했는데 어떻게 하고있는지 해서 그럽니다.》

《말말게. 어머닌 오늘도 무거운 짐을 그냥 지고다니더군.》

《뭐, 뭐라구요?!…》

팔방할아버지는 선동이가 더 알아볼 사이도 없이 말도 말라는듯 손을 홰홰 내저으며 떠나가버렸습니다.

선동이는 속이 후끈 달았습니다. 그는 며칠전에도 팔방할아버지를 만났을 때 고개너머 마을에 계시는 어머니의 안부를 물었댔습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어머니몸이야 건강하지. 하지만 늘 무거운 짐을 지고다니는게 탈이거던. 그러단 몇날 못살아.》 하고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날 선동이는 어머니네 집으로 달려갔었습니다.

마침 어머니가 땔감을 한짐 지고 집으로 들어서는것을 본 그는 둘째인 후동이와 막내인 세동이를 세워놓고 성을 냈습니다.

《너희들이 있으면서 허리굽은 어머니가 저렇게 나무짐을 지게 해서 되겠니?》

《사실은 어머니가 자꾸만 무술련습을 하라고…》

《어머니는 날보고도 서당에 가서 글을 배우라고 하면서 먼저 지게를 지고 나서군 했어요.》

두 동생은 죄스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선동이는 고개를 끄덕이였습니다. 자식들을 위하는 어머니의 심정이 십분 리해가 되였던것입니다. 하지만 동생들이 단단히 채심을 해야겠기에 엄하게 타일렀습니다.

《아무튼 다시는 어머니가 나무짐을 지지 않도록 해라.》

그런 일이 있은지 며칠 안됐는데 팔방할아버지가 또 같은 소리를 하니 선동이는 참을수가 없었습니다. 한달음에 고개너머로 달려간 그는 무작정 두 동생을 불러세웠습니다.

《너희들 내가 그만큼 어머니에게 나무짐을 지우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그 모양이냐?》

후동이와 세동이는 저마다 눈이 올롱해서 말했습니다.

《형님, 우린 어머니에게 절대로 짐을 지우지 않았어요. 어제도

땔감을 내가 두짐이나 해왔는데요 뭐.》
《아침마다 물지게도 내가 맡아 지군 했어요.》
형제들이 하는 말을 듣고 어머니가 한마디 하였습니다.
《맏이야, 난 네가 왔다간 다음부턴 아무런 짐도 진적이 없다.》
모를 일이였습니다. 팔방할아버지는 분명 어머니가 짐을 진것을 봤다고 했으니 말입니다.
혹시 할아버지가 사람을 잘못 알아본게 아닐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며칠이 지난 어느날이였습니다.
선동이가 터밭을 가꾸고있는데 집앞을 지나가던 팔방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여보게, 임잔 내 말을 새겨듣지 않았더구만.》
《무슨 말씀입니까?》
선동이는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내가 말하군 했지. 어머니가 늘 짐을 지고다닌다고 말일세. 난 그래두 형제들중 맏이인 자네가 제일 정성이 지극한줄 알고있었는데. 음ㅡ 쯧쯧…》
할아버지는 선동이를 나무라며 혀를 찼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잘못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어머니도 요사이는 아무런 짐도 진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음ㅡ》하고 혀아래소리를 하고나서 말했습니다.
《하긴 자식들이야 아무것도 모르지. 눈에 보이지 않는것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구요?》
선동이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렇네. 자식들의 눈엔 잘 보이지 않는다네. 만일 아들들이 그 짐을 벗겨주지 못한다면 어머닌 거기에 눌려 오래 살지 못해.》
선동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오래 살지 못한다니 무슨 말입니까. 그는 가슴이 막 떨려 한참이나 말을 못하고있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팔방할아버지는 선동이를 찬찬히 여겨보다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다니. 입자가 그 짐을 부리워드려야지.》
《하지만 내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야단입니다.》
할아버지는 수염을 쓸어내리며 그럼 이제부터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일렀습니다.
《여기서 두고개를 넘어가면 마당에 큰 들메나무 한그루가 서있는 작은 초가집이 있네. 그 집주인을 찾으면 한 로인이 나와서 안경을 줄걸세. 그걸 끼고 어머니를 보면 알도리가 있지.》
팔방할아버지는 이런 말을 남기고 또 급히 떠나가버렸습니다.
선동이는 당장 할아버지가 대주던 집을 찾아떠났습니다. 크게 힘든 일갈지도 않았습니다.
한고개를 넘어 내리막길을 얼마동안 가느라니 나무숲사이로 난 오솔길에 물고기그물같은것이 가로 걸려 길을 막았습니다. 참게만큼이나 굉장히 큰 왕거미가 쳐놓은 그물이였습니다.
나무가지로 거미줄을 걷어내치려던 선동이는 왕거미가 그물에 매달려 별스럽게 노는것을 보았습니다. 쪼꼬만 새끼거미들이 오골대며 어미거미의 등살을 파먹고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한것은 어미거미가 아픈 고통을 참으면서도 새끼들에게 등을 돌려대고 다 파먹도록 가만히 있는것이였습니다.
한참만에 어미거미는 껍데기만 남아서 땅에 떨어지고 새끼들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선동이는 기가 차서 죽은 어미거미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거미새끼들은 제 어미등을 다 파먹어대고는 〈우리 엄마 하늘로 날아갔다.〉한다더니 참 고약한 놈들이구나.》
두번째 고개를 다 넘을 때까지도 그는 새끼거미들이 하던짓이 자꾸만 눈에 안겨왔습니다.
그는 문득 어머니가 무거운 짐에 눌리워 오래 살지 못한다던 팔방할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의 그 짐을 내리워드리지 못한다면 나도 거미새끼와 다를바가 없는 자식으로 되겠구나. 아니, 우린 그래선 안돼.)
선동이는 발걸음이 더 빨라졌습니다.
어느덧 팔방할아버지가 대주던 들메나무집이 나타났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주인을 찾으니 로인 한분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니, 할아버지가?!》
뜻밖에도 집주인은 팔방할아버지였던것입니다.
그는 깊숙이 허리를 굽히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어서 그 안경을 주십시오.》
할아버지는 버릇처럼 수염을 쓸어내리며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암, 주구말구. 자, 이걸 가지고가서 보게. 이건 눈에 끼면 사람의 마음까지 안겨오는 신기한 안경이지. 나도 이걸 끼고 세상을 둘러보군 했다네.》
할아버지는 품속에서 안경을 하나 꺼내주었습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선동이는 곧 되돌아섰습니다.
서쪽하늘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있었습니다.
그는 어느새 동생들과 함께 계시는 어머니네 집뜨락에 들어섰습니다.
처마밑의 제비둥지에서는 새끼제비들이 저마다 먹이를 먼저 달라고 어미제비에게 주둥이를 짝짝 벌리며 재재거렸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지을 차비를 하고있었습니다.
선동이는 가만히 안경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끼고 동자질을 하고있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는 등에 큼직큼직한 자루들을 세개씩이나 지고 허리를 꼬부린채 동자질을 하고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드시겠습니까.
아구리가 꽁꽁 묶이운 묵직해보이는 자루들은 어깨우에까지 척척 쌓여있었습니다. 안경을 벗고 다시 보면 그 짐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동이는 집으로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등에서 그 짐을 내리워드릴지 갈피를 잡을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루들은 안경을 벗으면 보이지 않고 그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알수가 없었습니다.
저녁상을 물린 밤이였습니다. 어머니는 피곤한 모양 잠자리에 눕더니 인차 잠이 들었습니다.

선동이는 밤깊도록 잠들지 못하고 앉아서 안경으로 잠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무시면서도 어머니는 짐들을 벗지 못하고 이리뒤척 저리뒤척 하며 신음소리까지 내는것이였습니다.

오늘따라 별로 처량하게 들리는 소쩍새소리마저 어머니를 위해드리지 못하는 자식을 원망하는것만 같았습니다.

(아, 우리 형제들을 애지중지 키워준 고마운 어머니. 우리가 저 짐을 벗겨주지 못한단 말인가.)

두 동생은 아무것도 모르고 웃방에서 코를 골며 씨근씨근 자고있었습니다.

선동이는 측은하게만 보이는 어머니곁에 조용히 가누웠습니다.

이때 《후—》하는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잠에서 깨여나셨을가 해서 선동이는 얼른 등잔불을 켰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냥 깊은 잠에 들어있었습니다.

선동이가 다시 누우려는데 또 한숨소리가 《후—》하고 나더니 이번엔 가느다란 말소리까지 들렸습니다.

《후— 세간을 내면 제 살림을 제가 할줄 알았는데 빈 쌀자루를 들고 찾아오군 하는걸 봐선 맏이가 농사일을 잘하지 못하는게 분명해.》

선동이가 의아해서 안경을 끼고보니 그 말소리는 글쎄 어머니의 등에 있는 맨 꼭대기자루속에서 나오는것이였습니다.

비로소 선동이는 그 자루가 자기때문에 생긴 어머니의 근심자루라는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조금 있노라니 이번엔 가운데 있는 자루속에서 말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후— 둘째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뜻대로 무술을 닦아 나라를 지키는 장수가 되라고 그만큼 타일렀건만 언제면 제구실을 하겠는지.》

그러니 그것은 틀림없이 후동이때문에 생긴 근심자루였습니다.

선동이는 잠을 더 이룰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있는데 이번엔 또 맨밑에 있는 자루속에서 말소리가 새여나왔습니다.

《후— 세동이는 글로써 나라를 위해 한몫하도록 잘 키워 내세우려 했는데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선동이는 조용히 일어나 웃방으로 올라가 후동이와 세동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는 먼저 후동이에게 안경을 끼워주며 어머니를 한번 보라고 속삭였습니다.

잠에 취해서 눈을 비비던 후동이는 그만 눈이 커다래졌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무슨 짐들을 저렇게 지고 주무셔요?》

선동이는 재빨리 손가락을 세워 《쉬—》하고 입에 가져다댔습니다.

세동이도 안경을 끼고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근심자루들속에서는 연방 어머니의 걱정어린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선동이는 놀라와 어쩔바를 몰라하는 동생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늘에는 둥근달이 환하게 떠있었습니다.

마당에 있는 돌배나무밑으로 동생들을 데리고간 선동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난 어머니가 무거운 짐을 지고다닌다기에 땔감이나 물지게같은것을 보고 그러는줄 알았더니 우리 형제들때문에 저런 근심의 짐을 지고계셨구나.》

그는 지금껏 자기가 잘못 행동해온 일을 솔직히 말했습니다.

《나도 제 살림은 한다지만 아직도 연약한 어머니의 등을 믿고 농사를 게을리하다보니 집에 와서 쌀을 가져다 보태군 했다. 그게 어찌 어머니의 짐이 안되였겠니.》

형의 말을 묵묵히 듣고있던 동생들은 자기들도 지나간 일들을 곰곰히 생각하였습니다.

《나도 생각을 잘못했댔어요. 나같은 약골이 싸움터에 나가면 견딜것 같지 않아 머뭇거렸는데 그게 저렇게 어머니의 큰 근심자루로 될줄 정말 몰랐군요.》

《형, 난 종이 한장, 붓 한자루 구하기 힘든 우리 집 형편에서

글을 배우기란 하늘의 별따기로 생각했댔어요. 이제부터 서당에 가서 글을 배우겠어요. 꼭 그렇게 할래요.》

두 동생들은 진심으로 마음다졌습니다.

다음날부터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선동이는 집에 가서 부지런히 농사를 지었고 후동이는 무술을 익혔습니다. 세동이는 서당에 다니며 글을 착실히 배웠구요.

몇달이 지난 가을 어느날이였습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나타나지 않는 맏이네가 어떻게 사는가 궁금하여 선동이네 집에 갔다가 뜻밖에도 기쁜 광경을 보게 되였습니다. 알뜰하게 울바자를 둘러친 마당에는 조, 기장, 콩섬들이 그득 쌓여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너희들이 지은 낟알이 옳긴 옳단 말이지?》

《그러믄요. 어머니네 집에도 뒤바리 싣고가려던 참입니다.》

《맏이야, 난 무엇보다도 제손으로 살림을 꾸려나가는 너를 보니 기쁘기 그지없구나.》

어머니는 너무 좋아서 어쩔줄을 몰라했습니다.

선동이는 슬그머니 안경을 끼고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등에 있던 맨 꼭대기자루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두개의 자루가 묵직한대로 남아있는것을 보니 선동이의 마음은 좋지 않았습니다.

후동인 무술솜씨가 남다르고 세동이는 글을 잘 배워 신동이로 소문났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가볍지 못했던것입니다. 자식들의 뒤바라지를 잘해서 그들을 끝까지 내세울 힘이 어머니에게는 없었으니 말입니다.

어느날 선동이는 낟알을 판 돈을 가지고 야장간으로 갔습니다. 그는 좋은 쇠붙이를 골라서 번쩍거리는 장검을 벼렸습니다.

갑옷까지 한벌 마련한 그는 동생들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후동이한테 칼 하나 변변한것이 없어 걱정이였고 세동이는 붓과 종이가 변변치 않아 한숨만 짓고있던 참이였습니다.

어머니는 갑옷입고 장검을 찬 름름한 후동이를 어루쓸며 흐뭇해하였습니다.

선동이는 보짐을 풀고 종이말이와 황모붓도 꺼내들었습니다.

《세동아, 이걸 받아라. 난 네가 공부를 더 잘하길 바란다.》
세동이는 너무 좋아 콩당콩당 뛰였습니다.
어머니는 모든것이 꿈만 같아 아들들을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 형제들은 팔방할아버지가 준 안경을 돌려가며 반가와 웃고 기뻐서 울고계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등에는 아무런 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름잡혔던 얼굴도 활짝 펴지고 구부정하던 허리도 쭉 폈습니다.
세 형제는 얼싸안고 돌아갔습니다.
며칠후 후동이는 무술경기에 나가게 되였습니다.
후동이는 마을사람들의 바래움을 받으며 동구밖을 나섰습니다.
《어머니, 기다리십시오. 꼭 좋은 소식이 있을겁니다.》
후동이가 어머니와 두 형제에게 하는 말이였습니다.
사람들은 장한 그를 보며 한마디씩 했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따르는 저런 자식들이야말로 진짜 효자가 아니겠소.》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런 자식들만 있으면 가정의 화목은 물론 나라도 강대해지는 법입니다.》
《아무렴, 나라가 강대해지구말구요.》
어머니는 언덕을 넘어가는 아들을 바래우며 오래오래 서있었습니다.
선동이는 생각했습니다.
(매 자식이 자기 몫을 다하면 부모들의 짐이 덜어지고 집집마다 제몫을 다하면 나라가 허리를 펴게 되겠구나.)
그후 선동이는 두 동생을 장가들인 다음 맏이인 자기가 어머니를 모셔다가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잘 보살펴주었답니다.
선동이 어머니는 더욱더 젊어져서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팔방할아버지는 오늘도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있습니다.

주체94(2005)년

동　화

다시 피여난 공주꽃

변 군 일

저 멀리에 있는 넓고넓은 구름바다를 건느고 높고높은 구름산을 넘고넘으면 하늘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를 그 누구도 모른다고 몰라왕국이라 자랑삼아 불렀답니다.

몰라왕국의 왕한테는 귀여운 공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취미와 재능을 가지고있었는데 그들중에서도 첫째공주가 유별났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부르는데다 꽃을 남달리 좋아하는 다정다감한 처녀였습니다.

왕궁을 꽃속에, 향기속에 잠기게 하고 왕을 기쁘게 한데는 첫째공주의 수고가 많이 깃들어있었습니다.

꽃밭에 들어서면 끼니도 잊고 해질 때까지 온 정신을 쏟아부으며 정성을 다해 꽃을 가꾸었습니다.

고운 꽃이 있다는 소식만 들으면 이 세상 그 어디라도 찾아가 구해오도록 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였습니다.

첫째공주는 새로운 꽃을 만들어내는 남다른 솜씨도 가지고있었습니다.

몇해전에 만들어낸 공주꽃도 그런 꽃나무들중의 하나였습니다.

공주꽃은 첫째공주가 여러해동안 고심어린 노력으로 새롭게 만들어냈는데 신기하게도 노래로 키우는 꽃나무였습니다. 씨앗을 흙에 묻은 다음 노래로 꽃을 피웠습니다.

왕은 하도 신기한 꽃나무를 새롭게 만들어낸 첫째공주를 잊지 말자고 이름도 공주꽃이라 부르게 하였습니다.

이 공주꽃은 노래소리가 멋들어지고 선률이 새로울 때면 꽃송이가 더 고와지고 향기도 질게 풍기군 하였습니다.

정원의 수십수백가지에 달하는 곱다는 꽃들도 이 공주꽃에 비길수가 없었습니다.

이 꽃나무는 점점 넓은 자리를 차지하며 왕국에 퍼져갔습니다. 그럴수록 왕국에서는 첫째공주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습니다.

정원에서 비올라를 켜며 꽃나무를 자래우던 첫째공주는 문득 활을 멈추었습니다. 지금 피운 꽃송이보다 더 곱게 피울수 없을가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아버지의 생일날이 됩니다.

이날에 아버지를 더 기쁘게 하자면 지금까지 보지 못한 꽃, 맡아보지 못한 향기로운 꽃을 피워 기념으로 주고싶은 심정이였습니다.

그러자면 이 꽃의 자양분으로 되는 새 선률이나 새로운 가수의 노래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왕국을 아무리 살펴보아야 몇해동안 계속 들어오던 노래뿐이였습니다.

그동안 새롭게 자라난 가수들도 없었습니다. 이런 노래로는 공주꽃을 더 곱게 피울수가 없었습니다.

첫째공주는 자기라도 노래를 더 멋들어지게 부를수 없는것이 안타까왔습니다.

그는 생각하던 끝에 새로운 선률을 찾아 비올라를 켜며 며칠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선률은 끝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생일날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첫째공주의 마음은 초

조해졌습니다.

(아, 이제는 이 몰라왕국에 새 가수도, 새로운 노래도 없단 말인가?)

속이 상해 걸상에 주저앉던 첫째공주는 문득 떠오르는 생각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전혀 듣지 않던 다른 나라 노래면 공주꽃을 더 곱게 피울것만 같았습니다.

첫째공주는 급히 여러 나라에 보낼 새들을 불렀습니다.

인차 그의 앞에는 극락새, 천리새, 궁궁새, 후리새가 도착하였습니다. 언제나 급한 련락을 띄우거나 알아볼 일이 있으면 그 어디라없이 보내는 새들인데 단숨에 백리, 천리길을 날아가는 재간을 가지고있었습니다.

《나의 새들아, 너희들은 이제 여러 나라들을 찾아다니며 노래를 록음하여 오거라. 그 노래들이 무엇에 쓰일런지는 너희들도 알것이니 속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그는 말을 끝맺으면서 콩알만한 방울록음기를 새들의 목에 하나씩 걸어주었습니다.

새들은 깃을 차며 날아올라 저마다 방향을 잡고 쏜살같이 사라졌습니다.

첫째공주는 새들을 보내놓고나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그들이 록음하여 가지고오는 새 노래로 공주꽃모두를 곱게 피워 생일을 맞는 아버지에게 드릴수 있다고 생각하니 기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걸상에 몸을 잠그었습니다. 새로운 선률을 고르느라 며칠밤을 지새운 피곤에 인차 잠에 곯아떨어졌습니다.

첫째공주는 이튿날 아침에 막내동생이 흔들어서야 잠에서 깨여났습니다.

《언니, 서쪽나라로 갔던 극락새가 먼저 왔어요.》

《그래?!》

첫째공주는 반가와 극락새를 품에 안았습니다.

《귀여운 나의 새야, 네가 제일 먼저 왔구나. 노래를 가지고 왔겠지?》

《네.》

그는 극락새가 주는 방울록음기를 비올라에 걸어놓고 줄을 튕겼습니다. 그러자 록음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몰라왕국에서는 전혀 듣지 않던 새로운 노래가 울려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노래소리는 처음부터 마음에 거슬렸습니다. 정신이 얼떨떨해질 정도로 요란스러웠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의 노래여서 그럴수 있다고 생각하며 겨우 듣고있던 첫째공주는 막내동생의 자지러진 소리에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힘을 키우던 왕국의 장수들이 운동을 하는것이 아니라 싸우려고 지부렁거리고있었습니다. 공원의 한쪽에서는 벌써 호랑이와 곰이 으르렁거리며 서로 기회를 엿보느라 빙글빙글 돌아가고있는가 하면 련못의 금붕어들까지 요동을 치는것이였습니다.

모두를 미치광이들로 만들어 왕국을 망하게 할것 같았습니다.

극락새가 록음해온 노래때문이였습니다.

《그만.》

그는 록음기를 끄고 걸상에서 뛰여내리며 큰소리로 웨쳤습니다. 그바람에 모두가 그자리에 꼿꼿이 섰습니다. 첫째공주의 목소리가 조금만 늦게 울렸더라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몰랐습니다. 한숨을 푹 내쉬며 다시한번 사방을 살펴보니 공주꽃송이들의 색갈이 볼품없이 허옇게 변해가고있었습니다. 왕국이 생겨 처음으로 당해보는 일이였습니다.

《극락새야, 이게 뭐냐? 이런 노래를 부르는 나라가 있단 말이냐? 어떻게 되여 이런 노래를 록음해왔는지 사실대로 말하여라.》

첫째공주가 묻는 말에 극락새는 몸둘바를 몰라하며 떠듬떠듬 사연을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공주아씨의 분부를 받고 서쪽나라로 갔더니 그 나라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사는 나라라고 큰소리를 치며 돌아가고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노래소리가 울려나오는 극장과 식당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옷을 벗은채로 빙글빙글 돌아가며 괴상망측한 춤을 추다가 나중에는 서로 주먹을 들고 때리며 싸움판을 벌려놓군 하였습니다.

그옆의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알만 하다. 노래소리만 듣고도 서쪽나라들에 망조가 들어도 크게 든게 분명하다. 이 세상에 그런 노래를 부르는 나라가 있다는게 수치로다. 다른 새들은 왜 도착하지 않을가?》

그는 다른 새들이 어서 빨리 오기만을 바랐습니다.

이때 마침 남쪽나라로 찾아갔던 궁궁새가 날아들었습니다.

《궁궁새야, 노래를 록음해왔겠지?》

《네. 그런데…》

《됐다. 긴 말을 할 사이가 없다.》

첫째공주는 험악해진 분위기를 어서 빨리 돌려세워야겠다는 생각이 앞서 궁궁새가 미처 말할 사이도 없이 서둘러 록음기를 틀어놓았습니다.

새로운 노래가 또다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서쪽나라의 노래와는 판판 다르게 잔잔히 울렸습니다. 첫째공주는 안도의 숨을 쉬며 노래세계에 서서히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안있어 온몸의 힘이 빠지고 나른해옴을 느꼈습니다. 이상스러워 머리를 들고 주위를 살펴보던 첫째공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주꽃이 후줄근히 늘어지고 향기도 풍기지 못하고있었습니다.

힘장수들과 성미가 급한 짐승들도 맥을 놓고 그자리에 퍼더버렸습니다. 련못의 금붕어들도 배를 젖히고 둥둥 떠있었습니다.

이런 노래를 조금만 더 들으면 몰라왕국이 뒤죽박죽이 되고 쉽사리 무너질것만 같았습니다.

첫째공주는 급히 록음기를 끄고 겨우 힘을 내여 물어보았습니다.

《후— 이게 무슨 일이냐? 궁궁새야, 세상에 이런 노래도 있단 말이냐?》

《네.》

궁궁새는 타드는 목을 추기고나서 사연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를 건느고 산을 넘어 남쪽나라로 찾아간 궁궁새는 노래가 울릴만한 극장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변변한 극장 하나 없었고 하나 있다는 극장은 노래소리는커녕 한산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를 날아다니다가 어느 한 마을에 이르렀는데 사람들이 빙 둘러앉아 노래를 부르고있었습니다. 궁궁새는 이때라고 생각하며 노래를 록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노래소리는 마음이 즐거워 부르는것이 아니라 절망과 고독감을 가지고 부르는 신세타령이였습니다.

래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없이 맥을 놓고 앉아 탄식만 하고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땀을 흘리며 일을 했으나 입에 풀칠조차 겨우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사는것조차 귀찮아하는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입에서 즐겁고 기쁜 노래가 나올리 만무했습니다.

첫째공주는 그런 노래를 록음해온 궁궁새를 욕할수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아직도 이런 나라가 있고 이런 노래가 있다는것이 참으로 놀라왔습니다.

(아, 세상에 온통 이런 노래뿐이니 다른 나라의 노래도 기대할수 없구나. 그런데 제일 빠른 천리새와 후리새가 왜 아직도 도착하지 않을가?)

그들이 혹시 험악한 나라로 갔다가 몸이라도 상할가봐 걱정이였습니다. 이제는 노래를 록음해오지 못한다 해도 무사히 오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러던 첫째공주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제 하루밤이 지나 새날이 밝으면 아버지 생일날인데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던것입니다.

첫째공주는 급히 왕국의 악대를 불렀습니다.
날이 어둡기 전에 공주꽃을 더 곱게는 피우지 못해도 본래 모양대로라도 살려내고 힘과 용기를 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왕국의 노래라도 울릴 결심이였습니다.
첫째공주는 악대가 도착하자 지휘봉을 번쩍 들었습니다.
왕국의 노래가 방금 울려나오려는 순간이였습니다.
《훠－》소리가 나더니 동쪽나라로 갔던 천리새와 북쪽나라로 갔던 후리새가 서로 다른 방향에서 동시에 떨어지듯 날아들었습니다.
《아, 너희들이구나. 어디 다친데는 없느냐?》
첫째공주는 너무나 반가와 두 새를 안고 볼을 비볐습니다.
《공주아씨, 면목이 없습니다. 나는 노래를 록음해오지 못했어요.》
후리새가 먼저 머리를 수그리고 기여들어가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됐다. 너희들이 무사히 도착하였으니 숨이 나간다. 어지러운 노래나 잡아와서는 무얼하겠느냐. 그래 그 나라는 어떠하더냐?》
《네, 그 북쪽나라에는 그전에 좋은 노래가 많았었다는데 지금은 나라가 뒤죽박죽이 되여 노래부를 겨를이 없는가 봅니다. 노래소리가 울리는가 해서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다가 한곡조도 듣지 못하고 이렇게 늦기만 했습니다.》
《됐다. 공연히 시간만 허비했구나. 천리새 너는 간단히 말하여라.》
첫째공주는 천리새에게 머리를 돌렸습니다.
《공주아씨, 내가 찾아갔던 나라에는 가는 곳마다 노래여서 어느 노래가 더 좋은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노래를 록음하여 오느라 이렇게 늦었습니다.》
《뭐라구? 그 나라의 노래도 성한 사람들을 미치광이로 만들거나 기운을 뽑는 마약과 같은것이겠지. 그런 노래를 록음해와서는 무엇하겠느냐.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첫째공주는 천리새가 잡아온 노래도 기대할수 없다고 단정하였습니다.

《공주아씨,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 나라의 여기저기를 다니며 노래를 록음하는 사이 힘이 솟고 마음이 마냥 즐거워 시간가는 줄을 몰랐어요.

바라건대 노래를 잠간이라도 들어주었으면 합니다.》

천리새의 절절한 말에 첫째공주는 심중해졌습니다. 그 어떤 일감을 주어도 남먼저 실수없이 해오는터여서 제일 사랑해온 새의 말을 듣고보니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서뿔리 노래를 들어서는 안되였습니다.

이제 한번 더 꽃나무가 상하는 날에는 추켜세울수 없었습니다.

《그럼 좋다. 시간이 가더라도 다녀온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자.》

《알았어요.》

천리새는 이틀동안 다녀온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울록음기를 목에 걸고 동쪽으로 동쪽으로 살같이 날아가던 천리새는 금빛해살을 뿌리며 솟아오르는 아침해에 드러나는 첫 대지를 보았습니다.

불어오는 맑은 공기에 머리가 거뜬해지고 가슴이 쩡해왔습니다.

동쪽나라라면 이 대지가 분명했습니다. 아침해가 솟아오르는 이 땅이 분명 동쪽나라였습니다.

이렇게 단정한 천리새는 한바퀴 빙 돌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끝간데없이 무연히 펼쳐진 검푸른 나무들이 바람결에 설레이고 콸콸 소리치며 흐르는 폭포수는 어찌나 맑은지 손을 담그면 초록물이 들것 같았습니다.

높이 솟은 봉우리들에는 기기묘묘한 바위들이 들쑹날쑹 솟아있고 그아래로는 수를 놓은듯한 탐스러운 꽃송이들이 활짝 피여있었습니다.

둘러볼수록 세상에서 제일가는 강과 산이였습니다. 그는 이런 황

홀한 경치에 반해 구경만 할수 없었습니다.

천리새가 목을 추기고나서 날아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새납을 든 한 소년이 노래를 부르며 산기슭을 총총히 내려오고있었습니다.

우리우리 아동궁전 배움의 궁전
우리 희망 마음껏 꽃피워가요

노래소리를 듣던 천리새는 놀랐습니다. 류창한 노래소리에 그런것이 아닙니다.

궁전노래를 하는걸 봐서 저 소년은 왕자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첫 발자국부터 좋은 친구를 만나는것 같은데…)

몸을 숨겼던 천리새는 당돌하게 그 소년의 앞으로 포롱포롱 날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나라의 왕자님이신가요?》

그 소년은 발씬 웃고나서 대답했습니다.

《내가 왕자라구? 난 왕자가 아니라 해솟는 나라의 왕이다.》

《뭐라구요?》

천리새는 깜짝 놀라 그만 땅에 뚤렁 떨어질번 하였습니다.

옛날도 아닌 지금에 와서 어린 소년이 왕을 한다는 소리는 듣다처음이였습니다.

《믿지 못하겠으면 나와 같이 우리 아동궁전으로 가보지 않겠니?》

천리새는 소년을 따라나섰습니다.

한굽이를 돌아서니 산봉우리만큼 큰 집이 어서 오라 두팔을 벌리고 서있었습니다.

소년의 어깨우에 앉아 궁전안으로 들어간 천리새는 앞에 펼쳐진 전경에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바닥으로부터 기둥, 천정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보석으로 되여있어 으리으리한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어린이들이 복도로 사뿐사뿐 걸어다니기도 하고 소리없이 움직이는 승강기를 타고 오르내리기도 하였습니다. 몰라왕국의 왕궁은 이런 궁전에 대비조차 할수 없었습니다.

궁전안에서는 꽃나비같은 어린이들이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여러가지 재간도 배우고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노래를 부르는 수십, 수백의 어린이들의 모습은 장관이였습니다. 그 어디서 그런 손끝재주, 입재주들이 나오는지 신기했습니다.

천리새는 부랴부랴 어린이들의 노래를 록음해가지고는 슬그머니 아동궁전을 빠져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해솟는 나라의 왕자나 공주들이 있는 궁전이겠지. 다른 곳으로 가보자.)

그는 머리를 기웃거리며 다른 고장으로 날아가다가 우렁차게 울려오는 노래소리에 귀를 강구었습니다.

노래소리가 들려오는 곳을 찾아 날아갔더니 삐죽삐죽 하늘로 치솟은 굉장히 큰 집이 나타났습니다.

한바퀴 둘러보니 이 집 역시 아동궁전이라는 큰 문패가 걸려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방방곡곡을 다녀보아도 가는 곳마다 제일 으리으리한 집이 아이들의 궁전이였고 아이들을 위한 집이였습니다.

(이제야 알겠구나. 아이들이 나라의 보배로 떠받들리워 자라니 왕이나 다름이 없지.

그런데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도대체 어떻게 지낼가?…)

천리새는 극장이나 집집의 창문을 들여다도 보고 감쪽같이 들어갔다나오기도 하며 살펴보았습니다.

들리는 곳마다 둥기당당 노래소리가 울려나오고 춤가락이 피여났습니다.

천리새의 의혹은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 사람들은 일은 하지 않고 한가하게 줄창 노래나 부르고있단 말인가?)

천리새는 일터로 날아갔습니다.

공장이나 들판 그 어딜 가도 노래였습니다. 노래에서 힘을 얻고 노래에서 즐거움을 찾고있었습니다.
새로운 노래는 날마다 태여나고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이 그렇듯 노래를 즐겨하는구나.)
모든 의혹이 사라진 천리새는 기쁜 마음을 안고 떠나려고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이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날아온 비행기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알아보니 이 나라의 노래를 배우려고 찾아오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였습니다.
해솟는 나라의 노래는 여러 나라로 퍼져가고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저마다 웨치고있었습니다.
《아, 〈예술의 왕국〉이여!
그대 품이 그리워 우리 또다시 찾아왔노라
그대여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예술을 펼치시라》
천리새는 머리를 쳤습니다.
아까부터 웨치고싶던 그의 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 바로 이 나라는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예술을 가진 〈예술의 왕국〉이다.》
가슴이 후련해진 천리새는 몰라왕국을 향해 날기 시작했습니다.
천리새의 말을 들은 첫째공주는 머리를 끄덕이였습니다.
《그렇다면 노래를 들어보자. 그러나 이번에는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겠다.》
첫째공주는 그제서야 방울록음기를 받아 비올라에 걸어놓고 줄을 튕기였습니다.
노래소리가 울려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생기발랄한 아이들의 노래였습니다. 처음부터 얼마나 맑고 명랑한지 몰랐습니다.
노래는 가없이 푸른 하늘을 마음껏 날아예는 새들의 즐거운 마음을 담은것 같았습니다. 아니, 티없이 깨끗하고 구김새없는 아이

들의 천진란만한 웃음을 그대로 담고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돌돌 흐르는 시내물처럼 맑고 깨끗했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은구슬, 금구슬이 굴러가는 소리같았습니다.
량미간을 쪼프리고 긴장해서 듣고있던 첫째공주의 얼굴에 어느새 주름살이 펴지고 웃음이 피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동심이 살아나며 울적했던 기분이 가뭇없이 사라졌습니다.
세상에 태여나서 수많은 노래를 들어오고 자신이 수많은 노래를 불러왔지만 이런 노래는 처음이였습니다.
그는 노래세계에 잠겨 저도모르게 손장단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그러던 첫째공주는 탄성을 올렸습니다.
《아, 바로 이런 노래다!》
이런 노래를 계속 들려주면 공주꽃이 더 곱게 피여나 생일을 맞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줄수 있다는 신심이 생겼습니다.
첫째공주는 록음기를 끄고 일어나 달빛이 유난히 비쳐드는 정원을 쭉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벌써 늘어져있던 공주꽃나무의 가지와 잎새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됐다, 됐어!》
첫째공주는 애타게 찾고찾던 노래를 들은 기쁨으로 눈물이 다 글썽해졌습니다.
그는 방금 들은 노래를 다시 듣고싶어 테프를 되돌려감고 록음기를 돌렸습니다.
정말 듣고들어도 싫지 않은 노래였습니다. 공주로서 남부럽지 않게 어린시절을 보내왔지만 이런 노래를 듣지도 알지도 못하고 자라온것이 한스러웠습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며 자라는 해솟는 나라 어린이들이 부러웠습니다.
《공주아씨, 공주아씨. 이 노래는 방금 들었습니다. 다른 새 노래가 아직 많이 남았어요.》

옆에 있던 천리새가 일깨워주었습니다.

《내가 그걸 왜 모르겠니. 다시 듣고싶어 그랬다.

이번에는 다른 노래까지 다 들어보자.》

첫째공주는 밤이 깊어가는줄도 모르고 계속 노래를 들었습니다.

노래는 사람들의 화목하고 랑만에 넘치는 생활을 담기도 하였고 슬기와 용맹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래일에 대한 푸르른 꿈을 펼쳐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왕의 생일날이 희붐히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첫째공주는 천천히 일어서며 꽃나무들에 눈길을 모았습니다.

새 노래를 밤새껏 들은 공주꽃나무에서 계속 변화가 일어날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아니나다를가 이때 어디선가 알릴듯말듯 《솨-》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첫째공주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아차렸습니다. 꽃나무들이 기분이 좋을 때 잎새를 흔드는 소리였습니다.

그뿐이 아니였습니다. 꽃망울들이 다치면 터질듯 한껏 부풀어올랐습니다.

이윽고 동녘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사방이 확 트이며 해가 솟아올랐습니다.

이 순간이였습니다.

왕궁을 둘러싸고있는 공주꽃나무들이 앞을 다투며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도 퐁, 저기서도 퐁, 가까이에서도 퐁퐁, 멀리에서도 퐁퐁퐁, 저저마다 뒤질세라 꽃망울을 펼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새로운 노래를 들은 꽃나무들이 얼마나 고운 꽃송이들을 펼쳤는지 모릅니다.

한 나무에서 여러가지 색갈의 꽃송이가 피여나는가 하면 한 꽃송이에서도 꽃잎새마다 색갈이 서로 다른 삼색꽃, 칠색꽃들이 피여나기도 하였습니다.

꽃송이마다에서는 류다른 향기가 물씬물씬 풍겼습니다. 한번 맡으면 머리가 맑아지고 기운이 없던 몸에도 새힘이 솟게 하는 향기였습니다.

맥없이 앉아있던 공원의 짐승들도 일어나 다정하게 거닐고있었고 금붕어도 꼬리춤을 추며 련못을 빙빙 돌았습니다.

이렇게 공주꽃이 다 피여났을 때였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어젖히던 왕은 이상한 향기냄새에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향기인고?》

한 신하가 급히 달려오며 알려주었습니다.

《생일을 맞는 임금님께 드리자고 첫째공주님이 피운 공주꽃향기인줄 아뢰오.》

《음, 그 향기가 유별나구나.》

왕은 그런 향기를 풍기는 꽃을 보고싶어 지팽이를 짚고 아픈 다리를 끌며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첫째공주가 마중하여 공손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님, 생일을 맞으며 이 꽃을 받으세요.》

공주꽃송이를 한아름 받아든 왕은 볼수록 아름다운 꽃잎에서 기쁨을 금치 못했습니다.

더구나 궁전을 둘러싸고있는 정원에 피여난 꽃바다앞에서 어리둥절할 지경이였습니다.

오래동안 몰라왕국에서 살아오면서도 이처럼 황홀하고 아름다운 꽃은 처음이였습니다.

왕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생일상에 차려놓은 산해진미도, 가지가지 기념품도 이 공주꽃을 보는 기쁨보다는 못하였습니다.

《첫째공주야, 수고가 많았겠다. 그런데 이런 꽃을 피우자면 멋들어진 노래가 있었겠는데…》

《네, 이 꽃은 천리새가 해솟는 나라에 가서 록음해온 노래로 피웠어요.》

《음, 해솟는 나라라. 그럼 나도 그 노래를 들어보자.》

몰라왕은 생일을 맞으며 짜놓은 많고많은 일들을 뒤로 미루고 먼저 노래를 듣도록 하였습니다.

한참동안 노래를 다 듣고나서 왕은 흥분되여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그러던 왕은 지팽이를 놓고 소리쳤습니다.

《얘들아, 신경통으로 저리던 내 다리가 아프지 않구나. 이게 웬일이냐?》

《뭐라구요?》

왕에게 앞장서 달려오던 첫째공주가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버님, 다리뿐이 아닌줄 압니다. 얼굴에 잡혔던 주름살도 없어지고 흰 머리칼도 검실검실해졌습니다.》

왕자들과 공주들이 왕을 둘러싸고 환성을 올렸습니다.

왕도 몸에 부쩍부쩍 힘이 솟아오름을 느꼈습니다. 젊음이 되살아나고있었습니다.

《얘들아, 나뿐이 아니구나. 너희들도 더 고와졌구나.》

왕의 말에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서로 마주 쳐다보던 왕자들과 공주들은 너무 좋아 콩콩 뛰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아, 해솟는 나라의 노래는 신비스럽구나. 정말로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예술이 분명하도다.

이런 노래가 나오는 나라야말로 〈예술의 왕국〉이구말구.》

왕은 몹시 감동되였습니다.

첫째공주는 무한한 행복감에 휩싸여있었습니다.

주체94(2005)년

동 화

이상한 우편통

박 원 남

진이네 마을 우편통은 이상한 우편통이랍니다.

글쎄 솔직한 마음만을 쓴 편지만 받아넣고 그렇지 않은 편지는 안받는다지 않아요. 그럼 이제부터 소학교 2학년에 다니는 진이가 바로 그 우편통때문에 겪은 일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진이에게는 발전소건설장에 나간 형님이 있었답니다. 얼마전에 그 형님에게서 편지가 날아왔어요. 편지속에는 높이 솟은 발전소언제를 배경으로 찍은 형님의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물론 온 마을이 형님의 사진을 보고 기뻐했답니다.

진이도 형님에게 자기의 사진을 보내고싶었어요. 그래서 진이는 사진첩을 펼쳐놓고 어느 사진을 보낼것인가 골라보았답니다. 형님이 받아보고 기뻐할 사진이여야 했거든요.

이 사진, 저 사진 들여다보던 진이는 1학년때 최우등을 하여 영예게시판에 붙었던 사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형님이 기뻐하라고 있는 자랑, 없는 자랑 편지에 다 쓴 진이는 봉투속에 사진과 함께 넣고 얼른 집을 나섰습니다. 우편통은 진이의 집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상점앞에 붙어있었어요.

진이는 나는듯이 우편통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답니다. 빨리 가면 그만큼 형님이 편지를 빨리 받아볼것만 같았습니다.

흰띠를 산뜻하게 두른 파란 우편통앞에 다가간 진이는 우편통이 알아듣기라도 하듯 큰소리로 《이 편지를 우리 형님에게 빨리 보

내주려마.》하고 말하며 작은 손으로 우편통의 뚜껑을 살짝 쳐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도 하지요.
글쎄 우편통의 뚜껑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진이는 손에 힘을 주어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역시 우편통의 뚜껑은 열리지 않았어요.
(이상한데…)
진이는 머리를 갸웃거리며 이리저리 우편통을 살펴보았습니다. 뼁끼칠이라도 새로 했다면 달라붙어 안열릴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편통에 뼁끼칠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때 등뒤에서 저벅저벅 발자국소리가 났어요. 얼른 뒤를 돌아보니 웬 아저씨 한분이 다가오고있었어요. 그 아저씨의 손에는 편지봉투가 들려있었습니다.
진이는 얼른 자기의 편지를 등뒤로 감추고 그 아저씨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열리지 않는 우편통을 보면 아저씨는 어떻게 행동할가 생각하며 말이예요.
아저씨는 우편통앞으로 다가가더니 뚜껑을 슬쩍 들었어요. 순간 뚜껑은 가볍게 들리고 편지는 그속으로 훌렁 날아들어갔습니다.
진이는 눈이 휘둥그래졌습니다.
(저런, 아저씨 편지는 들어가누나. 그런데 내것은 왜 안들어갈가?)
아저씨가 사라지자 진이는 다시 우편통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저씨가 하던대로 손으로 뚜껑을 슬쩍 들었어요.
하지만 역시 뚜껑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뚜껑이 찰싹 달라붙어 편지를 넣을수가 없었습니다.
진이는 성이 나서 투덜거렸어요.
《이놈의 우편통, 왜 내 편지는 안받는거냐?》
그러자 뜻밖에도 우편통속에서 말소리가 울려나왔어요.
《내 몸에는 너의 편지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하, 이런 변이 어데 있습니까. 우편통은 아마 이 편지가 어떤 편지인지 모르는것 같았습니다.
진이는 큰소리로 웨쳤습니다.
《뭐야? 너 이 편지가 어떤 편지인지 아니? 이 편지는 발전소

건설장에 나간 우리 형님에게 보내는 편지야!》
그러자 그때 우편통이 한 말은 정말 청천벽력같은 대답이였습니다.
《흥, 가짜편지, 엉터리편지.》
《엉터리편지라구?》
진이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래. 그 편지속에 있는 너의 모습은 1년전 모습이고 자랑도 거짓자랑이 아니냐?》
진이는 말문이 쑥 막혀버렸습니다.
그 말은 맞는 말이였습니다. 진이는 풀이 죽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니?》
《너의 솔직한 마음을 적은 진짜편지를 가지고와야지. 형님이 받아보고 기뻐할 편지, 그런 편지가 아니면 문이 안열릴걸.》
진이는 우편통에 넣지 못한 편지를 들고 스적스적 집으로 돌아오고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알수 없었습니다.
(우편통은 왜 그렇게 말했을가?)
진이는 수수께끼같은 말뜻을 알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곰곰히 생각에 잠겨 걸어오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귀기울여 들어보니 개미소리같은 작은 소리로 잉잉 우는 소리였어요. 자기의 발밑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어린 강냉이포기가 울고있었습니다. 그 강냉이는 강냉이밭속으로 난 《오솔길》에 서있는 강냉이였습니다.
진이는 바로 그 《오솔길》로 걷고있었던것입니다. 그 길로 그는 어제도 걷고 오늘도 걸었어요.

난 어린 강냉이
잉잉
오가는 발에 자꾸 밟혀
난 어쩌면 좋아
잉잉

흠칫 놀랐습니다. 어린 강냉이잎이 발길에 채워 찢어져있었어요.

진이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제는 학교에 질러가려고 여기로 갔고 오늘은 형님한테 편지를 빨리 보내려는 생각으로 여기로 왔지요.

숱한 발자국이 찍힌것으로 보아 자기가 낸 길로 다른 아이들도 걸어간 모양이였습니다.

왜 이날까지 어린 강냉이포기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는지 몰랐습니다. 들었더라면 인차 고치는건데 말이예요.

진이는 얼른 넘어진 강냉이포기를 바로 세워주고 구겨진 잎사귀들도 펴주었습니다. 발자국자리는 메워버리고 《오솔길》앞에는 돌아가라는 뜻으로 마른 삭정이가지들을 얼기설기 가로놓았습니다.

진이의 이마에는 구슬같은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그의 마음은 날듯이 가벼웠습니다.

한결 더 푸르러보이는 강냉이포기들이 한들한들 푸른 잎을 흔들며 기뻐 춤을 추는듯 하였습니다.

그제야 그는 무엇인가 깨달아지는듯 하였습니다. 우편통이 하던 말의 깊은 뜻을 말이예요.

(옳아, 그건 어제날의 나의 모습이야. 그리구 발자국자리를 낸건 오늘의 나의 모습이구. … 내가 또 잘못한 일이 없을가?)

순간 그는 지난 겨울에 동무들과 함께 군사놀이를 하다가 과수원의 사과나무가지를 꺾어놓은 일이 떠올랐습니다.

진이는 얼른 자기가 상처를 입히였던 그 사과나무를 찾았습니다.

상처입은 부위에는 누런 진이 나와있었고 부러진 가지끝에는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진이는 칡넝쿨을 걷어다 껍질을 벗겨 부러진 사과나무가지를 붕대처럼 칭칭 매주었습니다.

그러자 이것 보세요.

신기하게도 부러진 가지에 생기가 돌더니 가지끝에서 꽃봉오리들이 봉긋봉긋 부풀어오르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어 망울이 터지고 꽃이 활짝 피여났습니다. 그 꽃에서 얼마나 진한 향기가 풍기겠습니까.

《히야!》

꿀벌들이 몰려와 꽃주위를 빙빙 감돌았어요. 서로 꿀을 뜨겠다고 두마리, 세마리가 한꺼번에 꽃송이속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꽃송이속에서 즐거운 노래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사과꽃 사과꽃
향기론 열매맺을 희망안은 꽃
라라라
진이가 날 다시 피워주었네
라라라
진인 착한 아이 정말 좋은 애

사과꽃들은 활짝 웃었습니다.
진이의 마음도 기뻤습니다. 좋은 일을 한것이 이렇게까지 기쁜줄 몰랐습니다.
진이는 다정히 인사를 나누듯 꽃들을 정겹게 바라보았습니다.
《사과나무야, 내 다신 안그럴게. 이젠 마음놓고 부디 좋은 열매 주렁주렁 맺어주렴.》
꽃들은 더욱 좋아라 꽃잎들을 흔들었습니다.
진이도 즐겁게 웃었습니다.
진이가 사과밭을 떠나 큰길에 나서는데 축산반 누나가 마주 달려왔습니다.
《새끼염소 한마리 못보았니?》
《못보았어요.》
누나는 달려갔습니다. 진이도 누나를 따라 달려갔습니다. 누나는 큰길로, 진이는 오솔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가 너럭바위옆을 지나는데 풀덤불속에 숨어 웅크리고있는 하얀것이 보였어요. 새끼염소였습니다.
《요놈, 앙큼한것.》
닁큼 안아들고보니 염소의 다리에서 빨간 피가 방울방울 돋아나고 살껍질이 벗겨져있었습니다.
《매매야, 아프겠구나. 그래서 이러고있었구나.》
진이는 얼른 염소의 다리에 도꼬마리잎을 뜯어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손수건으로 꽁꽁 동여매주었지요.

《어서 가자. 누나가 널 찾는단다.》

그는 새끼염소를 안고 비탈길을 내려 큰길에 들어섰습니다. 얼마쯤 가는데 등뒤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이가 아니냐?》

돌아보니 농장관리위원장아저씨였어요.

《아, 관리위원장아저씨!》

아저씨는 싱글벙글 웃으며 진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새끼염소가 왜 그렇게 되였느냐?》

《저… 사실은…》

진이는 우편통에 갔던 이야기랑 오면서 겪은 일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아저씨는 진이의 머리를 쓸어주었습니다.

《허, 오늘 진이가 정말 귀중한것을 깨달았구나. 넌 공부만 잘하는 최우등생이 아니라 농장을 사랑하고 고향을 귀중히 여기는 진짜 최우등생이 되였구나.》

진이는 아저씨의 칭찬이 싫지 않았어요.

《자, 나와 함께 사진사아저씨를 찾아가자. 아마 형님이 기뻐할게다. 우편통도 문을 활짝 열구 받아줄거구.》

《정말 그럴가요?》

《아, 그렇지 않구.》

진이의 보조개가 곱게 패였습니다.

진이는 관리위원장아저씨를 따라갔습니다. 그후엔 어떻게 되였을가요?

예, 진이는 그 사진을 넣은 편지를 들고 우편통으로 달려갔답니다. 우편통은 하하 웃으며 굳게 닫았던 뚜껑을 활짝 열어주었지요.

우편통속에 편지를 쑥 넣고 돌아오는 진이의 마음은 날개라도 돋친듯 가벼웠습니다. 그는 저도모르게 소리내여 맹세다졌습니다.

《난 앞으로 영원히 공부두 잘하구 고향을 사랑하는 착한 아이가 될테야.》

주체94(2005)년

동 화

류다른 이름

김 박 문

여러분, 저의 생김새를 좀 보세요.

내가 누구일것 같애요?

머리우로 시원하게 벗어져올라간 이마며 툭 불거져나온 부리부리한 두눈 그리고 매미의 날개와 같이 야들야들한 지간막이 붙어있는 네발, 뛰여오를 때면 멋지게 땅을 걷어차는 긴다리…

개구리같다구요, 그래요, 맞혔어요.

난 개구리랍니다. 올데갈데 없는 개구리지요.

나같은 생김새를 가지면 누구나 다 그를 개구리라고 친절하게 불러줍니다.

금개구리, 청개구리, 기름개구리, 비단개구리…

그렇지만 나만은 섭섭하게도 개구리의 이름으로 불리우지 못해요. 개구리면서도 개구리의 이름으로 불리우지 못하니 얼마나 창피한지…

나도 처음엔 옥개구리라는 고운 이름으로 불리웠댔어요. 하지만 그 이름은 이미 이 세상에서 없어졌습니다. 저 멀리로 날아간 바람처럼 영원히 사라져버리고말았어요.

지금은 나를 가리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맹꽁이, 맹꽁이래요.

나를 이렇게 류다른 이름으로 부르게 된데는 아름답지 못한 사연이 있답니다.

창피해도 그 이야기를 오늘 솔직하게 다 말할테니 끝까지 잘 들어봐주세요.

나는 푸르내벌에서 태여났습니다.

우리 고향은 얼마나 경치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인지 몰라요.

찰랑찰랑 물맑은 개울가는 내 어린시절의 요람이였고 버들방천 그네터는 나에게 뜀뛰기를 익혀준 정다운 운동터였답니다.

가없이 푸르른 고향의 하늘은 나의 희망인양 언제나 창창하게 열려져있었어요.

나는 부럼없이 배우며 자랐습니다.

이름높은 바글기상대학의 당당한 졸업증을 받고는 중앙날씨알림소에 배치되였습니다. 일한지 얼마 안되여 곧 기상박사학위를 수여받게 되였으며 소장사업까지 맡게 되였어요.

얼마나 발전이 빠르나요.

이렇게 되자 모두가 나를 선망어린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저도 몰래 쑥대끝에 오른 민충이마냥 우쭐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날이였답니다.

우리 날씨알림소로 비단개구리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어린시절을 나와 함께 보낸 같은 고향내기였는데 해충박멸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고있었습니다. 비단개구리는 나를 보고 며칠후면 참개구리선생님의 생일인데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참개구리선생님이라니?》

내가 이렇게 묻자 그는 《하, 이 친구 봐라. 우리들에게 첫 글자를 배워준 올챙이학교 참개구리선생님을 벌써 잊다니. 그럴수가 있나?》하며 놀라운듯이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으응, 저 개울가 올챙이학교…》

그제야 생각이 났습니다.

푸르내마을 개울가에 크지 않은 올챙이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그 학교에서 우린 배움의 첫 발자국을 뗐습니다.

뒤꽁무니에 꼬리가 달려 나실나실 춤추던 꼬리시절에는 《꼬리반》에서 공부했어요. 그러다가 똥똥한 아래배에 두 다리가

빠끔히 내돋자 인차 《두다리반》에 올라갔습니다.

그다음 두개의 다리가 더 생기면서부터는 《네다리반》에서 공부했답니다.

우리가 올챙이학교를 졸업할 때에는 벌써 여엿한 개구리로 다 자랐을 때였습니다.

《철없던 그 시절에 우린 선생님의 속을 무던히도 태웠더랬지. …》

비단개구리는 그때의 추억을 더듬는듯 가늘게 실눈을 지었습니다.

《생각나나? 선생님이 배워주던 〈올챙이학교교가〉가 말이야. 우리 함께 불러볼가?》

나는 얼른 대답을 못했습니다.

올챙이학교를 졸업한지가 언젠데 지금까지 그 노래를 기억하겠나요.

나는 말없이 그저 빙그레 웃어보이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비단개구리가 저혼자 조용히 음을 떼는것이였습니다.

올올 올챙이
꼬리반동무들
나풀나풀 춤추자요
너도 나풀 나도 나풀

올올 올챙이
두다리반동무들
씨영씨영 헤염치자요
너도 씨영 나도 씨영

올올 올챙이
네다리반동무들
훌짝훌짝 뜀뛰자요
너도 훌짝 나도 훌짝

비단개구리는 올챙이시절의 그때처럼 발랄한 동심에 젖어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르는지 몰랐어요.

《우리가 나타나면 선생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나.》

노래를 마치고 그가 나를 쳐다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 이 바쁜 때에 꼭 가야 할가?》

대학시절의 선생님이라면 몰라도 올챙이때에 글을 좀 배워준 선생님인데 아직도 《선생님》, 《선생님》하면서 찾아다니기가 어쩐지 좀 창피한감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나는 박사인데다가 소장이 아니나요. 그런데다가 며칠후에는 여러 동산 기자들과의 상봉모임이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나의 사업성과와 공로를 세상에 널리 알리려는것이였어요. 나의 명예와 관련되는 이 중요한 일을 선생님의 생일때문에 뒤로 미루기는 솔직히 말해 싫었습니다.

《나나 자네나 우리들에게 희망의 첫 날개를 달아주고 꽃펴주기 위해 그처럼 애쓰신 참개구리선생님을 잊어서는 안되네. 다른 때는 몰라도 생일날이야 우리 제자들이 찾아보는게 응당한 도리지. 그렇지 않나?》

비단개구리는 한껏 마음이 떠서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모처럼 마련한 기자상봉모임인데…》

내가 선뜻 떠날념을 안하자 비단개구리는 못내 섭섭해했습니다.

《그 일때문에 시간을 정 못내겠다면 할수 없지. 하지만 시간도 다 마음에서 짜내는거라고 보네. 그리고 한번 생각해보게. 열매가 어떻게 익는가를 말이네.》

비단개구리는 의미심장하게 말했지만 나의 귀에는 그 말이 한갖 기분 거슬리는 소리로밖에는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지 며칠이 지난 어느날이였습니다. 비단개구리가 웬 늙은이와 함께 나를 찾아왔습니다.

나는 그를 첫눈에 알아볼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새겨봐서야 그가 다름아닌 참개구리선생님이라는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너무도 달라진 모습이였던것입니다.

젊은 시절 열정에 넘쳐 이글이글 불타던 두눈은 안개가 서린듯 빛을 뿜지 못했고 기름기가 철철 흐르던 너부죽이 잘 생긴 얼굴에는 얼기설기 주름발들이 고랑을 짓고있었습니다.

내앞에 나타난 지금의 참개구리선생님은 비취색바탕에 흑보석문양이 황홀하게 다문다문 박힌 비단옷을 주름잡아 단정히 차려입던 그 멋쟁이선생님이 아니였어요.

선생님은 나를 보더니 얼마나 반가와하는지 몰랐습니다.

《자네가 보고싶어 이렇게 찾아왔네. 중요한 일감을 맡았다던데 힘에 부치지는 않나?》

목소리는 석쉼해졌어도 다심한 어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럴테지. 자넨 올챙이시절부터 언제나 지칠줄을 몰랐었지. …》

선생님은 꺼진 볼에 만족한 웃음을 짓고있었습니다. 나는 그 앞에서 어떤 몸가짐을 가졌으면 좋을지 몰랐습니다. 올챙이때면 몰라라 이젠 다 커서 같은 개구리가 되였고 지위도 내가 더 높았으니 말입니다.

선생님은 나를 만나자부터 올챙이때처럼 무엇을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금년 여름날씨는 변덕이 많을것 같네. 잘못하다간 실수하기가 쉽네.》

선생님은 아직도 나를 올챙인줄로 아는 모양입니다. 바글기상대학 최우등졸업생이 그쯤한거야 왜 모르겠나요.

《네, 하지만 전 아직까지 실수라는걸 모릅니다. 나는 이미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날씨알림분야에서는 나를…》

《알고있네. 하지만 룡마도 발을 헛디딜수 있다고 하지 않나. 날씨알림에서 실수는 다른 실수와는 달라.》

선생님은 그사이 겉모습만 변한것이 아니였어요. 말도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랐습니다.

선생님은 한참 이런 말 저런 말을 지루하게 하더니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한번 시간을 내여 왔다가게. 뭘 줄게 있네. 날씨알림연구에 도

움이 될걸세.》
나는 그를 되도록 빨리 돌려보내기 위해 인차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나이가 이젠 서산마루에 걸려 그러는지 요즘은 온통 제자들생각뿐이거든. 모두가 얼마나 보고싶고 그리운지…》
선생님은 떠나가면서 혼자소리처럼 뇌이였습니다.
둘이 함께 걸어가면서 나누는 말소리가 귀가에 어렴풋이 들려왔습니다.
《몹시도 와보고싶었는데 돌아가는 발걸음이 어쩐지 가볍지를 못하구만. 동산의 신임과 믿음을 받을수록 허심해야겠는데…》
선생님의 걱정어린 목소리였습니다.
《선생님, 너무 상심해마십시오. 옥개구리나 나나 아직 수양이 부족해서 그럽니다. 이제 차차 고쳐질겁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나. …》
말소리들이 점점 작아지더니 더는 귀에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슬그머니 부아가 치밀어올랐습니다. 그래 내가 허심하지 못한게 대체 뭐나 말예요.
나는 선생님의 말이 전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깝게만 생각되였습니다.
그후 나는 기자상봉모임준비에 정신이 팔려 선생님이 날 기다릴줄을 뻔히 알면서도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서 참개구리선생님이 날 찾아왔습니다. 허리굽은 몸을 지팽이에 의지하고말입니다.
《자넬 기다리다못해 이렇게 또 찾아왔네. 일이 몹시 바쁜 모양이구만.》
선생님은 나를 탓하거나 고깝게 생각하는 기색은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걸 받게나. 혹시 연구사업에 도움이 될지 알겠나.》
선생님은 책 몇권을 싼 보자기를 내놓았습니다.
《저의 날씨알림에 대해 너무 걱정말아주십시오. 저에겐 예리한 피부감각과 남들이 부러워하는 이 명석한 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나로서는 겸손스레 말하느라 했지만 선생님에게는 그렇게 들리지 않았던가 봅니다.

《이보게, 옥개구리. 익은 곡식 머리숙인다고 배우는데 허심하라구. 배움에는 끝이 없다네. 그리구 자기를 도덕적으로도 꾸준히 수양하게. 자네야 앞으로 동산을 위해 더 큰일을 해야 하지 않겠나.》

나는 그 말이 매우 불쾌하게 들렸습니다.

(참, 잔소리도 많네. …)

선생님들은 누구나 잔소리가 이렇게 많은지…

잔소리와 걱정은 아마도 선생님들의 고질적인 직업병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한 다음말이 나를 아연하게 했습니다. 글쎄 래일 하게 된 기자상봉모임을 후날로 미루라는게 아니겠어요. 뭐 날씨가 심상치 않다나요, 허참… 나는 속으로 웃지 않을수가 없었습니다.

(올챙이나 가르치던 선생님이 뭘 안다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기분나빠도 선생님의 충고를 앞에서 거절할수가 없어서 나는 속에 없는 대답을 건성으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나를 매우 대견한 눈길로 이윽히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이 돌아가자 나의 서기인 기름개구리가 그가 누군가고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에 응하지 않고 선생님이 두고간 책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거기에는 표지가 너슬너슬하고 닯어질대로 닯어진 책 몇권이 들어있었습니다.

몇장을 대충 번져보니 무슨 일기같은것들이 적혀져있었습니다.

(허참!…)

나는 그만 허구픈 웃음을 짓고말았습니다.

이런것이 나의 날씨알림연구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요. 선생님은 확실히 늙었습니다. 늙으면 다 이렇게 매련없이 노는지…

《그게 무슨 책입니까?》
서기가 곁에 다가와 물었습니다.
《별게 아니요. 고망년에 쓰던 일기갈구만.》
나는 책을 덮어버리며 대답하고나서 자리를 뜨려는데 서기가 물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랍니까?》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읽어보고 적당히 처리하오.》
《필요없는거라면 불쏘시개나 할가 해서…》
서기가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때 이 처사가 후에 어떤 결과를 빚어낼지 미처 생각도 못했습니다.
일은 다음날에 벌어졌습니다.
나는 참개구리선생님의 권고를 뿌리치고 기자들과의 상봉모임을 그대로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날씨는 내가 알린대로 매우 좋았습니다.
하늘은 아침부터 부신듯 가신듯 멀쑥하게 개였고 부드러운 바람에 꽃향기가 가볍게 날리고있었습니다. 날은 참으로 잘 잡았습니다.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은것이 다행이였습니다.
상봉모임은 창포늪 큰 꽃배우에서 진행되였는데 사회는 달래신문사 반디기자가 담당했습니다.
《이제부터 날씨알림학계에서 명망이 높은 옥개구리박사선생과의 기자상봉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나의 간단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에— 개골… 보석은 닦아줘야 빛이 나는것이고 인재는 찾아내여 내세워줘야 유명해지는 법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자선생들의 수고가 크다고 봅니다. 의의깊은 모임을 마련해준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바입니다.》
나의 인사말이 끝나기 바쁘게 기자들의 질문이 시작되였습니다.
먼저 향기동산에서 온 나나니벌기자가 나더러 어떻게 되여 날씨알림분야를 전문하게 되였는가고 물었습니다.

나는 일찌기 동요시절 그때부터 동산을 위해 자연의 피해를 미리 막아보겠다는 소중한 꿈을 키워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자랑과 긍지에 넘쳐서 말입니다.

《네에— 그러니 고향에 대한 사랑, 동산에 대한 애착심에서 출발했다 그 말씀이군요.》

나나니벌기자가 머리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자 이번에는 뿔개구리기자가 일어섰습니다.

《박사선생은 어린시절부터 날씨알림에 대한 소중한 꿈을 지녔다고 하셨는데 그 꿈을 누가 키워주셨습니까?》

순간 올챙이학교 참개구리선생님의 얼굴이 눈앞에 먼저 떠올랐지만 허영심에 잔뜩 들뜬 나는 그보다도 나를 더 돋구고싶었습니다.

《에— 개골… 꿈이란거야 반드시 누가 키워줘야만 크겠습니까. 난 워낙 태여날 때부터 보통 올챙이들과는 달리 머리가 매우 총명하였고 또한 탐구심이 강하여 아무거나 전문하면 꼭 성공하여 이름을 날리리라고 믿었습니다. 나의 희망찬 꿈의 뿌리는 바로 여기에 바탕을 두고있다고 봅니다.》

부실한 놈 짬짬이 알린다고 나는 마치 장한 말이나 한듯이 머리를 꼿꼿이 쳐들고 장내를 휘둘러보았습니다.

그러던 나의 눈길이 어느 한 곳에 가멎었습니다. 저뒤에서 누군가 몹시 실망하여 머리를 떨구길래 유심히 살펴봤더니 그게 누구였겠어요.

비단개구리였습니다. 그의 곁에는 참개구리선생님도 앉아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의 말을 죄다 듣고있었습니다.

순간 도적질을 하다가 들켰을 때처럼 얼굴이 활딱 붉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무안스럽던 감정이 차츰 언짢게 번져지더니 갑자기 돌변하여 성이 꼭두까지 치밀어올랐습니다.

《에익, 청하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나타날건 뭐람.》

나는 화김에 혀를 깨물었습니다. 어찌나 힘주었는지 혀바닥에 멍

이 들고 피까지 흘렀습니다.

이때 설상가상으로 뜻밖의 일까지 생겼습니다.

갑자기 어데선가 새바람이 일더니 맑고 푸른 하늘로 시커먼 구름장들이 느물느물 밀려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하루종일 개이겠다고 했는데…》

놀란 눈길들이 나에게 쏠렸습니다.

나는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으면 좋을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벌써 후둑후둑 비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부터 긋고 봅시다.》

모두가 들고뛸 자세를 취했습니다.

벌써 하나 둘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은 참 맹랑하게 되여갔어요.

이때였습니다.

참개구리선생님이 다급히 웨쳤어요.

《여러분, 헤여지지 마시우.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비는 이 이상 더 안내립니다. 저 먹구름은 앉은쉼을 했으니 인차 흘러갈거웨다. 안심들 하시우. …》

말을 마치고 선생님은 가쁜 숨을 헐떡헐떡 쉬더니 이어 수군덕거리는 기자들을 둘러보며 말을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실수는 필연적인것이 아닙니다. 여태껏 날씨알림에서 세운 옥개구리박사의 공로는 응당히 평가되고 소개되여야 합니다.》

너무도 뜻밖의 말이였습니다.

《미안하지만 로인님은 누구십니까? 옥개구리박사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순간 가슴이 활랑거렸습니다.

스승과 제자사이라는것이 밝혀지면 내 꼴이 어떻게 되겠나요.

선생님은 고개를 들고 나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느냐 하는 눈길이였습니다.

나는 선생님의 시선을 황황히 피하며 머리를 돌렸습니다. 나의 속마음을 다 꿰뚫어본듯 선생님의 얼굴에는 섭섭함과 함께 그 어떤 이름하지 못할 괴로움이 한가득 비끼고있었습니다.
선생님은 힘빠진 목소리로 띠염띠염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나는 저분과 아무런 관계도 없수다. 누구나 그를 잘 알듯이 나도 좀 알고있을뿐이웨다.》
나의 입에서 《후-》하고 안도의 숨이 새여나왔습니다. 나는 그것을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로 여겼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로인님은 어떻게 하늘의 조화를 그렇게도 환히 꿰뚫어보실수 있습니까?》
밀려가는 구름장들을 쳐다보며 놀라운듯 누군가 물었습니다.
《별것이 아닙니다. 〈보물〉의 덕이지요. 개구리가문에 가보로 전해져내려오는 그 〈보물〉에는 여러가지 자연의 징후들과 조짐을 보고 날씨상태를 알아내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적지 않게 적혀져있수다.》
《아, 그렇습니까!》
호기심많은 기자들이 그 《보물》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것을 한번 보여줄수는 없겠느냐고 하면서 선생님가까이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바람에 선생님이 옆으로 비칠거리며 하마트면 넘어질번 했습니다.
《아, 이러지들 마십시오. 선생님은 지금 년로한데다가 건강하지 못한 몸입니다. 제가 대신 대답해드리겠습니다. 그 〈보물〉의 이름은 다름아닌 〈날씨실록〉입니다.》
비단개구리가 자기 몸으로 선생님앞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질문들이 연거퍼 날아들었습니다.
《세상에 〈날씨실록〉이란것도 있습니까?》
《몇년의 력사를 기록하고있는가요?》
《그것이 지금 어데 보관되여있습니까?》
사회를 맡은 반디기자까지도 사진기를 벗어들고 덤벼쳤습니다.

《그 〈날씨실록〉은 지금 저 옥개구리박사에게 가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자기 제자의 날씨연구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그처럼 귀중한 〈보물〉까지 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영원히 말입니다.》

그 말에 나는 소스라쳐 놀랐습니다.

《그럼 그 책이?!…》

한방망이 얻어맞은듯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기자들도 몹시 놀라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인님이 저 옥개구리박사의?…》

《그렇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들에게 첫 글자를 배워주고 소중한 꿈을 키워준 선생님이십니다.》

비단개구리가 긍지에 넘쳐 말했습니다.

《그런데 옥개구리박사는 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수군거리며 머리를 기웃거렸습니다.

나는 이때처럼 바빠맞아본적은 일찌기 없었습니다. 등골에서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내가 뭐라고 말할수 있었겠어요.

나는 땅밑에서 겨울잠을 잘 때처럼 온몸이 파다들고 입을 전혀 벌릴수가 없었습니다.

눈치빠른 기자들은 벌써 모든것을 다 짐작하고 나에게 《날씨실록》을 좀 보여달라고 들이대였습니다.

나는 얼굴이 금시 흑빛이 되여 쩔쩔맸습니다.

곁에 서있는 서기 역시 잔뜩 긴장되여 눈알이 동그래가지고 힐끔힐끔 눈치만 살폈습니다.

죄의식에 빠지니 마치 얼친 놈들같았습니다.

《〈날씨실록〉을 어떻게 했소? 옥개구리에게 주긴 했나 말이요?》

비단개구리가 이상한 느낌을 받고 서기에게 다가와 눈알을 디룩디룩 굴리며 따지고들었습니다.

서기는 잔뜩 겁에 질려 목을 움츠러뜨리고 바르르 떨더니 사실을 그대로 고백해버렸습니다.

《별로 귀중한것이 아니라고 해서 불쏘시개로…》
그 순간 비단개구리의 두눈에서 불찌가 탁! 하고 튕겼습니다.
《뭐라구? 그럼 그걸 불태웠단 소린가? 엉? 정신이 있소, 정신이?》
비단개구리가 흥분하여 소리쳤습니다.
《무엇때문에 그 귀중한것을 불에 태운단 말입니까?》
《그 까닭을 말씀해주실수 없겠습니까?》
기자들의 눈길이 나에게로 일제히 쏠렸습니다.
나는 점점 헤여날수 없는 궁지에 몰려 천길나락으로 굴러떨어지는것만 같았습니다.
《거참 아까운것이 재가루로 되였는데요. …》
기자들도 못내 아쉬워했습니다.
이때 갑자기 《아!-》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누군가 가슴을 부여잡고 그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참개구리선생님이였습니다.
《선생님!》
비단개구리가 소리치며 급히 선생님을 안아 일으켰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선생님! 눈을 뜨십시오!》
비단개구리와 기자들이 선생님의 몸을 주물며 소리쳤습니다.
참개구리선생님은 안깐힘을 써가며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가까스로 눈을 뜨더니 내가 있는쪽으로 겨우 머리를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힘들게 입을 놀렸습니다.
《오, 옥개구리… 동산을 위해… 올챙이시절처럼… 그때처럼 깨끗하고 허심하게…》
선생님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당부가 한껏 어려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친어머니의 타이름처럼 진정에 넘치고 간절했습니다.
선생님은 가쁜 숨을 힘들게 톺고나서 눈을 감은채로 조용한 목

소리로 들릴가말가하게 나직이 말했습니다.

《듣고싶구만. … 듣고싶어. … 〈올챙이학교교가〉가…》

교단에 섰던 옛시절 그때가 못내 그리운듯 선생님의 얼굴에 깊은 회억의 빛이 조용히 어렸습니다. 그 부탁은 선생님의 마지막부탁이라는것을 누구나 알수 있었습니다.

비단개구리가 눈물을 훔치고나서 갈린 소리로 조용히 노래를 불러드렸습니다.

올올 올챙이
꼬리반동무들
나풀나풀 춤추자요
너도 나풀 나도 나풀

나도 울먹거리며 목소리를 합쳤습니다.

나에게 바쳐진 선생님의 그 뜨거운 진정을 나는 너무나도 뒤늦게야 깨달았습니다.

내 아무리 스승을 몰라보고 욕되게 한 비렬한 놈이라고 해도 어찌 선생님의 마지막부탁마저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올올 올챙이
두다리반동무들
…

나의 목소리를 듣자 선생님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몹시도 눈을 뜨고싶어했습니다.

온몸의 힘을 깡그리 모아 간신히 눈을 뜬 선생님은 나에게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선생님은 알릴듯말듯하게 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얼굴에 안도감이 조용히 깃들더니 주름덮인 두볼로 맑은것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던 선생님이 갑자기 머리를 떨어뜨렸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의 몸에 어푸러지며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눈을 뜨십시오! 네.》
아무리 목놓아 부르고 웨쳐도 선생님의 심장은 더는 뛰지를 못했습니다.
감겨진 두 눈도 다시는 더 뜨이지를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위해 자기 한몸을 초불과 같이 불태워오던 선생님은 나때문에 이렇게 갔습니다.
아, 내 이제 어떻게 머리를 쳐들고 저 푸른 하늘을 마주 쳐다본단 말입니까.
선생님앞에 지은 죄, 동산에 끼친 죄를 과연 무엇으로 씻는단 말입니까.
나는 가슴을 탕탕 쳤습니다.
엄마의 말을 안듣다가 엄마를 잃은 다음에야 자기를 후회하며 가슴을 치던 청개구리와 내가 무엇이 다릅니까.
눈물이 걷잡을수없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가슴을 박박 쥐여뜯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나는 땅에 꿇어엎디여 선생님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그 진정한 마음을 미처 헤아려 못보고 애만 태운 이 미련한 제자를 제발 용서해주십시오. 이제부터라도 잘못을 고치고 허심하게 배우며 참되게 살겠다는것을 선생님앞에 맹세합니다. 꼭 고치겠습니다. 꼭!…》
…
그때로부터 세월은 흘렀지만 난 지금도 선생님을 떠나보낸 여름철이 오면 스승을 잘 모시지 못한 죄책감으로 하여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정깊은 밤까지도 벌판에서 《맹세꽁》, 《맹세꽁》, 《매앵꽁》하고 울리는 소리를 들을것입니다.
그 소리는 제가 선생님앞에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며 속죄하는 맹

세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소리를 내느냐구요.

나는 언젠가 선생님을 고깝게 여기면서 제딴에 화가 올라 혀바닥을 깨문적이 있었는데 그때 생긴 상처가 아물어가면서 점차 혀바닥에 굳은 혹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혀를 마음대로 놀리겠나요.

혀를 잘 움직이지 못하니 말하기도 여간만 힘들지 않습니다. 말을 한다해도 반벙어리소리밖에는 못냅니다. 그렇지만 나는 아픈 마음을 달래가며 선생님앞에 다짐합니다.

《…허심하고 참되게 살것을 맹세합니다! 꼭 고치겠습니다! 꼭!…》

이렇게 맹세를 다지지만 나의 입에서는 이상하게도 《맹세꽁》 아니면 《맹―꽁》, 《맹―꽁꽁》하는 소리가 납니다.

혀가 잘못되였으니 어떻게 제대로 말할수가 있겠나요.

《맹》하는 소리는 맹세한다는 소리가 한데 얼버무려져 울리는 소리고 《꽁》하는 소리는 꼭 고치겠다는 《꼭》자를 제대로 발음하지 못해 그런 소리를 내는것입니다.

아무리 정확하게 발음하려고 해도 안되는군요.

이렇게 되여 나에게는 옥개구리라는 이름대신 맹꽁이라는 류다른 이름이 붙게 되였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렇게 속을 다 터놓으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저의 목소리가 비록 반벙어리같은 소리로 울려도 그 소리는 가슴아픈 후회와 자책을 안고 떠나보낸 스승을 못내 그리며 맹세를 다지는 진정의 목소리라는것을 믿어주세요.

그럼 저의 이야기를 전부 끝마치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주체95(2006)년

동 화

보 물 정 대

홍 병 호

푸른 파도가 쉼없이 철썩이는 바다가에서 이른새벽부터 뚝딱뚝딱 망치질소리가 야무지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이 마을의 장쇠와 바우라는 젊은이들이 성돌을 깨는 소리였습니다.

얼마나 힘이 세고 재간이 좋은지 그들이 깨놓은 성돌은 잠간사이에 작은 산을 이루군 했습니다.

《이젠 그만 까내고 어서 날라가세.》

그들이 성돌을 날라오면 마을사람들은 차곡차곡 성을 쌓았습니다.

성을 튼튼하게 쌓아야 외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니까요.

장쇠와 바우가 사는 향기골은 참으로 아름다운 마을이였습니다.

앞으로는 고기떼 욱실거리는 푸른 바다가 펼쳐지고 뒤동산에는 온갖 열매가 주렁져 향기풍기는 동네랍니다.

그러나 이 마을사람들에게는 한가지 큰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외적들이 때없이 달려들어 재물을 략탈해가고 마을사람들을 닥치는대로 죽이군 하는것이였습니다.

마을사람들은 의논끝에 외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바다기슭에 높은 성을 쌓기로 하였습니다.

늙은이도 젊은이들도 모두 성쌓는 일에 떨쳐나섰습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습니다.

《돌나르는 일이 왜 이렇게 더디느냐?》

좌상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까낸 돌들은 다 썼소이다.》
《뭐, 뭐라구?!》
좌상할아버지와 늙은이들이 가보니 정말 돌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돌이 문제였습니다.
성돌이 있을만한 곳을 찾아다니며 땅을 파보기도 하고 바다물속에 들어가보기도 하였으나 성돌로 쓸만한 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수가 나서 성을 쌓던 사람들은 하나둘 손맥을 놓고 주저앉았습니다.
절반밖에 올리지 못한 성벽을 바라보며 마을사람들은 한숨만 꺼지게 내쉬였습니다.
글쎄 돌이 없으면 성을 어떻게 쌓겠습니까.
《저 청바위산을 까내면 될텐데…》
누군가 하는 말에 사람들은 마을 한쪽에 우뚝 솟아있는 바위산쪽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거뭇거뭇한 바위산을 까내기만 하면 성쌓는 일은 문제로도 되지 않을것이였습니다.
장쇠와 바우는 얼른 도구를 갖추어들고 바위산을 까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쾅 쾅 쾅…》
힘이 세고 재간이 비상하다는 그들이였지만 청바위산에서는 돌부스레기 하나 뜯어낼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대끝에서는 불꽃이 펑끗펑끗 일다가 얼마 못가서 정대까지 모지라지고말았습니다.
장쇠와 바우마저 물러나자 마을사람들은 실망하여 아예 주저앉아버렸습니다.
《이 일을 어쩌나? 이럴 때 끌끌한 젊은이들이라도 마을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가. …》
남편들을 외적을 쳐부시는 싸움터에 내보낸 마을녀인들의 한숨섞인 말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장사들이 있다 한들 강쇠로 만든 정대까지 튕

겨버리는 청바위를 어쩐단 말입니까.

이때였습니다.

《어험—》하는 기침소리와 함께 좌상할아버지가 흰수염을 쓸어내리며 마을사람들한테로 다가왔습니다.

《좌상할아버지, 저 청바위산을 까낼 무슨 수는 없소이까?》

장쇠가 좌상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청바위산을 까내자면 열두고개너머 솔골에 있는 대장간로인들을 찾아가야 한다네. 그들이 벼려낸 정대는 신비한 힘이 있어 그 어떤 바위건 다 까낼수 있지. …》

좌상할아버지의 말이 끝나자 바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좌상할아버지, 제가 그 대장간할아버지들을 찾아가 정대를 만들어오겠소이다.》

바우의 말에 좌상할아버지는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쉽게 결심할 일이 아닐세. 거기로 가는 길엔 도깨비가 있는지 숱한 사람들이 갔지만 돌아온 사람은 없다네. 목숨을 내대고 가야 하는 길이지…》

바우는 좌상할아버지앞으로 한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좌상할아버지, 내 기어이 그 정대를 가져오겠소이다. 다른 수야 없지 않소이까.》

좌상할아버지는 바우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후 길차비를 갖춘 바우는 숲속의 대장간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마을사람들은 바우가 정대를 가지고 돌아오기를 안타깝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바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허, 며칠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는걸 보니 잘못된게 분명하네. …》

좌상할아버지가 그늘진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있던 장쇠가 좌상할아버지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좌상할아버지, 제가 그 대장간할아버지들을 찾아가 정대를 만

들어오겠소이다.》
장쇠의 말에 좌상할아버지는 이번에도 설레설레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런 생각 아예 말게. 자네까지 잘못되면…》
《좌상할아버지, 언제 또 외적들이 달려들지 모르는데 목숨이 귀하다고 앉아만 있겠소이까.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 기어이 그 정대를 벼려오겠소이다.》
장쇠의 절절한 말에 좌상할아버지는 끝내 승낙하고야말았습니다.
《그럼 어서 떠나게.》
장쇠는 그길로 숲속의 대장간할아버지들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대장간할아버지들을 찾아가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하늘에 닿은 높은 산을 넘어서면 깎아지른듯한 절벽이 앞을 막아서고 절벽을 톺아오르니 쐐기덩굴로 뒤덮인 산이 나타났습니다.
쐐기덩굴숲을 헤치며 나가다나니 장쇠의 얼굴과 손은 온통 찔리워 피가 내배였습니다.
쐐기덩굴숲을 넘어서니 나무 한대 없는 돌바위산이 앞을 막았습니다.
쏟아지는 땡볕에 산이 통채로 달아올라 발을 디딜수가 없었습니다.
산새마저 피해 날아가는 무서운 곳이였습니다.
땀방울이 뚝뚝 떨어질 때마다 칙칙 김이 날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쇠는 이를 악물고 걷고 또 걸었습니다.
열번째 산을 넘어서던 장쇠는 우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돌로 굳어진 사람을 보았기때문입니다.
그곁으로 다가가던 장쇠는 깜짝 놀랐습니다.
돌로 굳어진 사람은 다름아닌 바우였던것입니다.
(엉? 바우가… 왜 이렇게 되였을가?)
장쇠는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깊은 산속이여서 주변에는 키높은 나무들뿐이였습니다.
갑자기 산새들이 푸드득 날아올랐습니다.
《우웡—우웡—》승냥이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절로 머리칼이 곤두서고 식은땀이 내배였습니다. 무서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위험한 길이로구나. 집으로 돌아가야 한단 말인가? 여기서 어물거리다가 나도 저렇게 될게 아닌가. …)

장쇠는 다시한번 생각해보았습니다.

(아니야, 설사 바우처럼 돌로 굳어진다 해도 난 기어이 정대를 벼려가지고 와야 해. 빨리 성을 쌓아 외적들이 달려들지 못하게 고향마을을 지켜야 해.)

굳은 마음을 먹은 장쇠는 또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산을 넘어서니 아찔한 칼벼랑이 막아섰습니다.

그 칼벼랑가운데 돌사다리가 놓여있었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 돌사다리를 넘어서야만 대장간할아버지들이 있는 곳으로 갈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사다리는 얼마나 아찔하게 높은지 올라가다가 한번 미끄러지기만 하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장쇠는 끝내 이 돌사다리도 넘었습니다.

열두번째 산을 내리고 보니 아늑한 골짜기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향긋한 송진내와 풀내에 섞여 알싸한 숯굽는 연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쩡쩡 망치질소리도 울려왔습니다.

그곳이 바로 장쇠가 찾고찾던 대장간이였던것입니다.

장쇠는 나는듯이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세 할아버지들중 한 로인은 풍구질을 하고 두 로인은 번갈아 망치를 휘두르며 열심히 쇠를 벼리고있었습니다.

《할아버님들, 안녕하시오이까?》

기쁨에 넘친 장쇠의 목소리에 놀란 대장간할아버지들이 일손을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젊은인 무슨 일로 찾아왔나?》

《전 향기골에서 사는 장쇠라 하옵니다.》

장쇠는 자기가 찾아온 사연을 차근차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 자네도 향기골에서 청바위산을 까낼 정대를 만들어가려고 왔단 말이지.》

《예, 그렇소이다.》

《허허, 며칠전에도 향기골에서 온 바우라는 젊은이가 청바위산을 까내여 성을 쌓겠다고 하기에 정대를 하나 벼리여주었는데 아직 바위산을 까내지 못했나? 그럴수가 없겠는데…》

《바우에게요?》

장쇠는 여기로 오는 길에 바위로 굳어진 바우를 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음, 일인즉 그렇게 됐군. …》

할아버지들은 알만 하다는듯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대장간할아버지들은 수군수군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젊은이, 우리가 이제 정대를 만들어줄테니 좀 쉬라구.》

《할아버님들, 전 힘들지 않소이다. 제가 도울 일은 없소이까. 풍구질이라도 하겠나이다.》

그러자 할아버지들은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젊은인 기특하이. 정 그러면 풍구질이나 해주게. 우리가 제꺽 정대를 벼리게.》

대장간의 세 할아버지들은 정대를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풍구질할 때마다 불길이 확확 일었습니다.

뚝딱뚝딱 망치질소리가 쉴새없이 울렸습니다.

정대를 만드는 쇠는 보통쇠가 아니였습니다.

대장간할아버지들은 불빛을 받아 서늘한 빛을 내뿜는 쇠덩어리를 불에 달구었습니다.

한번 달구어 열번 때리고 두번 달구어 서른번 때리고 세번 달구어 백번 때렸습니다. 때릴 때마다 챙챙한 소리가 울려나왔습니다. 칼이나 창을 벼리던 그런 쇠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대장간할아버지들은 천번도 더 때려 단련시킨 쇠를 다시 불에 달구어 정머리를 뾰쪽하게 벼리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불에 달구었다가 꺼내여 물에 담그었습니다.

《칙－》

정대끝에서는 푸른빛이 번쩍거렸습니다.

《젊은이, 이 정대를 받게. 이 정대면 그 청바위산을 통채로 까낼수 있을거네. 어서 가지고 가서 성을 제꺽 쌓으라구.》

장쇠에게로 다가와 정대를 내밀며 대장간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할아버님들, 정말 고맙소이다.》
장쇠는 대장간의 세 할아버지들에게 거듭거듭 인사를 하였습니다.
《젊은이, 그런 말 말게. 어서 성을 높이 쌓고 원쑤들을 모조리 쳐부시게.》
《알겠소이다.》
정대를 받아쥔 장쇠가 떠나려 할 때였습니다.
《젊은이, 명심하게. 이 보물정대를 만들어주는것은 반드시 성돌을 마련하는데 쓰라는것이지 다른 일에 쓰라고 만들어주는건 아닐세. 이 정대는 보통정대가 아니라네. 이 정대만 있으면 가는 길에 도적맞힐 일도 없고 누구도 자네를 당하지 못한다네. 누구든 자네를 해치려 하면 〈날아라 정대야.〉하고 소리치게. 그러면 이 정대가 자넬 도와줄걸세.》
대장간할아버지들은 보물정대를 쓰는 법까지 하나하나 말해주었습니다.
장쇠는 세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장쇠가 날개라도 돋친듯 벼랑산을 내려설 때였습니다.
지팽이를 든 웬 늙은이가 나타났습니다.
장쇠의 손에서는 보물정대가 번쩍번쩍 빛을 뿌리고있었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자네 그 손에 든게 보물정대가 아닌가?》
《예, 보물정대입니다.》
《거 마침일세. 나에게 신기한 망돌 하나 만들어주지 않겠나? 망돌을 만들어주면 내 신세를 톡톡히 갚겠네.》
그 말을 하는 늙은이의 목에 어딘가 낯익어보이는 목걸이가 걸려있었습니다.
(어디서 봤더라?)
한참 생각을 굴리던 장쇠의 눈앞에는 향기골에 배를 타고 오군 하던 장사군의 목걸이가 떠올랐습니다.
장사군의 목걸이에도 저 늙은이의것처럼 빨갛고 파란 구슬이 달려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사군의것은 구슬이 세알인데 늙은이의것은 빨간 구슬과 파란 구슬 두알뿐인것이였습니다.
(내가 잘못 봤을가? 하긴 꼭같은 목걸이가 한둘이라구…)

장쇠가 이런 생각을 할 때였습니다.
그 늙은이가 보따리에서 번쩍이는 금덩이를 한가득 내놓았습니다.
《젊은이, 이 금덩이면 고래등같은 기와집을 짓고 한평생 잘 먹고 잘 살수 있네. 그러니 이걸 다 가지고 망돌이나 하나 만들어주게.》
(저 금덩이면 나 혼자는 한평생을 잘 먹고 잘 살수 있다. 하지만 외적들이 달려들면 기와집도 마을도 끝장이 아닌가.)
장쇠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이 보물정대로는 꼭 성돌을 만들어야지 망돌을 만들수는 없습니다.》
장쇠는 그 늙은이가 더 말할 사이도 없이 또 걷기 시작했습니다.
장쇠가 산 하나를 넘어설 때였습니다.
산속의 이름모를 무덤가에 아릿다운 처녀가 꿇어앉아있었습니다.
불쌍한 생각이 든 장쇠는 가까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소?》
장쇠의 다정한 목소리에 처녀는 다소곳이 머리를 숙이고 일어났습니다.
처녀는 겁먹은듯 장쇠를 살피더니 손에 든 보물정대에 눈길을 박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총각님, 절 좀 도와주세요. 며칠 있으면 아버지 제사날인데 비석 하나 세워주지 못한 안타까움에 제 가슴은 타서 재가 되였답니다. 비석을 만들어주면 그 은혜를 일생동안 잊지 않고 꼭 갚겠어요.》
(아버지 제사날이라는데 비석만은 만들어주고 갈가?…)
《비석만들 돌이 어디에 있소?》
장쇠의 말에 그 처녀는 생글생글 웃으며 말했습니다.
《총각님, 우선 저의 집에 가십시다.》
처녀를 따라 얼마쯤 가니 숲속에 큰 기와집 한채가 나타났습니다.
보기에도 으리으리하고 화려했습니다.
(이 산속에 어떻게 이런 집이 있을가? 내가 이곳으로 지나갈 때에는 보지 못했는데…)
장쇠는 대장간할아버지들을 찾아 너무 급히 가다나니 보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방안에는 아직 김이 문문나는 통닭이며 여러가지 떡과 향기로운 과일들이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져있었습니다.

《처녀는 이 집에서 혼자 사오?》

장쇠는 처녀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예, 저 혼자예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지난해에 돌아가셨어요.》

처녀는 상옆에 두었던 주전자를 조심히 들어 잔에 찰찰 넘치도록 술을 부었습니다.

《어서 한잔 드세요. 그리고 시장하시겠는데 음식들도 많이 드세요.》

처녀는 두손으로 정히 술잔을 받쳐 장쇠에게 주었습니다.

잔을 받아든 장쇠가 술을 마시려 할 때였습니다.

술잔속에 돌로 굳어져있는 바우의 모습이 비꼈습니다.

(아—바우!)

순간 장쇠는 께름직한 생각이 들어 잔을 놓고 일어섰습니다.

《이 술을 마시고 취하면 언제 비석을 만들겠소. 어서 돌있는 곳으로 데려다주오.》

《저, 총각님을 위해 성의껏 차린 음식인데 조금이라도 드세요.》

장쇠는 처녀의 청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난 길떠나기 전에 많이 먹고 떠났소.》

처녀는 못내 섭섭해하는 얼굴이였습니다.

《저… 그럼.》

처녀는 집 뒤뜰로 장쇠를 데리고갔습니다.

뒤뜰안에는 비석을 만들기에 알맞춤한 큰 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돌이예요.》

처녀는 일부러 허리를 굽히며 비석만들 돌을 들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그의 목에 걸려있던 목걸이가 저고리깃사이로 살짝 나왔습니다.

그 목걸이는 전에 만났던 늙은이것과 비슷한데 다만 빨간 구슬 한알밖에 없었습니다.

처녀가 들기 힘들어하는것을 본 장쇠는 보물정대를 허리에 차고 비석돌을 맞들었습니다.

이때 누군가 장쇠의 허리에 찬 보물정대에 손을 댔습니다.

순간 장쇠는 대장간할아버지가 한 말이 떠올라 《날아라 정대야.》하고 다급히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뒤에서 《악》하는 남자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처녀는 간데없고 웬 남자가 보물정대에 맞아 쓰러져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던 장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놈은 마을로 배를 타고 오군 하던 장사군이 분명했던것입니다.

《엉? 네놈이?》

장사군놈은 마지막숨을 몰아쉬면서도 지껄였습니다.

《아, 향기골, 기어이 타고앉으려고 했는데…》

이놈은 외적들이 향기골에 들여보낸 렴탐군놈이였습니다.

향기골에 성쌓을 돌이 모자라 청바위산을 까내려고 바우와 장쇠가 숲속의 대장간을 찾아갔다는것을 알게 된 놈들은 보물정대를 가져오지 못하게 하려고 렴탐군놈을 시켜 지키게 했던것입니다.

그사이에 외적들은 향기골에 쳐들어올 준비를 갖추고있었습니다.

이놈의 목에 걸었던 목걸이에 붙은 세알의 진주알은 변신술을 쓰게 하는 구슬이였습니다.

이것을 입에 넣으면 노란색은 늙은이로, 파란색은 처녀로, 빨간색은 자기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오게 되는것이였습니다.

이놈은 자기의 정체를 가리우기 위해 노란색진주알을 먹고 늙은이로, 파란색구슬을 먹고 처녀로 나타났던것입니다.

(아,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를번 했나. 한시바삐 성을 쌓아 외적을 물리쳐야 할 내가 잠시나마 저런 놈의 잔꾀에 넘어가다니…)

장쇠는 자기를 뉘우치며 향기골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장쇠가 가져온 보물정대를 본 마을사람들은 기뻐서 어쩔줄 몰라했습니다.

《좌상할아버지, 보물정대를 가져왔소이다.》

좌상할아버지는 장쇠의 손에서 번쩍번쩍 푸른빛을 뿜는 보물정대를 흐뭇한 눈으로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장쇠, 장하이, 장해. 어서 그 보물정대로 청바위산을 까내여 성돌을 만들게.》

《알겠소이다.》
장쇠는 척척 바위산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번쩍번쩍 빛을 뿜는 보물정대를 청바위에 대고 망치로 힘껏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정대끝에서 불꽃이 펑긋 일더니 《쿵》하는 소리와 함께 청바위가 와르르 깨여져내렸습니다.
《바위돌아, 바위돌아－스리슬슬 어서 커져 성돌이 되여라.》
깨여진 돌들에 보물정대를 갖다대기만 해도 눈깜짝할사이에 삐죽삐죽하던 돌들이 두부모처럼 네모반듯한 성돌이 되였습니다.
《야－》
마을사람들은 환성을 올렸습니다.
순식간에 성돌들은 작은 산만큼이나 쌓아졌습니다.
《됐네, 됐어. 이 보물정대만 있으면 성을 다 쌓을수 있겠네.》
좌상할아버지와 마을사람들은 기뻐하며 부지런히 성돌을 날라다 성을 쌓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덧 성이 다 쌓아졌습니다.
좌상할아버지와 마을사람들은 두리둥둥 북을 울리며 춤을 추었습니다.
이때였습니다.
《외적들이 쳐들어온다.》
성우의 감시대에서 마을을 지키던 파수병이 소리쳤습니다.
정말 검은 돛을 단 배들이 향기골을 향해 밀려오고있었습니다.
배에 탄 외적들은 성을 향해 화살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화살들은 성벽에 와서 《탁!》하고 부딪치고는 화살을 쏜 놈들에게로 되돌아날아갔습니다.
《활을 쏘지 말아.》
외적두목놈이 질겁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화살은 계속 날아갔다가 되돌아왔습니다.
륙지에 오른 놈들은 창을 던지였습니다.
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돌에 부딪친 창은 던진 자리로 되돌아가는것이였습니다.

그바람에 제놈들의 주검만 늘어났습니다.
《창을 던지지 말아. 그리고 빨리 성으로 오르라.》
하지만 성돌이 얼마나 매끄러운지 놈들은 한치도 기여오르지 못하였습니다.
향기골사람들은 성에 의지하여 화살을 내려쏘고 창을 내려던지고 녀인들은 끓는 물을 내리부었습니다.
정말 통쾌하였습니다.
장쇠는 싸움을 지휘하는 선봉장옆에서 화살을 날리고있었습니다.
이때 악에 받친 두목놈이 활을 잡더니 선봉장을 향하여 화살을 날렸습니다.
순간 장쇠는 선봉장을 한몸으로 막으며 보물정대를 높이 들고 소리쳤습니다.
《날아라 정대야.》
그러자 《윙》하고 소리가 나더니 장쇠의 손에서 어느새 보물정대가 빠져나가 날아오는 화살을 툭 꺾어버리고는 다시 날아가 외적두목놈의 대갈통을 박산냈습니다.
《악—》
보물정대는 다시한번 《윙》소리내며 솟구치더니 외적들의 배선창으로 날아가 《펑》하고 구멍을 뚫었습니다.
외적들의 배는 모두 구멍이 뚫려 가라앉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성문이 열리며 선봉장과 군사들이 달려나가 뭍에 오른 외적들을 무찔렀습니다.
외적들은 성안에 들어서보지도 못한채 모두 죽고말았습니다.
향기골사람들은 너무 기뻐 승전고를 둥둥 울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쇠와 마을사람들앞으로 바우가 어청어청 나타났습니다.
《자넨 어떻게 된 일인가?》
좌상할아버지가 엄하게 물었습니다.
바우는 머리를 푹 수그린채 아무말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떠듬떠듬 사연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바우도 숲속의 대장간할아버지들을 힘들게 찾아가 보물정대를 얻

어가지고 돌아오고있었습니다.

이때 웬 늙은이가 나타나 그에게 망돌 하나를 만들어달라고 하면서 많은 금덩어리들을 꺼내놓았습니다.

바우는 그 금덩이들을 보는 순간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저 금덩이면 한평생 놀고먹고도 남겠구나. 망돌이나 하나 만들어주었다고 보물정대가 무디지야 않겠지.)

바우는 얼른 보물정대로 망돌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망돌을 다 만들었을 때였습니다.

바우가 쥐고있던 보물정대에서 검은 연기가 물물 피여올랐습니다.

《엉?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갑자기 정대를 쥐였던 손이 뻣뻣해지고 다리가 뻣뻣해지더니 온몸이 뻣뻣해졌습니다.

바우는 그만 순식간에 돌사람이 되였습니다.

망돌을 만들어달라고 금덩이를 내보이던 그 늙은이의 마술에 걸렸던것입니다.

만약 장쇠가 렴탐군놈을 죽이지 못했더라면 바우는 영영 돌사람으로 굳어져있었을것입니다.

렴탐군놈이 죽자 돌사람으로 굳어졌던 바우는 마술에서 풀려났던것입니다.

좌상할아버지는 머리를 끄덕이고나서 바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음, 그래서 인제야 왔단 말이지. … 고향을 지키는 일에 써야 할 보물을 자기 하나를 위해 쓰다니…

명심하게. 아무리 훌륭한 보물도 고향을 위해, 나라를 위해 쓸 때에만 진정한 빛을 뿌리게 된다는것을… 》

《알겠소이다.》

바우는 자기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쳤습니다.

그후 향기골은 그 어떤 원쑤도 감히 넘겨다보지 못하는 행복한 마을로, 아름답고 살기 좋은 마을로 되였습니다.

주체95(2006)년

동　화

청룡성의 황금방패

지 홍 길

어느 한 바다가에 청룡성이라 부르는 큰 성이 있었습니다.

집채같은 바위들을 두부모같이 다듬어서 물샐틈없이 쌓아올린 성벽우에는 장수가 올라서서 싸움을 지휘하군 하는 장수대가 엄엄하게 높이 솟아있었습니다.

바로 이 장수대의 붉은 두리기둥에 황금으로 만든 신기한 방패가 하나 걸려있었습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방패는 원쑤놈들이 쳐들어오면 저절로 눈부신 빛을 세차게 내쏘는데 그 빛을 받기만 하면 원쑤놈들은 당장에 눈이 멀고 살가죽이 타들어서 《앗 따가와, 앗 따가와.》하고 비명을 지르며 대굴대굴 굴다가 뻐드러지군 하였습니다.

그뿐이 아니지요. 원쑤놈들의 창과 칼은 엿가락처럼 녹아서 비틀어지고 날아오던 화살은 공중에서 불티가 되여 사라졌습니다.

성안마을사람들은 이 방패의 덕분에 마음놓고 살수 있었습니다. 그 어떤 원쑤놈들도 쳐들어올 위험이 조금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이 방패를 만들어낸 야장간할아버지만은 마음을 놓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늘 이런 말을 하군 하였습니다.

《우리가 신기한 황금방패를 가지고있다고 절대로 마음을 놔

서는 안되네. 원쑤놈들도 결코 가만히 있지는 않을테니까. 그러니 우리는 지금 있는것보다 더 훌륭한걸 만들어내야 하네.》

야장간할아버지는 아무도 모르게 지금 있는 방패보다 몇십배나 더 좋은 황금방패를 만드는 일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깊은 속마음을 미처 알수 없었던 몇몇 사람들은 지금같이 평화로운 세월에 무슨 병쟁기타령을 하느냐고 하면서 할아버지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저 오랑캐놈들이 쳐들어올 위험이 없어졌으니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볼가 하는 생각들뿐이였습니다. 그런 사람들가운데는 을동이와 갑동이라는 젊은이들도 있었습니다.

갑동이와 을동이는 앉으나 서나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풍청거리며 잘 살아볼가 하는 생각뿐이였습니다.

어느날 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금점골이라는 곳에서 사금이 나온다는것이였습니다.

갑동이와 을동이는 무척 기뻐서 금점골로 달려갔습니다.

금점골은 청룡성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갑동이와 을동이는 짝패가 되여 사금을 캐기 시작하였습니다.

누구나 다 잘 아는바와 같이 사금이란 모래를 쌀을 일듯이 일어서 얻어내는 금입니다. 그런데 사금을 한그람만 얻자고 해도 참으로 많은 모래를 파내서 물에 일어야 합니다. 때문에 사금을 캐는 일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였습니다.

어떤 때에는 온종일 비지땀을 흘리면서 모래를 파내여 일어도 담배씨만한 금알갱이조차 걸리지 않을 때가 드문하였습니다.

이런 때는 손맥이 탁 풀리고 온몸이 나른해져서 그자리에 폴싹 주저앉고맙니다.

갑동이와 을동이는 이런 때마다 《제길… 모래밭에다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하면 금싸래기들이 가득 달라붙는 자석이 있었으면 좋겠다.》하고 푸념을 하며 한숨을 쉬군 하였습니다.

정말 그런 자석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별로 힘도 들이지 않고 사금을 얼마든지 얻어낼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래에다 굴리면 쇠가루들이 가득 붙는 자석은 있는데 금

가루, 금싸래기들이 달라붙는 자식은 어째서 없는지 참으로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느날이였습니다. 그날도 몇번이나 허탕을 치고 난 갑동이와 을동이는 삽과 괭이를 내던지고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길, 이 세상에 금싸래기가 달라붙는 자식은 왜 없을가? 그런게 있으면 이 고생을 안하구두 사금을 얼마든지 얻어내겠는데… 후유—》

그들은 저도모르게 또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갑동이와 을동이는 동시에 《아야야… 이게 뭐야?》하고 놀란 소리를 지르면서 후닥닥 뛰쳐일어났습니다.

무엇인가가 엉치를 세차게 떠박질렀기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앉았던 자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순간 그들은 또한번 《이게 뭐야?》하고 놀라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글쎄 자기들이 앉았던 자리에 겨우 토끼새끼만한 황소가 각각 한마리씩 생겨난것이 아니겠습니까.

꼬마황소들은 몸뚱이며 뿔이며 발통들이 모두 황금으로 되여있어서 번쩍번쩍 빛을 뿌렸는데 그들에게는 숟가락만한 무쇠보습이 메워져있었습니다.

《아니 이건 또 뭐야?》

갑동이와 을동이는 세번째로 놀라운 소리를 지르면서 왕방울만큼 커진 눈으로 꼬마황소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꼬마황소들의 잔등에는 《주인 김갑동》, 《주인 리을동》이라는 글까지 새겨져있는게 아니겠습니까.

《하, 이것 봐라. 이 황금꼬마소들의 주인이 우리들이란 말이야?》

두 젊은이는 마주보며 놀라와하다가 저마끔 자기 황소를 조심히 안아올렸습니다.

그들은 꼬마황소들의 오른쪽옆구리와 왼쪽옆구리에도 작은 글자들이 새겨져있는것을 보았습니다.

《황소야, 황소야. 커질만큼 커져서 모래밭을 갈아라.》
갑동이와 을동이는 꼬마황소들의 오른쪽옆구리를 들여다보며 동시에 같은 글을 읽었습니다.
순간 꼬마황소들은 부쩍부쩍 커졌습니다.
《어이쿠 무거워!》
갑동이와 을동이는 무거움을 이기지 못하여 동시에 황소들을 땅에 떨구었습니다.
《음메》하고 영각소리를 하면 개만큼 커지고 두번 영각소리를 하면 노루만큼 커지고 세번 영각소리를 하면 송아지만큼 커지더니 마침내 커다란 황소로 변하였습니다.
황소들은 가마뚜껑만큼이나 커진 무쇠보습을 끌고 모래밭을 씽씽 갈아제끼기 시작했습니다.
두눈을 부릅뜨고 코김을 힝힝 불어대며 모래밭을 갈아제끼는 황소의 모습은 참말 볼만 했습니다.
금으로 된 네개의 발통들은 모래밭을 엇바꾸어 짚을 때마다 번쩍번쩍 빛나고 두개의 뿔은 머리우에서 빛났습니다.
갑동이와 을동이는 황소들이 모래밭을 갈아제끼는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서쪽 산마루에 올라앉자 황소들은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갑동이와 을동이는 가마뚜껑만한 무쇠보습앞에 금싸래기들이 가득 붙어있는것을 발견하고 환성을 올렸습니다.
《야, 이 보습은 금싸래기들이 달라붙는 자석이였구나!》
갑동이와 을동이는 보습에 붙은 금싸래기들을 깐깐히 털어냈습니다. 콩알만큼씩이나 큰것, 벼알만큼한것들이 드문드문한 금싸래기들은 한사발은 실히 되였습니다.
갑동이와 을동이는 너무도 기뻐서 춤을 덩실덩실 추었습니다.
《얼씨구 좋다! 절씨구 좋다! 금싸래기가 달라붙는 자석보배보습 좋을시구!》
한참이나 춤을 추던 갑동이와 을동이는 황소의 왼쪽옆구리에 새겨져있는 글을 보게 되였습니다.
《작아질만큼 작아져라.》

마지막글자까지 읽기가 끝나기 바쁘게 황소들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본래대로 꼬마황소로 변해버렸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보물을 얻은 갑동이와 을동이는 그때부터 조금도 힘들지 않게 금을 캐게 되였습니다.

황소들을 몰아 하루동안만 모래밭을 갈아도 무쇠보습에는 한사발이 넘는 금싸래기들이 붙었는데 그것을 녹여서 덩이로 만들면 주먹만한 금덩이가 되였습니다.

《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될수 있겠구나!》

갑동이와 을동이는 너무도 좋아서 껑충껑충 뛰다가 우뚝 멈춰서서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누가 엿듣지나 않았나 해서였습니다.

갑동이는 사방을 다시한번 둘러보고는 을동이의 귀에 대고 소곤거렸습니다.

《을동아, 우리 이 황소들을 절대비밀에 붙이구 우리끼리만 쓰자.》

그때로부터 갑동이와 을동이는 남들의 눈을 피해가면서 황소들이 모래밭을 갈게 하여 금싸래기들을 자꾸자꾸 얻어냈습니다.

나중에는 낮에만 캐는것으로는 성차지 않아서 밤에도 황소들이 모래밭을 갈게 하였습니다.

남들의 눈을 피하는데는 낮보다 밤이 더 좋았고 밤이래도 초저녁보다 깊은 밤중이 더 좋았습니다.

황소들의 황금뿔들은 머리우에서 등불처럼 빛을 뿌리며 앞을 밝혀 대낮처럼 씽씽 달리게 하였습니다.

네개의 황금발통은 옮겨디딜 때마다 엇바뀌여가면서 번쩍번쩍 빛났습니다.

갑동이와 을동이에게는 주먹만한 금덩이들이 자꾸자꾸 생겨났습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습니다. 갑동이와 을동이가 한창 황소들을 몰아 모래밭을 갈고있는데 뜻밖에도 청룡성의 황금방패를 만든 야장간할아버지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급해나서 얼른 《작아질만큼 작아져라.》하고 속삭였

습니다. 다행히도 할아버지가 보기 전에 황소들은 새끼토끼만하게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미처 감추지는 못하고말았습니다.

《허허, 참 깜찍하게도 생겼구나. 장난감조각이냐?》

야장간할아버지는 몹시 당황하여 허둥거리는 갑동이와 을동이에 대해서는 별로 눈길을 돌리지 않고 꼬마황소에게만 눈길을 돌리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건 장난감이 아니라…》

을동이는 청룡성 황금방패를 만들어 온 성안사람들이 마음놓고 편안히 살게 해준 더없이 훌륭한 할아버지에게 차마 거짓말을 할수가 없어서 사실대로 말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순간 갑동이가 그의 말허리를 뚝 끊어버리고 가로챘습니다.

《예예, 맞습니다. 이건 장난감입니다. 장난가암—》

그리고는 할아버지가 모르게 슬쩍 을동이의 옆구리를 쿡 찌르고는 눈을 찔 흘겼습니다.

야장간할아버지는 그런 눈치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금이 얼마쯤 꼭 필요해서 사금을 캐러 왔다면서 삽과 괭이를 내려놓더니 모래구뎅이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는 몹시도 힘들어하였습니다. 서너삽 뜨고는 쉬고 서너삽 뜨고는 또 쉬고… 그러다가는 이따금씩 허리를 힘겹게 펴고 《아이구 허리야》하고 신음소리를 내며 주먹으로 자근자근 두드리는것이였습니다.

을동이는 차마 그 모습을 보고만 있을수가 없었습니다.

야장간할아버지가 저렇게 애를 쓰며 금을 캐는것은 제집 살림이나 늘이자고 그러는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였기때문입니다.

그것은 분명 청룡성을 지키기 위해 무엇인가 더 귀중한것을 또 만들려고 그러는것이라고 을동이는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을동이는 야장간할아버지를 도와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을동이는 자기의 꼬마황소를 안고 야장간할아버지한테로 다가갔습니다.

《아니, 을동아. 너 어쩌자는거냐?》

갑동이는 덴겁을 해서 을동이의 앞을 막아서려 하였으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을동이가 어느새 할아버지앞에 꼬마황소를 내려놓고 《커질만큼 커져라. 모래밭을 갈아라.》하고 말한 뒤였으니까요.

눈앞에서 새끼토끼만 하던 꼬마황소는 코끼리만큼이나 커졌습니다.

숟가락만 하던 보습도 큰 가마뚜껑만큼이나 커졌습니다.

황소는 보습을 끌며 모래밭을 씽씽 갈았습니다.

보습에는 금싸래기들이 가득 붙었습니다.

《허허, 그것 참 굉장한 보물이로구나. 나도 이런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으랴 생각했는데…》

야장간할아버지는 입가에 느슨한 웃음을 띄우고 황소가 모래밭을 갈아제끼는 모습을 신기한듯 바라보았습니다.

이 순간 갑동이는 모닥불을 뒤집어쓴듯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을동이가 괘씸하고 얄밉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날 해가 저물어서 야장간할아버지가 돌아가자 갑동이는 을동이에게 화를 냈습니다.

《넌 어째서 절대비밀에 붙이자던 약속을 어기구 나를 곤경에 몰아넣는거냐? 너 혼자만 인정이 있구 정직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구 나는 거짓말쟁이이구 인정사정도 없는 고약한 놈이라는 말을 듣게 만들어서 시원할게 뭐냐? 이제부터 나는 나대로 금을 캘테니 너는 너대로 캐라. 황소를 빌려주든 팔아먹든 상관 안할테다.》

갑동이는 씽 다른데로 가버렸습니다.

이때부터 갑동이와 을동이는 서로 헤여져서 따로따로 금을 캤습니다. 금점골은 넓고넓었으니까요.

《흥, 그 귀중한 보물을 왜 남한테 빌려준단 말이야. 하루만 빌려주면 주먹만한 금덩이 한개씩을 손해보는데…》

다른데로 옮겨간 갑동이는 황소를 그 누구에게도 절대로 빌려주지 않고 자기 혼자만 부렸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금덩이들이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어느새 갑동이는 이고장에서 제일가는 큰 부자가 되였습니다.

그러나 을동이는 매일같이 황소를 야장간할아버지에게 내주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자기가 이미 모아두었던 금덩이들까지 야장간할아버지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다나니 을동이네 살림은 별로 펴인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을동이는 마을과 고향을 위해 자기도 적으나마 보탬을 주었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돈밖에 모르는 돈벌레로 변해가는 갑동이를 무척 걱정했습니다.

더구나 나라에서는 금점골 금은 절대로 아무에게나 망탕 팔지 말고 정해진 법대로 팔아야 한다는 엄한 령이 내렸는데 돈에 미쳐버린 갑동이는 나라의 법을 어기고 노불이라는 놈에게 몰래몰래 팔아넘긴다는 말을 들었기때문입니다.

어데서 날아들었는지 정체를 알수 없는 노불이란 놈은 도적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찾아다니면서 다른데보다 몇푼씩 더 주고 금점골 금을 자꾸자꾸 사들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여기에는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꿍꿍이가 숨어있는것이 분명한데 돈에 환장을 한 갑동이는 그런데는 조금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돈만 많이 받으면 그만이였습니다.

을동이는 갑동이 그렇게 변해가는것이 걱정되고 안타까왔습니다.

그래서 어느날 일부러 짬을 내여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갑동이는 몹시 아니꼬와하면서 《싱겁게 남의 코씻어주려 손수건 꺼내들고 다니지 말구 제코나 씻는게 좋을것 같네.》 하고 면박을 주었습니다.

을동이는 더 말을 못하고 돌아서고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야장간할아버지를 더욱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때 야장간할아버지는 아무도 모르게 이미 만들어서 청룡성에 걸어놓은 황금방패보다 몇배나 더 센 빛을 내쏘는 새로운 방패를 만들고있었는데 거의거의 끝나가고있었습니다. 금만 넉넉하면 이미 끝낸지 오랬으련만 을동이 혼자서 캐는 금을 가지고 만들다보니 지금까지 끝내지 못하고있었습니다.

새 방패를 아직 다 만들지도 못했는데 어느날 오랑캐놈들이 청

룡성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성안사람들은 처음에는 《그까짓 놈들 쳐들어오겠으면 오라지. 신기한 방패가 있는데 걱정이 뭐야.》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이 또 어데 있겠습니까.
글쎄 오랑캐놈들도 빛을 내쏘는 황금방패를 만들어가지고 맞불질을 하며 달려드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청룡성 황금방패에서 내쏘는 빛은 오랑캐놈들의 황금방패에서 내쏘는 빛과 공중에서 부딪쳐 번쩍번쩍 번개를 일으키고 우뢰를 터칠뿐 원쑤놈들을 한놈도 죽이지 못하였습니다.
청룡성의 황금방패가 맥을 추지 못한다는것을 알고 오랑캐놈들은 기가 나서 와와 함성을 지르면서 달려들었습니다.
놈들의 불화살들이 펑펑 날아들어서 성안의 집들에 불이 일었습니다. 청룡성의 군사들과 마을사람들이 하나둘 오랑캐놈들의 화살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고? 빛을 내쏘는 방패는 오로지 금점골 금으로만 만들수 있은즉 어느 놈이 나라의 령을 어기고 금점골 금을 오랑캐놈들에게 넘겨준것이 분명토다. 역적질을 한 그놈을 당장 잡아내라.》
야장간할아버지는 천둥같이 노하여 성난 호랑이같이 부르짖었습니다.
그 호령소리를 들은 갑동이는 가슴이 섬찍하고 등골이 오싹해났습니다.
(혹시 금장사 노불이란 놈이 오랑캐놈들의 렴탐군이 아닐가?)
이런 생각이 든 갑동이는 집으로 내달렸습니다.
집에는 금장사군 노불이란 놈이 아직도 숨어있었기때문입니다.
대문을 박차고 집안으로 뛰여드니 노불이놈은 무엇을 찾는지 집안을 발칵 뒤지고있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갑동이는 노불이를 쏘아보며 소리쳤습니다.
《흥, 내가 누구냐구? 이제는 대주지. 나는 너한테서 금점골 금

을 사서 우리 두령님한테 보내주었구 그것은 빛을 내쏘는 방패가 되여 지금 청룡성으로 쳐들어오고있지. 이젠 금싸래기가 붙는 신기한 황소를 내놔. 난 그것까지 손에 넣으려고 아직 떠나지 않고있었다.》

노불이놈은 빈정거리듯 지껄이며 시퍼런 칼을 빼들었습니다.

(아,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담. 돈에 환장을 하여 나라의 귀중한 보화를 팔아먹었더니 그게 원쑤의 무기가 되여 우리에게로 날아드는구나!)

갑동이는 가슴을 쳤습니다.

바로 이무렵 야장간할아버지와 을동이는 청룡성우에 걸어놓은 방패보다 몇배나 더 위력한 방패를 마감고비에서 만드느라고 하루하루를 긴장하게 일하고있었습니다.

금이 녹아서 출렁거리는 도가니안을 주의깊게 살피던 야장간할아버지가 《아, 금이 모자라는구나. 금이!》하고 가슴터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음이 급해난 을동이는 집으로 달려가 꼬마황소와 보습을 안고 달려왔습니다. 발통과 뿔이 금으로 되여있으니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했기때문입니다.

《아니, 이 귀중한걸… 황소가 없으면 금싸래기가 붙는 보습도 쓸모가 없게 된다는데…》

야장간할아버지는 선뜻 받지를 못하였습니다.

《어서 받으십시오. 이것이 아무리 귀중한들 우리 청룡성보다야 귀중하겠습니까. 나라가 있고야 귀중한 보물도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을동이는 어서 받으라고 꼬마황소를 야장간할아버지에게 안겨주었습니다.

《하긴 나라를 빼앗기면 땅도 바다도 하늘도 그리고 그안에 있는 모든 보물이 다 원쑤놈들의것이 되고말지.》

할아버지는 황소를 도가니안에 던져넣었습니다.

그것은 곧 녹아버렸습니다.

도가니안을 유심히 살피던 할아버지는 가슴이 찢어지는듯 신

음소리처럼 또 웨쳤습니다.

《아직도 금이 모자라는구나!》

《잠간만 기다리십시오.》

이 한마디를 남긴 을동이는 갑동이네 집으로 번개같이 내달렸습니다.

아무리 돈에 환장을 했다해도 청룡성이 위태로운 이때에 갑동이도 무엇인가 좀 내놓으리라고 믿었기때문입니다.

갑동이네 집에 이르러 문고리를 잡으려던 을동이는 집안에서 들려나오는 심상치 않은 소리에 우뚝 멈추어섰습니다.

문구멍으로 들여다보니 노불이놈이 당장 갑동이의 가슴을 찌르려는 찰나였습니다.

을동이는 벼락같이 달려들어가 노불이놈을 때려눕혔습니다.

《을동아!》

《갑동아!》

둘은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을동이에게서 찾아온 사연을 들은 갑동이는 노불이놈에게 빼앗길번 하였던 꼬마황소를 서슴없이 내놓았습니다.

둘은 야장간할아버지한테로 바람같이 달려갔습니다.

성우에서는 우리 군사들이 힘겨운 싸움을 하고있었습니다.

성밖에서는 오랑캐놈들이 와와 함성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청룡성의 운명은 경각에 달하였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새 방패가 완성되였습니다.

새 황금방패를 맞들고 청룡성 장수대로 달려간 을동이와 갑동이는 그것을 붉은 기둥에 높이 걸어놓았습니다.

《이 오랑캐놈들아, 어디 한번 맛을 봐라!》

야장간할아버지가 새 황금방패의 씌우개를 벗기자 강력한 빛발이 오랑캐놈들을 향해 쏟아져나갔습니다.

놈들의 방패가 녹아버렸습니다.

오랑캐놈들은 당장에 눈이 멀고 살가죽이 타들어서 《앗 따가와, 앗 따가와》하고 비명을 지르며 껑충껑충 뛰다가 너부러졌

습니다.

놈들의 창과 칼이 엿가락처럼 녹아 문드러졌습니다. 잠간사이에 원쑤놈들은 모조리 쓰러졌습니다.

두리둥둥 승전북이 울리고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들었다 놓았습니다.

얼싸 좋다! 에루화 경사로다! 춤판, 웃음판이 펼쳐졌습니다. 온 청룡성이 기쁨으로 끓어번지고 바다처럼 설레였습니다.

그런데 한사람만은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습니다. 그는 갑동이였습니다.

《을동아, 이놈을 죽여다오. 그 귀중한 황소를 얻었으면 나라와 고향을 위해 쓸것이지 제 리속이나 차리는데 쓰다나니 오랑캐놈들을 도와주는 역적질까지 했구나!》

갑동이는 오랑캐놈들의 화살에 맞아죽은 형님과 누이동생도 다 제손으로 죽인것이나 다름없고 고향마을이 불타고 청룡성 군사들이 여럿이나 희생된것도 모두 자기때문이라고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니였습니다.

을동이는 제 잘못을 뉘우치고 가슴을 쥐여뜯는 갑동이를 위로했습니다.

《갑동아, 그만해라. 모르고 저지른 잘못이니 앞으로 고치고 정신을 차리자. 너도 성을 지키는데 적으나마 도움을 주지 않았니?》

야장간할아버지도 그의 손을 따뜻이 잡아 일으켜세웠습니다.

《허허… 잘못을 뉘우친 사람은 벌써 나쁜 사람이 아니다. 이 기쁜 날에 지나간 일은 다 잊어버리구 어서 춤이나 추자.》

온 청룡성이 승전북에 맞추어 얼싸절싸 춤을 추고 또 추었습니다.

주체96(2007)년

동　화

거짓말이 진짜로 된 이야기

김 성 현

밖에서 《멍멍》하고 개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변부자는 삐꿍 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얼룩이가 꼬리를 흔들며 들어왔습니다.

《그래, 쌀값이 얼마나 올랐더냐?》

변부자의 말에 얼룩이는 살래살래 꼬리를 흔들어보였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것은 쌀값이 다섯배나 올랐다는 뜻입니다.

《허허, 벌써 다섯배라. 열배로 올라라, 열배.》

변부자는 흥이 올라 쌀고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젊은이들이 모두 전장에 나간데다가 몇해째 흉년이 들어 쌀이 제일 귀했습니다.

산나물만 끓이는 집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큰 고간에 흰쌀을 그득히 쌓아놓은 변부자만은 은근히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란리통에 고간의 쌀을 팔아 벼락부자가 되려는 꿈이 무럭무럭 괴여올랐던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번씩이나 얼룩이를 시켜 쌀값을 알아오게 했습니다.

눈치가 빠르고 사람의 말을 곧잘 알아듣는 얼룩이는 주인의 심부름을 실수없이 꼭꼭 해냈습니다. 하도 령리하다나니 주인이

나들이를 떠날 때면 보따리를 물고가기도 했고 대통도 잊고 떠나면 말하기 전에 가져올줄도 알았습니다.

대청마루에 걸터앉은 변부자가 쌀가마니를 세보며 속구구를 하고있는데 얼룩이가 다가와 바지가랭이를 끌어당겼습니다.

변부자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얼룩이가 당기는대로 따라갔습니다.

얼룩이가 《멍멍》하고 짖는 곳을 보니 마을 앞길에 마차가 하나 서있었는데 거기에는 마을사람들이 모여있었습니다.

변부자는 궁금한 생각이 들어 마차에 다가갔습니다.

마차에 탄 젊은 군사의 말이 싸움터에서 군량이 떨어져 곤난한 형편에 있다는것이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마을사람들은 너나없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당장 먹을것이 떨어졌어도 무엇인가 보탬이 될만한것을 한두가지씩 들고나왔습니다.

배나무집 김로인은 종자로 남겨둔 감자 한말을 성큼 지고 나왔습니다.

이웃집아주머니도 저녁을 끓이려고 구해온 좁쌀 한종지를 소중히 들고나왔습니다.

쌀이 한알도 없는 샘물집 처녀는 활촉을 만들어쓰라고 무쇠가마를 닁큼 뽑아 머리에 이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군사는 마을의 형편을 알고있는지라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종자를 싣고가면 빈땅에는 무엇을 심고 저녁끼니는 무엇을 끓이겠나요.

가마까지 없으면 풀뿌리마저 끓일수 없는데 말입니다.

군사가 절대로 실으려 하지 않자 김로인이 슬쩍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 집엔 감자종자가 스무가마니나 쌓여있네.

내가 늙어 힘이 없다나니 요것밖에 가져오지 못했는데 사양말고 실으라구.》

이웃집아주머니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 집 쌀독에도 쌀이 가득 차있어요. 걱정말고 어서 받으라구요.》

샘물집 처녀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라가 어려운 때 이까짓 무쇠가마가 뭐 아까울게 있나요. 우리 집 부엌엔 구리가마가 세개씩이나 있는걸요.》

마을사람들은 말은 그렇게 하였지만 속으로는 정말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마차에 넘치도록 듬뿍듬뿍 실어주게 말입니다.

군사는 마을사람들의 진정이 너무도 고마와 끝내 두눈을 슴벅이며 가지고온 물건들을 마차에 실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을사람들의 성의를 잊지 않고 후에라도 신세를 갚을 생각으로 그들의 이름을 적어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차에는 종이 한장, 붓 한자루 없었습니다.

이때 지나가던 웬 로인이 그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더니 품속에서 책과 붓을 꺼냈습니다.

《자, 어서 여기에 적으라구. 그들의 성의를 잊으면 안되지. 암, 안되구 말구.》

군사는 낯선 로인이 꺼내준 책에 마을사람들의 이름을 모두 적었습니다.

변부자가 보느라니 자기 하나 내놓고는 마을사람들모두의 이름과 들고온 물건들이 적혀있었습니다.

체면이라도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변부자는 할수없이 집에 들어가 쌀을 한자루 꺼내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쌀 한자루가 공짜로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집재산이 몽땅 거덜나는것 같아 속이 알찌근했습니다.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든 변부자는 대문뒤에 쌀자루를 내려놓고 한되박 골숨하게 담아들었습니다.

좋아라 따라오던 얼룩이는 그 모양을 보자 꼬리를 늘어뜨리더니 쌀자루옆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마차에 다가온 변부자는 게면쩍은 얼굴을 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네들을 돕고싶은 마음이 누구보다 크건만 우리 집엔 비자루로 박박 쓸어도 요것밖에 없네.》
김로인이 변부자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고간에 가득한건 뭐요?》
《헤헤. 그, 그건 짚검불이네, 짚검불. 겨울에 불을 땔거란 말이네.》
군사는 머리를 끄덕이며 변부자의 이름도 적어넣었습니다.
알알한 속을 달래며 돌아온 변부자는 고간을 들여다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천정에 닿도록 가득 쌓아놓았던 쌀가마니들이 몽땅 짚검불로 되여버렸던것입니다.
집안과 부엌을 둘러보아도 비자루로 박박 쓸어낸 자리만 있을뿐 썩은 쌀 한알 보이지 않았습니다.
변부자는 너무도 놀라와 아우성을 쳤습니다.
놀라운 목소리는 다른 집들에서도 들려왔습니다.
김로인의 집에는 어디서 나타났는지 스무가마니의 종자감자가 쌓여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였습니다.
이웃집아주머니네 부엌에도 쌀독마다 하얀 쌀이 가득가득 차있었습니다.
샘물집에는 보기만 해도 희한한 구리가마가 세개씩이나 번쩍거리며 놓여있었습니다.
마을사람들은 모두 놀라와 수군거렸습니다.
《허참, 군사에게 거짓말을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다니.》
《신통히 제가 한 말들이 진짜로 이루어졌어요.》
그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바라보던 낯선 로인이 허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럴수밖에 없는 일이지. 그 책은 이름을 적어넣은 사람의 말을 그대로 풀어주는 신기한 책이라네. 자네들의 마음이 하도 진주같기에 내 그 책을 빌려준걸세.》
로인은 이렇게 말하더니 어디론가 훌쩍 사라지고말았습니다.

그제야 마을사람들은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변부자는 그만 머리를 싸쥐였습니다.
《아이쿠! 란리통에 횡재하려던 노릇이 홀딱 망했구나.》
분해서 가슴을 쥐여뜯던 변부자는 별안간 벌떡 일어나더니 《그렇지. 아직 한자루 남아있어!》하고 대문쪽으로 뛰여갔습니다.
대문뒤에 감춰놓았던 쌀자루가 생각났던것입니다.
그런데 쌀자루도 그옆에 누워있던 얼룩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던 변부자의 눈이 화등잔만 해졌습니다.
얼룩이가 그 쌀자루를 물고 마차로 달려가고있었던것입니다.
주인이 쌀자루를 감추고 한되박 되나마나하게 들고나가는것을 본 얼룩이는 머리를 기웃거렸습니다.
마을사람들이 변부자의 뒤에 대고 욕을 하는걸 보니 고간에 쌀을 가득 두고도 주인은 어째서 망신을 당하는지 알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쌀자루를 가져다주어 주인의 체면을 세워주고싶었던것이였습니다.
얼룩이가 쌀자루를 물고 마차에 다가오자 사람들의 눈이 둥그래졌습니다.
《아니, 이게 변부자네 얼룩이가 아니야?》
《허, 주인보다 낫군. 짐승도 낯이 뜨거운 모양이지.》
바로 이때 변부자가 허둥거리며 달려왔습니다.
《내 쌀, 내 쌀, 그건 내 쌀이다.》
변부자가 쌀자루를 잡으려고 하는데 김로인이 말했습니다.
《아까는 짚검불밖에 없다고 하더니…》
《그건 저, 저…》
말문이 막혀 두눈만 희번뜩이던 변부자는 쌀자루를 와락 나꾸어챘습니다.
그 순간 쌀자루가 부욱 찢어지더니 짚검불이 부수수 쏟아져나왔습니다.

그것마저 짚검불이 되였던것입니다.

《허허. 자네 말이 옳았군. 정말 짚검불일세.》

변부자의 속심을 들여다본 마을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변부자는 그만 짚검불우에 풀썩 주저앉고말았습니다.

《아이쿠, 망했구나!》

변부자의 가소로운 꼴을 보던 마을사람들은 통쾌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 나라야 어떻게 되든 저만 잘살아보겠다고 거짓말을 꾸며대더니 제말대로 되고말았군.》

《군사를 도우려는 뜨거운 맘은 복을 받지만 저 혼자 잘살려는 욕심은 응당 망하는 법이지.》

마을사람들은 쌀이며 감자를 더 많이 내다 실은 마차를 오래오래 바래주었습니다.

마을에서 더는 머리를 쳐들수 없게 된 변부자는 그후 어디론가 사라지고말았습니다.

주체97(2008)년

동 화

《희망의 렬차》

리 완 기

소학교 3학년생인 영범이의 포부는 정말 컸습니다. 금테두른 장령모를 쓰고 어깨에 주먹같은 왕별을 척 단 영웅을 꿈꾸었으니깐요.

그런데 착실히 공부는 하지 않고 영웅이 되겠다고 늘 으시대기만 했습니다.

오늘 국어시간이였습니다.

단위명사를 배우는데 빨리 집에 가서 콤퓨터오락으로 땅크까부시기를 할 생각만 하다가 깨깨 망신만 당했으니 말입니다.

선생님이 창밖에서 재잘대는 참새들을 보고 단위명사를 붙여 수자를 대답하라고 일으켜세웠습니다.

하나, 둘, 셋… 제꺽 눈으로 세여본 영범이는 《예! 참새 7개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온 교실이 떠나갈듯 웃음판이 터졌습니다.

(아차, 참새는 한마리, 두마리라고 해야 하는데…)

얼굴이 확 달아올랐지만 엎지른 물이라 어찌할수 없었습니다.

《영범학생은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면서 우리 글 공부를 그렇게 하면 되겠나요. 더우기 학생은 할아버지처럼 늘 영웅이 되겠다고 한다는데…》

영범이의 가슴을 콕콕 찌르는 선생님의 말씀이였습니다.

영범이는 머리를 푹 숙이였습니다.

(고건 내가 다 알고있던건데…)

그날 시들해서 집으로 돌아온 영범이는 숙제로 내준 단위명사들

을 소리내여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학습장은 한권, 두권, 세권, 짐승은 한마리, 두마리, 세마리, 과일은 한개, 두개, 세개, 아니아니, 과일은 한알, 두알, 세알, 기계는 한대, 두대, 세대, 에— 목이 타는구나.》

시원한 사이다를 고뿌에 따라 마시며 흔들거리던 영범이는 또다시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다는 한병, 두병 … 산에 있는 나무는 한그루, 두그루, 벌판의 곡식은 한포기, 두포기 …》

이것도 저것도 싫증이 난 영범이는 시계를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에이, 딱 이렇게 외워야 하나, 다 아는걸 가지고. 우리 할아버지는 학교문앞에도 못가보고 겨우 이름자나 썼대도 전쟁영웅이 되였는데, 체.)

생각이 이쯤되니 숙제할 생각이 가뭇없이 사라져버리고 자꾸 시계만 보게 되였습니다.

(단꺼번에 어른이 되였으면 … 그리고 모든 단위가 《개》나 《대》로 되였으면 얼마나 외우기 쉬울가.)

허튼 생각만 굴려대며 시계를 올려다보던 영범이는 별안간 부리나케 일어나 텔레비죤을 켰습니다. 조금 있으면 아동영화 《다람이와 고슴도치》를 방영할 시간이였기때문입니다.

이때 창밖에서 《짹짹짹…》참새들이 재잘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놈의 참새때문에 망신당한 생각에 영범이는 창문을 열고 휘여휘여 쫓았습니다.

그러던 영범이는 집가까이에 있는 역구내방송에서 울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였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간후에 〈희망의 렬차〉가 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타실 손님들은 대기하여주십시오.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차, 오늘 래일 하더니 이제야 오는구나.)

영범이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이런 판에 아동영화가 다 뭡니까.

그 신기한 《희망의 렬차》를 얼마나 기다렸다구요. 얼마전부터 영범이네 도시에는 《희망의 렬차》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신기한 《희망의 렬차》가 어떻게 생겼을가?

비행기보다 빠를가?

우리들의 희망이 그 렬차에서 어떻게 꽃필가?

정말 우리모두 탈수 있을가?

의문에 의문은 끝없이 불어나는데 이제는 제법 쉬쉬하며 이런 말까지 돌아갔습니다.

《희망의 렬차》는 비행기처럼 생겼다느니, 번개처럼 빠르다느니, 최우등생만 탈수 있다느니 등등 … 어데서 나온 말인지 온통 《희망의 렬차》에 대한 소리였습니다. 그 렬차에 타면 희망이 꽃피는 도시까지 거침없이 간다는 소문까지 굉장히 돌아갔습니다.

역이 가까와오자 영범이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우등생이라고 태우지 않으면 그야말로 큰 야단이였습니다.

떼를 써서라도 렬차에 오를 결심을 다지며 영범이는 역안내원누나에게 다가갔습니다.

《〈희망의 렬차〉를 타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학생도 렬차를 타러 왔군요. 〈희망의 렬차〉를 타려면 세번째 홈으로 가야 해요.》

안내원누나가 생글생글 웃으며 세번째 홈으로 가는 길을 가리켜주었습니다.

성적증을 보자는 소리가 없는걸 보아 최우등생만 탈수 있다는 소문은 헛소문 같았습니다.

영범이의 생각을 증명하듯 자동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헹, 괜히 떨었구나.)

빨갛고 노랗고 파란 일곱가지 색갈로 번쩍이는 미끄럼승강기에 올라선 영범이의 기분은 둥 떴습니다. 천정에서는 하늘나라 별무리같은 보석등이 현란하게 빛을 뿌려 마치 은하수 비낀 하늘나라로 무지개다리를 타고 오르는듯 하였습니다.

《희망의 렬차》를 타러 가는 여러 동무들과 형님, 누나들도 야! 야! 환성을 올렸습니다.

무지개빛 승강기를 타고 세번째 홈에 올라선 영범이는 입을 딱 벌렸습니다.

역구내에는 벌써 《희망의 렬차》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울긋불긋 꽃송이로 장식한 기관차는 날아가는 학처럼 보이기도 했고 비행기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로케트같기도 하였습니다.

《희망의 렬차》라는 커다란 글이 금문자로 칸칸마다에서 번쩍이였습니다.

안내판에는 《시간의 레루길》이라는 글자와 화살표식이 파랗고 빨간 보석들로 곱게 장식되여있었습니다.

어쨌든 영범이는 무엇부터 보고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보는것마다 황홀하고 보는것마다 놀랄 지경이였으니 말입니다.

하—입만 벌리고있던 영범이는 정신을 차리고 《희망의 렬차》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칸에는 아름다운 은빛서리꽃장식에 《소학교 1학년》이라는 글자가 붙어있었습니다.

(옳지, 여기는 1학년생칸인 모양이야.)

벌써 렬차에 올라 까르륵대는 꼬마들을 띄여보며 영범이는 다음칸으로 갔습니다.

두번째 칸에는 해바라기꽃속에 《소학교 2학년》이라는 글자가 방긋이 웃고있었습니다. 그러니 보기 좋게 펼쳐진 학습장속에 《소학교 3학년》이라고 쓴 칸이 영범이가 탈 칸이였습니다.

같은반 동무들과 옆반 동무들이 영범이에게 어서 오르라고 손짓했습니다.

승강기에 오르려던 영범이는 발을 움츠렸습니다.

(신기하다는 《희망의 렬차》를 한번 쭈욱 돌아보자.)

영범이는 한칸한칸 계속 지나갔습니다.

중학교칸들이 끝나자 대학생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콤퓨터모양의 표식이 뽐을 내듯 빛을 뿌리고있었습니다.

다음칸에 간 영범이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작은아버지의 가슴에 반짝거리던 박사메달이 큼직하게 붙어있었으니 말입니다.

(이 칸은 박사칸이구나.)

혹시 작은아버지가 타고있지 않을가 하는 생각에 영범이는 차창을 눈여겨보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영범이는 커다란 영웅메달이 위엄있게 붙어있는 칸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자기의 희망이 들어있는 이 칸에 한번 타볼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만이라도 타보고싶은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기차는 떠날 시간이 되였는지 붕붕거립니다.

(까짓것, 나라고 왜 못 탈가. 군사놀이때 난 늘 대장이 되였는데… 우리 할아버지도 영웅인데 뭐…)

일이 이쯤되고보니 어벌이 커졌습니다.

승강기에 올라서 조심조심 영웅메달칸을 엿보던 영범이는 흠칫 놀랐습니다.

렬차원누나와 눈이 마주쳤던것입니다.

이제 당장 자기를 잡아 혼쌀낼것이였습니다.

조금조금 뒤걸음치는데 렬차원누나가 반가운 기색을 짓고 말했습니다.

《장령동지! 이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아무리 둘러봐도 자기밖에는 누구도 없었습니다.

두릿두릿대다가 거울에 비낀 제 모습을 본 영범이는 눈이 둥그래지고 숨이 다 멎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거울에는 왕별을 달고 장령모자를 쓴 자기가 비쳐졌던것입니다.

너무도 믿어지지 않아 영범이는 거울로 다가갔습니다. 코옆의 기미도 그대로이고 눈을 찡긋거리며 웃어보아도 장령복을 입은 자기가 틀림없었습니다. 그제야 영범이는 신기한 《희망의 렬차》의 영웅칸에 들어온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진짜 장령이 되였구나. 정말 신기한 렬차로구나.)

제 차림새를 쓸어보고 만져보며 영범이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소학교 3학년칸에 들어갔으면 어쩔번 했겠습니까. 단위명사를 외우느라고 땀깨나 뽑았을 영범이가 진짜 장령이 되였습니다.

영범이는 영화에서 본것처럼 한손을 들어 점잖게 경례를 해보았

습니다.
이때 렬차가 둥둥, 뿜빠뿜빠, 쿵짝쿵짝 환영곡속에 출발했습니다.
장령복을 입고 《시간의 레루길》을 따라 《희망의 렬차》를 타고가는 영범이의 기쁨은 하늘끝에라도 닿은듯 했습니다.
장령칸에는 여러명의 장령아저씨들이 있었습니다.
저도모르게 《장령아저씨들!》하며 매여달리던 영범이는 뚝 굳어졌습니다.
여러 장령들이 《아, 새로 온 장령동무구만, 어서 오십시오. 같이 일해봅시다.》라고 마주나오니 말입니다.
그제야 영범이는 자기도 당당한 장령이라는 생각에 일부러 목을 누르며 《안녕하십니까?》하고 마주 경례를 했습니다.
하나같이 엄엄한 몸가짐들에 영범이는 가슴이 졸아들어 자리에 앉아서도 여기저기를 흘끔흘끔 살폈습니다.
안경을 걸고 콤퓨터와 마주 앉아서 무슨 계산을 열심히 하는 장령!
대형지도의 여기저기에 점과 선을 표시하는 장령!
모두 자기 일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영범이의 앞에도 대형콤퓨터며 소형콤퓨터들, 커다란 지도가 걸려있었고 책상우에는 무슨 계산용지들이 두툼히 쌓여있었습니다.
콤퓨터오락을 하고싶은 마음을 애써 누르며 영범이는 무심결에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렬차에 오를 때는 꽃피는 봄날이였는데 어느새 온갖 열매 무르익는 풍요한 가을전경이 창밖에 펼쳐졌습니다.
정말 《희망의 렬차》에서는 하루가 몇백날 맞잡이였습니다. 그러니 소학교 3학년칸에 탔던 동무들은 4학년생이 되였을것입니다.
(헤… 나는 장령이 되였는데 뭐… 이젠 날 몰라볼걸…)
영범이가 코노래를 흥얼대는데 맞은켠문이 열리며 나이지숙한 장령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벌떡 일어나 차렷하고 섰습니다.
《동무들! 렬차행군시간을 리용하여 우리는 동서남북련합모의훈련을 하게 됩니다. 짧은 시간에 진행되는 모의훈련인것만큼 시간을 쟁취해야 합니다. 장령동무들은 한 지역씩 맡아 모든 륙해공

군이 출발진지를 차지하게 하고 다음 명령을 기다리시오. …》
영범이에게도 큼직한 지역이 맡겨졌습니다.
콤퓨터화면에는 넓은 공지와 하늘길, 배길까지 다 있는 출발진지가 나타났습니다.
영범이는 어깨를 들썩거렸습니다.
(우선 멋진 차가 있어야지.)
영범이는 콤퓨터조종판의 《차》자를 꾹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윙윙—소리를 내며 쨍한 차가 출발진지에 척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밑에는 《요구되는 수만큼 누를것》이라는 글자가 나타나며 삑삑거렸습니다.
영범이는 얼른 조종판의 《100》수자를 누르고 《대》자를 눌렀습니다.
보기에도 어마어마하고 우람찬 차 100대가 부릉부릉 달려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야! 정말 해볼만 한데…)
영범이는 100대, 100대, 또 100대 연방 눌러댔습니다.
그때마다 차들은 부릉부릉거리며 척척 출발진지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젠 저 차우에 멋진 미싸일을 하나씩 올려놓자.)
영범이는 《미》자를 누르고 《싸》자를 찾아 눌렀습니다.
《일》자까지 척 누르니 번쩍번쩍 빛나는 미싸일이 기수를 화면쪽으로 돌리며 나타났습니다.
영범이는 요구되는 수자를 눌렀습니다.
100대, 100대, 또 100대.
그러나 미싸일은 더 불어나지 않았습니다.
드디여 빨간 신호등이 징징대며 경보신호만 울려나왔습니다.
겁이 더럭 난 영범이는 머리를 쥐여짰습니다.
(미싸일은 단위가 뭐라 했더라, 개, 대, 알,… 이게 아닌데…)
한참이 지나서야 미싸일의 단위명사를 차근차근 배워주던 선생님의 말씀이 가까스레 떠올랐습니다.
《미싸일은 한대, 두대 하는것이 아니라 한기, 두기라고 해야 합니다. …》

영범이는 뒤머리를 빠악빠악 긁으며 조종판을 눌렀습니다.
드디여 차우에는 멋진 미싸일들이 틀지게 올라가 앉았습니다.
(그렇지. 이번에는 비행기다.)
영범이는 그닥 어렵지 않게 비행기들을 줄세웠습니다.
비행기를 세우면서도 영범이의 마음속에서는 떨떨하게 배운 단위명사때문에 은근히 걱정이 쌓였습니다.
어제, 그제 단위명사를 배울 때 콤퓨터오락으로 땅크잡이할 생각을 하면서 한눈을 팔았더니 이렇게 애를 먹는것이였습니다.
(그때 귀담아들었으면 본때를 보이는건데.)
영범이는 이번에는 군함을 불러내리라 결심했습니다. 군함의 단위가 뭐든가 생각하며 조종단추를 누르다나니 《군함》을 《군하》로 잘못 눌러 그만 배를 뒤집을번 했습니다.
제꺽 《ㅁ》받침을 찾아넣어 등골이 오싹한 위기를 모면한 영범이는 《100개》를 눌렀습니다.
아니 글쎄 이번에도 콤퓨터가 징징—비상경보를 울리며 동작이 안되였습니다.
바빠난 영범이는 이것저것 눌러보다가 다행으로 《척》자를 찾아냈습니다.
(그렇지. 군함은 《대》나 《기》가 아니라 《척》이라고 했지.)
100척, 100척 또 100척…
끝없이 눌러대야 출발진지인 배길에는 절반밖에 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다 되여오는데 야단났구나.)
영범이는 이번에는 신형포를 찾으려고 조종판을 눌렀습니다.
포를 세워놓고 대, 기, 개, 척 등 아무리 눌러대도 포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포는 단위가 무엇이라고 했더라?)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딸깍딸깍 시간은 사정없이 흘러갔습니다.
이미전에 진지를 차지한 다른 장령아저씨들은 모두 영범이만 쳐다보며 다음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명령을 수행하지 못한 영범이의 온몸에서는 땀이 비오듯 했습니다.

성이 난 대장아저씨가 영범이를 다불러세웠습니다.
《포는 한문, 두문이라고 해야 하는걸 모르는가. 또 〈100+100〉 이렇게 더하기만 하니 저 넓은 출발진지를 언제 채우겠는가?! 곱하기도 있고 제곱도 다 있는데 동문 전혀 쓸줄 모르는구만. 이게 실전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사실은… 저…》
《무슨 변명인가? 군사행동에서는 사소한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다는걸 모르는가? 소학교학생이면 다 알수 있는 단위도 모르면서…》
다른 장령아저씨들이 원망에 찬 눈길로 영범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대장아저씨가 렬차원누나를 불렀습니다.
《렬차원동무! 동무가 저 동무를 태웠소?… 한심하군. 빨리 이 렬차에서 내려놓소.》
렬차원누나가 머뭇거리며 영범이를 승강기로 이끌었습니다.
영범이는 목이 꽉 메여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어쩔수없이 영범이는 《희망의 렬차》에서 내려섰습니다. 내려서자마자 장령복이 간데없고 이전의 영범이가 그대로 서있었습니다.
방금전까지도 《장령동지!》라고 불렀던 렬차원누나가 너무 어이가 없어 《참, 별손님 다 있군.》하며 문을 탁 닫아버렸습니다.
렬차는 떠나갔습니다.
동무들은 《희망의 렬차》를 타고 희망이 꽃피는 도시로 번개같이 가는데 영범이만 썰렁한 역구내에 홀로 서있었습니다.
이때 빨간 모자를 쓴 역사령이 다가왔습니다.
《학생은 왜 혼자 있나?!》
영범이는 떠뜸떠뜸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머리를 끄덕이던 역사령아저씨가《그럼 빨리 집으로 가야지.》라고 말하며 측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영범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여기가 어디인지 집이 어느쪽으로 얼마나 가야 하는지 깜깜이예요.》
《걱정말아. 이제 〈도루메기렬차〉가 온다. 그걸 타면 네가 떠나온 곳으로 보내준단다.》

역사령아저씨의 말에 영범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루메기렬차〉라니요?!》
《그런 렬차가 있다. 〈희망의 렬차〉에서 제구실을 못하면 그 렬차에 오르게 되지.》
《예?!》
이윽해서 정말 도루메기처럼 색갈도 거무틱틱한 렬차가 역구내에 들어섰습니다.
영범이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도루메기렬차》에 올랐습니다.
넓은 칸에는 영범이와 한두명의 아이들이 더 있었습니다.
그들도 《희망의 렬차》에 탈 자격을 잃은 모양입니다.
어느새 렬차는 영범이가 올랐던 역에 도착했습니다.
《희망의 렬차》에서 내쫓긴 몸이 된 영범이가 나들문을 나설 때였습니다.
웃으며 홈을 대주던 안내원누나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학생은 왜 되돌아오나요?!》
영범이는 너무도 부끄럽고 얼굴이 확확 달아올라 가까스로 대답했습니다.
사연을 들은 안내원누나가 저도 아쉬운지 호—한숨을 내쉬며 영범이를 달랬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하루를 열백날 맞잡이로 지식의 탑을 기초부터 튼튼하게 다지면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어요. 〈희망의 렬차〉는 이제 또 오게 돼요. 그때엔 영범학생이 당당히 그 렬차에 올라 희망이 꽃피는 도시로 가게 되리라고 믿어요.》
영범이는 새 결심을 굳게굳게 다지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후 영범이는 우리 글 공부는 물론 콤퓨터프로그람까지 척척 짜는 꼬마수재가 되여 《희망의 렬차》에 다시 올랐답니다.
지금쯤 《희망의 렬차》를 타고 희망이 꽃피는 도시에 간 영범이는 무엇을 하고있는지…

주체97(2008)년

우화

우 화

말거미의 《비단옷》

전 종 섭

동산에 말거미가 이사해왔다는 소문이 잠자리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흉악한 그놈이 마을에 자리잡았으니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잠자리는 속이 한줌만 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잠자리는 말거미네 집쪽에서 올라오는 범나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얘 범나비야, 말거미가 요새 뭘하는지 모르겠니?》

《내 이자 지나오면서 보니까 멋진 비단옷을 짓고있더구나.》

《비단옷을? 그게 정말이냐?》

하루에도 서너번씩 옷을 갈아입으며 몸치장에 몹시 마음쓰던 잠자리는 멋진 옷을 짓는다는 바람에 호기심이 바싹 동하였습니다.

그는 곧 말거미네 집앞으로 날아가 울타리밖에 멀찍이 서서 동정을 살폈습니다.

마침 말거미는 다락집밑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하얀 실을 뽑아 비단옷을 짓고있었습니다.

추녀끝에 길게 늘인 빨래줄에는 눈같이 하얀 옷이 있는가 하면 아침노을처럼 발깃한 날개옷도 있고 은은한 하늘색바탕에 함박꽃무늬를 돋친 알락옷도 걸려있었어요. 색갈도 여러가지거니와 모

양도 갖가지였어요.
옷이 어찌나 고왔던지 잠자리는 입고싶은 마음을 참아내는수가 없었답니다.
(말거미가 마음을 고쳤구나.)
잠자리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거미에게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아야, 참 멋진 옷을 지었구려. 언제부터 이렇게 고운 옷을 짓기 시작했어요?》
말거미는 일손을 멈추고 잠자리를 한참 뜯어보다가 대답하였습니다.
《이젠 퍼그나 오래됐네. 친구도 내가 옷을 짓는걸 보니 이상한 생각이 드는 모양이지. 내 무얼 숨기겠소. 이전에야 숱한 미움을 사며 순진한 날벌레들을 해쳐왔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길지 않은 명을 가진 내가 뭐가 모자라 남한테 미움을 받으며 살아가겠소.
더구나 나야 실을 내여 천을 짜는 좋은 재간까지 가지고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은 귀여운 날벌레친구들의 사랑속에서 이렇게 그네들의 옷을 짓는다네. 물론 값이야 받지만…》
《거참 생각 잘했수다.》
《그래서 요즘은 모두들 나를 칭찬하면서 내가 지은 옷을 앞다투어 사간다오.》
《아이참, 그런걸 난 왜 이제야 알았담. 옷에 그렇게 관심있는 내가.》
《아름다운 그 몸매에 내가 지은 옷을 척 입고나서면 날새도 부러워할거요.》
잠자리는 한시바삐 입고싶었습니다.
《어서 나한테 한벌 팔아주시우.》
《팔다니요?》
말거미는 펄쩍 뛰는 시늉을 했습니다.
《밤낮 풀밭에 엎드려있는 사마귀나 꾀죄죄한 길풍뎅이라면 몰라도 내내 꽃밭에서 사는 아름다운 친구에겐 거저 주고싶은 생

각이라우. 자, 아무거나 마음대로 골라잡게.》
(이것 봐라, 거저 주겠단다.)
잠자리는 너무 좋아 어쩔줄 모르며 아침노을빛처럼 빨깃한 여름옷을 제꺽 골라 몸에 대보았습니다. 살결이 송송 들여다보이는게 보기만 해도 서늘했습니다. 그걸 입고 고운 몸매를 뽐내며 꽃밭우로 팔랑팔랑 날아다니는 자기를 그려보고는 흐뭇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실 그건 내가 입으려고 특별히 짜서 지은건데 마음에 들면 어서 입게. 나야 또 지어입으면 되니까.》
말거미는 너그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자리는 옷을 입었습니다. 온몸에 보라빛안개라도 휘감긴듯 둥둥 뜬 기분이였습니다.
말거미는 잠자리의 옷자락을 여며주고 단추도 꼭꼭 채워주고 빙빙 돌려세우면서 맵시를 보아주었습니다.
《날씬한 몸매에 이 옷까지 입으니 참 잘 어울리는구려. 이젠 이 동산에서 일등미인을 보려거든 잠자리를 찾아가라고 해야겠군.》
잠자리는 그 칭찬이 싫지 않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내 이 정신봐라. 또 잊어버릴번 했군. 값은 받지 않아도 어느 옷을 누구에게 줬다는건 적어놔야 한다네.》
말거미는 다락집으로 쪼르르 바라올라갔습니다.
그때까지 자기의 옷맵시에 매혹되여있던 잠자리는 인사말마저 잊어버릴번 하였습니다.
《고마와요. 은혜는 꼭 갚겠어요.》
《그런 걱정은 안해도 되네. 난 원래 은혜를 갚아줄 때까지 참아내지 못하는 성미라네. 귀여운 친구를 그네부터 태워주지.》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말뜻을 채 알아차리기도 전에 잠자리는 공중에 동동 떠올랐습니다.
말거미가 다락집에서 《비단옷》에 몰래 매놓은 줄을 나꿔챘

던것입니다.

깜짝 놀란 잠자리는 몸부림쳤으나 꼼짝할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잠자리는 말거미놈의 화려한 옷속에 감춘 올가미에 걸려들었다는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엉큼한 놈아, 날 풀어놓지 못하겠니?》

《흥, 인젠 잠자코 있게. 내가 공연히 복더위에 땀을 흘리며 옷을 지은줄 아나.》

말거미놈은 점점 줄을 가까이로 끌어당겼습니다.

(화려한 옷에 홀리우다나니 그속에 감춘 말거미놈의 검은 낚시를 미처 보지 못했구나.)

잠자리는 후회의 눈물, 슬픔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때 지나가던 청제비가 줄을 끊고 구원해주지 않았던들 잠자리는 틀림없이 말거미놈의 밥이 되고말았을것입니다.

주체70(1981)년

우 화

메돼지가 나눈 밤무지

최 충 웅

맑게 개인 가을날, 열매따러 다니던 메돼지가 어느 골짜기에서 밤송이들이 입을 쩍쩍 벌린 한그루의 밤나무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메돼지는 나무에 오르는 재간이 없다보니 밤나무를 쳐다보며 침만 꼴깍꼴깍 삼키였습니다.

이때 맞은켠 숲속으로 곰이 지나가는것이 보였습니다. 마침 잘됐다고 생각한 메돼지는 곰을 불렀습니다.

《여보게 곰, 여기 밤나무가 있으니 어서 오라구.》

메돼지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곰이 기뻐서 뛰여왔습니다.

밤나무를 쳐다보며 싱글벙글 좋아하는 곰에게 메돼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나무에 잘 오르는 재간이 있으니 나무에 올라 밤을 털게. 그러면 내가 밑에서 모으지. 그다음 두몫으로 꼭같이 나눠가지자구.》

《응, 그게 좋겠네.》

곰도 마침 밤따러 다니던 길이라 제꺽 대답하고는 장대를 하나 얻어들고 나무에 기여올랐습니다. 곰이 장대를 휘두를 때마다 밤알들이 우박떨어지듯 좌르륵 좌르륵 소리를 내며 땅에 떨어졌습니다.

메돼지는 좋아라고 껑충껑충 뛰여다니며 밤을 주어모았습니다. 그런데 밤을 살펴보니 한 절반은 살지고 기름진 왕밤알이였고 한 절반은 쭉정이거나 벌레먹은것들이였습니다.

메돼지는 밤을 나눠가질 때 어떻게 하면 살지고 기름진 왕밤알만 더 많이 가질수 있을가 하고 욕심스러운 생각을 굴려보았습니다.

갑자기 좋은 궁리가 떠오른 메돼지는 한옆에는 먹음직스런 왕밤알만 골라모으고 좀 떨어진 곳에는 쭉정이지고 벌레먹은 밤알만 주어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쭉정이지고 벌레먹은 밤무지를 좀 크게 만들고는 마지막에는 흩어진 밤알을 비자루로 막 쓸어모아 두 밤무지에 한아름씩 슬쩍 덮어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곰이 큰 밤무지를 가지려 하겠지?)

메돼지가 두 밤무지를 바라보며 속으로 픽— 웃는데 밤을 다 털고난 곰이 땀을 씻으며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자, 밤을 벌써 두뭇으로 나눠났으니 어서 맘에 드는 밤무지를 가지라구.》

메돼지는 턱으로 큰 밤무지를 가리키며 태연하게 말하였습니다.

큰 밤무지를 보는 순간 곰은 생각하였습니다.

(참 메돼지는 어질기두 하지. 나를 더 많이 주려고 밤무지 하나를 우정 크게 만들었구나. 메돼지의 착한 마음을 봐서라두 내가 큰 밤무지를 가져선 안되지. 암, 그래야 하구말구.)

《난 이 밤무지를 가지겠네.》하며 곰은 허리춤에서 자루를 꺼내들고 작은 밤무지로 갔습니다.

메돼지는 깜짝 놀라 곰의 앞을 막아나서며 《아니, 자네야 높은 나무에 올라가 밤을 터느라 수고했는데 저 큰 밤무지를 가져야 할게 아닌가?》하며 어쩔줄 몰라하였습니다.

《허허, 괜찮네. 자네의 그 착한 마음을 봐서라도 난 작은 밤무지를 가져야겠네.》

곰은 메돼지가 말릴사이도 없이 작은 무지의 밤을 자루에 와락와락 담기 시작하였습니다.

곰의 자루에 들어가는 살지고 기름진 왕밤알을 바라보며 메돼지는 침만 꿀꺽꿀꺽 삼키며 아무말도 못하였습니다.

주체70(1981)년

우 화

혼자가던 졸졸이

로 병 수

깊은 산속 옹달샘 엄마품 떠난
쫠쫠이와 졸졸이 물방울형제
바다에 가 큰일하자 약속하고 먼길 가다
두갈래 물길앞에 멈춰섰다네
한길은 오불고불 가는 실도랑
또 한길은 물방울 차넘치는 강물이였네

《졸졸아, 동무들과 함께 손목잡고
저 강물로 가자.》
쫠쫠이 손잡아 이끌자
《그까짓 여럿이서 시끄럽게…
난 혼자 먼저 갈래.》
졸졸이 실도랑 따라서 혼자 떠났네

떨어진 나무잎과 엉킨 풀대들
오불고불 헤쳐가는 실도랑길
갈수록 더디고 맥이 빠져서
졸졸이는 그만에야 지쳐버렸네

아무리 졸졸졸 애써 흘러도
바다길은 아득히 멀고도 먼데

이번에는 물웅뎅이 큰입 벌리고
실도랑물 모조리 삼켜버렸네

안타깝게 헤매던 졸졸이
하늘높이 웃고있는 해님에게 부탁했네
《하늘의 해님아 밝은 해님아,
나를 제꺽 바다에 보내주려마.》
그러자 해님은 쟁글쟁글 해빛으로
졸졸이를 구름집에 슬쩍 태워서
비방울로 만들어 바다로 보내줬네

제가 먼저 온줄 알고 좋아하던 졸졸이
한잠 푹 자고나오는 좔좔이를 만나자
그만에야 깜짝 놀라났다네
《아니, 어쩌면 그렇게 빨리도 왔나?》

그러자 좔좔이 차근차근 얘기했네
《우리우리 강물의 물방울들은
앞을 막는 바위들을 밀어제끼고
에돌아가던 길도 곧게 내면서
힘을 합쳐 파도치며 달려왔단다.》

이 말 듣고 졸졸이는 생각했다네
(아무리 큰 희망을 품고
빨리 가려고 애써도
혼자의 힘으로는 안되겠구나.
모든것은 여럿의 힘과 지혜속에서만
훌륭한 열매가 주렁지게 된다는것을
내가 왜 미처 몰랐을가?)

주체70(1981)년

우 화

구렝이와 족제비

최 대 준

며칠째 쥐새끼 한마리 잡아먹지 못해 배가 홀쭉해진 구렝이가 바위우를 기여가고있었습니다.

어디에 먹을것이 없나 하고 이리저리 살피던 구렝이는 바위아래쪽에서 새새끼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으흐흐흐, 이게 웬 떡이냐?》

구렝이는 세모난 눈깔을 희번뜩이며 벼랑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벼랑중턱홈채기에 있는 새둥지에서 털이 보르르한 새새끼들이 입을 짝짝 벌리며 울고있었습니다.

《며칠째 굶은 값을 이제야 하게 되였구나!》

구렝이는 새둥지로 내려갈데가 없나 하여 이리저리 휘둘러보았습니다.

한동안 대가리를 기웃거리며 살펴보던 구렝이는 벼랑우에 한그루의 참나무가 서있는것이 눈에 띄였습니다.

《옳지, 저기에 꼬리를 걸고 내려가야지.》

구렝이는 참나무밑둥에 꼬리를 감고 거꾸로 데룽데룽 매달렸습니다.

그래도 주둥이가 새둥지에 닿자면 아직 한뽐가량 모자랐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허리를 늘구어보았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구렝이가 눈앞에 보이는 새새끼를 노려보며 닭알침만 꿀꺽꿀꺽 삼키고있을 때였습니다.

우에서 난데없이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네 혼자힘으론 안되겠네. 내가 도와주지.》

구렝이가 대가리를 우로 쳐들고 스르르 올라와보니 족제비였습니다.

《음 족제빈가, 마침 잘 왔네. 그래 어떻게 하자는건가?》

《자네가 바줄이 되게나. 그러면 내가 타고내려가 새새끼를 물어올릴테니 둘이 꼭같이 나눠먹으세.》

《그것참 신통하이, 어서 그렇게 하세.》

구렝이는 바위우 참나무밑둥에 대가리를 걸고 꼬리로는 족제비뒤다리를 감아 내려보냈습니다.

간신히 새둥지에 주둥이가 닿은 족제비는 새새끼 한마리를 닁큼 집어 꿀꺽 소리가 나게 삼켰습니다.

《그건 무슨 소린가?》

구렝이가 미심쩍은 생각이 들어 꼬리를 쳐들고 물었습니다.

족제비는 잠시후에 또다시 꿀꺽소리가 나게 삼켰습니다.

《그건 또 무슨 소린가?》

《새새끼를 두마리째 덮쳐잡는 소릴세.》

족제비는 저 혼자서 새새끼 두마리를 먹고도 배가 차지 않아 또 한마리를 꿀꺽 삼켰습니다.

《참, 그건 또 무슨 소린가?》

《새새끼 세마리째 덮쳐잡는 소릴세.》

《그만하면 솜씨가 괜찮으이.》

족제비가 연거퍼 세마리나 먹어치우다보니 둥지엔 새새끼 한마리만 남았습니다.

족제비는 나머지 한마리를 입에 물고 구렝이에게 소리쳤습니다.

《자, 인젠 올리당기게.》

구렝이는 기다렸다는듯 나무가지에 몸을 사리면서 족제비를 끌어올렸습니다.

《아니, 꿀꺽소리가 세번 나던데 새새끼는 왜 한마리뿐인가?》
구렝이는 족제비앞으로 다가들며 따졌습니다.
《임자가 분별없이 자꾸 말을 시키는 바람에 물었던 새새끼를 다 놓치구 겨우 한마리밖에 물지 못했네.》
족제비가 미안하다는듯 얼굴에 난처해하는 빛을 띠였습니다.
《그런가. 그렇다면 그 한마릴 자네가 먹게나, 숨도 차겠는데.》
《아니 그렇게야… 그러면 내가 미안하지 않나.》
족제비는 그러면서도 속으로 남은 새새끼를 마저 먹게 되였다고 은근히 좋아했습니다.
《뭐 미안할게 있나. 네마리의 새새끼를 다 배속에 넣은 자네를 내가 통채로 먹으면 될게 아닌가.》
구렝이는 아가리를 쩍 벌리고 달려들어 족제비를 꿀꺽 삼켰습니다. 그리고는 풀밭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구렝이도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큰것을 삼키려다 목이 메여 죽고말았습니다.
남을 서로 도와주는척 하면서 제 욕심을 채우는 놈들은 구렝이나 족제비와 다를바 없습니다.

주체71(1982)년

우 화

여우와 매방울

정 지 양

먼 옛날에 있은 이야기입니다.

여우는 꿩고기가 먹고싶어서 오래동안 뒤쫓아다녔으나 잡을수가 없었습니다.

꿩이 앉아있는것을 보고 거의거의 다가가면 공중으로 날아오르군 해서 여우는 매번 허탕을 쳤습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습니다.

딸랑딸랑하고 등뒤에서 웬 방울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니 높이 떠날던 장끼가 돌멩이 떨어지듯 숲속으로 내리꽂히더니 덤불속에 대가리를 틀어박는것이였습니다. 방울을 단 매가 꿩을 쫓아왔기때문입니다.

그뒤로는 총을 멘 매주인이 따라오는것이였습니다.

여우는 웬 떡이냐 하고 좋아하면서 꿩이 대가리를 틀어박은 덤불을 향해 냅다 달렸습니다.

그런데 쏜살같이 날아온 매가 꿩을 먼저 덮쳤습니다.

(아이 분해라. 그런데 이제야 알고보니 꿩은 방울소리만 나면 대가리를 틀어박고 숨기를 잘하누나. 그러니 내게두 저런 방울만 하나 있으면 쉽게 꿩을 잡아먹을수 있겠구나. 해해…)

이렇게 생각한 여우는 매방울을 훔쳐내기 위하여 매주인의 뒤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어스름이 깃들자 때를 기다리던 여우는 살금살금 기여들어 토방

기둥에 걸어놓은 매방울을 손쉽게 훔쳐낼수 있었습니다.

이튿날, 여우는 꿩을 찾아 산판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한곳에 가니 울긋불긋한 큰 장끼 한마리가 하늘높이 날아오고있었습니다.

(옳지, 이놈이야 거저 먹어놓은 고기덩이지. 이제 방울소리가 나면 숲속에 내려 대가리를 틀어박겠지. 그때 손쉽게 척…)

여우는 얼른 몸을 숨기고 방울을 내흔들며 딸랑딸랑 울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꿩이 숲속에 채 날아내리기도 전에 맞은편 산언덕에서 난데없이 총소리가 요란하게 땅! 하고 울렸습니다.

순간 방울을 흔들던 여우는 가슴을 움켜쥐며 그자리에 푹 꼬꾸라졌습니다.

그 총은 방울소리나는 곳을 바라보다가 여우를 쉽게 찾아낸 매주인이 쏜것입니다.

이때 너부러진 여우에게로 다가온 사냥군은 매방울을 집어들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놈, 매방울을 훔쳐낸 놈두 네놈이였구 자기 정체를 숨기고 매방울로 손쉽게 꿩을 잡으려던 놈두 네놈이였구나.

결국 잔꾀에 제가 녹았구나. …》

주체71(1982)년

우 화

쥐가 넓힌 굴

김 의 훈

고양이가 무서워
제몸 하나 드나들 좁은 굴 파고
살아가는 쥐 한마리 있었네

어느 봄날 주인집마당에
갓 깨여난 햇병아리들
한가득 뛰여나와 삐용거렸네

소리만 들어도 구미가 당기고
보기만 하면 군침이 꼴깍 넘어가는
저 햇병아리들을
어떻게 해야 잡아먹을수 있을가?

하지만 아무리 먹고싶어도
고양이 무서워 용단을 못내리고
기회만 엿보며 하루하루 지나는 사이
어느덧 햇병아리들 중병아리 되였네

나날이 몰라보게 크는 병아리들 보고
더는 참을수 없게 된 쥐
드디여 새로운 결심 다졌네

(고양이 무섭다고 앉아만 있다간
저놈들 어느새 엄지닭 되면
그 힘 당해내지 못하여
잡아먹지 못하겠는걸?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

그날부터 꾀를 찾기에 골몰하던 쥐
드디여 한가지 생각해냈네
고양이 미처 손쓸새없이
병아리 냉큼 물어들이면 되겠는데
굴이 너무 좁아 걸리겠으니
우선 굴부터 넓혀야지

쥐는 그날부터 밤낮없이 파고파서
중병아리도 통채로 끌어들일수 있게
휑하니 넓게 굴을 파놓았네

그러던 어느날
넓어진 굴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쥐
마음놓고 달려나가 병아리를 물었네

있는 힘 다하여 끌면 끌수록
중병아리 넓은 굴아가리로
거침없이 들어가며 삐용삐용

이때 병아리의 뒤를 따라
그림자 하나 얼씬하였으니
그것은 삐용소리 듣고 달려온 고양이였네

(아이쿠! 얼른 숨어야지,
너 고양이 아무리 날고 뛴대도
이 굴안에 아무렴 들어오겠니?)

쥐가 이렇게 생각하며
날 살려라 굴안으로 뛰여들어가는데
넓혀놓은 굴로 단숨에 뛰여든 고양이
쥐의 모가지 물어메치며 하는 말

《어리석은 놈,
병아리 잡아먹을 달콤한 생각에
제 죽을줄은 미처 모르고 굴을 넓혀놓았지.》

주체72(1983)년

우 화

밤색말이 실어온 대들보감

윤 영 만

양지바른 언덕에 황소가 크고 으리으리한 새 집을 짓고있었습니다.

어느새 집터를 닦고 기둥을 세웠지만 아직 할 일이 많고 많았습니다. 모래와 막돌도 더 실어오고 산속에 찍어놓은 대들보감도 날라와야 했습니다.

(추위가 오기 전에 다 지어야겠는데…)

황소는 밤낮으로 일해도 시간이 모자랄것만 같았습니다.

이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웃의 밤색말이 어느날 황소네 대들보감을 실어다주려고 달구지를 끌고 떠났습니다.

집안에서 살랑살랑 제일만 하던 염소가 놀러 나갔던 막내로부터 이것을 전해들었습니다.

(늘 황소신세를 지는 나로서 모른척 할수 없는 처진데 어떡한다? 옳지.)

약삭바른 염소는 무릎을 탁 치며 황소한테로 달려갔습니다.

《황소형님, 오늘 대들보감이 올거웨다. 금방 밤색말을 떠나보내고 오는 길이예요. 급한 소릴 했더니 달구지를 끌구 갔수다.》

염소는 대범한 황소가 설마 밤색말에게 꼬치꼬치 캐물으랴 해서 이렇게 슬쩍 꾸며댔습니다.

《도와주어서 고맙네.》

《형님두 이웃간에 이럴 때 돕지 않구 언제 돕겠어요. 별소릴 다 하시네.》

(이쯤하면 황소의 신세는 다 갚은셈이지. 해해.)

저녁녘에 산에 갔던 밤색말이 돌아왔습니다. 밤색말이 대들보감을 부리우고 돌아가는것을 지켜보던 염소는 부리나케 또 황소를 찾아갔습니다.

《황소형님, 이젠 한시름 놓이지요? 내 오늘 따라가길 잘했지. 밤색말이 혼자선 애당초 싣지두 못했을거웨다.》

염소는 이번에도 대범한 황소가 밤색말에게 꼬치꼬치 캐물으랴 해서 산에 갔다온것처럼 슬쩍 꾸며댔습니다.

《자네 정말 수고가 많았네.》

《내 집 지으면 그래 형님은 가만 있겠나요? 별소릴 다 하시네.》

(이쯤하면 앞으로 황소의 도움도 쉽게 받을수 있을테지. 해해…)

바로 이때였습니다.

뚜거덕소리가 나더니 밤색말이 막돌을 싣고 달려왔습니다.

염소는 집에 간줄 알았던 밤색말이 불쑥 나타나자 대뜸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정을 알리없는 밤색말은 염소를 보더니 《자네 정말 오래간만일세. 요즈음 어딜 갔댔나? 혹시 앓지 않았나? 한마을에 살면서도 그렇게 보기 힘든가, 엉?》하고 크게 소리치며 반겨맞았습니다.

《아… 아니… 아닐세.》

염소는 손을 홰홰 내저으며 어쩔줄을 몰라했습니다.

《아니, 오래간만이라니?》

이 모양을 의아쩍게 바라보던 황소는 눈이 휘둥그래졌습니다.

《황소, 자네 왜 그렇게 놀라나?》

밤색말이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염소가 임자와 함께 산에 가서 이 대들보감을 실어왔다기에 인사까지 했는데 오래간만이라니 놀랍지 않나.》

황소는 머리를 기웃거리면서 아침부터 있은 사실을 죄다 말했습니다.

그제야 모든걸 알아차린 밤색말은 몸둘바를 몰라 쩔쩔매는 염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도 철면피하다구야. 남을 속여서 제 욕심과 체면을 세우려는 어리석은 행동은 얼마 못가기마련이야.》

주체73(1984)년

우 화

오른팔과 왼팔

김 박 문

착실한 일군들인 오른팔과 왼팔
그들은 나서부터 부지런도 했지
작은일 큰일 마른일 궂은일 가림없이
하루같이 꾸준히 일밖에 몰랐지

그런데 언제부턴가 왼팔의 마음
달라지기 시작했다누나
(밤낮없이 일해도
나의 수고 누구도 몰라주누나.
어떻게 하면 남의 눈에 뜨일수 있을가.)

주인이 학생시절때 공부잘해
분단위원장 되던 날
왼팔은 열성자표식을
자기 팔에 제꺽 달곤
마음 흐뭇해했단다

번쩍번쩍 금빛 도는
시계까지 팔목에 차니
모두의 눈길 그에게 더욱 쏠렸지

어느날 왼팔은 오른팔 보고
넌지시 말을 건넸단다
—넌 그저 일밖에 모르누나.
알고보니 일만 해서 이름나는게 아니더라.

그 말에 오른팔 허허 웃었지
—이름 내자고 일하는 일군 어데 있겠니.
일은 나의 본분이란다.
너도 자기 본분 잊지 말길 바란다.

그러나 왼팔은 코웃음쳤단다
(살아갈줄 모르는 바보같으니.
일이 정 소원이거들랑
일은 네가 하고 명예는 내가 받으마.)

그러던 어느날
왼팔은 귀 번쩍 뜨이는 소식 들었단다
로력혁신자 주인이 영웅됐다는 소문
동네방네 자자했단다
왼팔은 금메달 그려보며
가슴이 울렁 기쁨이 출렁

주인이 영웅칭호 받는날
회의장 높은 연단에 오르니
박수폭포 터지는데
번쩍번쩍 금메달
이번에도 자기가 먼저 받겠다고
왼팔은 글쎄 손을 넌떡 내밀었구나

그러나 어찌하랴 금메달은 왼손 아닌
오른손에 쥐여져
가슴우에서 빛났단다

그러자 만나는 사람마다
오른손 잡아주며
힘있게 흔들어주었단다
—수고했소! 수고했소!
—장하오! 장하오!

일하기는 싫어하고
명예만을 바라던 그 왼팔은
누구하나 잡아주는이 없었지

얼굴 뜨거워난 왼팔
들었던 팔 슬그머니 내리우는데
어데선가 이런 소리 들려왔단다
—때가 되면
노력은 영예를 낳고
게으름은 수치를 가져오나니
언제나 명예를 바람이 없이
제일에 충실해야 하리!

그것은 언제나 변함없이
쿵쿵 힘찬 방아 찧는
심장의 타이름이였단다

주체76(1987)년

우　화

코숭이집 메돼지

김 영 삼

어느 한 산코숭이 바위밑 우묵한 곳에 메돼지 한마리가 살았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아침이였습니다.

앞골에 사는 재토끼가 깡충깡충 메돼지를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앞골에서는 모두 밤나무골에 벌레잡이 가는데 메돼지 아주반네두 같이 가자요.》

잠기어린 두눈을 슴벅이던 메돼지는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내 집은 앞골집이 아니라 뒤골집일세.》

재토끼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돌아갔습니다.

얼마쯤 있는데 이번에는 뒤골에 사는 은점노루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뒤골에서는 모두 돌배나무 가꾸러가는데 임자두 같이 가세나.》

졸음어린 두눈을 끔찍이던 메돼지는 어물어물 말했습니다.

《내 집은 뒤골집이 아니라 앞골집일세.》

은점노루는 입맛을 쩝쩝 다시며 돌아갔습니다.

이날 저녁때였습니다.

다람쥐가 산코숭이 바위우에 앉아 개암을 까서 냠냠 맛있게 먹고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메돼지가 눈을 뎅그라니 뜨며 물었습니다.

《아니, 거 개암이냐? 그래 그건 어디서 땄느냐?》
《곰아저씨가 개암골에서 한달구지나 가져온걸요.
앞골에두 뒤골에두 나누어주었는데요. 아저씨몫두 있을거예요.》
《암, 내몫이라구 없겠나.》
메돼지는 큼직한 자루를 둘러메고 씨엉씨엉 앞골로 찾아갔습니다.
이때 개암을 나누어주고있던 재토끼가 동그란 눈으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주반은 뒤골집이니까 뒤골에 가서 받으세요.》
메돼지는 뒤통수를 긁적이며 뒤골로 찾아갔습니다.
방금 개암을 다 나누어주고난 은점노루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임자는 앞골집이니까 앞골에 가서 받아야지.》
메돼지는 아무말도 못하고 빈자루채로 돌아설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체76(1987)년

우　화

소나무와 겨우살이

황 령 아

산에 들에 흰눈이 쌓이고
찬바람 윙윙 불어치는데
뿌리를 더 깊이깊이 내리느라
소나무 애쓰네

밤나무가지에 붙어사는 겨우살이
소나무 건너다보고 하는 말
《생이란 참 모르겠거든.
자네는 살려고 아득바득
나는 남의 덕에 흥얼흥얼
그래도 이 겨울에 푸르른건
나나 자네나 마찬가질세그려.》

그러자 소나무 한마디 했네
《푸르다고 다 같은건 아니지.》

그러던 어느날 숲속에
북풍이 몰아치고 눈사태 일어났네
나무들은 휘청거리고
밤나무는 가지부러졌네
그 가지에 붙어살던 겨우살이
허리꺾여 눈속에 처박혔네

그제서야 소나무
다 못했던 말 마저 했네
《남의 덕에 편히 살 땐 좋아보여도
제 뿌리 없이야
언제 어떤 변 당할지 모르지.》

주체76(1987)년

우 화

소 낙 비

경 명 섭

무더운 어느 여름날이였습니다.

토끼와 노루는 김을 매려 밭으로 나갔습니다.

아직 아침이였지만 어찌나 무더운 날인지 밭으로 나오는 동안 토끼와 노루의 이마에는 구슬땀이 송글송글 내돋았습니다.

밭에 이른 토끼와 노루는 옷을 벗고 일할 차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장마철이여서 땅은 어데라없이 축축히 젖어있었습니다. 토끼는 속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먼저 옷을 벗어놓으면 내 옷만 젖겠는데…)

토끼는 빨간 눈을 또글또글 굴리며 일부러 꾸물거리면서 노루가 먼저 옷을 벗어놓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토끼의 속심을 모르는 노루는 아무 생각없이 좀 둔덕진 깨끗한 땅우에 풀을 한줌 뜯어 밑에 놓고 옷을 그우에 차곡차곡 개여놓는것이였습니다.

그러기를 기다렸던 토끼는 그우에 자기 옷을 살짝 덧올려놓으며 맘놓이는듯 두귀를 쫑긋거리는데 지나가던 새끼까치가 물었습니다.

《토끼아저씨! 옷을 왜 우에 올려놓나요?》

그 말에 토끼는 낯이 간지러웠으나 시치미를 떼고 슬쩍 이렇게 둘러쳤습니다.

《새끼까치야, 뜨거운 해빛을 오래동안 받으면 옷색갈이 변한단

다. 난 노루의 옷색갈이 날가봐 걱정이 돼서…》
토끼는 이렇게 말해놓고 자기의 대답이 아주 그럴듯한것이 기뻐 일부러 큰 기침을 했습니다.
《야, 그런걸 난 모르고. 마음씨가 어쩌면 꽃처럼 고울가!》
새끼까치는 혀를 차며 어디론가 포릉포릉 날아갔습니다. 노루와 토끼는 날이 더 무덥기 전에 일을 끝내자고 일손을 부지런히 놀렸습니다.
그들이 마지막고랑의 김을 거의 매나가고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컴컴해지고 우르릉 꽝꽝 천둥이 울더니 후둑후둑 굵은 비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토끼와 노루는 놀라서 허리를 폈습니다. 서쪽에서 쏴— 하는 바람소리와 함께 비발이 뽀얗게 몰려왔습니다.
토끼와 노루는 벗어놓은 옷생각이 나서 종주먹을 부르쥐고 힘껏 달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긴 밭이랑 한끝에 가있었으므로 몰아오는 소낙비를 피할수가 없었습니다.
얼핏 지나가는 소낙비라 한줄기 기세좋게 내려붓더니 토끼와 노루가 밭머리에 가닿기도 전에 멀리 지나가버렸습니다.
앞서 달려온 토끼가 옷을 쳐드니 우에 올려놓았던 그의 옷만이 함뿍 젖어있었습니다.
뒤미처 달려온 노루가 하나도 젖지 않은 제옷을 보고 토끼에게 말했습니다.
《이보게 토끼, 임자 마음씬 참말 비단결갈군 그래!》
노루의 말에 토끼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얼굴이 빨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그마한 손해도 안보려고 토끼처럼 얄은 수를 쓰다가 이런 《소낙비》쯤 맞는것이야 응당한 일이 아닐가요.

주체77(1988)년

우 화

왕밤나무와 알락다람이

리 순 복

화창한 봄날
왕밤나무에 꽃이 활짝 필 때
코를 발름거리며
제일 먼저 찾아온
알락다람이 하는 말

《아이 꽃향기!
막 취할것만 같애요.
난 정말이지
아저씨한테 홀딱 반했어요.》

무더운 여름날
왕밤나무 서늘한 그늘을 펴니
해종일 가지타고 한들거리며
알락다람이
입다물새없이 칭찬하는 말

《아이구 시원해,
어쩌면 잎이 이처럼 소담할가.
난 정말이지

아저씨곁을 떠나면
못살것만 같애요.》

풍년든 가을날
마음좋은 왕밤나무
주먹같은 밤알을
후두둑 후두둑 쏟아주니
새벽부터 찾아와
자루 가득 채우며
알락다람이 하는 말

《해해! 마음도 정말 무던하시지
이 신셀 어떻게 다 갚을가?》

다음해 봄이였네
겨울나고 찾아온 알락다람이
그만에야 놀라서 눈알이 올롱
잎도 펴지 못하고
꽃망울도 없는 왕밤나무
끙끙 신음소리 내며
앓고있었네
(올해엔 왕밤나무 신세지기
다 틀렸구나.)

알락다람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왕밤나무 힘겹게 말했네
《알락다람이야, 난 병이 들었다.
딱따구리의사를
좀 데려다주렴.》

왕밤나무 하는 말에

사르르 두눈을 내려떴다 올려뜬 알락다람이
《아이! 이를 어쩌나?
사실 난 지금
약밤나무아저씨의 부탁을 받고서
급히 가던 길이랍니다.》

이렇게 말한 알락다람이
어디론가 뽀르르 달아나려다
딱따구리의사와 마주치였네

그러자 알락다람이
눈웃음치며 하는 말
《아유! 마침이군요.
왕밤나무아저씨가 못된 병 만났으니
한번 잘 고쳐보세요.》

그 말 들은 딱따구리
성이 나서 말했네
《리로울 땐 해해하며 아양 떨더니
불리할 땐 모르는척 꼬리사리는
량심없고 의리없는 알락다람아
너야말로 진짜 못된 병에 걸렸구나.》

주체77(1988)년

우　화

사자의 꼬리

원 춘 길

사냥군의 총에 얻어맞은 사자가 그만 꼬리가 끊어졌습니다. 사자가 쭈그리고앉아 슬피 우는데 여우가 애고대고 하며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하나밖에 없는 꼬리를 잃다니요. 차라리 내 꼬리가 끊어질게지. 흑흑!》

여우가 가슴을 탕탕 치는데 늑대가 어슬렁어슬렁 나타났습니다.

《어허이구, 이게 웬일이슈. 꼬리달린 사자님을 볼수 없게 되다니… 장차 이 일을 어떡하면 좋수.》

늑대는 사자앞에 넙적 엎드려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이윽고 여우가 턱을 조아리며 나섰습니다.

《저 사자님, 그 꼬리를 장례지낼가 하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올시다.》

늑대가 뒤질세라 덧붙였습니다.

《장례를? 음—》

두놈은 곧 달라붙어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끊어진 사자의 꼬리를 가랑잎에 돌돌 감아 구뎅이에 넣고 흙을 묻었습니다.

나무말뚝까지 주어다가 《비문》을 해세운 놈들은 해질무렵까지 쿨쩍거리다가 헤여졌습니다.

밤이 이슥해졌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삭정이 부러지는 소리가 나더니 검은 그림자가 무덤으로 기여들었습니다. 여우였습니다.

《해해, 사자꼬리는 고기덩이가 아니라더냐.》

살금살금 다가간 여우는 무덤을 와락와락 파헤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풀덤불이 와슬렁거리더니 늑대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어, 이런 흉측한 놈 봤나. 불난데 도적질이라더니 무덤을 파먹어? 당장 사자한테로 가자.》

으르렁대는 늑대를 본 여우는 샐쭉해졌습니다.

《흥! 누가 못갈줄 알구. 누구의 사등뼈가 먼저 부러지는가는 두고봐야 알걸.》

《뭐라구?》

약이 오른 늑대는 여우를 가로타고앉아 꼬리를 막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바빠맞은 여우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도적이다! 늑대놈이 무덤을 파가요—》

《아니다. 날강도 여우놈이 무덤을 파간다.》

마침내 사자가 휘익 달려왔습니다.

《감히 내 꼬리를? 좋다! 네놈들의 진짜 장례식을 치러줄테다.》

순간《으악》하는 비명소리가 나더니 여우의 꼬리가 훌렁 빠져나갔습니다. 사등뼈를 허양 꺾이운 늑대도 죽는다고 아우성쳤습니다.

주체77(1988)년

우 화

메새의 후회

경 명 섭

족제비가 주인행세를 하는 메새마을에 어느날 구렝이가 나타났습니다.

《먹이가 있음직한 곳이군.》

구렝이는 주린배를 슬슬 쓸어내렸습니다. 이때 족제비가 구렝이의 앞을 막아나섰습니다.

《뭐? 먹이가 있을 곳이라구? 여긴 내 먹이고장이야. 당장 물러가!》

《어따 대고 호통질이야!》

구렝이는 성을 벌컥 냈습니다. 드디여 그들사이에는 생사를 겨루는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싸움은 이틀동안이나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족제비놈이 져야 할텐데…)

어미메새는 귀여운 새끼들을 잡아먹은 족제비놈이 지도록 구렝이를 적극 응원하였습니다.

《구렝이가 이겨라!》

뜻밖에 메새의 응원을 받게 된 구렝이는 신바람이 나서 소리쳤습니다.

《메새야, 그렇게 말로만 응원하지 말고 이놈의 눈알을 쪼아라.》

어미메새는 그 말에 용기를 내여 다가갔습니다. 어미메새는 기

회를 노리다가 구렝이가 족제비의 몸을 둘둘 감았을 때 족제비의 눈알을 힘껏 쪼았습니다.

눈먼 족제비는 드디여 구렝이에게 숨통을 끊기우고말았습니다.

원쑤를 갚은 메새는 몹시 기뻤습니다.

그래서 구렝이에게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내 원쑤를 갚아준 이 은혜를 언제면 다 갚겠는지…》

바로 이때였습니다.

기회를 노리던 구렝이는 어미메새를 콱 덮쳤습니다.

《이렇게 하면 별로 은혜를 갚지 않아도 될텐데…》

구렝이는 능글맞게 웃으며 메새의 목을 비틀었습니다.

《구렝이야, 도와준 은혜도 몰라보고 이게 어찌된…》

메새는 숨넘어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흥, 족제비만 고기맛을 안다던가. …》

구렝이는 어미메새를 털 하나 뽑지 않고 닁큼 입에 넣었습니다.

이때에야 메새는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아, 내가 어쩌자고 구렝이에게 기대를 걸었담.》

주체78(1989)년

우 화

찌꼴새와 금조롱

문 영 철

새들이 알낳이둥지를 마련하느라 여념이 없던 때였습니다.

찌꼴새도 여기저기 날아다니며 삼껍질이며 풀잎들을 물어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어느날 삵이 찌꼴새를 시까슬렀습니다.

《원 참, 금방울, 은방울소리가 울려나오는 부리로 삼껍질을 물고다니다니… 기가 막히군, 쯧쯧.》

삵은 혀까지 차며 가는 나무가지끝에 둥지를 트는 찌꼴새를 올려다보더니 등에 지고온 자루에서 무엇인가 번쩍거리는것을 내놓았습니다.

《옛다, 너한테 주려고 마침 금조롱 하나 구해왔다. 황금빛옷을 입은 명가수의 집이야 이쯤 돼야지.》

나무가지에 앉아 잠시 삵이 내놓은 금조롱을 본 찌꼴새는 저도모르게 《야!》하고 감탄했습니다.

노란 금살창으로 촘촘히 빙 둘러막고 뾰족한 고깔지붕에는 깨알종들이 수없이 매달려있는데 폭신한 돌이끼를 깐 바닥은 살뜰하기 이를데 없었습니다.

《자, 어서 어려워말고 들어가 봐라. 마음에 들겠는지?》

삵은 문까지 열어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러나 찌꼴새는 삵이 어떤 놈이라는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흥, 들어가면 붙잡으려구? 엉큼한 놈!)

찌꼴새는 도리질을 했습니다.

《난 싫어.》

찌꼴새의 거절에 삵은 눈이 둥그래졌습니다.

《아니, 이 금조롱이 싫다니? 난 그래두 널 크게 생각하고 가져온건데…》

삵은 짐짓 섭섭한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말하는것이였습니다.

《할수 없지. 나를 믿지 않을수밖에… 넌 혹시 조롱에 들어가면 내가 붙들가봐 겁먹는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 이 금조롱을 나무옹지에 걸어주고 갈터이니 어쨌든 내 성의나 잊지 말아라. 이 집을 쓰고 살다가 좋으면 삵이 구해준 금조롱이 좋다고 널리 소개나 해주렴.》

이렇게 《정》을 담아 말하고난 삵은 정말 긴 장대기로 금조롱을 나무옹지에 걸어주더니 자리를 성큼 뜨는것이였습니다.

(호 참, 별난 삵도 다 있구나.)

삵이 사라지자 찌꼴새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나무옹지에 걸린 금조롱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삵이 나쁘다고 물건까지 나쁠가 하고 생각하며 저도모르게 금조롱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런데 찌꼴새가 금조롱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열렸던 살창문이 저절로 찰칵— 닫기며 깨알종들이 짤랑짤랑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야?)

깜짝 놀란 찌꼴새는 얼른 돌아서서 문을 열려 했으나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찌꼴새는 금조롱이 삵이 새들을 홀려잡는 《덫조롱》이라는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때늦은 깨달음이였습니다.

짤랑짤랑 깨알종소리에 어디에 숨어있던 삵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흐흐흐! 네가 정말 내 〈성의〉를 알아주는구나. 고맙다 고마워.》

징글스러운 삵놈의 낯짝을 쏘아보며 찌꼴새는 원통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 내가 삵놈을 경계한다고 하면서도 그놈의 물건에는 왜 환상을 가졌댔을가?》

찌꼴새의 이 웨침은 그후 새동산의 귀중한 교훈으로 되였답니다.

주체80(1991)년

우　화

부엉이와 달아씨

김 영 길

밤하늘에 높이 뜬 달은 제가 제일이노라 뻐기였습니다.

(뭐니뭐니해도 동산을 밝게 비쳐주는것은 나지. 수많은 별들이 아무리 반짝거리며 빛을 내도 한갖 반디불에 지나지 않거든.)

거드름을 피우던 달은 혹시 자기를 봐주지 않나 하여 이리기웃, 저리기웃 하였습니다.

마침 조용한 수림속에서 부엉이가 내리꽂히더니 들쥐 한마리를 움켜쥐는것이 눈에 띄였습니다.

(저 부엉이도 내가 비쳐주는 덕분에 쥐잡이를 할테지.)

이렇게 생각한 달은 부엉이한테 눈길을 돌리고 물었습니다.

《거 부엉이가 아니냐?》

《예, 달아씨가 어떻게?》

부엉이는 공손히 대답하였습니다.

《부엉이도 나의 밝은 빛때문에 쥐잡이를 쉽게 하겠지?》

《예, 달아씨의 빛이 저의 쥐잡이에 도움이 되긴 합니다만…》

《음, 그렇다면 뭐 생각되는바가 없나?》

부엉이는 달의 말에 그만 어리둥절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참 도리가 없구만. 나의 밝은 빛이 도움이 되였다면 생각되는게 없나?》

그제야 부엉이는 말귀를 알아들었습니다.

《예예. …알만합니다. 그 대가를 치르라는거군요.》

부엉이는 기가 막혔습니다. 달이 이렇게까지 나올줄은 정말 뜻밖이였습니다.

얼마전에는 둥둥 떠서 뻐꾸기한테 자기를 거들떠보지도 않는다고 꾸지람을 했다는 달이였습니다.

그때 부엉이는 뻐꾸기한테 달아씨가 그럴수 있느냐고 오금을 박아놓았는데 오늘 정작 달을 대하고보니 그의 속심을 속속들이 들여다볼수가 있었습니다.

부엉이는 커다란 눈을 슴벅이며 생각하다가 달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리가 밝으신 달아씬 해한테 값을 얼마큼씩 내군 하는지요?》

부엉이의 말에 환하던 달의 얼굴이 금시 새파래졌습니다.

《해한테 값을 얼마나 내느냐구? 호호호. 낮에 뜨는 해하고 밤에 빛을 뿌리는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내가 해한테 값을 낸단 말이냐, 허참.》

자기밖에 없다고 으시대던 달은 성까지 발끈 내였습니다.

부엉이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허허 웃었습니다.

《값을 내기는 고사하고 자기를 내세워준 은인도 모르는군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달아씨야 혼자서는 빛을 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해빛을 받아야 밝은 빛을 내고 제모습도 나타낼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아직 모르고있었는가요?》

그제야 달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빛을 뿌리기는 고사하고 이 세상에 제모습조차 나타내기 힘든 자신을 돌이켜본 달은 얼굴이 빨개지며 지나가는 구름속으로 슬며시 숨어버리고말았습니다.

부엉이는 몸을 숨기는 달한테 한마디 더 했습니다.

《제 낯을 내기에 급급하면 자기를 내세워준 은인도 모르는 법이라오.》

주체80(1991)년

우 화

인심쓰던 너구리

박 찬 수

선들바람 불어오는 어느 가을날
집없는 토끼가 바위밑에 앉아
겨울날 걱정을 하고있는데
지나가던 너구리 다가와 말하였네

《이웃끼리 서로 도와주며 살아야지.
우리 집에 와서 한겨울 뜨뜻이 지내게.》
《마음좋은 너구리아저씨,
정말 고마와요.》
토끼는 바삐 이사짐 싸들고
부지런히 너구리 따라갔네

산굽이를 돌아서니 덩실한 집 한채
《이게 우리 집일세. 어서 들어가세.》
문열고 방안으로 들어선 토끼
이사짐 내려놓고 다리쉼 할 때
밖에 나갔던 오소리 들어서며
발을 탕탕 굴렀네
《아니, 주인의 승인도 없이

웬 이사집인가?》

그러자 너구리 딱한 표정짓고
사정하였네
《여보게 오소리, 당장 겨울은 닥쳐오는데
집없는 저 토끼 어딜 가겠나.
그래서 내가 데려왔네.》

《이 집이 뭐 자네 집인가?
얹혀사는 처지에 무슨 선심인가.
자네가 와서 사는것만도
불편하고 비좁은데
토끼까지 데려오다니…
그건 안되네.》
집주인 오소리 단마디로 딱 잘랐네

할수없이 이사짐 도로 싸들고
허둥지둥 되돌아서는 토끼를 바래주며
너구리 눈물이 글썽하여 말하였네
《남의 덕에 살아가자니
아무리 자네를 도와주고싶어도
내 마음대로는 조금도 할수 없구만.》

주체80(1991)년

우 화

훔쳐단 문패

문 영 철

승냥이가 길목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양네집 문패를 훔쳐다 달았습니다.

(흐흐… 이렇게 해놓으면 양네 집인줄 알고 찾아오는 놈들을…)

승냥이는 벌써부터 군침을 꿀꺽 삼키며 부엌에서 시퍼런 칼을 갈았습니다.

그러다가 밖에서 조금만 기척이 나도 문틈으로 내다보군 했습니다.

하지만 한겻이 지나도록 개미 한마리 얼씬하지 않았습니다.

《제길, 빈집인줄 알지 않아?》

제풀에 화가 나 오락가락하던 승냥이는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부엌아궁에 불을 지폈습니다.

(굴뚝으로 연기가 나가면 빈집이 아니라는걸 알겠지.)

정말 얼마 안있어 마당에서 발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드디여 찾아오시는구나.)

승냥이는 얼른 칼을 움켜쥐고 문틈으로 내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곰이 뚱기적 뚱기적 걸어들어오고있었습니다.

(엉?! 이건 너무 아름찬 먹이로군.)

승냥이는 곰을 이길 자신이 없어 몹시 당황했습니다.

《양아주머니 있소?》

드디여 문앞에서 주인을 찾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챠! 이걸 어쩐다?…)

바빠맞은 승냥이는 물독에라도 들어가 숨으려고 헤덤비다가 그만 물독이 넘어지는 바람에 아이쿠 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심상치 않은 소리에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엉?!》

문을 연 곰은 물참봉이 되여 허우적거리는 승냥이를 보고 《양네집에 도적이 들었구나!》하며 몽둥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아…아니요. 이…이건 내 집이요.》

승냥이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쩔쩔 매며 두손을 내흔들었습니다.

《이놈아! 문패에 양이름이 씌여져있는데도?》

곰의 추상같은 물음에 승냥이는 곰의 다리를 부여잡고 애걸복걸하였습니다.

《곰형님! 한번만 용서해주시우. 사실은 양문패를 달면 약한 짐승들이 찾아들어올가 하여…》

《흥, 이제야 진짜속심이 나오는구나. 이놈아! 그렇다고 네 미끼에 걸릴상싶으냐? 어리석은 놈!》

곰은 이렇게 말하고나서 들고섰던 몽둥이로 승냥이놈을 내리쳤습니다.

컹!— 승냥이놈은 단번에 찔 늘어졌습니다.

그러자 곰은 그제야 가면을 벗었습니다.

《이놈아! 죽기 전에 똑똑히 봐라. 내가 바로 네놈이 미끼로 써먹으려던 그 양이다. 네놈의 음흉한 수에 네가 죽는줄 이젠 알겠지.》

곰의 가면을 벗은 양은 사지를 뻗은 승냥이놈한테 침을 뱉고 나오는 길에 제 집 문패를 되찾아왔습니다.

주체82(1993)년

우 화

짧은것이 《류행》

김 형 운

《요즘엔 어떤것이 류행일가?》
멋부리기 좋아하는 새동산의 할미새
까불대며 세상을 돌아보는데
첫눈에 띄였네
사막에서 걸어다니는 타조의 짧은 날개가
《저분은 날개를 짧게 깎으셨군.》

처음 보는것은 무엇이나 희한해
두눈을 깜박이며 날아가는데
이번엔 초원에서 사는 메추리들의
짧은 꽁지가 눈을 끌었네
(그러니 지금은
짧게 깎는게 추세인가?)

생각을 굴리며 좌우를 살펴보는데
산기슭에 있는 까투리
마침 털갈이철이라
날개털이 빠져있었네

《음, 확실히

짧은것이 류행이야.》

남의것에 홀리우면
좋은 제것도 낡아보이는 법
할미새 그길로 숲속에 돌아와
가위 빗을 꺼내들고 싹둑싹둑
날개를 비다듬었네

그리고는 우쭐해서 숲속길을 걷는데
풀밑에서 빠금히 내다보던 들쥐 한마리
(가만, 저 할미새는
어디에서 날개를 뜯기웠을가?)
좋은 먹이 생겼다고 달려들었네
하지만 할미새
날개가 짧아 날수 없었네

나무우에 앉아있던 조롱이
비명소리 듣고 날아와
쥐를 잡아주고 물었네
《하늘을 훨훨 날던 자네가
왜 이꼴이 됐나?》

할미새 눈물흘리며 하는 말
《요즘 날개가 짧은것이 류행인것 같아서…》
《참 어리석군.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는 류행은
오히려 신세만 그르칠뿐이야.》

주체83(1994)년

우 화

산양이 그린 그림

박 화 준

산들바람 부는 풀밭에 앉아
산양이 그림을 그리는데
개울너머에 승냥이 나타나 하는 말
《여보시오, 밤낮 뿔을 벼리던
당신이 오늘은 웬일이요?
나도 싱그런 풀내가 좋아 왔는데
이왕이면 나를 그려주지 않겠소?》

그 말에 산양이 고개를 끄덕이자
승냥이 물건너와 풀밭에 앉았네
《그런데 암만 봐야 살기어린
당신의 눈길이 맘에 안드오.
또 실룩거리는 입을 봐도
당장 누굴 물어뜯을 인상이란 말이요.》
붓을 들려다 만 산양의 말

그러자 승냥이 얼굴에 가득
웃음발을 피우며 하는 말
《그럼 웃는 얼굴을 그려주오.》
그 얼굴 제격이라는듯

산양은 제꺽 붓을 들었네
(으흐흐, 저놈이 내 꾀에
깜빡 넘어가고말았군.
이제 그림에 정신 팔린 저놈을
한입에 물어메쳐야지.)

붓을 달리는 산양의 거동을 엿보며
승냥이 기회만 노리는데
어느결에 붓을 놓은 산양이
그림을 내들어보이며 하는 말
《보오! 웃는 바람에 그만
당신의 송곳이가 홀랑 드러났소.
그 이발로 짐승들의 멱을 물어메치는
당신의 포악한 본성은
웃어도 드러나고마는구려!》

《어이쿠! 내가 왜 그 생각을 미처…》
덥석 주둥이를 싸쥐고
슬금슬금 내빼려던 승냥이
산양의 뿔에 너부러졌네
《네놈이 풀맛을 보자구
여기로 온건 아닐테지.
난 네놈의 그 속심을 발가놓자구
그림을 그렸단 말이다!》

주체85(1996)년

우 화

꽃과 김

홍병호

어느 길가의 꽃밭에서 봉선화가 통통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열매집속에는 예쁜이라고 부르는 씨앗도 있었습니다.

(난 이제 어디로 갈가?)

예쁜이가 이런 생각을 하고있을 때였습니다.

《얘야, 넌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하고있느냐?》

엄마가 물었습니다.

《난 어데 가서 아름다운 꽃을 피울것인가를 생각하고있어요.》

《얘야, 어데 가긴 어데 가겠니. 우린 이 꽃밭에서 펴야 아름다운 꽃을 피울수 있단다.》

《난 꽃밭에서 오구구 모여서 함께 사는게 싫어요.》

예쁜이는 눈이 올롱해서 말했습니다.

《예쁜아,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말고 이 꽃밭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라.》

엄마가 타일러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쁜이는 엄마를 바라보며 입속말로 옹알거렸습니다.

(꽃밭에서 모두 함께 피면 빛이 날게 뭐야.)

산들산들 산들바람 불어오는 어느날 예쁜이는 열매집에서 홀 날아가 콩밭에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아름다운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습니다.
콩밭으로는 깜장토끼가 김을 매며 다가오고있었습니다.
(저 토끼아저씬 날 보기만 하면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고 막 칭찬해줄거야.)
예쁜이는 두눈을 꼭 감고 흐뭇해서 깜장토끼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참 김을 매던 깜장토끼가 예쁜이를 보고 끌끌 혀를 찼습니다.
《이 꽃이 왜 곡식밭에 뿌리내렸나. 꽃이야 꽃밭에서 피여야지.》
그러며 호미를 들어 예쁜이를 뽑으려고 했습니다. 예쁜이는 깜짝 놀라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난, 난 꽃이예요! 아름다운 꽃이란 말이예요!》
깜장토끼는 허허 웃으며 말했습니다.
《꽃이야 꽃이지. 그러나 꽃은 꽃밭에서 펴야 꽃으로서 자기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거야. 너처럼 곡식밭에서 피면 김으로밖엔 안된다는걸 꼭 명심해라.》

주체85(1996)년

우　화

꼬리사린 족제비

리 희 건

어느해 봄날이였습니다.

이른새벽 멍멍이는 암닭을 물어가는 족제비놈을 보게 되였습니다.

(아니 저놈이!)

멍멍이는 마당 한쪽에 세워놓은 삽자루를 거머쥐고 족제비놈을 뒤쫓아갔습니다.

뒤를 핼끔핼끔 돌아보며 집뒤로 꼬리를 사리던 족제비놈은 불시에 앞에 나타난 무우웅뎅이에 어쩔새없이 빠지고야말았습니다.

몇길 잘되는 웅뎅이에서 제아무리 올리뛰며 나오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숨이 턱에 닿아 달려온 멍멍이의 두눈에서는 불이 펄펄 일었습니다.

《잘됐다, 이놈.》

멍멍이는 더 망설일 사이가 없이 들고있던 삽날로 있는 힘껏 족제비놈을 내리쳤습니다.

그바람에 족제비놈의 한쪽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아이구 다리야.… 내 목숨이 이렇게 끝장난단 말인가. 아이구, 원통해라. 아이구.》

족제비놈은 죽는다고 쨱쨱 소리지르며 악을 썼습니다.

《이 날도적놈아, 그래 네놈이 이꼴로 될줄 몰랐단 말이냐. 이놈.》

멍멍이는 또다시 삽날을 번쩍 추켜들었습니다.

부러진 다리를 끌고 웅뎅이안을 뱅글뱅글 돌아치던 족제비놈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던지 멍멍이를 올려다보며 손을 싹싹 비

비며 빌었습니다.

《여보게 멍멍이, 난 원래 죄가 많은 놈이라 천만번 죽어 마땅하네. 그런즉 뭣하러 끔찍하게 삽날로 내리치겠나. 그저 내우에 있는 흙으로 묻어주게나. 따스한 해빛을 다시는 영영 못보게 말일세.》

족제비놈의 말을 들으니 그럼직도 하였습니다.

《좋다. 그럼 네 소원대로 해주지.》

한껏 쳐들었던 삽을 내리운 멍멍이는 옆에 쌓여있는 흙으로 족제비놈을 단숨에 덮어버리고말았습니다.

(다시는 족제비놈이 닭장에 기여들 걱정은 안해도 되겠군.)

멍멍이는 한시름 푹 놓았습니다.

그때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날이였습니다.

일터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온 멍멍이는 그만 입을 딱 벌렸습니다.

글쎄 어디서 새로 나타난 족제비놈이 갓 까나온 새끼병아리들을 몽땅 물어놓은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도 모자라 피투성이가 된 엄지닭과 병아리들을 물고갈 차비를 하는것이였습니다.

(아니 이게 웬놈이야?)

족제비놈을 따라가던 멍멍이는 또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대가리꼭대기에 있는 까만 점이며 한쪽다리가 부러져 절뚝거리는것을 보니 전번에 무우웅뎅이에 묻어버린 그 족제비놈이 틀림없었습니다.

한동안 어리둥절해있던 멍멍이는 족제비놈을 다급히 쫓아갔지만 족제비놈은 물고가던 엄지닭을 버리고 숲속으로 꼬리를 사리고말았습니다.

멍멍이는 너무도 분하고 원통하여 제 가슴을 탕탕 치며 그자리에 풀썩 주저앉고말았습니다.

(아이구, 흙으로 묻어달라던 수작이 구멍을 파고 살아나오기 위한 술책이였구나! 아, 죽어가는 놈일수록 더 교활하고 음흉해진다는것을 내 미처 몰랐구나.)

멍멍이는 그때 삽날로 족제비놈의 숨통을 끊어놓지 못한것을 뼈아프게 후회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은것이였습니다.

주체85(1996)년

우　화

불타버린 《제왕》

문 영 철

하늘의 《제왕》이라고 우쭐대는 독수리에게 기분나쁜 소리가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별 흉측하게 생긴 사마귀란 녀석이 《무엄》하게도 땅우에 비낀 독수리의 그림자에 오줌을 쏘았다는것이였습니다.

《뭐라구? 그 스산하게 생긴 벌레가 감히 내 그림자에…》

성이 독같이 난 독수리는 당장 하늘나라 새들을 불러놓고 을러대였습니다.

《이건 자다가도 까무라칠 일이다. 너희들은 내 그림자가 다시는 그런 무참한 〈유린〉을 당하지 않도록 무슨 수를 내놓아라.》

그러자 그중 골이 빨리 돈다는 후투디가 먼저 아뢰였습니다.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제왕〉님께서 그림자가 비끼지 않는 안개낀 날이나 비오는 날만 날아다니심이 어떨런지…》

《뭐? 안개끼고 비오는 날만 날아다니라고? 그럼 다른 날은 굶어지내란 말이야?》

독수리는 금시 눈알이 튀여나올듯 후투디를 쏘아보았습니다.

이때 마침 낮이여서 이 광경을 잘 보지 못한 부엉이가 엉거주춤나섰습니다.

《〈제왕〉님! 저처럼 밤에 〈행차〉하시면 그림자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줄 아옵니다.》

《뭐라구?! 이젠 또 밤에?》
독수리는 순식간에 후투디와 부엉이를 물어메치였습니다.
《고작 생각들 했다는게 그따위 수작들이야? 괘씸한 놈들!》
독수리가 갈구리같은 부리를 내휘두르며 푸들쩍거리자 더는 나서는 새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무슨 맘을 먹었는지 종달새 한마리가 당돌히 나서더니 삣쫑삣쫑 말하는것이였습니다.
《세상만물에 그림자가 있는것은 모두 저 하늘의 해님보다 아래 있기때문이요. 〈제왕〉님께서 만일 용맹스러운 날개로 해님보다 한치라도 높이 오르면 〈제왕〉님의 그림자는 저절로 하늘나라에 올려 모셔질줄로 아뢰오.》
《그것 참 묘한 수구나.》
종달새의 말에 독수리는 대번에 낯색이 좋아졌습니다.
《내 슬기와 용맹으로 단연코 저 해보다 높이 오르리라.》
이렇게 흥분하여 웨친 독수리는 이튿날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하늘의 해를 향하여 날아올랐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늘나라 새들은 모두 아연해했습니다.
《해가 지붕우에 달린 호박인줄 아는 모양이지. …》
《그러게 말이야. 저렇게 무식해가지고도 하늘의 〈제왕〉이라구?》
얼마후 그들의 머리우로 불에 끄슨 웬 깃털이 푸시시 떨어졌습니다.
방금전까지 하늘의 《제왕》이라 우쭐대던 독수리의 《존귀한》 꽁지와 날개깃이였습니다.
제따위가 아무리 허세를 부려도 태양우에 어찌 오를수가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망상이지!

주체87(1998)년

우 화

장수와 검

지 홍 길

원쑤들 벌벌 떨게 하던 용맹한 장수
싸움에서 이기고 고향으로 가던 길에
어느 한 령밑에서 풀뿌리를 삶고있었네
설설 끓는 남비에 쌀 한줌 넣었으면 좋으련만
간절한 그 소원 이루어질수 없었네
군량이 떨어진지도 벌써 오래였으니…

지치고지친 몸 무슨 힘으로 일으켜세우랴
아득히 높은 령은 어떻게 넘으랴
시름에 겨워 해지는 령마루 바라보는 장수앞에
마침 쌀자루 둘러멘 텁석부리 하나 다가왔네
《여보시오. 미안하지만 쌀을 좀 주시오.》
구원자나 만난듯 장수는 간청했네
그러자 텁석부리 쌀자루를 내려놓았네
《값을 내게나. 공짜로야 어떻게?》
《나에겐 이것밖에는…》

난처해진 장수 검을 내보였네
《정 없으면 그 검이라도 내놓게.》
《뭐, 검을?!…》

순간 장수의 앞에는
두갈래의 길이 놓여있었네
《검이냐? 쌀이냐?》
이 물음앞에서 주린 창자는 대답을 재촉했네
《검 없이야 무슨 장수랴?
하지만 검도 살아서 필요한거지
굶어죽은 다음에야 무슨 소용이야?》
오 배고픔이란 용맹으로도 어쩌지 못하는가
싸움에선 용맹떨쳐 승리한 장수
주림앞에 굴복하여 검을 내놓고말았네

그런데 장수가 쌀자루 집어드는 순간
가슴치는 호통소리 울렸네
《용맹한 장수어른 쌀자루 도루 내놓소!》
어느새 칼을 빼든 텁석부리 큰소리 치고있었네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임자네한테 패하고 검마저 잃었던 적군이지!》

순간 장수의 손은 허리를 더듬었건만
거기에는 벌써 검이 없었네
《아, 검! 검! 내 장검!》

장수는 가슴을 쳤으나 때는 늦었네
《죽어도 놓지 말아야 할 검을 놓은탓에
검도 쌀도 다 빼앗기고 목숨마저 잃는구나!》
천추에 새겨야 할 이 피의 교훈을 남기며
장수의 머리는 어깨와 영영 작별하고말았네

주체88(1999)년

우　화

슬픈 상봉

박 화 준

침략자를 고발하는 력사의 증거물로
대동강기슭에 놓여있는 《셔먼》호의 잔해
검측측하게 녹이 쓴 포를
어느날 날아가던 까마귀가 놀려댔네
《여보게 쇠붙이,
자넨 왜 배가 불탈 때 없어지지 않았나?
그 모양이야말로 꼴불견일세그려, 까욱까욱…》

까마귀의 말을 들은 포
인디안의 피 흐르는 하드슨강어구에
《자유의 녀신》상을 세운
아메리카《신사》의 체면만은 그런대로 살리려는듯
기여드는 목소리로 뇌까렸네

《까마귀, 너무 비웃지 말게.
난 지금 여기에 이꼴이 되여있지만
우리 미국은 여전히 행성의 〈유일초대국〉으로

존재하고있네.》

바로 이때 코꿰인 짐승마냥
배 한척이 기슭에 와닿았네
괴물같은 포 아연질색해졌네
《엉? 〈푸에블로〉호
네가 어떻게 여길?》

《그런데… 뉘신가요?
서른한해전 이 나라 동해에서 사로잡힌 후
고독으로 절어있는 이 몸을 알아주는 당신은…》

그러자 쇠붙이 대답했네
《나로 말하면 이 강에서
불에 타버린 〈셔먼〉호의 〈유골〉이노라
외로이 지낸지도 어언 백여년세월이 흘렀노라.》

《뭐라구요?》
강반에 비끄러매인 《푸에블로》호
제 할애비의 《유골》앞에서
떠나갈듯 곡성을 터뜨렸다

《나의 할아버지시여!
족보를 따지면 나는 당신의 손주
헌데 당신은 뼈다귀신세
이 손주는 코꿰인 신세
리별아닌 백여년만의 상봉이

이다지도 슬픈것은 어인 일이나이까?》

할애비도 손주도
요란한 울음소리 그칠줄 몰랐네

때아니게 류별난 상봉
의외의 상봉을 구경하고난 까마귀
이때라고 또 한마디 비웃었네

《내 지금껏 세상천지 다 돌며
숱한 상봉 보았건만
이런 상봉 처음 보네.
침략력사가 오랜 〈유일초대국〉이여서
상봉도 이렇게 류다른가!
까욱까욱…》

주체89(2000)년

우 화

승냥이가 맨 《금빛넥타이》

박 상 용

어느날 원숭이가 키높은 나무우에 앉아있는데 승냥이가 슬렁슬렁 걸어오고있었습니다.

(흥, 네깟놈이 아무리 사납다 해도 오늘은 나의 털끝 하나 다치지 못할걸.)

원숭이는 배포유해서 승냥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승냥이가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은 팔자걸음으로 나무밑에 바투 다가섰을 때 원숭이는 눈이 덩둘해졌습니다.

승냥이의 목에 여느때없이 길고긴 이상한 넥타이가 매여져있었던것입니다.

원숭이는 승냥이를 내려다보며 제법 훈시했습니다.

《승냥이야, 무슨 넥타이를 그렇게 맸니? 땅에 철철 끌리게 넥타이를 매고다니는 너야말로 우습기 짝이 없는 바보같구나.》

그러자 승냥이는 원숭이를 쳐다보며 점잖게 대꾸했습니다.

《이제보니 넌 나무아래 세상물정은 영 깜깜인걸. 이게 바로 요즘 류행되고있는 신식넥타이야. 이렇게 매는 법부터가 다르거든.》

《뭐, 신식넥타이?!》

원숭이가 눈여겨보니 그 넥타이는 번쩍이는 금빛바탕에 진주보석이 다문다문 박힌 아주 멋들어진 넥타이였습니다.

《아마 네가 이 금빛넥타이를 매면 그 바람으로 때를 쭉 벗은 멋

쟁이신사가 될걸.》

그러지 않아도 번쩍거리는 금빛넥타이는 원숭이의 마음을 자꾸만 유혹했습니다.

원숭이는 더는 참을수가 없어 간청했습니다.

《승냥이야, 그 넥타이를 나두 한번 매보자꾸나. 응?》

《뭐, 이걸 네가? 안돼, 안돼. 아무리 탐나두 그런 식으로 뺏진 못해.》

승냥이는 펄쩍 뛰며 손을 홰홰 내저었습니다.

《칫, 이렇게도 믿지 못한다구야. 글쎄 딱 한번만 매보고 준다니까…》

원숭이의 지꿎은 성화가 정말 귀찮다는듯 승냥이는 넥타이를 벗어들었습니다.

《그럼 딱 한번만이야!》

금빛을 휘뿌리며 날아오른 넥타이를 냉큼 받아쥔 원숭이는 제꺽 목에 매였습니다.

한데 바로 그 순간, 원숭이는 비명을 지르며 나무에서 떨어졌습니다.

승냥이의 발밑에 깔린 원숭이는 그제야 점점 제목을 세게 조이는 《금빛넥타이》가 그대로 올가미였다는것을 알았습니다.

(아, 내가 바보였구나. 넥타이와 올가미를 가려보지 못하다니…)

원숭이는 제 잘못을 통탄했으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주체89(2000)년

우　화

먼저 찍힌 엄나무

김 박 문

귀중한 재목감으로 알려진 엄나무
숲변두리에 뿌리 내리고
언제부터인가 제멋대로 살기를 좋아했네

남쪽바람 불어도 이리흔들 저리흔들
서쪽바람 불어도 흐느적흐느적
(오고 가는 바람에 장단 맞추어
마음껏 춤추니 얼마나 좋은가.)

엄나무의 흥에 뜬 그 모양 보며
이깔나무 점잖게 충고 주었네
《그렇게 제멋대로 놀다가
허리가 구불면 어쩌려고 그러나?》

그러자 엄나무 코웃음쳤네
《걱정은 고맙네만
난 앞길이 창창한 엄나무일세.》

《이보게 엄나무
재목감이라면 곧게 자라야지
그게 무슨 꼴인가.》
분비나무도 보다 못해 한마디 했네

엄나무 볼부어 투덜투덜
《무슨 시비 이리도 많은가.
이러고저러고 해도 이 나무는 옛적부터
고급가구재료로만 써왔다네.
두고 보라구 재목감으로 누가 먼저 뽑히나.》

몇해후 어느날
톱과 도끼를 든 두 벌목공 산에 올랐네
《어느 나무를 찍겠나?》
한 벌목공이 묻자
이 나무 저 나무 살피던 도끼든 벌목공
엄나무를 가리키며 말했네
《아무래두 이 나무를 찍어야겠네.》

그 말 들은 엄나무
우쭐하여 큰소리로 말했네
《보라구, 재목감으로야 이 엄나무이상 더 있겠나.
아무렴 난 엄나무그루에서 자라난
틀림없는 엄나무란 말일세.》

이때 톱든 벌목공

도끼든 벌목공에게 하는 말
《우린 장작감을 고르는데
이 나무는 엄나무가 아닌가.》

도끼든 벌목공
사정없이 도끼날을 박았네
쩡쩡 도끼소리 울리며 말했네
《아무리 엄나무라고 해도
이렇게 우불구불 자라면
장작으로밖에 달리 쓸수 없는 법이지.
장작으로밖에!》

주체90(2001)년

우 화

선비 아들의 글공부

로 병 수

옛날 어느곳에 늙은 선비가 살고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선비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정력을 다해 글공부를 시켰습니다.

어느날 그는 아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배워야 할 글을 따로외워라. 〈각자는 무상치〉니라.》

《각자는 〈무상치〉니라.》

아들은 꿇어앉은채 머리를 주억거리며 까다로운 한자말을 따로외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고 하니 뿔있는 짐승은 웃이발이 없다는 말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인고 하니 뿔있는 짐승은 웃이발이 없다는 말이다.》

한자도 틀림없이 잘 따로외우는 아들을 기특하게 바라본 선비는 그밖에 몇개의 문장을 더 가르친 후 말하였습니다.

《오늘은 밖에 나가지 말고 공부를 잘하였다가 저녁에 외워바쳐야 한다.》

선비의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착실히 실행하기 위해 문을 닫아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배워준 글을 좔좔 외웠습니다.

저녁에 아들이 외워바치는 글을 받아낸 선비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너는 역시 똑똑한 애구나. 이다음에 꼭 훌륭한 사람이 될게다. 암, 되구말구.》
그때부터 얼마후였습니다.
선비는 다리를 다치여 자리에 눕게 되였습니다.
선비가 그럭저럭 벌어서 먹고살던 가난한 살림이 거덜이 났습니다.
선비는 아들을 가까이 불렀습니다.
《얘야, 살아가자니 할수 없구나. 집에 있는 소라도 팔아야겠다. 나는 갈수 없으니 네가 소를 장에 가지고가서 팔아오너라.》
《알겠소이다.》
《너는 똑똑한 아들이 아니냐. 꼭 소값을 잘 받아와야 한다.》
그래서 아들은 소를 끌고 장으로 갔습니다.
여우상처럼 턱이 뾰족한 소장사군이 작은 눈알을 굴리며 선비아들을 아래우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대번에 풋내기라는것을 알아차리였습니다.
그래서 소값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소가 퍽 여위였군.》
소잔등을 쓸어보며 장사군이 하는 말이였습니다.
소장사군은 선비의 아들을 힐끗 돌아본 다음 또다시 흠을 잡기 시작하였습니다.
《소가 발통이 작은걸 보니 힘을 쓰지 못하겠군.》
《아버지가 우리 소는 좋은 소라고 했는데요. 힘을 못쓰다니요.》
선비 아들이 이렇게 대꾸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장사군은 들은척도 않고 소대가리를 훑어보았습니다.
《소가 몹시 늙었군. 어디 좀 볼가.》
소장사군은 소입을 벌리고 입안에 손가락을 넣어보더니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애애, 이 소는 팔지 못하겠다. 너무 늙어서 웃이발이 빠졌

구나. 이걸 봐라. (소장사군은 선비아들에게 소입을 벌려보였습니다.) 그러니 부리지는 못하구 잡아서 고기나 팔면 어떨지. 게다가 여위기까지 했으니 절반값도 못받겠다. 다시 끌구 가거라.》

선비의 아들은 근심이 생겼습니다.

(소를 못팔면 저녁부터 먹을것이 없는데 어쩌나. 소가 늙었으니까 아버지가 소값을 잘 받으라고 했구나.)

선비 아들의 눈치를 살피던 소장사군은 벌써 그의 속마음을 꿰뚫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잔등을 두드려주며 너그럽게 말하였습니다.

《얘, 너무 근심말어라. 네 사정을 알만하다. 에라, 내 밑지는셈치구 절반값에 넘겨받겠다.》

이렇게 하여 선비의 아들은 소를 절반값에 팔아가지고 왔습니다.

선비는 아들의 말에 입을 딱 벌리였습니다.

《아니, 왜 절반값에 팔았단 말이냐?》

《장마당에서 말하기를 우리 소는 여위고 발통이 작아서 힘을 못쓴대요. 그리구 너무 늙었대요. 웃이발이 다 빠지구 한대도 없는데요 뭐.》

선비의 아들은 입을 비쭉 내밀었습니다.

《뭐, 뭐라구. 우리 소가 웃이발이 없다구. (선비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 너는 얼마전에 뿔있는 짐승은 웃이발이 없다는것을 외우지 않았단 말이냐?》

그제서야 선비의 아들은 그때 외우던 글이 생각났습니다.

《아, 생각나요. 〈각자는 무상치〉 뿔있는 짐승은 웃이발이 없다지요. 그러니 우리 집 소도 뿔있는 짐승이 되는가요?》

선비는 무릎을 치며 한탄하였습니다.

《뜻도 모르고 한문글을 졸졸 외운다고 똑똑한게 아니였구나. 한줄의 글을 배워도 써먹을수 있게 배워야 하는건데.》

주체90(2001)년

우 화

골뱅이《촌장》

박 화 준

하도 오래 산 나이대접으로
늪마을 촌장이 된
골뱅이 한마리 있었네

바쁜 일없고 끌맺는 일 없는 골뱅이《촌장》님
성미도 너그럽고 아는것도 많지만
제 주견 없고 책임질 일 두려워
이래도 좋을대로 저래도 좋을대로…

덕지앉은 갑속에 옹크리고만 있는
그《촌장》한테
하루는 소금쟁이가 찾아왔네
《촌장님, 늪에 뚝을 높이 쌓아야
넘쳐나는 물을 막을수 있겠수다.》

골뱅이《촌장》 얼굴 반쯤 내밀었네
《쌓으세, 반대없네.
책임은 자네가 지고 해보게.》

다음날은 또 물매미가 찾아왔네

《촌장님, 가물에 물이 바짝 줄겠는데
늪가운데 샘구멍을 뚫어야겠수다.》

《뚫어야지, 뚫어야 하구말구.
내 요즘 늪의 전망 생각하느라
잠도 못자는 형편이니
그 훌륭한 일 자네가 한번 책임지고 해보게.》

늪의 뚝을 쌓느라 벅적벅적
늪의 샘구멍 찾느라 영차영차
낮과 밤 따로없이 와짝 끓을 때
이웃마을 갈게《촌장》 찾아왔네
뚝쌓기와 샘구멍 찾은 경험 듣고싶다며

나이 많고 아는것 많은 골뱅이《촌장》
늪마을 자랑이야 한껏 못하랴만
그것조차 안심찮아 갑속에서 오밀조밀
《뭐 경험이랄게 특별히 없네.
뚝이나 쌓는데 무슨 경험이 있겠나.》

그 말 들은 소금쟁이와 물매미
어이없고 기가 차서 한마디씩 했네
《우리 촌장님한텐 정말 훌륭한 〈경험〉이 있수다.
나날이 두터워지는 갑옷의 더덕지만 봐도
그 〈경험〉얼마나 〈훌륭〉한지 알수 있지요.》

《우리 촌장님 〈경험〉이야 진짜
3년묵은 저 갑옷의 더덕지속에 다 있지요.》

주체90(2001)년

우　화

손이 잘린 여우

곽 대 남

어느 동산에 도적질로 살아가는 여우가 아슬랑아슬랑 돌아치고있었습니다. 일이 될 때라 너구리가 바구니를 들고 낑낑거리며 언덕을 오르고있었습니다. 비린내를 맡은 여우는 달려가 아양을 떨며 말했습니다.

《함께 들고가자. 얼마나 무겁겠니.》

너구리는 여우의 선심에 께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약쓰려구 강에까지 가서 사오댔는데 이젠 다 왔어.》

(물고기가 틀림없구나.) 하고 생각하는 여우의 가슴속엔 배불리 먹게 된 기쁨이 남실거렸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니. 모든 일은 마지막에 더 힘든 법이란다. 자, 어서 가자.》

고개를 넘자 길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샘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회만 엿보던 여우가 말했습니다.

《물을 마시고 오너라. 얼마나 목이 타겠니.》

목이 말라 겨우 오던 너구리는 바구니를 길에 놓고 샘가로 달려갔습니다.

여우는 잔풀로 착착 덮어놓은 바구니안에서 살아 우물거리는 물고기를 꺼내 감춰놓고 돌을 집어넣으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여우는 적당한 돌들을 가져다놓은 다음 날쌔게 바구니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너구리만 살펴보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손이 잘리는것 같은 아픔에 쳐들어보니 솥뚜껑만한 자라가 물고늘어져있었답니다.

여우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와 돌과 여우를 번갈아본 너구리는 대번에 모든것을 짐작하였습니다.

《아까부터 눈치가 이상하다 했더니. 이젠 어쩔테냐? 자라이발이 얼마나 세다는거야 너도 잘 알테지.》

여우는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며 사정했습니다.

《자라목을 잘라야지 어찌겠니. 나야 한번 만져보려다가 이렇게 된걸.》

너구리는 코방귀를 뀌였습니다.

《흥, 넌 돌을 날라다놓고 만져봐야 모양을 알수 있니? 그리구 꼭 주인이 없을 때말이야.》

그 소리에 여우는 낯색 하나 달라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넌 도와준 신세도 모르니? 빨리 자라목을 잘라라. 내 손이 상하기전에.》

너구리가 어이없어 말했습니다.

《여기서 자라목을 자르면 생생한 자라피를 먹어야 고칠수 있는 우리 엄마가 죽는단다. 아픈걸 조금 참고 마을로 가자.》

너구리가 바구니를 들고 걸어가자 여우는 바스라지게 비명을 지르면서도 따라오는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야야, 은혜는 은혜로 갚으랬다는데 이 무지한놈아. 아이고!ㅡ》

그 소리에 놀란 자라는 목을 움츠러뜨리며 여우의 손을 딱 잘라버리고말았습니다.

대굴대굴 굴며 비명을 지르는 여우를 보며 너구리가 말했습니다.

《손 하나 잘린걸 가지구 뭘 그렇게 엄살하니. 모가지가 잘렸어도 할 소리가 없을텐데.》

주체94(2005)년

우　화

오소리의 《굴안내》

리 진 혁

사납기로 소문난
벼락골의 승냥이
상냥한 웃음짓고
오소리집 찾아왔네

《여보게 오소리,
아니 글쎄 우리 막내가
없어졌네.
혹시 자네 집엘 오지 않았나.》

《아니, 무슨 소리를 하시우.
내 집에 오다니?!
안왔수다.》

상냥하던 그 눈빛이
순간에 사라지고
포악스런 그 성미대로
우락푸락하는 말

《흥, 갈래많은 이 굴에

내 새끼를 감춰놓고
시치미를 떼면
누가 모를줄 알구.》

당장에 일칠듯이
날고뛰는 승냥이
그앞에서 망설이던
오소리의 속생각
(제 눈으로 직접 보면
아무소리 못하겠지.)

오소리 앞장서서
이굴 저굴 소개하네
이쪽은 큰방이요
저쪽은 안방이라

알뜰한 살림살이
은근히 자랑하며
여기는 창고이며
저기는 뒤문이라

착실한 《굴안내》에
흉측한 웃음짓고
살기어린 눈빛으로
여기저기 살펴보며

재롱스레 뛰여노는
오소리새끼 보고
귀여웁다 쓰다듬고
군침을 삼키네

알뜰한 창고보고
살림살이 칭찬하며
승냥이 말하였네

《아마 자네 집엔
안왔던 모양일세.
너구리네 집에 갔나.》

안됐다는 말 한마디
남기지 않고
음달진 산아래로
승냥이 사라졌네

의심쩍은 생각을
가까스로 누르며
오소리 다음날
머루따러 떠났는데
어찌하랴 승냥이가
새끼들을 물어갈줄

어리석은 오소리
뒤늦게야 달려와
승냥이발자국에
주저앉아 통곡하네

《아이쿠, 포악한 승냥이
문턱도 못넘어서게 해야 하는걸.
굴속까지 보여주었다가
귀여운 자식들을 잃었구나.》

주체94(2005)년

우 화

나무타는 《재간》

조 명 철

굶주린 승냥이 한마리가 산속길을 가고있었습니다.

어디에 작은 짐승 한마리라도 있지 않을가 하여 두리번거리며 가는데 떨기나무숲사이로 다람쥐발자국이 나있는것이 눈에 띄였습니다.

굶주린 배를 달래자면 다람쥐따위라고 제쳐놓을수 없었습니다. 조금 갔더니 이것 보십시오. 퍼그나 몸집이 큰 다람쥐 한마리가 따뜻한 양지쪽에 앉아 해바라기를 하고있는게 아니겠습니까.

《이것 봐라.》

승냥이는 더 지체할 사이없이 와락 다람쥐를 덮쳤습니다.

이제는 다 먹은 떡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이구, 이걸 어쩌면 좋습니까.

다람쥐는 어느 사이 홀딱 빠져 나무우에 올라앉아 승냥이를 조롱하듯이 내려다보고있었습니다.

(아휴, 나무타는 재간을 가진 놈이니 할수 없군.)

군침만 흘리며 다람쥐를 올려다보던 승냥이는 아무래도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스적스적 자리를 떴습니다.

그러면서 승냥이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나무타는 재간을 좀 배워야겠어. 그 재간만 있으면 다람쥐만이 아니라 날아다니는 새마저도 잡아먹을수 있을게거든.》

승냥이는 이날부터 부지런히 나무타는 재간을 익혔습니다. 벌렁벌렁 나무줄기에 기여올라서는 이 가지에서 저 가지에로 뛰여건느

는 련습을 하였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하고나니 퍼그나 숙련이 되였습니다.

(이쯤하면 나도 나무타는 재간을 가졌다고 할수 있지.)

승냥이는 어슬렁어슬렁 다람쥐가 있을만한 밤나무동산으로 찾아갔습니다.

아니나다를가 다람쥐 하나가 이 나무에서 저 나무에로 기여다니며 재롱을 피우고있었습니다.

가만보니 며칠전에 만났던 다람쥐가 분명했습니다.

승냥이는 다람쥐를 노려보며 나무로 기여올랐습니다.

승냥이놈이 날카로운 이발을 드러내며 덤벼들자 다람쥐는 잽싸게 떡바위앞에 서있는 늙은 밤나무로 옮겨가버렸습니다.

그러자 승냥이도 사방에 우죽비죽 내돋은 잔가지들을 리용하여 다시 늙은 밤나무우로 게바라올랐습니다.

워낙 나무잡이에 서툰 놈이라 떨어질가봐 부들부들 떠는것이 헨둥하게 알렸습니다.

다람쥐는 승냥이놈을 단단히 혼내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마침 승냥이놈이 기여오르고있는 밤나무중턱에 고삭은 가지 하나가 드리워져있었습니다.

다람쥐는 얼른 그 가지끝에 매달렸습니다.

그만에야 나무가지는 무거운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고 《뚝》 소리를 내며 부러져나갔습니다.

그 순간에 다람쥐는 날쌔게 다른 가지로 옮겨앉았으나 나무잡이에 서툰 승냥이놈은 마른 나무가지를 붙잡은채 그대로 나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으악.》

승냥이놈은 땅바닥에 곤두박혀 숨을 거두고말았습니다.

다람쥐는 땅바닥에 너부러진 승냥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흥, 나무타는 재간을 용케도 배웠군. 그러나 남잡이를 위해 배운 재간은 자기 목을 조이는 올가미로밖엔 안되지.》

주체94(2005)년

우 화

다시 물린 게사니

최 충 웅

옛날 어느 마을에 제리속을 위해서라면 의리도 도덕도 전혀 안중에 없는 박첨지가 있었습니다.

어느날 박첨지는 이웃마을 김서방이 큰 알을 매일 낳는 게사니를 몇마리 기르고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도 그런 게사니를 얻어기르면 그 덕을 단단히 입겠는데… 김서방을 잘 구슬려서 한마리 꼭 얻어와야겠다.)

이렇게 궁리한 박첨지는 곧 김서방을 찾아가 게사니 한마리만 팔아달라고 사정사정하였습니다.

마음 무던한 김서방은 아깝지만 박첨지가 하도 조르기에 눅은 본전값만 받고 게사니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한 열흘만 잘 먹이라구. 그러면 큰 알을 매일 낳을걸세.》

너무 좋아 입이 터진 팥자루같이 되여 집으로 돌아온 박첨지는 그날부터 게사니에게 좋은 먹이를 주면서 극성스레 길렀습니다.

그런데 열흘되는 날,

큰 알을 낳으리라 생각했던 게사니가 갑자기 날개를 파들파들 떨면서 죽을듯이 한자리에서 맴도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금시 숨이 넘어갈것만 같았습니다.

(아차, 게사니가 죽을 병에 걸렸구나.)

박첨지는 눈앞이 아뜩했습니다. 저것이 죽으면 알을 받아 한

밑천 잡으려던 고소한 꿈은 두말할것없고 본전마저 잃어버릴판이였습니다.

다시 물리자니 눅은 값으로 주면서 몹시도 아수해하던 김서방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순간이였습니다. 의리에 밀지면 밀졌지 돈에 밀질수는 없었던것입니다.

(김서방한테 가서 병든 게사니를 팔았다고 구실을 붙여 본전값을 도로 찾아야겠다.)

박첨지는 게사니를 안고 헐레벌떡 김서방한테 뛰여갔습니다.

《여보게, 세상에 병든 게사니를 파는 법이 어디 있나?》

박첨지는 분한듯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병든 게사니를 팔다니…》

김서방은 눈이 둥그래졌습니다.

《자, 보라구.》

박첨지는 죽을듯이 몸부림치는 게사니를 뿌려던지듯이 김서방앞에 놓으면서 말했습니다.

《가져간 첫날부터 잘 먹지 않고 몸을 떨더니 오늘은 끝내 죽어간단 말일세.》

《그럴수 없는데…》

김서방이 게사니를 살펴보며 하는 말이였습니다.

《그럼 내가 거짓말을 하겠나? 두말 말고 물려주게. 본전값은 도로 받아야겠네.》

김서방은 본전값을 돌려주면서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않겠나?》

《천만에, 내가 바보라고 후회하겠나. 다 죽어가는 게사니를…》

이렇게 말한 박첨지가 본전값이 제대로인가 세여보고나서 돌아가려 할 때였습니다.

죽어가는듯 하던 게사니가 《꿰엑—》하고 소리치더니 두주먹을 합친것보다 더 큰 알을 낳고 꺽두룩꺽두룩 걸어다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엉?》하고 박첨지가 두눈이 퀭해서 김서방을 바라보는데 김서방이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게사니가 병이 든게 아니라 저렇게 큰 알을 처음 낳느라 너무 바빠서 죽을듯이 몸부림친거라네. 임자가 열흘사이 게사니를 잘 먹인덕에 나는 공짜로 저렇게 큰 알을 매일 얻게 되였군 그래.》

박첨지는 얼굴이 수수떡빛이 되여 아무말도 못하는데 김서방이 이렇게 한마디 해주었습니다.

《박첨지, 명심하라구. 제리속을 위해서라면 의리도 도덕도 전혀 모르는 그런 속심을 버리지 않는다면 언제나 좋은 일이 차례지지 않는다는걸 말일세.》

주체95(2006)년

우 화

곰서방의 짐수레

리 완 기

어느날 곰서방이 짐을 실은 손달구지를 끌고가고있었습니다.

굶주린 늑대가 숲속에 숨어서 그것을 엿보며 군침을 흘렸습니다.

(저놈을 해치우면 한밥 잘 먹겠는데… 어떻게 한다?!…)

곰의 뚝힘을 그대로 두고는 해치울 자신이 없었습니다.

속궁리를 닭알굴리듯 하던 교활한 늑대놈은 무슨 좋은 수가 떠올랐는지 무릎을 철썩 갈기고는 껑충 뛰여서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곰이 손달구지를 끌고가는 길앞에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커다란 짐보따리를 앞에 놓고서있던 늑대는 곰이 다가오자 사정했습니다.

《곰서방, 미안하네만 이 짐을 싣고 함께 갈수 없겠나?》

마음좋은 곰이 선선히 들어주었습니다.

《내 뒤에서 힘껏 밀겠네.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면 가기가 한결 쉬울걸세.》

늑대는 얼른 손달구지에 붙어섰습니다.

밀고당기며 그들이 한굽이를 돌아섰을 때였습니다.

늑대가 문득 그제야 생각난듯 머리를 탁 치면서 말했습니다.

《아뿔싸, 일이 생겼네. 방금 지나온 동산에 사는 오소리령감이 몹시 앓고있다는데 내게 신통한 약처방이 있네. 그걸 꼭 알려주고싶어 그러니 미안한대로 얼른 갔다오겠네.》

《자네 마음이 정말 좋구려. 어서 갔다오게나.》
오던 길로 달려갔던 늑대는 잠시후 큼직한 꾸레미 하나를 들고 돌아와서 그것을 손달구지에 척 올려놓았습니다.
《약처방을 대줬더니 기어이 신세갚음을 하겠다면서 먹을걸 좀 꾸려주더군.》
곰서방은 땀을 흘리며 더 무거워진 손달구지를 끌었습니다. 늑대는 뒤에서 미는둥마는둥 하면서 또 길을 떠났습니다.
얼마쯤 또 지나 가파로운 고개밑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늑대가 걸음을 뚝 멈추고 움직일념을 안했습니다.
《여보게 곰서방, 요 등성이너머에 형제처럼 가까이 지내는 너구리서방이 살고있는데 며칠전에 불상사가 나서 외아들을 잃었다고 하지 않나. 찾아가서 위로의 말이라도 한마디 하고와야지 그냥 지나가려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그러네.》
《자넨 참 의리도 깊구만.》
《글쎄 난 하고싶은것을 못하면 몸살이 나고 된병이 들어 죽기까지 하는 성미라네.》
등성이너머로 사라졌던 늑대는 얼마쯤 지나서 또 큼직한 꾸레미 하나를 들고와서 손달구지에 실었습니다.
《뭘 또 그렇게 무겁게 들고왔나?》
곰이 물었습니다.
《그런 불상사를 당하고도 가다가 요기라도 하라고 이렇게 꿍져주지 않겠나?! 우리 저 고개마루에 올라가서 선들바람을 쏘이며 함께 나누어먹읍세.》
곰은 더 무거워진 손달구지를 앞에서 끌고 늑대는 뒤에서 밀며 고개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영차!》, 《영차!》
늑대는 뒤에서 소리를 치면서 미는체 했지만 실은 몰래몰래 잡아당겼습니다.
손달구지가 곱절이나 무거워진데다가 늑대가 당기는 바람에 곰은 땀을 철철 흘리며 겨우겨우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 미련둥이의 맥을 빨리 쑥 뽑아버려야 해치우겠는데…)

늑대는 미는척 하면서 더 세차게 뒤로 당겼습니다.

곰은 더욱 안깐힘을 쓰며 비칠거렸습니다.

(흐흐흐… 이젠 다 먹어놓은 떡이로구나.)

늑대는 속으로 기뻐했습니다.

아주 가파로운 고개막바지를 올리챌 때였습니다.

(여기서 한번만 더 맥을 빼면…)

《영차!》, 《영차!》

늑대는 소리를 크게 치면서 더욱 힘껏 뒤로 잡아당겼습니다.

그 순간이였습니다.

곰은 손달구지채를 탁 놓았습니다.

《와르르… 우당탕… 퉁탕…》

손달구지가 뒤로 밀리며 벌컥 뒤집히였습니다.

와르르 무너져내린 짐보따리들이 툭툭 터지면서 큼직큼직한 돌덩이들이 늑대를 내리쳤습니다.

곰의 맥을 뽑느라고 짐보따리에 남모르게 돌덩이를 채웠던 늑대는 그 돌에 얻어맞고 그 돌사태에 깔려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아이쿠, 나 죽는다. 곰서방, 그렇게 손달구지채를 놓으면 어떻게 하나.》

늑대는 마지막숨을 몰아쉬며 푸념을 하였습니다.

《허허, 뭘 그러나. 자네야 하고싶은걸 못하면 몸살이 나고 병이 생겨서 죽는다고 하지 않았나? 그래서 뒤로 당기고싶어하는 그 소원을 풀어주느라고 그랬을뿐인데… 하긴 내 맥을 뽑아서 어째보겠다는 그 하고싶은짓을 못했으니 아무래도 죽는길 밖에 다른 길이 없겠군.》

곰은 죽어가는 늑대놈에게 침을 뱉고 가버렸습니다.

주체95(2006)년

우 화

뱀에게 먹히운 참개구리

백 영 수

참개구리가 귀여운 새끼를 잡아먹은 뱀에게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이 못된놈아, 이제 겨우 걸음마를 뗀 내 새끼를 잡아먹다니. 이 몽둥이에 등허리가 꺾어져봐라.》

참개구리가 몽둥이를 쳐들고 뱀의 허리를 들이치려는 순간 뱀이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참개구리. 내가 자네의 새끼를 먹었은즉 그 몽둥이에 허리가 부러져나가도 할 말이 없네. 그렇지만 잠간 내 말을 들어보게.

난 개구리를 잡아먹을 때 상처 하나 안내고 통채로 삼켰다네. 자네 새끼가 아직 살아 내 배속에 있으니 몽둥이를 내리라구. 내 이제 자네 새끼를 내놓을테니.》

《뭐라구, 이놈, 허튼소리 말아.》

《허튼소리라면 이 배를 좀 보라구. 자네 새끼가 발버둥치는걸…》

참개구리는 뱀의 말이 그럴듯싶어 몽둥이를 내리고 한발 다가섰습니다.

《아직도 믿지 못하겠으면 내 입에 귀를 대보구려. 자네 새끼가 엄마를 찾는 소리가 들리지 않나.》

홀딱 속아넘어간 참개구리는 정말로 뱀의 입에다 귀를 가져다댔습니다.

그 순간 뱀은 참개구리가 소리칠사이도 없이 삼켜버리고말았습니다. 이렇게 원쑤를 향해 들었던 몽둥이를 잠시라도 내리면 참개구리처럼 되는 법이랍니다.

주체95(2006)년

우 화

너구리가 받은 우승컵

리 성 칠

풍년든 가을 어느날이였습니다.

짐승동산에서는 누가 열매를 더 많이 따들였는가 하는것을 총화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동산의 좌상인 곰할아버지가 번쩍거리는 우승컵을 내보이며 말했습니다.

《열매를 제일 많이 따들인 짐승한테는 이 우승컵을 주기로 했다네. 어디 누가 제일 많이 따들였는지 알아봅세.》

그리고나서 곰할아버지는 차례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노루는 일곱바구니, 사슴은 여섯바구니, 오소리는 아홉바구니… 우승컵을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던 너구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체, 저렇게 입으로만 얼마얼마 해서야 알게 뭐야, 옳지, 이럴 땐 아무리 불궈대도 모르겠구나.)

차례가 되자 너구리는 제꺽 대답했습니다.

《난 스무바구니를 땄습니다.》

《뭐? 스무바구니씩이나?! 그러니 이번 열매따기에선 너구리가 제일이구나! 자, 받게나. 이 우승컵은 자네껄세.》

짐승들은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우승컵을 타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너구리는 좋아서 싱글벙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허허! 말을 잘한 덕에 이렇게!…》

다음날이였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던 너구리는 손에 바구니를 든 짐승들이 어디론가 가는것을 보았습니다. 창고에서 밤을 내준다는 것이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너구리는 서둘러 바구니를 들고 따라나섰습니다.

《아니, 자넨 왜 왔나?》

밤을 내주던 오소리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밤을 내준다기에…》

《하, 그러니 자넨 미처 듣지 못한게구만. 모두 자기가 따들인 열매를 가지고 한해겨울을 나기로 했다네. 그래서 모자라는 집들만 이렇게 밤을 내주는거라네.》

《뭐, 자기가 따들인걸루 한해겨울을?!… 나두 모, 모자라는데.》

너구리는 저도모르게 떠듬거렸습니다.

《모자라다니? 자넨 스무바구니씩이나 땄다면서?》

《그건 사, 사실…》너구리는 고개를 떨어뜨리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모양을 바라보던 오소리는 알만하다는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습니다.

《음, 그러니 자넨 허풍을 쳤댔구만?》

이때 곁에 있던 노루가 너구리의 어깨를 툭 치며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자네야 무슨 걱정될게 있어 그러나? 그 번쩍거리는 우승컵만 쳐다봐두 배가 불룩해질텐데 말이야!》

《흐하!—》

모두 배를 그러안고 웃어댔지만 너구리는 더이상 그자리에 있을수가 없었습니다.

빈 바구니를 든채 터벌터벌 집으로 돌아온 너구리는 번쩍거리는 우승컵을 쳐다보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이쿠! 허풍친 덕에 한해겨울 배를 쫄쫄 곯게 됐구나. 할수 없지. 이젠 저 우승컵만 쳐다보며 사는수밖에.》

주체95(2006)년

우　화

《활쏘기명수》 복작노루

김 성 현

해빛이 쟁글쟁글 내리쪼이는 무더운 여름 어느날이였습니다.

활쏘기훈련을 하던 복작노루는 비오듯 하는 땀을 씻으며 투덜거렸습니다.

《당장 승냥이가 달려들것도 아닌데 언제까지 이 고생이람…》

싫증을 느낀 복작노루가 슬그머니 빠질 궁리를 하는데 멀리서 목표판을 해세운 사슴이 소리쳤습니다.

《목표를 맞히면 훈련을 그만하고 못맞히면 계속 훈련해야겠어.》

자신있는 짐승들은 먼저 나가 화살을 석대씩 날렸습니다.

화살이 승냥이과녁에 맞을 때마다 박수소리가 터져올랐습니다.

사향노루의 화살도 마치 눈이 달린듯이 날아가 연거퍼 맞았습니다.

자기 차례가 되였지만 자신이 없어 엉거주춤 일어서던 복작노루는 불쑥 신통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사향노루와 내가 비슷하게 생겼으니 대신 슬쩍…)

복작노루는 슬그머니 사향노루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네 활쏘기솜씨가 정말 대단하더구나. 난 아무래도 남아서 훈련을 계속해야겠는데 나도 배울겸 내 대신 한번 쏴보렴.》

《그래? 그럼 잘 봐.》

사향노루는 목표판을 향해 화살을 날렸습니다.

화살은 영낙없이 승냥이의 눈과 귀, 코에 들어가 박혔습니다.

《맞았는지 가서 알아보고 올게.》

목표판으로 뛰여간 복작노루는 사슴에게 말했습니다.

《내 활쏘기가 어때요. 정확히 맞았지요?》

복작노루가 쏜줄로 안 사슴은 눈이 둥그래서 감탄했습니다.

《네 활쏘기가 그사이 몰라보게 늘었구나. 이젠 명사수가 되였으니 마음이 놓인다.》

순간에 《활쏘기명수》가 된 복작노루는 얼씨구 좋다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승냥이무리가 달려든다는 신호가 다급히 울렸습니다.

동산짐승들은 화살을 꺼내들고 달려나왔습니다.

복작노루도 미친듯이 달려드는 승냥이의 가슴팍에 힘껏 화살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평상시에 훈련을 잘하지 않던 복작노루가 쏜 화살은 어방없이 빗나갔습니다.

《아이쿠, 야단났구나.》

복작노루가 미처 어쩔새도 없이 빈틈을 발견한 승냥이놈이 와락 달려들었습니다.

승냥이가 복작노루의 멱줄을 물어끊으려는 순간 비명소리를 들은 짐승들이 달려와 그를 구원해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거냐? 전에는 과녁을 잘 맞히더니…》

사슴의 말에 간신히 목숨을 건진 복작노루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사향노루를 속여 대신 쏘게…》

사연을 알게 된 동산짐승들은 어이가 없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슴이 그에게 다가와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훈련에서 대신 쏴준 화살이 결국 제 목숨을 찌르는 화살이 됐구나. 훈련에서 형식이나 차리고 요령을 부리는것은 바로 자기를 속이고 스스로 죽음에로 가는 길이라는걸 똑똑히 명심해.》

복작노루는 자책의 눈물을 뚝뚝 떨구며 아무말도 못했습니다.

주체96(2007)년

우 화

호박순을 자른 꿀꿀이

리 완 기

어느 한 짐승마을에 호박농사를 짓는 꿀꿀이와 염소가 나란히 살고있었습니다.

심술궂고 욕심많은 꿀꿀이는 올해에 남먼저 첫물호박을 따서 비싸게 팔리라 벼르면서 거름도 주고 물도 주며 서둘렀습니다.

옆집에서 사는 염소도 부지런히 호박농사를 지었습니다.

염소네 호박넝쿨이 높이 세운 덕대를 덮을듯이 푸르싱싱 뻗어가는것을 본 꿀꿀이의 속이 뒤틀렸습니다.

(암만 봐도 염소네것이 우리것보다 두뽐은 실히 크겠는데…)

자기네 호박넝쿨과 염소네것을 가늠해보니 확실히 자기네것이 작아보였습니다.

(이러다간 우리 호박이 제일 비싼 첫판에 또 밀리겠는걸.)

마침 염소도 집에 없고 날도 어두워오는지라 꿀꿀이는 염소네 호박순을 잘라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일 크게 자란 호박순들을 자르며 꿀꿀이는 속궁냥을 했습니다.

(헤, 장난심한 중병아리들이 잘라놓은줄 알겠지…)

자기네 호박농사는 먹어놓은 떡이라고 좋아하면서 꿀꿀이는 제꺽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지나가던 앞집토끼가 꿀꿀이의 행동을 보고 머리를 기웃거렸습니다.

다음날 토끼는 나들이갔다 돌아온 염소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제저녁에 옆집 꿀꿀이가 자네네 호박순을 자르더군. 참 기가 막혀서…》

《아니, 그게 사실인가? 호박순을 치면 더 많은 호박을 딸수 있다는데 꿀꿀이가 이웃을 도와줄줄 아니 참 고마운 일이군.》

염소의 말에 토끼가 놀라와 말했습니다.

《아, 그런가? 난 그런걸 모르고… 당장 소리를 쳐서 떠들려다가 자네와 의논하고 조용하게 처리하자던것이 참 다행스럽군.》

토끼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돌아갔습니다.

(꿀꿀이도 소식통이 빠르군. 난 어제 곰에게 찾아가서야 그걸 알았는데…)

염소는 진정 감동되여 꿀꿀이의 호박밭으로 갔습니다.

(자기것엔 손을 못대고도 이웃을 도와주는 꿀꿀이의 마음에 내가만있을수 없지.)

염소는 꿀꿀이네 호박순을 정성껏 쳐주기 시작했습니다.

(네번째 마디에서 순을 쳐주어야 가지가 빨리 뻗고 호박풍년이 든다지…)

염소가 마음이 즐거워 흥얼거리며 꿀꿀이네 호박순치기를 거의 끝낼 때였습니다.

《아니, 이건 뭐야?!》

뒤늦게 나타난 꿀꿀이가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뻔뻔스럽고 고약하다구야…》

꿀꿀이가 하도 떠들어대니 마을짐승들이 여기저기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서 입만 허 벌렸던 염소가 한마디 웅얼거렸습니다.

《난 자네가 우리 호박순을 쳐주었다고 하기에 고마워서 신세를 갚자고…》

《뭐, 신세를 갚아?! 누굴 놀리나? 야, 하늘이 내려다본다. 내 눈이 찔릴것 같아 한 두어개 순을 잘라버렸기로서니 이렇게 시퍼런 대낮에… 난 두어개 자르는것도 어둑한 저녁에 조심히 했는데 넌 대낮에 북을 치듯 해대니 이게 될말이야.

어이쿠, 이런 고약한 이웃을 둔 내가 불쌍하지…》

꿀꿀이의 넉두리에 토끼가 닁큼 나섰습니다.

《하, 꿀꿀아! 너야말로 정말 고약한 이웃이구나. 호박순치기를 하면 더 많은 호박을 딸수 있다는것을 안 염소가 너의 그 못된 심술을 이웃간에 위하는줄로 잘못 알고 너의 집 일을 도와주었는데 무슨 큰소리야?!》

토끼의 말에 여러 짐승들은 사연을 알아차리고 허구픈 웃음을 지으며 꿀꿀이의 꼴 보기가 민망스러워 돌아서버렸습니다.

남이 잘되는것을 시기하고 방해하려던 심술보따리 꿀꿀이는 너무도 망신스러워 집안에 숨어버리고말았습니다.

주체96(2007)년

우 화

악어의 눈물

한 일 영

무더운 여름날이였습니다.

몹시 갈증이 난 원숭이가 늪가에서 정신없이 물을 마시는데 뒤에서 부스럭소리가 났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큰 악어가 씩씩 거친 숨을 내불며 자기를 바라보고있었습니다.

(영낙없이 죽었구나.)

원숭이는 긴장해서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악어는 원숭이를 해칠 생각이 없는지 그냥 바라만 보다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는것이였습니다.

악어의 이상한 행동에 원숭이는 겁먹은 목소리로 조심히 물었습니다.

《이 늪가의 제왕이신 악어님도 무슨 슬픈 일이 있는가요? 혹시 귀여운 새끼들이라도 잃었는가요?》

원숭이의 물음에 악어가 흐느끼듯 뜨직뜨직 대답했습니다.

《아닐세, 난 새끼들한테 버림을 받았네. 그놈들이 다 키워놓으니 이젠 날 천대하네그려.

거기다 몹쓸병까지 걸려 이렇게 배가 자꾸 불어나는구만. 아이구.》

원숭이가 보니 정말 악어의 배는 터질듯이 불어나있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못된짓을 많이 한 내 일생을 돌이켜보느라니 이렇게 눈물이 나는구만. 자네도 일생에 죄되는짓은 하지 말고 살라구. 아이구, 배야, 난 오늘을 넘길것 같지 못하네. 래일 내가 죽으면 자네가 나무가지라도 덮어달라구.》

자기의 불우한 신세를 한탄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악어를

보니 원숭이의 마음속에는 동정심이 불쑥 솟구쳤습니다.

《그럼 악어님, 전 가도 되지요. 래일 꼭 와보겠습니다.》

《응, 그렇게 하라구.》

악어는 고통스러운듯 아예 두눈을 감고 모두숨을 쉬고있었습니다.

다음날 늪가를 지나가던 원숭이는 늙은 악어생각이 나서 악어가 누워있던 곳으로 갔습니다.

정말 그곳에는 어제 모두숨을 쉬던 늙은 악어가 네활개를 쭉 펴고 뻗어있었습니다.

《악어님, 악어님.》

원숭이가 멀찌감치 떨어져 불러도 보고 기다란 막대기로 쿡쿡 찔러도 보았지만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원, 불쌍도 하지. 어미가 죽었는데도 찾아오는 새끼 하나 없으니…》

원숭이는 잎이 무성한 야자나무가지를 하나 꺾어들고 악어에게로 다가갔습니다. 불쌍하게 죽은 악어를 덮어주려고 말입니다.

원숭이가 다가서는 순간 죽은듯이 엎어져있던 악어가 벼락같이 원숭이를 덮쳤습니다.

《아니, 악어님. 난 악어님이 죽은줄 알고 나무가지라도 씌워주려고 왔는데…》

《그래, 내가 불쌍해서 찾아왔단 말이지. 흐흐…》

악어는 사나운 이발을 드러내며 징그럽게 웃었습니다.

《악어님, 어제는 눈물까지 흘리며 나를 놔주시더니 오늘은 왜 이러세요?》

《흥, 자넨 내가 어제 흘린 눈물이 진짜인줄 알았나? 그건 소금물이야. 어젠 큰 사슴 한놈을 잡아먹고 너무 배가 불러 자네를 그냥 보내자니 어찌나 아쉽던지 눈물이 다 나오더구만. 오늘은 자네가 내 배속에 들어가주게. 내 가끔 자네를 생각해서 눈물을 흘려주지.》

악어는 어리석은 원숭이를 사정없이 삼켜버렸습니다.

원쑤에 대한 동정심은 곧 죽음이라는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채 원숭이는 죽고말았답니다.

주체96(2007)년

우 화

박쥐의 달자랑

김 성 률

은실금실 드리운듯
보름달 둥실 뜬 어느 동산에
밤새들 쌍쌍이 사랑을 속삭이며 달구경하였네
사랑에 들뜬 박쥐도 두더지아가씨 찾아갔네

호젓한 숲속길 나란히 걸으며
박쥐 한껏 멋부리며 시 한수 읊었네
《오, 하늘에 높이 솟은 밝은 달이여
내 사랑은 저 달처럼 아름답고 순결하리.
내 진정은 저 달처럼 변함없고 영원하리.》

박쥐의 고백에 감동된 두더지아가씨
보지 못하는 달을 두고 안타까와 속삭였네
《우리 두더지들은 밤눈이 어두워 그러니
좀 대주세요, 박쥐님.
나에 대한 당신의 사랑 저 달과 같다면
그 달이 어떻게 생겼나요?》
두더지아가씨의 살뜰한 물음에
박쥐 으쓱해졌네
《아가씨가 볼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소.

저 하늘엔 낫가락같이 생긴 초생달도 있고
송편같은 반달과 쟁반같은 보름달이 있다오. 》

박쥐의 말에 두더지아가씨 다시 물었네
《그러니 하늘엔 달이 세개나 떠있는가요?》
《그렇소. 밤하늘엔 달이 언제나
세개가 떠있다오.
저 은은한 삼형제 달빛에
삼라만상은 무르녹아 취하고
풀벌레 우는 소리는 더욱 유정해진다오.
그래서 우리의 사랑 더욱 설레이게 한다오. 》

옆에 서있는 나무가지우에 앉아
그 말을 듣고있던 부엉이가
터지는 웃음 가까스로 참으며 한마디 했네
《이보시오, 박쥐님.
당신은 달을 보기나 하고 그런 소릴 하오?》

그 말에 박쥐 몹시 언짢아했네
《거 뉘시오?
나한테 그런걸 묻는건 모욕이요.
하늘에 달이 세개나 떠있지 않다면
왜 모두 초생달 반달 보름달이 떴다고들 하겠소?》

《이보시오, 앞못보는 박쥐님.
이제라도 똑바로 알아두시오.
그리구 다시는 모르면서 아는체 하지 마시오.
하늘에 달은 하나요.
그것이 낫가락처럼 보일 때는 초생달이라 하고
초생달이 커져서 송편처럼 보이면 반달이라 한다오.
그리고 반달이 더 커져서 쟁반같이 보일 땐

보름달이라 한다오.》

《아니 그럼?!》
그만에야 말문 막힌 박쥐 어쩔줄 몰라 허둥거리는데
자초지종 듣고난 두더지아가씨
분한듯 쏘아주었네

《모르면서도 아는체 하면서 달자랑으로
아름다운 나의 사랑 낚으려던 박쥐님,
밝은 달빛에 그 본색 드러났군요.》
창피해진 박쥐 너무도 부끄러워
어디론가 뺑소니치고말았네

주체97(2008)년

우 화

문어와 밥조개

최 충 웅

바다조개마을에 문어가 기여들자
조개들 급히 숨어버렸네
어찌하랴 밥조개 하나
그만 문어한테 걸려들고말았네

《오, 어여쁜 밥조개.
보고싶었는데 마침 만났는걸.》
이렇게 뇌까린 문어
징그러운 몸뚱이 꿈틀거리며 다가오는데
더 피할길 없게 된 밥조개
문어 향해 무섭게 쏘아붙였네
《다가오지 말아. 꽉 깨물어줄테다.》
《뭐, 깨물어줄테다구?》

밥조개의 말이 우습다는듯
《으하하…》하고 너털웃음친 문어
이렇게 지껄였네
《밥조개야, 나한테 죽는다 섭섭해말아.
나는 이제 너의 조가비를 벗기고

맛난 살은 고소히 뜯어먹을테지만
너의 그 아름다운 은빛조가비만은
내 집에 고스란히 걸어놓을테다.
그러면 내 집은 더 눈부시게 빛날게고
너는 영원한 기념품되여 남을테니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뇌까린 문어 가까이 다가드는데
(그저 죽을수는 없어.)
죽음을 각오한 밥조개
태연히 웃으며 말했네

《아이참 문어님, 그 말이 정말인가요?
정말이라면 나는 얼마나 행복할가요.
몸은 죽어도 나의 조가비는
영원히 남아있을테니까요.
다만 한가지 소원은 문어님께서
나의 이 아름다운 조가비에 입맞춰준다면
나는 더 큰 행복에 웃으며 죽을텐데요.》

《오, 어여쁜 밥조개야.
너의 그 소원은 내 또한 바라던것
그 소원 어찌 안들어주랴.
나는 너의 조가비를 벗기기 전에
그 아름다운 조가비에 입맞추련다.》

문어 슬슬 다가와 입벌릴 때
밥조개 문어입안으로 날아들었네
날아들어 몸으로 문어의 숨구멍을 막았네

불의에 입안으로 날아들어온 밥조개를
삼키지도 뱉지도 못하고
숨이 막혀 몸부림치던 문어
제가 먼저 죽고말았네
긴 다리를 척 늘어뜨리고

문어입에서 살아나온 밥조개
죽어너부러진 문어몸뚱이에
침뱉으며 말했네
《죽음을 각오하고 맞선자
그 누구도 당할수 없다는걸
네놈은 몰랐을테지.》

주체97(2008)년

우 화

허수아비가 되였던 여우

김 성 률

곰네 양어장에 밤마다 물고기를 훔치러 갔다가 허탕친 여우가 눈알을 뱅뱅 굴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곰을 속이고 물고기를 안전하게 낚아먹을수 있을가?)

그러던 여우는 멀지 않은 조밭에 세워져있는 허수아비를 보고 무릎을 쳤습니다.

(옳지, 저것을 가지고… 해해…)

여우는 허수아비를 뽑아가지고 곰을 찾아가 주둥이를 나풀거렸습니다.

《곰아저씨, 요새 몸이 말이 아니군요. 낮에는 양어장에 먹이를 뿌려줄래 밤에는 또 경비설래 얼마나 힘들겠나요. 그래서 내 이걸 가져왔어요.

이렇게 허수아비를 척 세워놓으면야 밤에도 곰아저씨가 지키고있는줄 알고 누가 감히… 해해…》

곰은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오, 네 말이 그럴듯 해. 그럼 그 허수아비에게다 내 모자와 헌 옷을 입혀놓아야겠구나.》

곰의 말에 여우는 환성을 올렸습니다.

그날 밤 여우는 곰네 양어장으로 살금살금 기여가 허수아비를 자빠뜨리고 곰의 모자와 옷을 입고 제꺽 《허수아비》가 되였습니다.

급히 낚시줄을 드리우고 잡아낸 맛있는 물고기로 배를 채운 여우는 곰을 비웃었습니다.

《흥, 미련한 곰님은 물고기나 많이 길러주시죠. 잡아 잡숫는건 이 여우님이 할테니.》

다음날이였습니다.

땅거미가 깃들자 여우는 또다시 곰네 양어장으로 갔습니다.

허수아비가 있는 곳으로 가던 여우는 조금 떨어진 곳에 허수아비가 또 하나 세워져있는것을 보게 되였습니다.

《하, 물고기를 훔쳐가지 못하게 하느라고 허수아비를 더 세워놓았군. 내 수에 홀딱 넘어간줄 모르고…》

여우는 또 허수아비를 쓰고 물고기를 낚기 시작하였습니다.

한참 물고기를 낚아내던 여우는 갑자기 옆에서 들리는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물고기가 잘 물리나?》

옆에 있는 허수아비가 묻는 말이였습니다.

《너… 넌 누구냐?》

《누구긴 누구겠나. 허수아비지, 물고기를 같이 낚으세나.》

여우는 두다리를 후들후들 떨며 허수아비쪽에 대고 떠듬거렸습니다.

《허… 허수아비가 어떻게 말을 해?》

《아니 허수아비가 물고기도 낚는데 말도 못할가? 말할뿐만아니라 도적놈도 잡는다네.》

허수아비로 가장했던 곰이 손에 들고있던 몽둥이로 여우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낚시줄을 쥔채 《캥—》하고 뻐드러진 여우를 보고 곰은 쓰겁게 한마디 했습니다.

《교활한 놈. 남을 속여먹는자들의 운명은 다 네놈처럼 되기 마련이다!》

주체97(2008)년

우 화

으름장을 놓는 늑대

문 영 철

늑대가 토끼를 잡아먹으려 쫓아가다가 그만 늪에 빠졌습니다.

늑대는 네 다리가 감탕에 빠져 움직일수 없는데도 큰소리를 쳤습니다.

《토끼 요놈! 당장 나를 끌어내지 못할가?

그렇지 않으면 내 이제 늪에서 나가 네놈은 물론 네놈의 새끼들까지 모조리 와작와작 잡아먹을테다.》

몸이 가벼운 덕에 늪에 빠지지 않은 토끼는 풀덩굴속에서 대답하였습니다.

《나한텐 새끼가 없는데요.》

《이제 생기겠지. 네놈들이 한달에 한번씩 새끼를 낳는 족속들이라는걸 내 모를줄 알구.》

늑대는 큰소리로 호통치는 바람에 네다리만 빠졌던것이 몸뚱이까지 감탕에 들어갔습니다.

그 꼴을 보며 토끼는 빨간눈을 또륵또륵 굴렸습니다.

《난 수토끼인데요.》

《뭐? 수토끼? 그럼 네놈의 암토끼까지 잡아먹을테다.》

늑대가 더 큰소리를 치자 이번엔 모가지까지 진펄에 빠졌습니다.

《난 아직 결혼전인데요.》

토끼는 큰 귀를 발쭉거리였습니다.

늑대가 무슨 소리를 더 하는가 해서였습니다.

그러자 늑대는 꼬르륵—꼴깍! 감탕속에 꼭뒤까지 빠지면서도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그럼 네놈이 장가갈 때까지 이 늪속에서 기다릴테다.》

주체98(2009)년